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7호 9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7 호(255)

1964년 9월 (상)

(반 월 간)

차 례

분렬을 가져 올 각국 당들의 회의는 저지시켜야 한다

(《로동 신문》 사설)

오늘 국제 정세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 위업에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사회주의 력량은 날을 따라 장성하고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민족적 독립과 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혁명 투쟁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반제 혁명 력량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는 날로 궁지에 몰려 들어 가고 그 지반은 더욱더 약화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침략 및 전쟁 책동은 도처에서 파탄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정세 하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혁명 력량이 더욱 단결한다면 세계 혁명의 위업을 더욱 추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분렬 책동으로 말미암아 최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는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형제당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출발한 의견 상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오늘에 와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과 사회주의 나라들 간의 국가적 관계에까지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혁명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친선과 전투적 단결은 심대한 손상을 당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조성된 이러한 사태는 진정으로 혁명의 리익과 로동 계급의 위업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분렬을 방지하고 맑스-레닌주의적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현시기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하고 긴절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

우리 당은 시종 일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리 당은 일련의 형제당들과 함께 의견 상이가 발생한 시초부터 이것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내부적 문제로서 진지하고 동지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단결을 위하여 모든 당들이 신중하고 원칙적인 립장을 견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형제당들의 진심으로 되는 간곡한 권고와 제의들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더욱더 오만하게 행동하였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을 함부로 위반하면서 자기들의 그릇된 주장을 계통적으로 형제당들에 강요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그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를 적들의 면전에서 공개적인 론쟁으로 전변시키고 출판물과 온갖 기회를 통하여 형제당들을 비난하며 중상 공격하였다.

그들은 형제당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위반하면서 자기에게 추종하지 않는 당들에 대하여 각종 압력을 가하며 배후에서 타격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립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의 결과 형제당들 간, 형제 국가들 간의 관계는 오늘 전례 없이 악화되게 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급작스레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와 그를 위한 준비 회의 소집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나섰다.

지금 조성된 복잡한 정세 하에서 조급하게 국제 회의를 소집하려는 데는 분명히 딴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 회의는 결국 분렬을 위한 회의로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오늘의 형편에서 이러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의 리익에 그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1960년 회의 성명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형제당들은 필요에 따라 공동의 목적을 위한 투쟁에서 견해와 행동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는 응당 통일을 위한 회의로 되여야 하며 단결의 목적에 철저히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국제 회의를 지지하여 왔다.

모든 당들이 진실로 통일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동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견과 경험을 허심하게 교환하며 집체적 노력을 경주한다면 형제당들의 회의는 공동 위업에 대한 일치한 견해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를 소집하는 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일부 사람들은 최근 시기에 이르러 의견 상이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으며 형제당들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길에 들어 섰다. 그들은 형제당들과 형

제 나라 내정에 계속 횡포하게 간섭하면서 맑스-레닌주의당들을 반대하는 파괴 행위와 분렬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오늘 자기와 의견을 달리 하는 형제당들을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면서 이러한 당들에 대하여 집단적 조치와 정치 조직적 대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초미의 문제라고 로골적으로 언명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

이러한 정황 하에서 오늘 형제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동지적 분위기 속에서 허심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의견 상이의 해결 방도를 탐색한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오늘의 형편에서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가장 격렬한 론쟁을 야기시키는 마당으로 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렬 외에 다른 아무러한 결과도 가져 올 것이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형제당들이 현 조건 하에서는 국제 회의를 소집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당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맑스-레닌주의자들과 함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렬을 초래할 이러한 국제 회의의 소집을 반대하며 그러한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강화할 수 있는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만이 로동 계급의 리익과 단결의 요구에 부합된다.

형제당들의 새로운 국제 회의가 진실로 통일과 단결을 위한 회의로 되게 하려면

첫째로,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와 준비 회의 소집에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부 사람들이 맑스-레닌주의당들에 대하여 감행하고 있는 무원칙한 공격과 분렬 행동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통인》의 위선적 언사 뒤에서 형제당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강화하는 것은 분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며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회의의 성과적인 준비를 위하여서는 또한 형제당들의 필요한 접촉과 협의를 진행하여 점차 호상 리해를 접근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모든 당들이 이러한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와 준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조건과 동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준비 사업은 일정한 시간과 인내성과 성실성을 필요로 한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다만 론쟁을 가일층 격화시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불가피하게 공개적 분렬의 길로 떠미는 행동으로 된다.

형제당들 간의 의견 상이를 오늘과 같이 첨예화시킨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을 신중히 돌이켜 보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응당 자기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립장에서 리탈하였는가 않았는가, 각국 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정신을 지비했는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진심으로 책임 지는 립장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자신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정신에 배치되게 행동하면서도 남이 다 그릇되고 남이 분렬 활동을 한다고만 떠들어 댄다면 론쟁은 더욱 격화될 따름이고 언제 가서도 합의에 접근하지 못 할 것이다.

형제당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 대신에 도리여 충고한 당들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공격하고 내리누르며 나아가서 집단적 조치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당들 간의 고유한 동지적 관계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발전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자기 과오를 묵과하지 말고 그것을 대담하게 시정하는 것이 혁명적 당의 표징이라고 한 레닌의 교시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분렬 활동을 일삼은 사람들은 응당 형제당들의 충고를 허심하게 접수하며 자기의 과오에 대하여 대담하게 자기 비판을 하여야 한다.

더우기 오늘 론쟁이 적들의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과오를 시인하는 것을 겁내 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을 어물어물 덮어 버릴 수도 없게 되였다.

공산주의자라면 누구나 할것 없이 범한 과오는 즉시 고쳐야 하며 이러한 정신에서 회의의 사전 준비 사업에 참을성 있게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국제 회의의 성과는 약속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직면한 난관으로부터의 출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형제당들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에 충실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에 대하여 진실로 념려한다면 의견 상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도는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형제당들의 회의에 미리부터 어느 한 당의 립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형제당들의 새로운 국제 회의가 진정으로 통일과 단결에 기여하자면 형제당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모든 당들의 독자적 권리가 존중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국제 회의에서 토의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자기들의 립장을 강박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의 회의에서도 자기 주장을 내려 먹이며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다.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는 어느 한 당의 정책을 접수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소로는 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당들을 규탄하고 심판하거나 그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로도

될 수 없다.

이미 오래 전에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에서 어느 한 당이 로선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 전반에 의무적인 것으로 내려 먹이려고 시도하다가 단호한 배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부당한 립장을 남에게 강박하는 이러한 대국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그 어떤 당을 전체 국제 공산주의 운동 우에 올려 놓으며 다른 당들에 군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형제당들 간의 관계의 규범과 결코 량립될 수 없다.

선언과 성명에 규정되여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형제당들은 다 같이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여기에는 부여된 그 어떤 특권적 지위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크고 작은 당은 있으나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 받는 당이란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당도 중앙적 위치에서 다른 당을 지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모든 당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자체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자적으로 정책을 규정하며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행동한다.

형제당들의 국제 회의에서 자기의 부당한 립장을 남에게 내려 먹이며 이에 순종하지 않는 당들을 심판하며 회의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형제당들 간의 협의의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이며 회의 소집 자체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다.

어느 당도 형제당들에 의하여 집체적으로 작성되였으며 일치한 합의를 본 각국 당 대표들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정신에 배치되는 자기의 주장을 론의의 기초로 제기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발전시킬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당이란 없다.

모든 형제당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자기의 견해를 충분히 말하며 진지한 동지적 론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만 국제 회의는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회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국제 회의 준비 위원회를 단결의 리익에 복무하게 하려면 우선 그것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초 우에서 구성하도록 모든 당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회의 소집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나아가서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를 호전시킴에 있어서 준비 위원회 구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 어떤 당도 모든 형제당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준비 위원회 성원을 선정할 권리가 없으며 더우기 그것을 다른 당들에 강요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회의 소집을 조급히 서두르면서 형제당들과의 합의도 없이 1960년 모쓰크바 회의 편집 위원회 성원들로 새로운 국제 회의 준비 위원회 성원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회의 소집 장소와 시일까지 지정해 나서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었단 말인가.

이것은 완전히 비법적이며 오만한 월

권 행위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1960년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구성되였던 편집 위원회는 모든 형제당들의 일치한 의사에 따라 다만 그 회의를 위한 문헌 작성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이미 자기 사명을 다했으며 따라서 그 자체의 존재도 끝났다. 그 누구도 이에 상설적인 기관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 형제당 대표들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선정된 편집 위원회 성원들을 기계적으로 다음번 국제 회의 준비 위원회 성원으로 규정할 하등의 근거도 없다.

준비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도 형제당들 간에는 심각한 의견 상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준비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와 나아가서는 국제 회의 참가 대상 문제에 있어서도 형제당들 간에 신중한 토의들이 진행되여야 하며 반드시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로, 각국 당들의 회의는 어디까지나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엄격히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소집되여야 한다.

민주주의적 원칙, 이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본질 자체로부터 흘러 나오는 형제당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이며 단결의 초석이다.

형제당들 간의 관계에서는 다수와 소수의 원칙이나 그 어떤 중앙 집권적 규률이 적용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것이 허용된다면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자각적이며 자원적인 단결을 기할 수 없을 것이며 대국주의적 전횡을 허용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중앙 집권적 규률을 강요하려고 공공연히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 기계적인 다수의 의사에 빙자하여 형제당들의 동의 없이 강압적 방법으로 국제 회의 소집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시대 착오이며 인식 착오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시도는 처음부터 엄중한 후과를 산생할 위험을 배태하고 있다.

만약 진심로 의견 상이를 극복하고 분렬을 방지할 것을 지향한다면 모든 당들이 일치하게 동의하는 조건 하에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것이다.

소위 《다수》의 방패 밑에 강요되는 회의는 맑스-레닌주의당들을 배제하며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분렬의 기정 사실 앞에 놓이게 할 것이다.

사실 상 조급히 국제 회의를 소집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의로 소위 편집 위원회 성원으로 선정한 26 개 당들 가운데서 그 어떠한 당들이 자기 대표를 파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의는 소집될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참가하지 않는 당들은 스스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맑스-레닌주의당들을 제멋대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 떼 내고 어쩌고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배제 당할 당은 어데 있단 말인가.

한편으로는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의견 상이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다른 편으

로는 의견을 달리 하는 당들의 참가 없이도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여기에서는 통일에 대한 그 어떤 념원도 찾아 볼 수 없다.

애당초 그렇게 할 바에는 무슨 협의가 필요하며 회의가 요구되겠는가.

의견을 달리 하는 당들이 참가하지 않는 그러한 회의가 그 무슨 의견 상이를 해결하며 단결을 위한 국제 회의로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행동은 사실에 있어서 로골적으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을 분렬시키자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제반 사실은 일부 사람들이 국제 회의의 간판 밑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조직적으로 분렬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국제 로동 계급의 위업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새로운 국제 회의와 준비 회의 소집 문제에 대하여 최대의 신중성과 공정성과 원칙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지금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통일을 수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렬 책동을 허용하느냐 하는 엄숙한 시각을 겪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혁명적 원칙을 굽힐 수 없으며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립장에서 객관적 현실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당들은 단합된 노력으로써 분렬을 위한 회의를 저지시켜야 하며 맑스-레닌주의적 통일을 수호하여야 한다.

형제당들의 충고와 의견을 듣지 않고 끝끝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재난을 가져 올, 분렬을 위한 회의를 기어이 소집하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개 당들이 세계 로동 계급 앞에서 지닌 력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의 리익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엄숙히 호소한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단합된 투쟁 앞에서 분렬주의적 책동은 종국적으로 파탄되고야 말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맑스-레닌주의 기초 우에서 자기 대렬의 통일을 더욱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박 기 선

오늘 우리 당은 조성된 혁명 정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최근 년간 사상 교양 사업에서는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사상 교양 사업의 리론 수준은 더욱 제고되고 그것은 혁명적 실천과 밀접히 결합되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은 군중적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되게 되였다.

이리 하여 당을 강화하는 사업도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집결시키며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해결되여 가고 있다.

사상 교양 사업에서 달성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것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들어 섰으며 이에 따라 긴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수다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후반기 전투에서 다시 한번 커다란 비약을 이룩하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할 과업들이 나서고 있다.

이 모든 과업은 오직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 사상 의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을 더 높여야만 성과 있게 해결될 수 있다.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조국 통일의 위업을 준비 있게 맞이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정책은 여지 없이 파탄되고 그의 주구들은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였으며 조국 통일을 갈망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일'군으로 교양하며 각계 각층 군중을 당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시키는 것은 조국 통일의 위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사상 교양 사업을 조성된 혁명 정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혁신적 요구에 맞게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 ⁂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현시기 시급히 해결되여야 할 문제는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은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 사업에 오래 동안 깊이 뿌리 박았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데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당 조직들의 지도에서 형식주의가 완전히 퇴치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도 일부 당 조직들의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는 형식주의가 철저히 극복되지 못 하고 있다.

현시기 사상 교양 사업 지도에서 아직 남아 있는 형식주의는 주로 사상 교양 사업이 현실 생활과 유리되여 진행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사상 교양 사업이 현실과 유리되여 진행되는 것은 그의 내용 또는 형식과 방법의 두 측면에서 표현된다. 즉 내용에 대한 지도에서의 형식주의는 주로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 당 정책 교양,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상 교양이 호상 밀접히 결합되지 못 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으며 형식과 방법에 대한 지도에서의 형식주의는 해당 지역의 특성, 인민 경제 부문 별 생산 조건과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인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 사업에서 극히 부분적이나마 아직 남아 있는 이러한 부족점들은 오늘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주되는 장애로 되고 있다.

사상 교양 사업 지도에서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야 할 문제는 그 내용에 대한 지도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상 교양 사업에서의 기본은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세계관을 형성케 하며 모든 문제 해결의 리론적 바탕을 갖추게 하는 항구적이며 기초적인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항상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을 강화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그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은 다만 리론을 습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당 정책의 본질과 그의 정당성을 철저히 연구 체득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은

반드시 당 정책 교양,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상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라야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본질을 심오하게 체득시킬 수 있으며 리론 교양이 실지 혁명 과업과 사람들의 사상 의식 개조에 보다 성과 있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되여야만 당 정책의 본질과 그 수행 방도를 리론적으로 더 깊이 있게 리해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사상 개조 과정을 추진시키고 그들의 앙양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공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 교양 사업에서 순수 리론 교양에만 치중하고 당 정책 교양과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상 교양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반대로 당 정책 교양과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상 교양에만 치중하고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을 소홀히 하여도 안 된다.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 당 정책 교양, 사상 교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맑스-레닌주의 리론 교양은 당 정책 교양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며 다른 나라 당들의 투쟁 경험을 습득하는 것은 결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 문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하며 우리 투쟁에서 행동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맑스주의적 리론, 관점,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형제 당들의 혁명 투쟁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230 페지).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그와 련관된 우리 당 정책을 결부시켜 연구하여야 하며 우리 당 정책을 학습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본질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리론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를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 정책 교양은 당원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상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본질과 수행 방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높은 정치적 자각과 혁명적 기풍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당 정책을 알려 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자각성을 높이며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 교양이 반드시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의 내용에 대한 지도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상 교양을 현실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철저히 복종시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교양의 근본 목적은 당원들을 혁명 투쟁에로 발동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면 혁명 과업과 결부시켜야 하며 당원들의 실지 행동의 우결함과 결부시키면서 진행하여야 한다》(1960. 2. 18, 《새 환경에 적응하게 군 당 단체의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22 페지).

맑스-레닌주의자들이며 혁명적 실천자들인 우리에게는 공리공담만 일삼는 사상 교양은 하등의 필요가 없다.

당 앞에 어떤 과업이 나서고 주위 환경과 정세는 어떠하며 군중의 요구는 무엇이며 군중의 의사와 동향이 어떠하며 군중의 각오 정도가 어떠한가를 연구하지도 않고 객관적 현실과 군중의 요구에 유리되여 진행하는 사상 교양 사업은 우리 혁명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 또한 이런 사상 교양 사업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실생활과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상 교양 사업은 혁명 과업 수행과 당원들의 사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사상 교양 사업의 결과는 회수나 통계 수'자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당의 의도가 당원들에게 어떻게 파악되였으며 그것이 그들의 당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 건설에서 어떤 생산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당원들의 사상 의식과 사회 도덕 생활에서 어떤 전변이 일어 났는가에 따라서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매개 당 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 과업 수행과 사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풀어 나가기 위한 실결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때 사상 교양 사업은 혁명 실천에 도움을 주는 생동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형식과 방법에서도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의 형식과 방법은 그 내용의 심화 발전에 복종되면서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발전한다. 즉 그것은 사상 교양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 대중의 준비 정도, 해당 시기 당 앞에 제기된 과업 등에 의하여 변화한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과 사상 교양 사업의 내용 상 심화에 상응하게 그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왔다.

오늘 사상 교양 사업 부문 앞에 제기된 임무가 크고 대중의 수준도 부단히 높아지고 있는 사실은 사상 교양 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그 내용에 보다 적응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개별적 단위에 깊이 파고 들어 가 해당 단위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을 찾아 내여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실정이 각이한 사정과 관련된다.

공업, 농업, 림업, 수산업 등 인민 경제의 각 부문의 생산 조건과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은 각이하다.

례컨대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 부문과 일정한 조건에서 규칙적으로 생산하는 공업 부문과는 그 생산 조건이 서로 다르다.

동일한 인민 경제 부문인 경우에도 지역 별, 계절 별로 실정은 같지 않다. 즉 같은 농업에서도 평야 지대, 산간 지대, 도시 주변 등 지역 별로 사정이 다르며 같은 수산 부문에서도 동해안과 서해안은 어로 작업에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번기와 농한기의 농업 근로자들, 해상 작업과 지

상 작업을 하는 로동자들, 벌목과 류벌 작업을 하는 로동자들 호상간에는 그 생활 조건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이 다르며 그 성격, 세질, 취미, 희망들도 같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사상 교양 사업에서 일률적인 방법, 고정 불변한 형식이 아니라 반드시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특성과 대상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한 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당은 최근 사상 교양 사업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첫째로, 정치, 기술 및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밀접히 결합하며 둘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준에 따라 어느 하나의 학습망에 망라시키며 세째로, 해당 부문의 생산 조직의 특성에 맞게 학습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양 사업 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사상 교양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밑의 당 조직들이 이 원칙을 견지하고 그것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할 때 사상 교양 사업은 더 생동하고 실효성 있는 것으로 된다.

례를 들면 학습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반들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고 토론을 지도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간부들과 선진 핵심들에 의거하여 개별적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습을 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 주며 호조반들에서의 토론과 호상 방조를 강화하는 데로 깊이 들어 가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집체적 방법과 함께 개별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짜고 들어 교양하는 방법을 더욱 광범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 실정에 맞는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 교양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사상 생활과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를 훌륭히 푸는 생동한 것으로 될 수 있다.

*　　　*

사상 교양 사업 지도에서 제기되는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을 혁명적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사업도, 해당 지역의 실정과 해당 부문의 특성에 맞는 교양 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탐구하는 사업도 결국은 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이것은 사상 교양 사업의 첫 공정이며 그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실정을 정확히 료해하여야만 사상 교양 사업을 그에 적응한 내용과 방법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할 수 있으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철저히 복무시킬 수 있다.

특히 매개 사람들의 정치 사상 의식 수준, 리론 수준, 사업 능력, 사회 정치 생활의 경위들을 정확히 료해 파악하는 것은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매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당과 혁명에 얼마나 헌신하며 하는가를 모르고서는 그에 대한 옳은 《처방》을 줄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사상을 개조할 수 없고 혁명 과업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급 당 조직들은 해당 지방의 실정과 인민 경제의 부문별 특성, 대상의 구체적 실정을 정확히 료해한 데 기초하여 사상 교양 사업의 내용을 옳게 설정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형식과 방법을 탐구하고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초급 단위들에서 선전 핵심 대렬을 더욱 확대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오늘 사상 교양 사업 앞에 더 많은 과업이 나서고 있으며 사상 교양 사업을 매개 단위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정과 관련된다.

례컨대 학습 지도에서 호조반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군중 교양에서 개별적 대상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선전 핵심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각급 당 조직들은 선전 핵심 대렬을 확대하고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선전 핵심들의 대렬을 광범히 확대함으로써만 사상 교양 사업에서 구체적, 개별적 방법을 옳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만 사상 교양 사업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조직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선전 핵심 대렬이 질 량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여 매개 사람이 4~5 명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맡아 잘 교양하게만 된다면 대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매개 당 조직들은 당성이 강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적이며 정치 리론적으로 준비된 당원들과 비당원 열성자들로 선전 핵심을 체계적으로 교양 육성하며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 조직들은 선전 핵심들을 각종 상설 교육 체계와 초급 선전원 강습반에 망라시켜 교양하는 동시에 한 급 높은 단위의 준비된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가 그들과 직접 담화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면서 자신의 모범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상 교양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그것을 구체적 실정과 대상에 맞게 더 심화하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직접 대상하며 교양 사업을 직접 조직 진행하는 군당 위원회, 공장 당 위원회, 리당 위원회 및 세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하는 사상 교양 사업의 방향과 기본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며 해당 지방의 실정과 부문 별 특성에 맞는 방법을 탐구 적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군당 위원회와 초급 당 조직들의 역할 여하에 달려 있다. 그 중에서도 군당 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책임과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군당 위원회는 상급 당에서 제시되는 사상 교양 사업의 방향을 자기 지방과 인민 경제 부문 별 특성, 근로자들의 준비 정도에 맞게 구체화하여 초급 당 조직들에 교양 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매개 부문 별로 우수한 모범을 창조하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함으로써 초급 당 조직들의 간부들로 하여금 자체 실정에 적합한 사상 교양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방조하며 그들의 지도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당 위원회는 또한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가서 초급 일'군들과 같이 사업하면서 사상 교양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워 주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군당 위원회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인다면 리당, 세포들의 역할도 그에 따라 급속히 높아 질 것이며 따라서 우리 당의 사상 교양 사업은 현실적 요구에 맞게 더욱더 심화 발전될 것이다.

오늘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당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 열성과 창조적 로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와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

최 중 극

인민 경제의 구조와 경제 발전 속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맑스-레닌주의당 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리론 실천적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의 창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중요 내용으로 되며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와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된다.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와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과거 사회에서 넘겨 받은 락후성을 최단 기간 내에 극복하고 나라의 정치 경제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자면 반드시 자력 갱생의 원칙 밑에 자기 민족의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하며 그것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는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물질적 토대로 되며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는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얼마 전까지 일제 통치의 악독한 후과로 경제가 심히 락후하고 기형적이였으며 또 가렬한 전쟁까지 겪은 우리 나라가 극히 짧은 기간 내에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된 농촌 경리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할 수 있는 이것도 바로 우리 당이 나라의 경제 구조를 부단히 개선하고 완성하여 온 것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오늘 원료의 채취로부터 기계 설비 및 소비품의 생산에 이르는 재생산의 전 행정이 하나의 완결된 생산 순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는 나라의 자립 경제 토대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해방 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부문 구조에서 일어 난 근본적인 변화와 그 과정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들은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은 나라들에서도 인민 경제를 능히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길만이 하루 속히 선진 국가들의 수준에로 올라 가 그들과 어깨 겯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시하여 주고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인 부문

구조의 창설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는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랑립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제한된 일부 생산 부문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리론적으로 무근거하며 실천적으로 극히 유해로운 것이다.

지난 시기 자립 경제 건설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한 우리 인민 앞에는 지금 새롭고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립적 부문 구조 창설에서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7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의 구조를 더욱 보충하고 완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보람찬 과업을 보다 훌륭히 실현하여 나아가고 있다.

1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를 창설하는 것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주요 측면을 이룬다.

자립적 민족 경제—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이다.

김 일성 동지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다면적인 생산 구조는 부단히 장성하는 생산 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국내의 수요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켜 주며 나라의 자연 부원과 로력 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하게 하며 기술적 진보와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한다.

모든 경제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창설할 때만이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자주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과학과 기술,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형제 국가들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의 창설은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기반 하에서 인민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이 심히 억제 당하였으며 그 결과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가질 수 없었던 나라들에서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특별히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자면 이미 쟁취한 선진적인 사회 제도와 과거 사회에서 넘겨 받은 경제의 락후성, 일면성 간의 모순을 하루 속히 극복하고 자체의 물질적 생산의 기본 부문들을 창설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된 농촌 경리를 가져야만 이 나라들은 주로 자체의 힘으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실현하고 전반적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도

모할 수 있으며 반제 력량과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 기여할 수 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생산 전통》이나 《자연 경제적 조건》 등등에만 매여 달려 일부 생산 부문만을 발전시키는 데로 나아간다면 경제의 락후성과 기형성을 퇴치하고 나라의 경제적인 자립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정치적 자주에도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여 가지고는 당당한 독립 국가로서 세계의 대소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 당은 해방 후 첫 시기부터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 발전의 총방향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에 의하여 규정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생산 구조를 부단히 완성하는 방침을 정력적으로 관철하여 왔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달성된 제반 성과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에 의하여 규정되는 인민 경제 구조가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를 부단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는 우선 인민 경제에서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그 지위를 부단히 확대함으로써 국민 소득의 장성을 촉진시킨다.

국민 소득의 급속한 장성은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와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국민 소득의 장성이 없이 생산 규모의 확대와 인민 생활의 향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국민 소득의 장성 속도와 규모는 물질적 생산의 발전 속도와 규모에 의존한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는 물질적 생산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 그 중에서도 특히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 경제에서 그 지도적 지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 소득의 장성 속도를 촉진시키며 그 규모를 증대시킨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달성된 국민 소득 장성의 높은 속도는 이 과정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국민 소득의 장성 (%)

	1946년	1949년	1953년	1956년	1960년	1962년
국민 소득 총계	100	209	145	319	683	869
그 중 공업	100	408	238	647	26 배	35 배
농업	100	146	111	158	195	214
기본 건설		100	148	232	500	483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는 총체적으로 국민 소득의 높은 장성 속도가 보장되면서도 특히 공업이 창조한 국민 소득의 장성이 다른 물질적 생산 부문의 그것보다 비상히 높았다.

이것은 확대 재생산의 물질적 원천으로 되는 국민 소득의 장성이 인민 경제 구조의 완성화 과정, 공업의 급속한 발전 과정과 밀접히 결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 구조는 사회의 기술적 진보를 촉진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부단히 확대되는 규모에서 생산적 축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조성**한다.

다면적인 부문 구조의 창설은 기술적 진보와 직접 련관된 부문들의 계획적인 발전과 결부되여 있다.

기계 제작 공업, 전력 공업, 화학 공업 등의 창설과 그 급속한 발전은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재장비하며 생산에 새 기술을 부단히 공급하며 새로운 경제적인 재료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다면적인 생산 구조는 생산적 고정 폰드의 계획적인 확대 재생산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소득의 증대에 따라 급속히 장성하는 축적을 실현할 수 있는 보충적인 생산 수단과 소비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축적 폰드의 장성 그 자체가 곧 축적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소득이 장성된 것과 증대된 축적 폰드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순 생산물의 현물 형태가 그에 적응하여야 한다.

만일 국내에 생산적 고정 폰드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부문들이 없거나 그것이 인민 경제에서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부단히 확대되는 규모에서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로동 수단은 물론 로동 대상과 각종 소비재도 계획적으로 생산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생산적 축적은 원만히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 구조, 그 중에서도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기간적 중공업 부문의 급속한 발전은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급격히 확대되는 생산적 축적을 높은 속도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서 생산적 축적이 국민 소득에 비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장성할 수 있은 것도 바로 이것으로 설명된다.

국민 소득과 생산적 건설 투자
장성의 호상 관계 (%)

	1949년	1960년	1962년
국민 소득	100	328	416
생산적 건설투자	100	624	771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는 생산적 고정 폰드의 리용 수준을 제고하며 **생산물의 폰드 용량을 저하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발전 속도에 또한 영향을 준다.

생산물의 폰드 용량이 적을수록 주어진 생산 폰드로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물에 대한 생산적 폰드의 용량은 로동 생산 능률과 로동의 생산적 폰드 장비성의 장성과의 호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의 생산적 폰드의 장성 속도에 비하여 로동 생산 능률이 보다 급속하게 장성할수록 생산물의 생산적 폰드 용량은 저하되며 경제 발전 속도는 촉진된다.

인민 경제 특히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지도적 지위의 제고는 생산물의 생산적 폰드 용량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술적

진보가 촉진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이 보다 빨리 제고되며 전체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생산적 고정 폰드의 용량은 저하된다.

이것은 나라의 전면적인 공업화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로동 생산 능률이 보다 빠른 속도로 장성하여 생산물의 생산적 폰드 용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에 있어서 인민 경제 구조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민 경제에서 공업 그 중에서도 생산물의 폰드 용량이 적은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의 제고는 인민 경제 전반적 범위에서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을 가일층 제고시킬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과거 일제에 의하여 강요되였던 생산 구조에서의 일면성의 청산,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다면적인 경제 구조의 창설은 생산적 고정 폰드의 리용을 개선하고 생산물의 폰드 용량을 저하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발전 속도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는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사회의 로력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할 가능성을 지어 준다.

그것은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이 소비재의 재생산을 전제로 하며 소비재의 재생산은 이 부문의 구조, 발전 수준 및 속도에 의존한다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하에 다면적인 소비재 생산 구조의 창설 및 발전은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 된다.

로동력 확대 재생산의 일반적 전제는 인구의 장성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구는 3년 간의 전쟁이 있었음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는바 그것은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의 충분한 보장,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에 의하여서만 보장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인구의 부단한 장성은 로력 원천을 계통적으로 조성하고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로력에 대한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 수 있게 하여 주고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는 로동 인구의 전면적인 취업의 조건으로 되며 전 사회적 규모에서 로동력의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리용을 가능케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인구 1,000명 당 물질적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로력자의 비중은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전체 로동자의 68%가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에서, 또한 그의 거의 50%가 기술적 진보와 직접 관련된 공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 구조는 나라의 자연 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동원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장성 속도를 촉진시키며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을 높여 준다.

오늘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국내의 모든 자연 부원을 더욱더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무한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그러나 자연 부원의 종합적인 리용을

위한 이러한 가능성도 발전된 다면적인 생산 구조를 가져야만 비로소 현실적인 것으로 전화될 수 있다.

오직 자립적 구조를 갖춘 경제를 가질 때만이 나라의 자연 부원을 전면적으로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없는 자원과 부족한 자원을 공업적 방법으로 만들어 내여 국내에 공고한 원료, 연료 및 동력 기지를 축성할 수 있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 구조는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주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확고한 물질적 조건으로 된다.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는 사회적 생산의 각이한 부문들 간의 균형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 생산의 비상히 빠른 속도는 인민 경제 각 부문들 간의 량적인 상호 관계를 급격히 변동시키며 부단히 새 현실에 적응하게 부문 간의 균형을 조절할 것을 요구한다.

자립 경제는 생산 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국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서로 밀접히 련관된 생산 부문들의 전일체가 형성됨이 없이는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만일 국내에 생산 부문들의 기본적인 환절이 없거나 그것이 미약하게 발전한다면 인민 경제 전반의 정상적인 균형 관계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를 견지하자면 반드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간, 공업과 농업 간,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의 주동적인 조절은 합리적인 인민 경제의 구조 하에서만, 그 가일층의 완성화 과정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 행정에서 일시적으로 개별적 부문들에 조성될 수 있는 긴장성도 제때에 주동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다.

만일 우리에게 철과 기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였던 사회주의 건설의 지난 시기 그 생산을 단시일 내에 확장할 수 있는 자체의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였을 것인가.

우리는 그 때 자체의 금속 공업과 기계 제작 공업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하여 용광로를 빠른 속도로 건설하고 철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천리마적 속도를 계속 견지할 수 있었다.

제반 사실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가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발전과 기술적 진보에 완전히 부합되며 인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는 사회주의 하에서 날로 급속히 발전하는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데 대한 객관적 요구에 적응한다.

그것은 생산 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키며 인민 경제 전반적 범위에서 사회적 생산의 효과를 제고케 함으로써 경제

의 높은 발전 속도를 부단히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과 소비는 서로 밀접히 련계되여 있다. 생산 구조, 발전 속도 및 수준은 소비를 규정하며 소비는 생산에 반작용한다.

소요 시기 사회적 생산에 대한 수요의 용적과 구조는 중요하게 그 시기 생산의 발전 수준과 상태에 의존하게 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높은 생산력에 기초한 다면적인 생산 구조는 생산물에 대한 사회의 장성하는 수요를 다방면적으로 충족시킬 가능성을 지어 준다.

사회주의 하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는 매개 나라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에 의하여 창설되면서 그것은 사회의 새로운 수요를 낳는다.

어느 나라를 불론하고 생산물에 대한 수요 구조와 용적은 결코 고정 불변할 수 없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생산 구조가 완성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수요가 산생되며 사회는 생산물에 대한 더욱더 다양하여지는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 수단에 대한 국내의 방대한 수요 용적에 적응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축성, 높은 생산력의 창조, 부단한 기술적 진보에 기초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로부터 이 제도 하에서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 용적은 필연적으로 부단히 장성하게 된다.

우선 사회주의 국가는 자체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나라의 전면적인 공업화와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량의 기계와 설비를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는 벌써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 자체가 방대한 생산 수단의 수요자로 되며 또한 경공업, 농촌 경리, 기본 건설, 교통 운수, 수산 부문 등 인민 경제의 기타 모든 부문들이 현대적 기술 수단의 거대한 수요자로 등장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는 부단한 기술적 진보와 생산적 고정 폰드의 계획적인 갱신 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제기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의 고정 폰드의 생산적 소모는 생산 수단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매개 나라의 수요가 어떤 개별적인 시기에만 국한되여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더우기 새 기술 도입을 방해하는 사회적 및 인공적인 제한이 전혀 없는 우리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그것의 생산에의 부단한 도입은 항상 특별한 관심사로 제기되는 것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는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에 의하여서도 부단히 장성하게 된다.

그것은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가 생산 수단들을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는 조건 하에서도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특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절대적 증가를 전제로 하는 확대 재생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는 이 밖에도 대외 시장에 의하여 계속 증대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 수단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인민 소비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장성하며 여기에서 또한 생산 구조가 커다란 역할을 논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면적인 생산 구조는 국민 소득의 장성을 촉진하고 각종 소비재에 대한 국내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부단한 기술적 진보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케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며 그들의 로동을 개선하고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시킨다.

다면적인 생산 구조는 공업의 강력한 지원 하에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며 그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이리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생산 구조는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민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새로운 수요를 자극한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의 구조가 생산물에 대한 사회의 장성하는 수요에 적응하며 매개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에 적합한 충분한 수요 용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부문 구조와 수익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개별적인 부문 또는 기업소의 수익성을 타산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견지에서도 타산하여야 하며 목전의 수익성과 함께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적 견지에서도 보아야 한다.

경제의 장성 속도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축적의 규모에 의존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축적의 규모는 전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의 수익성 즉 총 생산물 가치 중에서 사회를 위한 생산물 가치의 크기에 의존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함께 축적도 급속히 장성하게 되는 것은 개별적 기업소 또는 생산 부문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전반적 범위에서의 수익성이 부단히 장성하는데 기초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하에서는 개별적 기업소나 생산 부문에서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의 수익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수익성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그것과 결코 동일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개별적 자본가들의 운명과 관련되여 있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로 자본이 자연 발생적으로, 경쟁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미약한 자

본가들은 파산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없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이 제도 하에서는 생산이 전 사회의 리익과 전체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나라들 특히 이러저러한 력사적 조건으로 하여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기형적인 생산 구조를 넘겨 받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의 성과적 건설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게 일련의 새로운 생산 부문들을 창설 발전시키게 되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첫 시기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또 개별적 부문이나 기업소의 범위에서는 수익성이 높지 못하거나 지어 일시적인 손실까지 볼 수 있지만 하루 빨리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초기 수익성이 높지 못하거나 일시적인 손실이 난다고 하여 전 사회적 견지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장차 나라의 기술적 개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문들의 건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만일 수익성에 대하여 근시안적으로 대하면서 개별적 기업소의 수익성을 전반적인 인민 경제의 수익성 우에 올려 세우며 목전의 수익성을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적 리익 우에 올려 세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사회주의 나라들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 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가지 못 할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수익성은 개별적인 부문, 기업소의 그것과 함께 인민 경제 전반적 범위에서 생산적 지출에 대한 순 소득의 크기로 평가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리익의 견지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수익성도 결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질적 지출을 절약하며 기업 관리 운영을 개선하는데 따라 부단히 제고된다.

우리 나라에서 청소한 공업 부문의 하나로 되는 뜨락또르 및 자동차 공업의 창설과 그 발전 과정이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다.

농촌 기술 혁명과 자동차 운수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로부터 건설된 우리 나라 뜨락또르 및 자동차 공업 부문에서의 수익성은 이 부문의 그것만 떼여 놓고 본 때 그 창설 첫 시기에는 그리 높지 못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업 부문들 특히 뜨락또르 공업의 창설은 그 첫 시기부터 농업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농산물 생산의 급격한 앙양, 농촌 기술 혁명의 촉진과 로농 동맹의 강화 등과 같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적극 복무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극히 유익하였으며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높았다.

뜨락또르, 자동차 공업 부문들에서 생산 경험이 축적되고 보다 완성된 기술 공학적 성과들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여

로동 생산 능률이 급속히 제고되고 있는 오늘 이 부문들에서의 수익성이 전에 비할 바 없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 뜨락또르 및 자동차 공업에서의 대 당 생산 시간 변동과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가 저하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59년	1960년	1961년	1962년	1963년
뜨락또르 대 당 생산 시간	100	81	33.85	27.8	27.5
자동차 〃	100	89.9	34.5	34.3	—
뜨락또르 대 당 원가	100	45	31.8	35.6	34
자동차 〃	100	50	48.9	42.4	—

앞으로 이 부문들에서 기술적 진보가 보다 촉진되고 로동 생산 능률이 더욱 제고되며 기업 관리 운영이 가일층 개선됨에 따라 원가는 한층 더 저하될 것이며 수익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민 경제의 구조 창설과 수익성이 조금도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인민 경제에서 기술적 진보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동원 리용하며 매개 생산 부문과 기업소들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어떻게 개선하여 나가는가 하는 데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3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에 따라 인민 경제의 구조를 부단히 개선하고 완성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해방 후 특히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에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

인민 경제에서 공업의 확고한 지도적 지위의 보장— 이것은 전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구조 변화와 완성화 과정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총화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은 극히 짧은 기간 내에 과거 사회에서 넘겨 받았던 락후성과 일면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으로 장성 발전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의 높은 장성 속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였다. 공업 총생산액은 1963년에 1946년에 비하여 32 배로 장성하였다. 실로 우리 나라 공업은 1954년부터 1963년에 이르는 기간에 매년 평균 34.8%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공업이 급속히 발전한 결과 공업과 농업 간의 상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 중 공업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1946년	1949년	1953년	1956년	1960년
공업	28	47	42	60	71
농업	72	53	58	40	29

우리 나라에서 공업은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오늘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은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상호 련관된 현

대적 공업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그 내부 구조를 부단히 개선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중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그 내부 구조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생산 수단 생산은 1963년에 1946년에 비하여 33 배로, 1953년에 비하여 21 배로 장성하였다. 특히 생산 수단 생산에서 생산의 《골간 체계》를 담당하는 기계 제작 공업은 1963년에 1946년에 비하여 162 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업 총생산액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5.1%로부터 24%로 제고되였다. 기계 제작 공업의 모체인 공작 기계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광산 기계, 농기계, 전기 기계, 화학 설비, 금속 설비들과 경공업 기계 및 선박 공업 등 생산 부문들이 발전함으로써 기계 설비에 대한 국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게 되였으며 나라의 전면적인 공업화와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국내 자급률은 이미 93.8%에 달하고 있다.

기계 제작 공업과 함께 금속 공업, 화학 공업, 연료 동력 공업이 또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그 내부 구조에서 큰 변화가 일어 났다.

중공업과 함께 공업적 소비재 생산 그 중에서도 특히 방직 공업, 식료품 공업, 일용품 공업 부문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그 원료 기지가 튼튼하게 꾸려졌다. 1963년에 1946년에 비하여 방직 공업은 107 배,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은 16 배, 일용품 공업은 일약 248 배로 장성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소비품 생산 분야에서 일제가 남겨 놓은 혹심한 락후성을 이미 오래 전에 청산하고 소비품에 대한 국내의 장성하는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그 내부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은 전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구조 변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제에 의하여 강요되였던 농업 생산 구조에서의 편파성을 완전히 청산한 우리 나라 농업은 오늘 알곡을 위주로 하면서 축산물, 공예 작물, 소채, 과실 등을 원만히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집약적이며 다각적인 경리로 전화되였으며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초 우에서 그리고 공업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년년이 대풍작을 이룩하고 있다. 과거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없었던 공화국 북반부는 오늘 식량이 여유 있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농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는 더욱더 합리적으로 전변되고 있으며 그것들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확고히 보장되고 있다.

전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구조 변화와 그 완성화 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다는 데 있다.

보통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생산 수단의 공업적 생산이 소비재의 공업적 생산보다 우세를 차지하고 농업 국가로부터 공업 국가 혹은 공업-농업 국가로 전화되기 위하여서는 매우 오랜 기간이 요구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3 년 간의 전쟁이 우리 경제에 준 후과가 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으며 공업 생산에서 소비재 생산에 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 변화의 이러한 높은 속도는 공업적 소비재의 생산과 농업 생산의 구조 변화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의 가일층의 완성화에서 7 개년 계획 기간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나라의 전면적인 공업화와 기술 혁명을 7 개년 계획의 중심적인 과업으로 규정하였는바 그것은 인민 경제 구조를 보다 완성하는 과정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7 개년 계획 기간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구조의 완성화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업 생산 구조를 더욱 보충하고 완비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금후 우리 나라 공업 생산 구조 완성화의 중요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과업은 공업 생산의 구조를 한층 더 완비하고 그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가진 그리고 최신 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자립적 공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7 개년 계획 기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공업의 지도적 역할은 더욱 제고될 것이며 공업 생산에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간의 호상 관계가 보다 개선될 것이다. 이 기간에 공업 총생산액은 약 3.2 배, 그 중에서 생산 수단 생산은 3.2 배, 소비재 생산은 3.1 배의 높은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생산 수단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력의 발전과 기술적 진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문들이 급속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에 방직 공업, 식료품 공업, 일용품 공업 등 인민 소비품 생산 부문들이 또한 급속히 장성하게 된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구조 변화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적 진보를 위하여 일련의 공업 부문들이 새로 창설되며 전에 있던 기간적인 생산 부문들이 더욱 보충 완비된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기계 제작 공업 부문 내에 전자 기구 공업이 보강되며 유색 금속 공업 부문 내에 경금속 생산 부문들이 보충될 것이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와 함께 원료 기지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며 농업 생산이 부단히 증대되고 그 내부 구조가 일층 완성될 것이다.

실로 7 개년 계획 기간 우리 나라 인

민 경제의 다면성은 일층 더 강화되고 생산력의 발전은 비상히 촉진될 것이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은 보다 굳건히 다져질 것이다.

* *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 확립에서 달성한 성과는 실로 크다.

우리 인민이 나라의 자립적 경제 구조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이와 같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그 기저에는 우리 당이 시종 일관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자력 갱생의 원칙이 놓여 있으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이 놓여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 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우리 당은 경제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중의 혁명적 열성과 무궁무진한 지혜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 창설을 위해 요구되는 방대한 물질적 자원과 자금, 로력을 동원하였으며 생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천들을 부단히 탐구하고 보충하여 왔다.

전후 시기 형제 국가 인민들의 경제적 원조는 인민 경제의 복구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을 고무하였으며 경제 건설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형제 국가들의 경제적 원조도 우리 당이 자력 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었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자립적 구조 창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한 기본 경제 로선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우선 인민 경제의 전반적 련쇄와 재생산의 모든 환절에서 가장 주동적이며 결정적인 부문들의 호상 관계와 발전 속도에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부단한 기술적 진보와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모든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의 자체 발전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하면서 중공업으로 하여금 인민 소비품 생산에 최대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과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것은 또한 생산 순환이 길고 방대한 자금을 요구하는 부문들과 생산 순환이 짧고 비교적 적은 자금을 요구하는 부문들의 발전을 적합한 비례로 배합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의 효과성을 제고시켰으며,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 밑에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 경제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나갈 것이며 우리 나라를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관된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 체계로 더욱 빨리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콩고에서의 민족 해방 혁명의 새로운 발전

김 호

오늘 콩고(레오폴드빌)에서는 나라의 해방과 진정한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월 파트리스 루뭄바 피살 3주년을 계기로 일어난 이 투쟁의 불'길은 지금 전국적 범위로 퍼져 가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신구 식민주의자들은 비명을 올리고 있으며 더욱 더 단말마적인 책동에 매여 달리고 있다.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공연한 무장 간섭의 길에 들어 서서 작전 부대들과 하산병들, 《씨-130》형 수송기, 직승 비행기 등 미국의 군사 인원들과 군수 물자들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용군들을 대량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인민 무장대를 반대하는 전투에 직접 참가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미제가 이것으로써 콩고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일떠선 인민들은 불패이기 때문이다. 콩고 인민들은 미제를 비롯한 신구 식민주의자들의 발악이 심해지면 질수록 더욱더 손에 무장을 튼튼히 틀어 쥐고 싸우고 있으며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

레닌은 1916년의 아일랜드 봉기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실패한 혁명 운동의 경험에서 대중은 교훈을 얻으며 배우며 력량을 집결하며 자기들의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 내며 그리하여 총공격을 준비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콩고에서도 미제 침략자들의 간섭에 의하여 파트리스 루뭄바의 애국적 투쟁이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지만 그것으로써 민족 해방 투쟁이 끝날 수는 없었다. 력사는 자기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

물론 신구 식민주의자들은 지난 기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민족적 독립을 위한 콩고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완전히 교살하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책동들을 다 감행하였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에 있어서 식민주의 아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여지 없이 드러내 놓았다. 사실 상 루뭄바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한 것도 미제였으며 콩고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준 것도 바로 미제였다.

그들은 이미 1906년부터 지하 자원이 풍부하여 《세계의 원료 창고》로, 《중앙 아프리카의 보석》으로 불리며 지리적으로도 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콩

고에 대하여 침략의 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 섰다. 최근에 와서 그 야망은 더욱 증대되였다. 미국의 악명 높은 전쟁 상인이며 이전 대통령이였던 아이젠하워는 만일 미국이 콩고, 중동, 수에즈 운하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강철과 원자탄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고 떠벌렸으며 미국 참의원 외교 위원회가 1959년에 제출한 보고에서는 《콩고의 지하 자원은 미국의 공업과 군사적 수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와 콩고와의 미래의 관계는 이러한 광산물의 계속적인 공급으로써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제의 음흉한 기도를 잘 말하여 주는 것이다.

더우기 콩고 인민들이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80여 년 간에 걸친 벨기 식민지 통치에서 1960년 6월 30일 독립을 쟁취한 이후 이 나라를 예속화하기 위한 미제의 야망은 극도로 로골화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만 침략을 감행할 수 있는 기회와 구실을 찾는 것만이 문제로 되여 있었다. 미제는 바로 벨기 식민주의자들의 무장 간섭에 의한 소요를 절호의 기회로 리용하여 콩고에서 이른바 벨기군을 철수시키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구실 밑에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여 이 나라에 기여 들었다. 그들은 이 땅에 발을 들여 놓은 첫 순간부터 콩고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부원을 략탈하기 위한 야수적 본색을 남김 없이 나타냈다.

구식민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민족적 영웅 파트리스 루뭄바를 수상으로 하는 콩고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는 흉계를 꾸민 것은 바로 그 시작이였다.

미제는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완강히 투쟁하는 정권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자기들의 지배를 쉽게 확립할 수 없는 만큼 신식민주의의 전통적인 수법에 따라 우선 저들의 괴뢰 정권을 조작하는 것으로부터 착수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벨기군을 철수시키지 않았음은 물론 감금된 벨기 침략자들을 석방하여(《유엔군》의 견장까지 달아 주었다) 리용하였다. 당시 콩고 주재 유엔 대표였던 미국인 번치의 지휘하에 《유엔군》은 애국적인 콩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고 콩고군을 무장 해제하고 비행장, 항구 등 중요 군사 시설들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유엔군》의 이러한 군사 점령 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쏨베, 깔론지 등 괴뢰들을 매수하여 콩고인들끼리 싸우게 하면서 콩고의 통일을 가로막는 한편 1960년 9월에는 카사부부를 사촉하여 루뭄바를 수상직에서 해임시켰으며 모부투와 같은 반역자로 하여금 무장 반란을 일으켜 루뭄바를 비롯한 합법적 정부의 애국적 인사들을 체포 구금케 하였다.

그 후 미제의 책동은 더욱 악랄하였다. 합법적 정부를 전복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둘라 괴뢰 정권을 조작하고 콩고 인민의 애국적 투쟁을 완전히 말살해 보려고 1961년 초에는 쏨베, 아둘라 도당을 사촉하여 루뭄바를 살해하였으며 저들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그의 시체를 류산 속에 용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콩고 국회를 장악하고 루뭄바

의 위업을 계승한 기젱가마저 구금하였다.

이것은 콩고 인민들 속에서 미제에 대한 불만을 극도로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 내에서도 기젱가를 석방할 데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였으며 미제와 괴뢰 도당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확대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1963년 9월에 국회마저 해산시켰으며 10월에는 수도 레오폴드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투옥하였다. 미제는 지난 4년 간에 9만 5,000 명 이상의 《유엔군》을 주둔시키고 4억 3천만 딸라의 거액을 탕진하면서 콩고를 하나의 군사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이로써 미제는 이 땅에서 다시는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일어 나지 못하게 하며 그것이 다는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로 날러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인민들의 분노를 증대시키고 그들을 더욱 각성시켰고 단결시켰을 뿐이며 그들로 하여금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정확한 투쟁의 길을 찾게 하였을 뿐이다.

콩고 인민은 요람 속에 뛰여 들어 민족적 독립을 말살하고 략탈과 학살로 그들에게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자가 누구이며 그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자기들의 력량을 더욱 튼튼히 집결하게 되였다.

이것은 콩고에서 오늘과 같이 해방 투쟁을 가일층 앙양시킬 수 있게 한 요인으로 되었다.

금년에 들어 와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민족 해방 투쟁은 오늘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다.

우선 이 투쟁은 명백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조직의 지도 하에서 대중 속에 확고한 뿌리를 박고 있으며 운동의 가장 높은 형태인 무장 투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콩고에서는 기젱가 정부가 해체된 이후 루뭄바가 지도하였던 민족 운동당을 비롯한 반제적인 정당 사회 단체들의 통일 전선에 기초하여 《민족 해방 리사회》가 조직되였다. 민족 해방 투쟁은 광범한 각계 각층 군중을 망라한 이 조직의 지도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민족 해방 리사회》는 오늘 애국적인 무장 대오를 조직하고 인민들을 자기 해방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무장 투쟁에로 과감하게 조직 동원하고 있다.

이것은 콩고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이 조성된 정세 하에서 가장 정확한 투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사실 오늘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국제 헌병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폭압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무장 투쟁 이외의 다른 어떤 방도로써도 콩고에서 진정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콩고 인민의 투쟁은 또한 그것이 직접 세계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이 나라 인민들의 불행의 화근인 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데 돌려지고 있다.

《민족 해방 리사회》는 자기 행동 강령에서 《미 제국주의의 예속적 쇠사슬 끊어 버리고 전국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미국 억압 제도의 콩고 대변자들을 몰아 내고 미 제국주의의 쇠사슬에서 벗어 나라.》고 지적하였다.

애국적인 콩고의 무장 부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그 발생 첫날부터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를 반대하여 완강히 싸우고 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콩고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비하여 거대한 진보로 된다.

콩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원쑤들의 온갖 야만적 탄압과 회유, 기만 책동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무장 부대는 투쟁 과정에서 더욱 세련되고 조직화되여 강유력하여지고 있다.

초기 활과 창 그리고 약간의 현대적 무기를 가지고 불과 수백 명으로 시작된 이 투쟁은 7~8 개월이 지난 오늘 전국의 3 분의 1 지역에서 완강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수십 개의 도시와 촌락을 해방시켰다.

콩고 인민의 무장 투쟁은 처음부터 간고하였으나 무장 투쟁을 시작하자 그 대렬은 수천, 수만으로 확대되였으며 애국적인 무장 부대들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콩고에서는 중요 교통로들이 인민 무장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여 전국의 교통망이 마비 상태에 처하여 있다고 한다. 인민 무장 부대들은 해방된 도시와 촌락들에서 새로운 혁명 기관을 설치하고 투쟁에서 얻은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있다.

콩고의 무장 대오는 이 투쟁 과정에서 실로 강유력한 력량으로 자라나고 있다. 콩고 주재 미국 대사까지도 《게릴라들은 아주 잘 조직되여 있으며 지휘 능력도 아주 높다. 그들의 진략 전술은 알제리아와 꾸바 폭동의 첫 단계와 비슷하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영국의 《스코츠맨》지(8월 21일 부)도 《현재 그들은 계속 승리를 거둘 유망한 처지에 있다.》고 썼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콩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 책동에도 불구하고 민족 해방 혁명은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떠선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막을 힘은 없으며 더러운 식민주의의 력사는 다시 되풀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

콩고에서 민족 해방 혁명이 앙양됨에 따라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그들의 통치 체계는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괴뢰 정권은 완전히 무기력한 것으로 되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철저히 고립되였으며 군대의 사기는 저락되여 전투력은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월 아둘라 정권을 급기야 사임시킨 미제는 해외에서 쫌베를 불러 들여 괴뢰 정권의 《수상》직에 앉혀 놓고 회유 정책에 매여 달린 것도 전적으로 미제의 통치 체계의 위기의 반영이였다.

미제는 인민들 속에서 완전히 비림 받았으며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 된 아둘라 정권으로써 더우기 국압 정치로써는 자기들의 지배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타산하였다. 그들은 이로부터 《유엔군》을 철수시키고 파쑈적인

아들라 정권 대신에 쏨베 정권을 조작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오랜 주구이며 콩고 인민의 반역자인 쏨베는 정권에 들어앉기도 바쁘게 상전의 지시 대로 그 어떤 《민족 화해》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그는 전국 각지를 싸다니면서 《화해》니, 《자주적 정책》이니, 《콩고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느니 하고 웨쳤으며 구금되였던 기젱가를 석방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가 과거의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듯이 묘사하며 인민들에게서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젱가의 석방, 이것은 국내 국제적으로 되는 인민들의 강한 압력에 의한 것이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의 부르죠아 출판물들도 쏨베를 도우려고 그가 마치도 콩고에 《모든 세력들의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적 화해》를 달성하며 콩고의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듯이 선전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어제'날의 식민주의자들의 충실한 주구로서 배격 당한 쏨베의 속심을 숨기기에는 인민들이 그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제가 쏨베와 칼론지와 같은 구식민주의자들의 졸개를 불러다 놓고 이른바 《민족 화해》를 떠들게 하고 있는 것은 료원의 불'길처럼 확대되고 있는 콩고 인민의 애국적인 무장 투쟁을 무마시키며 대중들을 기만함으로써 허물어져 가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콩고 인민들은 결코 위기에 직면하여 회유책에 매달리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속지 않고 있다.

무장 투쟁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지방들에서도 쏨베 도당을 배격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높아 가고 있으며 정부를 반대하는 행동들이 과감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8월에만 하여도 외전들이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콩고의 딴 지방들에서와 같은 분규에 휩싸이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콩고 주 중의 하나였》던 《우방기주에서는 불만을 품은》 인민들이 《주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민 무장대를 지지하는 대중적 시위와 폭동은 오늘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 나고 있으며 지어 괴뢰 군대 내에서까지 이러한 투쟁은 호응을 받고 있다.

무장 투쟁의 확대 발전과 미제와 괴뢰 도당의 심각한 위기로 하여 쏨베 집단에 속한 괴뢰군은 극도로 사기가 저락되고 있으며 그들은 미제와 괴뢰들을 위하여 개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중대, 소대 등 집단적으로 인민 무장 부대에 투항해 오고 있을뿐만 아니라 괴뢰군 병사들 속에서 전선 리탈자들과 도주자들이 또한 계속 증대되고 있다.

스텐리빌에서 지난 1월 괴뢰 헌병들이 인민들의 애국적 무장 부대에 합세하였고 5월 말 인민 무장부대의 알버트빌 공격 시에는 《정부군》 2 개 중대가 폭동을 일으켜 이에 호응해 나섰다.

콩고의 이러한 사태를 묘사하여 영국의 《스코츠맨》지가 《쏨베는 자기의 정치적 잔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싸우는 수 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힘이 없다.》고 쓴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쏨베 괴뢰 도당은 비단 콩고 인민들 속에서만 배격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나라들과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있다.

그것은 지난 7월 17일에 진행된 제2차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에서도 뚜렷이 표현되였다. 아프리카 통일 기구 각료 리사회와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수반들은 이 회의에 기여 들려고 한 쏨베에게 문을 닫아 버렸다.

아프리카의 많은 신문들과 출판물들은 쏨베 도당의 이른바 《민족 화해》의 척사에 대하여 만화로써 조소와 비난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콩고(브라자빌) 방송은 쏨베를 《정권에 들어 앉은 살인자》라고 규탄하였으며 같은 날 탄가니카의 주간지 《우후루》는 콩고 사태를 론평하는 론설에서 《쏨베는 바로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노예이며 앞잡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사태는 결국 콩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들어 가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가 끝장이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진퇴량난의 처지에 놓여 있는 위기의 운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 나기 위하여 최근에는 콩고 인민들의 애국적인 무장 투쟁을 직접 탄압하는 단말마적인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수십 대의 땅크와 다수의 군사 인원을 실은 수송기들을 비롯하여 《비-26》 폭격기 등을 콩고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7일에는 레오폴드빌에서 미 국무 차관보 윌리암스와 쏨베 도당 간에 비밀 《회담》을 벌려 놓고 인민의 무장 투쟁을 말살할 데 대하여 공모하였으며 8월 말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용군들을 끌어 들였다. 콩고에 투입된 미 군사 인원들은 지금 콩고 인민의 애국적 투쟁을 탄압하는 데 서슴없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콩고의 애국적 인민들의 투쟁이 거세차게 앙양되고 있고 이들을 지지하며 미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세계 인민들의 지지와 련대성이 날을 따라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미제는 결코 그러한 책동으로써 저들의 통치 체계를 부지할 수 없다.

미제는 콩고에서도 남부 월남에서와 같은 참패의 운명을 면치 못 할 것이다.

＊ ＊

콩고 인민의 애국적 투쟁의 력사는 이 나라 인민들과 아프리카 인민들은 물론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우선 유엔이란 미제의 침략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유엔이 미제의 침략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력 침공 시 명백히 드러났다. 유엔은 그 기'발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 전쟁에 도용 당함으로써 자기의 력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적 오점을 남기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유엔을 통하여 민족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듯이 떠들면서 유엔에 모든 것을 의탁하여야 하며 공연히 피를 흘리면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콩고 인민들에게 강요하였다.

그들이 그렇게도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옹호하도록 콩고 공화국을 방조하고 있다.》고 열렬히 찬양한 유엔이 과연 콩고에서 어떠한 역할을 놀았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였던 것과는 달리 콩고는 유엔의 간판을 들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미제 살인귀에 의하여 민족적 독립을 말살 당하였고 루뭄바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잃었으며 참을 수 없는 불행을 겪었다.

사람들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콩고 인민들을 침략한 미제를 어떻게 도와주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콩고 교훈의 더욱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이 무장의 힘에 의거하여 식민지 인민들을 탄압하고 애국적 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는 조건에서 진정한 독립과 자유, 항구적 평화를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과의 평화적 협조가 아니라 오직 손에 무장을 잡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콩고 인민의 애국적 무장 부대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에 의거하면서 손에 무기를 들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움으로써 그들을 위기에 몰아 넣고 있으며 날마다 새로운 성과를 거두며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고 있다.

현실은 이러한 투쟁, 오직 그것만이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 있는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독립과 자유, 민족적 권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며 휘황한 미래에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사태를 정확히 보려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만일 콩고 인민들이 일부 사람들이 념불처럼 외우고 있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친선, 타협의 로선에 의거하였다면 그 어떠한 성과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1960년 루뭄바와 그의 전우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황급히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세계의 전면적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 콩고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끄라고 강요하였으며 오늘도 미 제국주의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날로 확대되고 있는 콩고 인민의 무장 투쟁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더욱 진퇴케 하고 있으며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세계적인 연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떠드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영웅적 콩고 인민과 그의 무장 부대는 전 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지지와 성원의 목소리에서 더욱 큰 힘을 얻으면서 힘 있게 전진하고 있다.

지난 기간 콩고에 대한 미제와 《유엔군》의 횡포한 간섭 책동을 시종일관 규탄하여 왔으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콩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온 조선 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콩고 인민들의 숭고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며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들과 굳게 손을 잡고 나아갈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콩고에 대한 침략 책동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그의 고용병들과 살인 무기를 걷어 가지고 콩고에서 당장 물러 가야 한다.

남조선 인민의 투쟁과 념원을 반영한 문학

리 원 곤

문학은 다른 모든 사회적 의식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현실과 사회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을 때 인민 대중의 념원과 지향을 대변할 수 있으며 인민의 귀중한 정신적 재부로 될 수 있다.

그러나 계급 사회에서 지배 계급에게 복무하는 문학은 결코 현실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없으며 옳은 인식 교양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것은 지배 계급이 문학 예술을 저들의 착취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 리용하기 때문이다.

미제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 문학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

미제는 해방 후 19년 간 남조선에서 력대의 괴뢰 통치배들과 더불어 일체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학 예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 문화 전통을 말살하면서 저들의 식민지 통치의 사상적 수단으로서 퇴폐적인 미국식 문화와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하여 각종 반동적 부르죠아 문학 예술 조류들을 끌어 들이고 더욱 조장시켰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과 계급 의식의 장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광범히 전파시킨 것은 사람들에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며 찰나적인 향락과 부화 방탕을 고취하는 색정주의와 저들의 식민지 통치와 괴뢰 도당의 부정 부패로 인한 남조선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고 그 제도를 미화하는 어용 문학,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굴종할 것을 설교하는 허무주의 문학 그리고 인간 증오 사상과 동족 상잔을 고취하는 《반공 문학》 등이다.

특히 전후 시기에 미제는 남조선에서 더욱 가중해 가는 사회의 파국 상을 옳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불안》과 《상실》, 《인생의 부조리》를 떠벌리며 고독과 비애에 싸여 불안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택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설교하는 실존주의 문학을 광범히 파급시켰다.

이리 하여 오늘 남조선 문학에서는 현실을 외곡하며 인민을 기만하는 각종 반동적인 부르죠아 문학 예술 조류가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남조선 문학에서 그 반동적 조류는 미제의 비호 하에서 더욱 악랄하게 세기말적인 퇴폐 상을 빚어 내고 있는 것으로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에도 어차피 현실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는 문학이 있게 된다.

객관적 현실의 반영 형태로서의 문학은 계급 사회에 있어서 지배 계급의 사상을 대변하는 반동적인 것 뿐만 아니라 착취 제도를 반대하는 선진 계급의 사상, 인민의 리익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조류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의 계급적 모순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며 계급 투쟁의 장성과 함께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학 예술도 발전하기 때문이다.

남조선 문학에 있어서도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현상인 이 진리가 례외일 수는 없다.

해방 후 악랄하게 감행된 미제의 식민지 정책과 력대 괴뢰 도당의 매국 배족적 부패 정치는 남조선 경제의 헤여날 수 없는 파괴와 력사 이래 미

중유의 민생고를 빚어 냈으며 식민지 제도 하에서의 사회적 모순을 더욱 첨예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드디여 1960년 4월 남조선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여 일떠섰으며 리 승만 괴뢰 정권을 타도하고 반미 구국 투쟁에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남조선에 조성된 이러한 민족적 및 계급적 대립의 첨예한 환경과 특히 4월 인민 봉기의 부도가니 속에서 민족적 량심을 지닌 일부 남조선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민중의 편에 서서 그 현실을 자기들의 작품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리 하여 남조선 문학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비호 밑에서 지배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동적 부르죠아 문학과는 다른 인민의 투쟁과 지향을 반영하는 진보적 경향의 문학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였다.

1960년 4월 인민 봉기는 남조선 작가들의 사상 의식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량심적이며 진보적인 작가들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다.

미제와 괴뢰 도당의 탄압 하에서도 어지러운 현실과 타협함이 없이 지조를 지켜 오면 량심적인 작가들은 4월이 가져 온 《자유》를 구가하면서 민중과 함께 곧바로 투쟁의 광장으로 내달리였다.

또한 남조선의 모순된 사회 하에서 자기의 출로를 찾지 못 하고 고독한 관념의 울타리 속에서 모색하며 모대기던 작가들이 《자아 의식》의 관념에서 깨여 나 들끓는 현실을 올바르게 보기 시작하였으며 봉기한 인민들의 힘을 감득하였다.

그들은 인민 항쟁의 격류 속에서 남조선 사회의 파국적인 모순을 뚜렷이 간파하게 되자 곧 자기들의 작품에 남조선 사회의 모순된 현실과 참담한 인민 생활을 반영하면서 민중의 편에 합류하였다. 량심적인 작가들이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인민에게 의거했을 때 그들의 작품에는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고독과 절망과 비애의 암두속을 헤매는 무기력한 군상 대신에 성실한 인간 특히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는 악의 제도에 항거하여 싸우는 인민의 형상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 하여 이 시기에 민족적 량심을 지닌 남조선 작가들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대담하게 남조선 현실의 밑바닥을 파 헤치면서 거기에 뿌리 박힌 사회악을 적발 폭로하며 4월 인민 봉기의 정당성과 그의 승리를 구가하여 나섰다.

남조선 통치배들과 그들이 빚어 낸 모든 사회악을 신랄하게 타매하면서 한 시인은 4월 인민 봉기가 인민의 진정한 나라(정권)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렬하게 노래하였다.

…

《민족》과 《조국》의 이름으로 기만을 일삼는
정상배와 아첨의 무리들은
송두리 채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인민에겐 《준법》을 강요하며
《불법》을 자행(恣行)하는 위정자는
없어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귀하신 몸》은 다시 나타나선
안 된다.

우리들의 나라! 사랑하는 내 나라는
인민으로 이루어진
인민을 위한
인민의 진정한 나라라야 한다.

(시집 《4월의 광상》에 수록된 시 《해마다 4월이 오면》에서)

단편 소설 《대열 속에서》(《사상계》, 1961. 100 호)에서는 주인공들인 윤전수

의 아들과 장관의 아들이 그들의 각이한 계급적 처지로부터 출발하여 전자는 처음부터 견결히 조직적으로, 후자는 노호하는 민중의 영향 하에서 괴뢰 정부 장관으로 기만과 협잡과 부정 치부를 일삼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괴뢰 통치배들의 부패성을 깨닫기까지의 우여 곡절을 통하여 항쟁의 대렬 속에 뛰여 드는 모습이 진실하게 그려져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부패 정치 타도하자!》,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웨치며 경무대에로 돌진하는 학생 청년들의 용감한 투쟁 모습을 생동하게 재현하였다. 그는 이 대렬 속에서 《힘이 넘쳐 흐르는 봄》과 《강렬한 생명》을 보았으며 지금까지 《목마르게 바라면서 얻지 못 했던 납(答)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인민 항쟁은 소기의 결과를 가져 오지 못 하였다.

리 승만 독재 정권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 그처럼 수 많은 청년 학생들이 피 흘리며 싸웠는 데도 4월 항쟁의 열매가 미제의 조종 하에 새로운 괴뢰의 출현으로 결실을 보지 못 하게 되자 한 시인은

> 우리는 아직도,
> 우리들의 기'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 그 붉은 선혈로 나붓기는,
> 우리들의 기'발을 내릴 수가 없다.

고 절통하게 울부짖으며 친저한 《민주 정치》, 《사상의 자유》, 《경제 균등》, 《인권 평등》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되여야 한다고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항쟁에 일떠선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영웅적 투쟁을 노래한 작품들은 이외에도 수다하다.

이 모든 작품들은 인민 항쟁에 대한 평가와 태도에서 그 작가들의 사상적 성숙 정도와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일련의 제약성들이 있으며 간혹 희생 앞에서 비애를 느끼며 전투성이 결여된 것들도 있기는 하나 항쟁을 정당한 력사적 사변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점에서는 한결같다.

인민 항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를 지지한 남조선 작가들은 점차 항쟁의 공격 대상인 괴뢰 통치배들의 죄상을 폭로 규탄하는 데로 나아갔다.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괴뢰 경찰의 대중 학살을 폭로한 소설 《후일담》을 비롯하여 4. 19 데모에 참가한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구타하는 괴뢰 경찰의 야수적인 잔인성을 폭로하고 있는 단편 소설 《표정》과 특히 시《경고, 통곡, 결의》(《동아 일보》, 1960년 8월 15일)에서는 남조선 통치배들에 대하여 《4. 19의 피를 팔아 사리 사욕에 탐욕하며… 이리떼처럼 충혈된 페스트균과 같은 고등 위선배》라고 신랄히 규탄하고 있다.

남조선 작가들은 이렇듯 괴뢰 도당의 횡포와 만행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죄상이 드러난 구체적 현실 속 남조선 사회의 부패 상을 각 방면에서 폭로하고 있다.

4월 인민 봉기 이후 남조선 작가들의 인민 생활에 대한 관심은 비상히 높아졌다. 량심적인 작가들은 남조선 사회를 지배하는 상층 모리배들의 그 호화롭고 부패한 생활의 밑바닥에 깔린 인민 생활의 비참한 빈궁 상을 보고 그대로만 있을 수 없었다.

이리 하여 남조선 문학에서는 가난과 실업, 굶주림과 죽음의 도탄에서 신음하는 인민 생활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작품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인민 생활의 빈궁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에서는 남조선 사회의

의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로동자, 하급 공무원, 실업자, 빈농민, 걸식자 등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하면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가 빚어 낸 남조선 사회의 파국 상을 조소하며 저주하고 있다.

단편 소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의 질주》(《사상계》, 1961. 9 호)는 한 중학교 교원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하면서 남조선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였다.

이 소설의 작가는 20여 년이나 교원 생활을 한 주인공 송 선생에게 남조선 사회가 준 것은 《시렁 밑까지 아이를 밀어 넣어 잠 재울 수 밖에 없는 좁다란 단간'방》과 《이불 한 쪼각 없어 안해가 젖먹이 맏애를 몸뻬 속에 품고》 자야 하는 참담한 생활 뿐이라고 현실을 사실 대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송 선생이 부화 방탕한 불량아인 N(엔) 장관의 아들이 거급 녀학생을 유린한 데 대하여 제재하다가 오히려 그에게서 매까지 맞았으나 교원을 구타한 그 불량아는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떳떳이 처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학원의 부패와 사회악을 조장시키는 괴뢰 통치배들을 타매하였다.

특히 작가는 《교과서 속에 있는 것》 밖에 모르던 《순수》한 송 선생으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에 의혹을 품게 되던 어느 날 빠고다 공원에서 의외에도 륙순이 넘은 자기 아비지와 몇 끼를 굶고 집을 나가 버린 처숙모가 장타령을 부르며 사람들에게 구걸까지 하게 된 참상을 목격케 하면서 부패와 굶주림으로 가득 찬 남조선 사회에 대하여 《세상이 외로 돌아 간다.》고 조소하고 《눈알이 튕겨지게 괄지린 세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남조선 사회를 이렇게 더럽혀 놓은 《빤질대는 놈들을 북북 갈아 눕히》며 이런 《똥개만도 못한 놈들을 보기 좋게 깔아 눕히자》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단편 소설 《판자'집 그늘》(《현대문학》, 1961. 8 호)에서는 미제의 대포'밥으로 동족 상잔의 전쟁에 끌려 갔다가 부상 당하여 절름발이가 된 《상이 군인》의 비참한 생활 상을 통하여 괴뢰 통치배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다.

비바람치는 서울 거리를 불구의 다리로 헌 니야까를 끌고 다니며 사탕 장사를 하고 있는 소설의 주인공 형식이는 자기의 옛 전우에게 말하기를 《살아야 돼, 살아야 한단말야. 상이 용사, 그 대가가 천대와 굶주림이란거지 뭐냐 말야. 개자식들! 우리도 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는거야… 남들은 거들대고 사는데 이건 무엇이야. 거지가 되여 아사하란 말이지, 더러운 세상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조선 사회의 부패와 그 통치자들을 저주하며 규탄하고 있다.

작가의 남조선 사회에 대한 고발의 기백은 주인공이 영양 실조로 급병이 난 어린 아들을 안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며 사정했어도 허줄한 옷차림의 그를 보자 병원 문턱 안에도 들여 놓지 않아 결국 아들을 죽이게 되는 과정에서와 특히 괴뢰 도당이 《도시 미화》라는 구실로 경찰을 동원하여 그들의 판자'집마저 강제로 철거시키는 마지막 대목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새끼들아, 안 된다, 안 돼, 못 뜯는단 말이다. 우리도 살아야겠다. 살 권리가 있단 말야, 이 새끼들아, 철거? 이것도 사는 거라고 쫓아 내는 거야. 이 돼지 같은 놈들…》 이렇게 작가는 판자'집을 강제로 뜯으려고 달려

드는 경찰놈들을 막아 서서 웨치는 주인공을 통하여 인민들을 빈궁 속에 몰아 넣고 학대하는 괴뢰 통치배들에 대한 격분과 증오를 참지 못 하고 있다.

이렇듯 량심적인 작가들은 남조선 사회와 가정의 세태 생활에 대한 형상적인 분석을 통하여 민생고와 반동 통치배들의 부정 부패를 폭로하며 남조선 현실이 빚어 낸 사회악에 대한 비판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 현실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해부해 들어 간 작가들은 이제는 한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나 한 가정의 비극을 형상화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며 통탄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한 것은 개별적 인간이나 가정의 세태적인 비극을 제시하고 통탄하며 하소연하는 것만으로써는 사회악과 인민 생활의 참상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울분과 통탄, 하소연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조선 사회를 그처럼 말세기적 도탄에 몰아 넣은 원흉인 미제 침략자들의 죄상을 규명하고 폭로 규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단편 소설 《백의의 수기》(《현대 문학》, 1961. 5호)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죄상을 비교적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 내면서 침략자들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다.

작가는 이 사상 주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라는 주인공의 수기 형식을 택하고 정론성이 강한 필치로써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 《나》는 실직 상태에서 병으로 앓고 있는 데다 생활의 유일한 동반자이던 안해마저 잃어 버린 자기의 신세를 회고하며 수기를 쓰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 고등 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우리는 소위 자유의 녀신을 동경할 의무도 없지만 늑대를 겁낼 필요도 없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가난과 산 송장의 탈을 면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여 반 년 동안이나 구금되여 모진 고문을 겪었으며 출옥 후에는 직업을 빼앗기고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다가 안해마저 잃어 버린 것이다.

주인공 《나》는 이렇듯 자신과 가정을 속속들이 파괴한 원흉은 남조선에 기여든 《엉뚱한 존재》 즉 다름 아닌 미제 침략자들이라고 정당하게 밝히면서 조국을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켜서 제멋 대로 《료리》하며 파괴 략탈하고 있는 〈당신들〉—미 제국주의자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그 무자비한 행위의 죄를 반드시 받는다는 말이다.》라고 선언한 다음 놈들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론죄하고 있다.

《지난 16 년 동안 당신들은 우리를 돕는다는 달콤한 말을 던지며 수십만 명이 우루루 몰려 들어 왔다. 그리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이 살아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이 사는 곳에 가까이 간다는 것조차 있을 수 없었다》.

작가는 이렇게 미제의 《원조》의 기만성을 폭로하면서 놈들이 괴뢰 《꼭두각시》들을 통하여 수 많은 재부를 략탈해 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앗아 간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우리의 꼭두각시들은 당신들로부터 동족 살해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받았다.

당신들이 정성 들여 만든 총탄은 우리의 부모 형제를 무참하게도 쓰러치고 또 쓰러쳤다》고.

이렇게 미제 침략자들과 그 괴뢰 도당의 죄상을 준엄하게 폭로 규탄한 다

음 작가는 이 모든 악의 씨와 가난의 근원을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 제도를 거부해야 하며 미제 침략자들의 강점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의 가난을 추방하고 새로운 생활 향상을 위하여 박차고 나갈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겠다. 그러니까 낡은 제도로부터는 아무 것도 이어 받을 것은 없다. 낡은 것으로부터는 무지와 비참, 무질서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강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은 침을 삼키며 덤벼 들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이 작품은 한갖 실직 당한 한 교원의 하소연이 아니라 그것은 해방 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 침략자들의 천추에 용납 못 할 죄상을 력사적으로 폭로 규탄하는 민족의 수기, 남조선 인민들의 준엄한 론고장인 것이다.

남조선 작가들 속에서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규탄의 기백은 미제 침략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자기들의 작품에 반영한 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 리유는 없다.
> 나가 다오. 너희들 다 나가 다오.
> 너희들 미국인은 하루 바삐 나가
> 　다오.
> ……
> 리유는 없다.
> 가 다오. 너희들의 고장으로…
> 너희들 미국인은 하루 바삐 가 다오.
> ……
> 서푼어치 값도 안 되는 미국인은
> 쵸꼴레트, 커피, 페치코오트, 군복,
> 　수류탄을 가지고
> 소리 없이 가 다오 나가 다오.

(시 《가 다오 나가 다오》 《현대 문학》 1961. 1 호)

이렇듯 남조선을 처참한 식민지로 전락시킨 미제의 죄악을 간파한 남조선 작가들은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 냄이 없이는 조국의 완전 독립도 평화적 통일도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인식하였다.

그리 하여 미제를 조국 강토에서 몰아내는 동시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민족 지상의 과업은 남조선 작가들에게 있어서도 절실한 문학적 주제의 하나로 되였다.

하여 남조선의 한 시인은 자기의 시 《강》에서 남조선 인민의 《피를 빨아 먹던, 개 이리떼》인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통일의 《푸른 장강, 우리들의 꿋강》이 터져 흐르게 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 웨쳤다.

특히 시 《다리》(《자유 문학》, 1960. 3 호)에서는 조국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한갖 추상적인 호소로 그치지 않고 통일을 《가로막는 권력의 담정을 쳐부시》고 남북 교류의 다리를 놓고 평화 통일의 위업을 성취해야만 남조선 인민들이 《포박 당한 억울한 수인》 같은 도탄 속에서 구원될 수 있다고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 다리를 놓자.
> 다리를 놓아야 한다.
> 우리가 사는 일은 다리를 놓아야
> 　한다.
> 너와 나의 마음에 다리를 놓자
> 휴전선 우에
> 서울과 평양에
> 가로 세로 거미줄 감기듯
> 하늘에 별이 얽히듯
> 이렇게 다리를 놓아 나가면
> 언제인가 하나가 되리
> 우리는 하나가 되리

이상에서 렬거한 작품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량심을 지니고 진정한 문학을 모색하고 있는 작가들이 그 얼마나 인민들의 념원을 뜨겁게 느끼고 있으며 인민의 지향을 자기들의 작품에 반영하고저 암담한 현실과 맞받아 싸워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60년 4월 인민 봉기 이후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관찰하면서 한결같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절실하게 제기되는 사회적, 민족적 문제들을 자기들의 중요한 문학적 과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남조선 문단에서 인민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 급격히 자라난 이 진보적 경향의 문학은 남조선에서 시대의 진실을 대변하는 진정한 문학, 인민의 문학으로서 점차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에서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는 이러한 진보적인 문학이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미제의 조종 하에 1961년 5월 군사 정변을 일으킨 박 정희 도당은 정권을 탈취한 이튿날에 벌써 《계엄 사령 포고 제 5 호》를 공포하여 문학 예술 작품에 대한 파쑈적 검열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4월 인민 봉기 이후 진보적 경향의 작품들을 발표한 량심적인 작가들을 《용공》이라는 《죄》명 하에 검거 투옥하고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 진보적 문학 예술은 또다시 준엄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였다.

박 정희 도당은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는 구호 밑에서 일체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문학 예술을 탄압하는 한편 군사 정권의 반동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학 예술은 《사회에 적극 봉사해야 한다.》는 기만적 구호 하에 남조선에서 인민의 배척을 받는 문학 모리배들을 규합하고 온갖 퇴페적인 반동 문학 예술을 조장시켰다.

박 정희 도당의 진보적 작가들에 대한 야만적 탄압 조치에 대항하여 남조선의 한 작가는 《근본적 문제는 시인을 징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다… 장관이나 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 나면 그만이지만 시인을 감옥에 가두어 본들 무슨 소용인가, 권력이나 백으로 시인이 된 것도 아니고 감투나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시인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 (《자유 문학》, 1961. 8 호,)고 당당히 언명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창작의 자유를 옹호하여 나서면서 잃어 버린 《4월》의 열매를 되찾고저 하였다.

그리하여 군사 정권 하에서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일반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4월 인민 봉기에 대한 애착이며 계속 혁명에의 지향이다.

그들은 4월 인민 봉기를 《미완의 혁명》으로 간주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돌아 와야 할 기'발》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한 시인이 《정치에 강간 당한 4월이여! 정치와 간음한 5월이여》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4월 《혁명》의 열매를 가로챈 군사 정권에 대한 불 같은 증오심은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의 작품에 일관하게 반영된 주되는 사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 정권에 대한 부정의 사상은 그들에 의하여 조작된 악법들이 끼친 사회적 후과들을 폭로하는 작품들로서 나타났다.

단편 소설 《원평곡》(《사상계》, 1962. 2 호)에서는 군사 통치배들이 강요한 이른바 《학제 개혁》에 의한 《정년제》로 말미암아 생계를 잃게 된 한 로교원의 비극적 운명이 그려지고 있으며 단편 소설 《만학 선생》(《현대 문학》, 1962. 5 호)에서는 이른바 《대학 정비령》에 의하여 영어를 모른다는 리유로 해직 당하게 되는 오랜 한문학자의 억울한 경우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갓 돌아와 새로 부임된 학장의 오만한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군사 정권을 타매하는 사상은 이외에도 주인공의 입을 통하여 《복지 사회를 장담하던 것이 빈지(貧趾) 사회를 이루》었고 《정권이 바뀐 이후부터 공짜를 붙인 귀신이 반효하였다.》고 야유적으로 군사 정권을 비판한 단편 《세월》(《현대 문학》, 1962. 12 호) 등 수다한 작품들에 직접 혹은 상징적 수'법에 의하여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은 다만 소극적으로 군사 정권을 부정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 정권에 대하여 《또 한번 폭발시켜》 쓸어 없애야 할 력사의 오물, 시대의 《공백》으로 락인하였다.

이 크나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차라리 불타는 불'견이라도 일어라
미끔내 절정에서
나붓겨야 할 기'발을 위하여
세찬 바람이여 불어라

……

나중엔 큼직한 하늘도
덥석 내려 앉으라
가슴이 후련하게 메꾸어질
온갖 것들이여 또다시 연소하라

(시 《순》—《현대 문학》, 1961. 10 호)

설명은 가할 필요도 없이 이 시에는 숨 막히는 시대의 《공백》을 빚어 낸 파쑈적 군사 정권의 전복을 열망하는 확고한 사상과 혁명적 폭풍의 도래를 부르짖는 강렬한 호소가 깃들어 있다.

이처럼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은 가혹한 파쑈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정책이 악랄하면 악랄할수록 그들의 애국심은 더욱 세차게 불타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자기의 손으로 자기 사람들끼리 자기 마음 대로 꾸리는 데서만 지금의 숨 막히는 난국에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자주 자립의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가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량심적 작가들 속에서는 시 《아아, 내 조국》에서와 같이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자주를 호소하는 작품들도 나오고 있으며 침략군의 철퇴와 통일, 자주 독립을 호소한 시 《미 8 군의 차》(《현대 문학》, 1963. 12 호) 등 애국적인 작품들이 창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단편 소설 《부주전 상서》(父主前上書)(《사상계》, 1964. 6 호)에서는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시책에 항거한 탓으로 옥에 갇히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통하여 《정부를 총으로 뒤엎으며 잘 했다고 떠들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줏석 기여 나와 가지고는 나라를 팔아 먹는 제 2의 리 완용이 되더라도 운운하며 방약 무도하게 국민의 우에 군림하는 친구가 있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라고 신랄하게 로골적으로 박 정희 도당을 규탄하면서 이 모든 죄악적인 것들을 쓸어 버리자면 《벼락이 떨어져》야 하며 그 《벼락》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이렇듯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책임을 자각하고 자기들의 작품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우국 사상을 고무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미제의 조종 하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또다시 나라를 팔아 먹으려고 책동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벌써 남조선의 한 시인은 사랑하는 조국에 대하여 애타게 노래 불렀다.

> 조국은 내가 자란 육신의 고향,
> 조국은 나를 기른 슬픈 어머니,
>
> 백두 먼 천지 우에 별이 내리고
> 남해 고운 하나 아래 파도 설레는,
> 지금은 옆에 떠이 진동하는 조국의,
> 지금은 안에 끓어 신음하는 자유의,
>
> 한 번 쯤은 눈을 들어 조국을 불러 보자,
> 한 번 쯤은 오늘 아침 스스로를 살피자,
> 가'밭은 불멸의 것 길이 휘날릴
> 리념이 누뜰으랴 겨레 사람아,
> 가슴은 조국의 것 길이 뜨거울
> 사랑이 가라앉으랴 한 피 사람아,
>
> (1962년 1월 1일, «동아 일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량심적인 작가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단압 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의연히 인민의 편에 서서 진정한 문학의 길에 충실하고저 싸우고 있다.

특히 진보적 사상 경향을 가진 작가들은, 남조선 사회를 더욱더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의 도탄에 빠뜨리며 저들의 더러운 집권욕과 향락을 위하여 일제에게 또다시 나라를 팔아 먹는 죄행까지도 서슴지 않는 박 정희 매국 역도들을 타도하는 사회적 혁명의 노래, 미제 침략군의 철거, 민주적 자립과 자주, 조국 통일에 대한 인민의 념원을 자기들의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제 아무리 발악적으로 단압하여도 인민의 편에 선 진보적 경향의 문학은 남조선 문단의 새로운 력량으로서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리라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이 진보적 경향의 문학은 아직 청소하며 자기의 단일한 미학적 강령을 확고히 가지지 못 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강유력한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 하고 있다.

이 문학이 인민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아직 산재된 력량으로 자연 발생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우선 미제와 괴뢰 도당의 악랄한 단압에 기인되며 또한 미제가 류포시킨 온갖 반동적 문예 사상의 영향으로 하여 그들 내부에 아직 부르죠아 미학의 여독이 남아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이 문학에는 그 진보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여야 할 부족점들과 제약성들이 있게 된다.

그것은 우선 많은 작품들이 생활 세태적인 현상의 폭로에 머무르고 사회악의 근원을 사회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서 깊이 파헤치지 못 하고 사말적인 현상을 피상적으로 묘사하는 데 국한하고 있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주인공들인 인민의 비참한 운명을 그리면서도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시킴이 부족하고 고립된 개인의 운명 문제로 국한시키고 마는 것이다.

또한 남조선 현실의 모순과 통치배들의 부패상을 대담하게 정면으로 폭로한 작품들에서까지도 일부 경우에 자연주의적 수법에 의하여 비본질적인 추잡상을 개입시켜 묘사하는 폐단 때문에 오히려 작품의 좋은 주제 사상을 흐리게

하는 편향을 찾아 보게 된다.

특히 남조선의 진보적 경향의 작품들에 공통적인 제약성은 모순된 현실에 반항하는 주인공이 공격해야 할 명확한 대상을 명시하지 못 함으로써 인민들의 투쟁 목표와 방도,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 못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원쑤들의 검열과 탄압에 중요하게 기인되지만 작가 자신들의 사상적 제약성에도 비롯되는 것이다.

더우기 남조선 작가들이 흔히 의거하고 있는 자연주의, 형식주의, 주관적 심리주의 수법들의 작용은 이 문학의 진보적 내용을 제약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반제 구국 투쟁이 격렬히 일어 나고 있는 오늘의 남조선 사태는 남조선의 진보적 문학 앞에 긴절한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남조선의 모든 량심적인 작가들은 하루 바삐 이 모든 약점들을 극복하고 자기들의 힘을 단합하여 하나의 조직되고 통일된 력량으로 자기의 대렬을 꾸려야 할 것이다. 오직 단결과 통일만이 진보적 문학의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조직되고 단합된 력량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사회의 문단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반동적 부르죠아 문예 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해야 하며 동시에 가장 정당한 창작 방법인 진정한 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기초한 확고한 미학적 강령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 하여 비단 각성된 량심적인 작가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아 관념》의 울타리 속에서 《순수》의 껍질을 벗지 못 하고 고독과 비애와 영탄의 길을 방황하며 번민하는 작가들도 남조선 문학의 이 성스러운 길을 따라 나서게 되여야 할 것이다.

문학 작품의 가치는 그 작가가 현실에 얼마나 깊이 침투하여 누구의 편에서 생활을 관찰하고 어느 정도 체험했으며 얼마나 진실하게 높은 형상을 창조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작가를 둘러 싸고 있는 현실은 객관적이다. 따라서 작가는 자기의 낡은 기성 관념으로써 현실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생활의 본질, 사회적 전형을 탐색하여야 하며 거기서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 새것과 낡은 것을 판별해 내고 새 것, 아름다운 것의 승리를 구가해야 한다.

그러자면 남반부의 모든 작가들은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 어찌 하여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파산, 민생고와 죽음의 생지옥으로 화해 버렸는가를 정당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자신을 억압 당하고 있는 민중의 립장에 세워야 한다. 그리 하여 현실에 대한 자기의 립장과 책임을 자각하고 진정한 문학의 길에 들어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물론 모든 작가들이 한결같이 자기를 정의로운 립장에 튼튼히 세울 수 있게 되며 들끓는 현실을 정확히 통찰할 수 있게 되며 민족적 자각을 가지고 반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 하여 이미 인민의 편에 선 작가들은 물론 모든 남조선 작가들이 시대를 대변하는 고수로서 싸우는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투쟁의 량식을 주어야 할 것이며 반미 구국 투쟁과 조국 통일 위업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작가 자신과 진정한 문학을 옹호하는 길이며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 문화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길이다.

〔문답 학습〕

《초생'달 계획》이란 무엇인가

《초생'달 계획》(일명 《반월형 계획》)이란 아세아의 동북부 일본으로부터 남조선, 대만, 비률빈 및 인도지나 반도를 지나 아세아 남쪽의 파키스탄에 이르는 이른바 《반월형의 지대》 내에 군사적 《포위권》을 설치한 미제의 침략적 군사 전략 계획이다.

이 전략 계획이 《초생'달 계획》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지역의 군사 기지들을 련결한 《포위권》이 반월(半月)의 호(弧)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초생'달과 같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기본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서 그의 주요 목적은 저들의 침략적 군사 기지들로 조선, 중국, 민주 월남 등 아세아의 사회주의 나라들을 《포위》하고 《봉쇄》함으로써 이 지역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의 증대되는 영향력을 막고 세차게 타오르는 그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침략하자는 것이다.

《초생'달 계획》은 악명 높은 호전광이며 조선 전쟁의 도발자인 이전 미 국무장관 덜레스가 1949년에 조작해 낸 《반공 군사 전략》의 중요한 한 구성 부분으로서 1953년 말 당시 미국 부대통령이였던 닉슨에 의하여 제기되였다.

닉슨의 이 제안이 미 《국가 안전 회의》에 제기된 그 때로부터 10여 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등 미국 력대의 행정부들은 이 계획을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전략적 계획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분하여 왔다.

1962년 비률빈에서 진행된 아세아 주재 미 군사 고문관들의 비밀 회의에서는 이 계획이 중요한 론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1963년 12월 25일 당시 미 극동 국무차관 힐즈맨은 《〈초생'달 계획〉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쪽의 조선과 일본으로부터 남쪽의 인도, 파키스탄에 이르는 광활한 궁형의 지대는 정치, 경제, 군사 및 심리적 면에서 미국과 〈자유 세계〉에 重대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떠벌렸다.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에서 미제가 이 계획 작성 및 수행을 그처럼 서두르게 된 것은 당시 아세아 지역에서의 력량 관계의 근본적인 변동과 그것이 미제의 대외 정책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된 데 기인된다.

사실상 제 2 차 세계 대전 직후 시기까지만 하여도 미제는 아세아 침략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로 장 개석에게 의거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이 기도는 완전히 파탄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1953년에 미제는 저들이 도발한 조선 전쟁에서 패배하였으며 인도지나 전쟁도 불란서의 참패로 끝났다.

사회주의 진영 위력의 급격한 장성

의 영향 하에서 아세아의 모든 인민들은 더욱 각성되였고 반제 민족 해방투쟁이 가일층 앙양되였다. 이것은 미제의 아세아에 대한 침략과 세계 제패의 야망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였다.

사태의 이러한 발전에 극도로 초조해진 미제는 소위 《초생'달 계획》을 들고 나와 어떻게 해서라도 극동과 동남 아세아에서 저들의 지반을 부지하며 대륙 침략의 토대를 닦고 나아가서 이것을 중동의 《쎈토》와 구라파의 《나토》와 련결시킴으로써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침략 체제를 조성하려 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이 계획이 나온 지난 10 년 간 극동과 동남 아세아에서 온갖 교활한 음모 술책과 로골적인 도발 책동을 감행함으로써 침략적 《초생'달 계획》을 추진시키기에 광분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우선 이 지역 나라들을 철저히 자기의 지배 하에 두고 저들의 정치적 지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주구들을 사촉하여 이 지역에서 합법적 정부들을 전복하고 친미 분자들로 괴뢰 정권을 조작하였으며 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를 줌으로써 그들을 부축하고 있다.

1956년에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친불 정권을 뒤엎고 친미적인 느고 딘 디엠을 괴뢰 정권에 들여 앉혔으며 금년 초에는 다시 저들에 더욱 충실한 느구옌 칸 정권을 꾸며 냈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에서 뿐만 아니라 라오스에서도 1954년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유린하고 친미적 사나니코네 정부를 조작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쿠데타를 일으켜 합법적 푸마 정부를 저들의 지배 하에 넣었다.

이처럼 매개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철저히 예속시키는 한편 미제는 이 나라들을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장악하여 모두 하나의 올가미에 끌어들이는 책동을 감행했다. 이른바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세아토)는 바로 그러한 정책의 산물이다.

미제는 1954년 미국, 영국, 불란서와 함께 비률빈, 타이, 뉴질랜드, 호주, 파키스탄으로 구성되는 《세아토》를 조작하고 라오스와 남부 월남을 《세아토》의 《보호 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그것을 리용하여 이 나라들에 수 많은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였다.

동남 아세아 지역에서 이러한 책동을 감행함과 함께 미제는 《포위권》을 《완성》하기 위하여 일본, 남조선, 대만, 비률빈과 각각 쌍무적 군사 조약을 체결하고 이 나라들을 하나의 군사 쁠럭에 묶어 놓기 위한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네아토) 조작에 광분하여 왔다. 이것은 《네아토》와 《세아토》를 련결시켜 이 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북과 남을 단일한 체계로 만들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있어서 일제를 기본 지주로 리용하려는 것이다.

미 국방 차관 질패트릭이란 자가 금년 초 미국 전쟁 책략가들의 모임에서 《미국은 일본이 태평양 서북부의 〈방위〉 부담을 종래보다 더 많이 맡을 것을 바라고 있다…일본이 장래 반드시 조선 반도의 일부를 포함한 구역을 지키기

위한 〈감시 병력〉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 것은 이를 잘 말해 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지난 10년 간 이 《반월형 지대》 내에 수 많은 군사 기지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로케트 및 핵 무기들로 이 기지들을 보강하고 있다.

북부의 일본으로부터 남조선, 대만, 비률빈 및 인도지나 반도를 지나 파키스탄에 이르는 이 지역에 그들은 무려 24만 명 이상의 미군을 주둔시켰고 수백 개의 륙해공군 기지들을 배치하였다. 태평양 상에 있는 1,000여 개의 미국 군사 기지와 군수 시설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이 《초생'달 계획》의 구역 내에 설치되여 있다.

미제는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서 80여 개의 비행장과 11 개의 중요 항만 및 많은 중소 항구들을 군사 기지로 전변시켰고 6만 5,000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일본에 225 개 이상의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4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오끼나와에는 40여 개의 미 해공군 및 로케트 기지가 설치되여 있고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여 있으며 대만에도 650 대의 비행기와 5만 5,000 명의 미군이 배치되여 있다. 비률빈과 타이에도 각각 수만 명의 미제 침략 군대가 웅거하여 있다.

한편 미제는 이 군사 기지를 발판으로 사회주의 나라들과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는 동남 아세아 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을 부단히 감행하여 왔으며 또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는 괴뢰 도당들을 사촉하여 계속 《북진》 소동을 일으키며 대만 해협에서 장 개석 도당으로 하여금 《본토 수복》을 떠들게 함으로써 극동에서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제는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공공연하게 파괴하면서 1959년에 타오스에서 전면적인 국내 전쟁을 도발하여 애국 력량에 대한 《소탕 작전》을 감행하였고 최근에는 또 로골적인 무장 간섭을 감행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도발하여 이 나라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며 발광하고 있다.

실로 미제는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어 그들은 지난 8월에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구실로 미 제 7 함대의 해군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민주 월남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무장 간섭을 감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침략 계획을 폭로 반대할 대신에 이 지역 나라 반동들에게 군사 《원조》를 제공해 줌으로써 미제의 침략 계획에 보조를 맞추어 주고 있다.

미제의 온갖 흉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전 장군들에 의하여 작성된 《초생'달 계획》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파탄되고 있으며 그들의 세계 제패의 야망은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과거 다년간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련되고 각성된 이 지역 인민들은 미제의 이 침략적 야망을 분쇄하기 위하여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은 더욱더 파탄되여 가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의 중심 지역으로 되고 있는 남부 월남에서 이 지역 인민과 인민 무장대의 투쟁게 의하여 2만 5,000명의 미군과 수 많은 군수 기재를 동원하여 감행해 온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에 의한 미제의 《특수 전쟁》의 《시험》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다.

최근에는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저들의 《지주》로 삼아 오던 느구옌 칸이 《대통령》 자리에서 나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이 계획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그처럼 믿어 온 《세아또》는 《동맹국》들 간의 내부 모순의 격화로 하여 유명 무실한 것으로 되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골간이 될 《네아또》의 조작 음모도 착잡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 위정자들까지도 오늘 아세아에서 저들의 침략 계획의 파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지금 미국 통치배들 속에서는 남부 월남과 라오스는 《제방의 파렬구로 되였다…라오스의 중립과 남부 월남에서 날로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는》 《캄캄한 동굴》과 같다. 《우리의 아세아 정책에 대한 이 지역 나라들의 불만의 징조는 얼마든지 그 실례를 들 수 있다. 우리의 동맹국들도 우리의 아세아 정책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우리의 아세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절망적인 비명을 울리고 있다.

이것이 미국 정부가 그 무슨 《초생'달 계획》이요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아세아 지역에서 다년간 감행하여 온 침략 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오늘 마디마디 동강이 나고 있는 미제의 침략적 《초생'달 계획》은 불원간에 완전히 파산되어 그것이 하나의 파지'장으로 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고 석 무

근로자 제 17 호 (루계 255 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9월 3일 발행 • 1964년 9월 5일

ㄱ—430530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8호 9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8 호 (256)
1964년 9월 (하)

차 례

제 1 국제당의 혁명적 전통을 고수하자

국제 로동 계급의 첫 대중적 조직인 국제 로동자 협회(제 1 국제당)가 창건(1864년 9월 28일)된 때로부터 100 년이 지나 갔다.

제 1 국제당의 창건은 당시 구라파에서 급격히 앙양된 로동 계급의 진출과 그들의 정치적 각성 그리고 국제 로동 계급의 통일에 대한 성숙된 지향을 반영한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제 1 국제당의 창건자였으며 그 지도자였다.

레닌은 제 1 국제당 내에서의 맑스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맑스는 이 조직의 중심 인물이였으며 그 최초의 〈선언〉을 비롯하여 수 많은 결의, 성명, 선언의 기초자였다》(레닌 전집 제 21 권, 39 페지).

제 1 국제당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로동 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로동 운동에서 맑스주의의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각국에서 자립적이며 혁명적인 프로레타리아당 창건을 위한 전제를 조성하였다.

제 1 국제당은 비록 길지 않은 기간 활동하였지만 각종 기회주의자들의 분렬 책동을 분쇄하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기치 하에 로동 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보장하였으며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함으로써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 놓았으며 빛나는 혁명적 전통을 이룩하여 놓았다.

제 1 국제당이 창건된 후 지난 100 년 동안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의 발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 제 1 국제당이 있은 지 50 여년 만에 세계의 6 분의 1의 땅 우에서 사회주의는 리론으로부터 산 현실로 전변되였으며 그 후 28 년이 지나 그것은 강대한 세계적 체계로 형성되였다.

제 1 국제당의 혁명적 전통의 기치를 든 국제 로동 계급의 투쟁의 위대한 산아인 사회주의 진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며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더욱 더 승리하고 있으며 수천 수억만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 행정에서 이룩된 제 성과들과 업적들은 제 1 국제당의 제 원칙들이 정확하며 불패의 것이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제 1 국제당이 추켜 든 혁명적 원칙과 그 사상은 100 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의연히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리론적 및 실천적 활동에서 제 1 국제당의 불멸의 전통을 고수하여야 한다.

더우기 일부 사람들이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제 1 국제당의 혁명적 전통을 외곡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는 제 1 국제당의 고귀한 전통 중에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려 한다.

*　　　*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각국 로동 계급의 호상 지지와 단결—이것은 제 1 국제당의 가장 중요한 리념이며 그 활동의 확고한 원칙이다.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은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인 만큼 그것은 항상 국제적이다.

로동 계급은 오직 국제적 단결을 강화함으로써만 련합된 국제 자본을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로동 계급의 무궁 무진한 힘, 불패의 힘의 원천이 바로 그들의 전투적 단결에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였으며 국제 로동 계급의 단결을 위하여 불면 불휴의 투쟁을 진행하였다.

맑스는 《창립 선언》에서 국제 로동 계급의 단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과거의 경험은, 각국 로동자들간에 존재하여야 하며,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자들에게 호상 튼튼히 지지하도록 고무하여야 할 형제적 동맹을 경시한다면 로동자들의 분산적 노력은 전반적 패배의 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맑스 엥겔스 선집 제 1 권, 412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제 1 국제당 창건의 주되는 목적도 바로 《…로동 계급의 모든 전투적 력량을 한 개의 대군으로 련합하려는 것이였다》(맑스 엥겔스 선집 제 1 권, 7 페지).

제 1 국제당은 창건 첫날부터 맑스와 엥겔스의 지도 하에 국제 로동 운동의 중심으로서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실천적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그들의 국제적 통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제 1 국제당 총무 위원회는 자본을 반대하는 구라파 로동 계급의 파업 투쟁이 앙양되였을 때 자기의 지부를 통하여 로동 계급 호상간에 지지하고 원조케 함으로써 각국 로동 계급의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총무 위원회는 1868년 런던 로동 계급의 대파업이 일어 났을 때 불란서에 있는 자기의 지부에 통보하여 불란서 로동자들을 끌어 들임으로써 파업 투쟁을 좌절시키려는 영국 기업주들의 기도를 파탄시켰다.

보오 전쟁(1866년)과 보불 전쟁(1870～1871년) 시기 제 1 국제당 총무 위원회는 일련의 격문들에서 전쟁 교전 국가 로동 계급들에게 호상 더욱 단결함으로써 지배 계급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전쟁을 파탄시킬 것을 호소하였다.

당시 불란서와 독일의 로동 계급들은 제 1 국제당 총무 위원회의 호소에 응하여 호상 단결을 강화하였으며 로동 계급을 서로 살륙케 함으로써 자기의 범죄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자국 부르죠아지들을 반대하여 궐기하였다.

제 1 국제당의 전투적 련대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은 1871년 봄 파리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이 개시되였을 때, 파리 꼼뮨이 선포되였을

때 가장 빛나게 발휘되였다.

맑스는 혁명적 폭발이 개시되기 전에는 시기 상조한 봉기를 경계하였으나 일단 혁명이 일어나고 꼼뮨이 선포되자 파리 로동 계급의 투쟁과 꼼뮨을 정력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제 1 국제당 산하의 모든 지부들에 파리 로동자들의 진출을 성원할 것을 호소하였다. 제 1 국제당은 파리 꼼뮨을 자기의 사업으로 인정하였으며 전 세계 로동자들에게 파리 로동자들과 한 대렬에서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

꼼뮨 시기 로씨야, 파란, 웽그리야 등 세계 도처에서 온 국제주의 전사들이 파리 로동자들과 함께 용감히 싸웠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싸우는 파리 로동 계급에게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하기 위한 로동자들의 집회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제 1 국제당은 이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련대성의 기치를 높이 듦으로써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각국 로동 계급들의 전투적 단결을 강화하였으며 국제 로동 계급의 단결에 대한 빛나는 혁명적 전통을 확립하였다.

맑스와 엥겔스가 서거한 후 제 2 국제당 내에는 맑스주의를 수정하려는 수정주의자들이 창궐하게 되였다. 특히 제 1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제 2 국제당 수정주의는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을 배반하고 사회 배외주의로 전락되였다.

수정주의자들은 《조국 옹호》라는 구호를 들고 각국 로동자들에게 부르죠아지를 위하여 호상 살륙할 것을 호소하였다. 국제 로동 계급 대렬은 사분오렬되였고 그들의 국제주의적 단결과 련대성은 파괴되였다.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오직 레닌과 그의 전우들 그리고 볼쉐위크 당만이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제 로동 계급의 전투적 단결을 파괴하고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전락된 제 2 국제당 내 수정주의자들을 반대하고 국제 로동 계급의 대렬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레닌은 각국의 혁명적 좌파 력량을 결속시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새로운 기초 우에서 강화 발전시켰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로동 계급의 새로운 국제적 련합체인 제 3 국제당은 레닌의 령도 하에 기회주의적인 낡은 당으로부터 분리되여 나온 청소한 당들을 맑스주의로 무장시키며 그 지도 간부들을 단련하고 육성하며 혁명 투쟁에서의 통일적 전략 전술을 작성하며 로동 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제 3 국제당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배반하고 제국주의의 사환'군으로 떨어진 카우쯔키 도당과 뜨로쯔끼, 부하린 도당을 비롯한 혁명의 반역자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더 강화하였으며 계급적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각국 로동 계급의 승리를 촉진시켰다.

제 3 국제당이 해산된 후에도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혁명적 전통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묶어 세우면서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용감히 싸웠으며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제 1 국제당이 창건된 후 지난 한 세기 동안의 력사적 경험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이 제 1 국제당의 위대한 전투적 구호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바로 이 기치를 고수하고 그것을 높이 듦으로써만 자기의 전투적 위력을 시위할 수 있으며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더우기 오늘 전 세계적 범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더욱 반석같이 강화하는 것은 극히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개별적 어느 한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하며 그 단결을 수호하며 그 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세계 혁명의 근거지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이 더욱 단합되여 하나의 전일체로 나아갈 때 제국주의 세력은 더욱 급속히 궁지에 몰리 들어 갈 것이며 세계 혁명 위업은 더욱 성과적으로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의 분렬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엄중한 시련을 겪고 있으며 국제 로동 계급의 전통적인 전투적 기치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훼손 당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몇몇 나라를 떼여 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면서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맑스-레닌주의당들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제 1 국제당 시기에 로동 계급 대렬의 단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 조건으로서 제기되였고 적용되였던 중앙 집권제 원칙의 의의를 외곡함으로써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을 와해시키려는 자기들의 분렬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오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과거 국제당이 사업하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세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계 혁명 운동이 미증유의 규모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매개 나라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 위업을 책임 지고 자주적으로 령도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력량이 장성된 조건에서 어느 한 《중앙》으로부터의 유일 지도란 할 수도 없으며 또 필요도 없게 되였다.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중앙적 립장에 서서 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려 하며 남의 당 내부 사업에 간섭하려는 대국주의적 행동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는 허용될 수 없으며 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는 큰 당과 작은 당은 있으나 《명령》하고 《지시》하는 당과 《복종》하는 당이란 있을 수 없다.

형제당과 형제 국가들은 다 같이 자주적이고 평등하며 호상 지지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형제당들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칙이며 그

누구도 위반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의견 상이를 조직적 분렬에까지 끌고 가며 분렬주의적 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조급히 서두르고 있는 국제 회의 소집이 마치도 제 1 국제당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전통에 부합되는듯이 떠들고 있다.

이것은 자기들의 분렬주의적 정체를 엄폐하려는 기만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제 1 국제당의 혁명적 전통에 대한 엄중한 외곡이다.

형제당들 간의 국제 회의는 오직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충분한 준비 밑에 소집될 때만이 단결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로동 계급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념원에 부합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는 고사하고 남을 위협하는 《단호한 대책》에 대한 언사가 끊임 없이 울려 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소집되는 국제 회의는 단결이 아니라 의견 상이를 더욱더 심화시킬 뿐이며 그것을 조직적 분렬에까지 끌고 가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단결은 수호되고 분렬은 저지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단결을 분렬시키려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 속에서 고수하여 온 제 1 국제당의 전통적 기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분렬 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의 전통적인 전투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다.

* *

제 1 국제당은 기회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창건되고 기회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공고화되였다. 바로 그 과정에서 제 1 국제당의 기초로 될 리론적 및 전략 전술적 원칙들이 준비되고 완성되였으며 근로 대중이 각성되였고 이들을 령도할 혁명적 지도자들이 육성되였다.

맑스는 볼테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 1 국제당의 력사는 《…국제당 내에서 로동 계급의 진정한 운동을 반대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 종파와 그리고 호사가들의 시험을 반대하는 총무 위원회의 끊임 없는 투쟁이였다.》(맑스 엥겔스 선집 제 2 권, 542~543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제 1 국제당은 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각종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심각한 투쟁들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경 기회주의는 국제 로동 운동에서 주요한 위험으로서 그 발전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막대한 해독적 작용을 하였다.

불란서의 프루동주의, 영국의 트레드 유니온주의, 독일의 라쌀주의 등 우경 기회주의는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 정신을 마비시키려 하였고 맑스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반대하였으며 혁명을 개량으로 바꾸어 놓으려 하였다.

소부르죠아 사상 조류였던 프루동주의자들은 로동 계급의 정치 투쟁, 정치

적 조직을 거부하였으며 파업까지도 반대하면서 로동 운동을 경제 투쟁에 국한시키려 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악한 측면》과 《선한 측면》으로 구분하고 《악한 측면》을 제거하면 자본주의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도로서 특별한 《인민 은행》을 건설하고 《무상 신용 대부》로 로동자를 소소유자로 전화시킬 것을 제창하였다.

제 1 국제당은 그 존재의 전 기간에 있은 다섯 대회 중 첫 세 차례의 대회들을 모두 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돌리지 않으면 안 되였다. 제네바 대회(1866년)에서 이들은 국제당을 정치적 조직으로가 아니라 한갖 협동 조합 협회에로 전락시키려 시도하였고 로잔느 대회(1867년)와 브류쎌(1868년) 대회에서는 사'적 소유의 철폐 문제를 반대하여 맑스주의에 도전하여 나섰다. 이들을 반대하는 맑스와 엥겔스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제 1 국제당의 기본 사상과 혁명적 원칙을 제시한 맑스의 《창립 선언》과 《총칙》도 통과될 수 없었을 것이며 생산 수단의 사회화를 위해 투쟁할 데 대한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다.

로동 귀족의 리익의 대표자들이였으며 처음 제 1 국제당 총무 위원회 의장의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던 트레드 유니온주의자들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반대하여 나섰다. 이들은 《정당한 로동인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는 보수주의적 구호를 들고 로동 계급의 리익을 사소한 경제적 개량으로써 대치하려 하였다. 1865～1867년 영국의 선거 개혁 운동에서는 숙련공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할 데 대한 불철저한 강령을 제기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리익을 배반하고 공공연히 부르죠아지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맑스의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자 제 1 국제당의 권위를 악용하여 그를 총무 위원회 지도부에서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꾸미였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이러한 음모도 분쇄되고야 말았으며 트레드 유니온주의자 옷좌가 의장의 직위에서 축출되는 것으로 끝났다.

독일 로동 운동에서는 프로씨아 왕국의 반동적 비스마르크 정권과 결탁한 라쌀주의자들이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국제당에 참가하기조차 거부한 이들은 일반 선거권 전취를 통한 평화적인 《의회적》 방도만을 주장하면서 로동 계급의 폭력 혁명을 거부하였고 《자유 인민 국가》 건설을 설교하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부인하였다. 이들은 프로씨아 왕국을 리상화하면서 로동 계급의 해방이 반동적인 프로씨아 국가의 방조 하에 《생산 조합》을 조직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떠들었다.

그 후 이들의 뒤를 따라 제 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도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 있어서 《의회적》 평화적인 방도를 절대시하였으며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그 재판에 불과한 《평화적 이행》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대치시키는 라쌀주의의 수법 역시 오늘에도 반복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인민들에 대한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전 인민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가 건설되여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맑스는 라쌀주의자들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본질을 신랄히 폭로하면서 이들을 《비스마르크식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락인하였다.

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맑스와 엥겔스의 투쟁은 제 1 국제당의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국제 로동 운동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제 1 국제당은 그 활동 기간에 좌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여서도 투쟁을 진행하였다.

뒤늦게야 제 1 국제당에 가입한 바꾸닌주의자들은 무정부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인 강령과 모험주의적인 전략 전술로써 제 1 국제당의 활동에 큰 지해를 주었으며 로동 운동 발전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주었다.

《그의(바꾸닌—필자 주) 강령은 여기저기서 피상적으로 긁어 모은 혼합물로서 계급들의 평등(!), 사회 운동의 출발점으로서의 상속권 폐지(쎙-씨몽주의적 우둔), 국제당의 당원들에게 교조로서 지시되는 무신론 등등이며, 주되는 교조는(프루동주의식) 정치 운동 참가의 기피이다》(맑스 엥겔스 선집 제 2 권, 543 페지).

바꾸닌은 《제 계급의 정치, 경제적 평등》을 부르짖음으로써 사실 상에 있어서 부르죠아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은폐된 형태로 되풀이하였다. 맑스는 바꾸닌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제 계급의 평등이란 부르죠아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설교하고 있던 《자본과 로동과의 조화》라는 것에 귀착된다고 썼다.

바꾸닌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악이 자본 따라서 로동자와 자본가들의 계급적 대립이 아니라 국가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로부터 일체 권력과 국가 일반 및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온갖 정치 활동을 거부하면서 무정부주의적 상태의 조성을 주장하여 나섰으며 로동 계급의 정치 투쟁, 프로레타리아 독재도 반대하였다. 한편 상속권 철폐 문제만을 전면에 제기함으로써 결국 로동 계급을 정치 투쟁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경제적 성격을 띠는 부차적이고 비본질적 투쟁에 국한시키려 하였다. 1869년의 바젤(제 4 차) 대회에서는 바로 이 문제로 하여 이들과 맑스주의자들 간에는 치렬한 투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바꾸닌주의자들은 전략 전술에 있어서는 좌경 모험주의를 맑스주의에 대치시켰다. 이들은 자본을 반대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적 력량을 의식적으로 결속하고 투쟁 자체를 조직화할 것을 반대하고 단순히 자연 발생적이며 돌발적인 음모나 반란에 의거하려 하였다.

제 1 국제당에서 이러한 무정부주의를 반대하는 맑스와 엥겔스의 투쟁 역시 거대한 교훈으로 되였다.

제 1 국제당의 전 기간에 걸쳐 국제 로동 운동에 큰 해독적 작용을 한 주되는 위험은 우경 기회주의였다.

그런데 오늘 일부 사람들은 당시 마치도 좌경 기회주의가 더 큰 위험이였고 맑스와 엥겔스가 바꾸닌의 투항주의적 강령은 제외하고 다만 그의 전략 전술에서의 모험주의를 반대하여서만 싸운듯이 사태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제 1 국제당의 위대한 력사

를 일부 형제당들에게 《좌경 모험주의》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공격하며 자기들의 우경 투항주의적 본질을 은폐하는데 리용하려는 《고안》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사실상 어떤 자들은 지금 《좌경 기회주의의 위험성이 첫 자리에 나서》고 있다고까지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그러나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이 명백히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조건 하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주되는 위험은 수정주의, 우경 기회주의이며 이것은 그 어떤 연막으로써도 숨길 수 없다.

제 1 국제당은 온갖 기회주의 특히는 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맑스와 엥겔스가 제시한 그 기본 사상을 시종 일관 확고히 고수하였다.

제 1 국제당의 기본 사상은 로동 계급이 오직 자기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계급적 해방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경제적 해방은 정치적 해방에 의하여서만, 자본주의 제도의 혁명적 전복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맑스는 제 1 국제당 《총칙》 서두에서 《로동 계급의 해방은 로동 계급 자체에 의하여 전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맑스 엥겔스 선집 제 1 권, 414 페지)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로동 계급이 자기의 세계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비스마르크와 같은 반동적인 혁명의 적들에게 의거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에 의거하는 독자적인 혁명적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동 국가의 정부를 미화하며 그에 아부하며 굴종하며 그와 견탁하는 방법으로써는 혁명을 촉진시킬 수 없으며 로동 계급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 레닌은 이것을 제 1 국제당의 혁명적 사상이라고 지적하였다.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은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제 투쟁 형태 중에서 그 기본은 정치 투쟁이며 로동 계급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수립을 직접적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였다. 맑스는 《창립 선언》에서 《…정치적 권력의 전취는 로동 계급의 커다란 의무》(맑스 엥겔스 선집 제 1 권, 412 페지)라고 정식화함으로써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 천명한 이 사상을 표현하였다. 맑스는 그 후 파리 콤뮨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승리한 이후의 국가 형태는 오직 프로레타리아 독재로 되여야만 한다는 것을 더욱 확증하였다.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은 특히 이러한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를 통한 개량의 방법이 아니라 혁명적인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 루차 강조하였으며 혁명 그 자체를 주로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 내부의 많건 적건 은폐되여 있는 국내 전쟁이 공개적 혁명으로 전화하고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죠아지를 폭력으로 타도함으로써 자기의 지배권을 수립하게》(맑스 엥겔스 선집 제 1 권, 23 페지) 되며 《혁명이란 주민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지극히 권위 있는 제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 행위인 것이다.》(우와 같은 책, 730～731 페지)고 썼다.

제 1 국제당 활동의 전 기간에 맑스

와 엥겔스는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철저한 투쟁을 통하여 국제 로동 운동에서 이러한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로동 운동과 과학적 사회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었고 로동 계급의 국제적 통일 단결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로동 계급의 국제적 투쟁의 기초를 축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제 1 국제당의 위대한 혁명적 전통이며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의 극히 중요한 교훈이다.

온갖 기회주의 특히 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으로써만 맑스주의를 고수할 수 있으며 국제 로동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제 1 국제당의 이 교훈은 그 후 레닌과 쓰딸린을 위시한 쏘련의 볼쉐위크들 및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 의해 더욱 확증되였다.

레닌은 바로 이 교훈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제 2 국제당의 온갖 기회주의 조류들을 극복하고 맑스주의를 수호하였으며 로씨야 로동 계급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로 인도하였다.

레닌은 국제적 현상으로 대두한 베른슈타인, 카우쯔키 등 제 2 국제당 우경 기회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실로 무자비한 투쟁들을 전개하였다.

쓰딸린은 이렇게 썼다: 《맑스와 엥겔스를 한편으로 하고 레닌을 다른 편으로 한 그 사이에는 제 2 인터나쇼날의 기회주의가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긴 시기가 놓여 있는바 그 기회주의와의 무자비한 투쟁이 레닌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101~102 페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레닌의 무자비한 투쟁이 있음으로 하여 제 2 국제당이 우경 기회주의로 전락되고 국제 로동 운동에 일대 시련이 닥쳐 왔던 그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도 맑스주의가 철저히 고수되였으며 그것이 더욱 풍부화되였고 발전되였다.

레닌의 서거 후 그의 친근한 전우였으며 충실한 제자였던 쓰딸린과 쏘련의 볼쉐위크들 및 세계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도 이러한 교훈에 립각하여 뜨로쯔끼, 부하린 및 그와 결탁한 각국의 기회주의 도당을 반대하여 견결하게 투쟁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제 1 국제당의 교훈과 그 이후의 모든 력사적 경험은 온갖 기회주의 특히 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철저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맑스주의의 혁명적 원칙과 그 사상을 확고히 수호할 수 있으며 더욱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현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주되는 위험인 우경 기회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경 기회주의, 수정주의를 폭로하여 분쇄할 때에,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전 세계 로동 계급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

* *

제 1 국제당은 로동 운동이 피압박

민족의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원조할 데 대한 혁명적 원칙을 제시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피압박 민족들의 문제를 사회 계급적 문제의 해결의 견지에서 고찰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과 련결시켰다.

그들은 민족적 압박의 청산이 곧 압박 민족 로동 계급의 해방을 위한 요구로 된다고 하였다.

피압박 민족들에 대한 착취는 지배 계급의 정치적 및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압박 민족의 부르죠아지는 피압박 민족을 착취함으로써 더욱더 비대해지며 자기의 통치 지반을 공고히 하며 국내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와 압박도 강화하게 된다. 만일 로동 계급이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지 않고 지배 계급의 정책을 묵인하거나 추종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국내의 근로 인민에 대한 이들의 지배도 일층 공고화하게 할 것이며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도 더욱 곤난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로동 계급이 지배 계급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왜냐 하면 공동으로 피압박 민족을 반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맑스는 이로부터 압박 민족의 로동 계급에게 있어서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원조하는 것은 그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며 자기 해방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확고 부동한 원칙이라고 지적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또한 오직 그러한 지지와 원조만이 압박 민족의 로동 계급과 피압박 로동 계급 간의 반목을 제거하고 그들 간의 단결을 보장할 수 있으며 피압박 로동 계급이 민족적 압박에서 해방됨으로써 자국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타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 수 없다》(맑스 엥겔스 전집 제 18 권, 509 페지), 《다른 민족을 노예화하는 민족은 자기 자신의 철쇄를 만드는 것이다.》(맑스 엥겔스 전집 제 16 권, 438 페지)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였다. 레닌은 이것을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이 견지하여야 할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하였다.

제 1 국제당은 맑스주의의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시종일관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하였으며 압박 민족의 로동 계급과 전 세계 로동 계급에게 타민족을 억압하는 모든 지배 계급들의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성원하며 원조하도록 호소하였다.

제 1 국제당의 이러한 립장은 아일랜드 및 파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태도에서 명백히 표현되였다.

맑스와 제 1 국제당은 영국의 식민지적 지배를 반대하고 민족적 해방을 위한 아일랜드 인민의 투쟁(19 세기 60 년대)을 적극 지지하였다.

1869년 12월에는 직접 비밀 통보를 발송하여 영국으로부터의 아일랜드의 분리를 주장하며 아일랜드 인민과 영국 로동 계급의 자유로운 동맹을 위해 투쟁하도록 로동 계급에 호소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적 지배를 철폐하는 것은 곧 영국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을 촉진

시키는 결정적 고리로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국 로동 계급은 아일랜드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무조건 지지하여야 하며 그것이 곧 자신의 해방을 위한 길이라고 하였다.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은 파란 독립 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립장에 서 있었다. 파란의 해방은 당시 구라파의 헌병의 역할을 하고 있던 짜리 로씨야에 타격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로씨야와 구라파의 혁명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였다. 그리 하여 맑스는 파란의 해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맑스의 제의에 의하여 제 1 국제당 제네바 대회는 짜리 로씨야로부터 독립된 민주주의적 파란의 창설을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제 1 국제당 시기 맑스에 의하여 제기된 민족 문제에 관한 사상은 식민지 민족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의 기초로 되였으며 제 1 국제당 활동의 불멸의 혁명적 전통으로 되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가 서거한 후 레닌은 맑스주의를 수정하여 나선 제 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민족 문제에 관한 맑스의 학설과 제 1 국제당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였다.

제 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은 민족 문제를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과 분리시키서 고립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그것을 자본주의 테두리 내에서의 일부 문명한 소수 민족의 부분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로 국한시켰다. 그들은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껏해서 민족 문제를 민족 자치권의 문제에 한정시켰으며 심지어 문화적 자치권으로만 인정하였다. 정치적 및 경제적 해방과 자립을 떠난 민족의 《권리》란 사실 상 유명무실한 것이며 하나의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레닌은 민족 문제에 관한 맑스의 학설을 외곡한 제 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의 배신적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고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서 민족 문제를 구라파 국가들에서의 강대 민족의 압박을 반대하는 소수 민족의 투쟁으로부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을 해방할 데 대한 세계적 문제로 제기하였다. 즉 《…백인종과 흑인종, 구라파인과 아세아인, 제국주의의 〈문명한〉 노예와 〈미개한〉 노예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 하여 민족 문제와 식민지 문제를 련결시켰다》 (쓰딸린, 《레닌주의 기본에 대하여》 84 페지).

이리 하여 민족 문제는 부분적인 국내적 문제로부터 예속국과 식민지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에 관한 세계적 문제로 되였으며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반적 문제의 한 부분으로 제기되였다.

레닌은 제 1 국제당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는 제국주의의·식민지적 지배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모든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을 무조건 지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족 해방 투쟁을 무조건 지지하며 필요하다면 무장으로써도 그것을 원조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적 립장이다.

특히 승리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가능한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수단을 다하여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것을 자체의 계급적 본성에서 나오는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동맹군을 강화할 수 있으며 세계 혁명 위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사람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지지와 원조를 주지 않으며 주는 경우에도 그것을 마치 어떤 《혜택》이나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맑스주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혁명 투쟁의 실천 속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제 1 국제당의 혁명적 전통에 대한 배반이다.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주는 원조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호상성을 가진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승리한 나라 측으로부터의 이러한 원조의 특징은 그 원조가 다른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의 승리를 촉진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승리를 쉽게 하여 줌으로써 승리한 첫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한다는 데도 있는 것이다》(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548 페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에서 폭풍우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은 세계 사회주의 력량과 더불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강유력한 혁명 력량을 이루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그것이 어떤 지역, 어떤 나라에서의 민족 해방 혁명이건 그 모든 혁명 투쟁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지와 원조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본질 상 구라파 로동 운동만을 인정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차요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계급에게는 구라파 로동 운동 뿐만 아니라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혁명 투쟁 이 모두가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는 피압박 인민들을 적극 지지할 대신에 그것이 핵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다는 황당한 구실 하에 이 투쟁을 외면하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각 사회계 대표들이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대책을 토의하며 그들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들과 집회들을 극력 반대하여 나서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을 《인종주의적》, 《폐쇄적》, 《앞잡이 집단》의 활동이라고 비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혁명에 싫증을 느낀 나머지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원조하지도 않으면서 남까지 혁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제 1 국제당의 위대한 혁명적인 원칙을 고수하며 앙양되고 있는 세계 피압박 민족들의 민족 해방 혁명을 적극 지지하여야 하며 원조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기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시종일관 확고히 지지하여 왔고 또 지지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깊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의 일환이며 평화 유지의 강력한 요인입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을 자기의 대외 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원조할 데 대한 제 1 국제당의 리념은 오늘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을 견지하는 맑스-레닌주의당들의 대외 정책에서 빛나게 구현되고 있으며 실천에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 *

제 1 국제당의 혁명적 전통은 오늘 세계의 모든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고 있다.

우리 당은 제 1 국제당의 혁명적 원칙과 그 기본 사상, 기회주의와 개량주의에 대한 그 비타협적인 투쟁 정신을 철저히 계승하여 왔으며 또 그것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맑스주의의 순결성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를 진행하던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시종일관하게 제 1 국제당의 위대한 기치였던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에 충실하였으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정확히 관철시켰다.

그들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특히 세계 혁명의 기지였으며 최초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쏘련을 옹호하며 형제적 중국 인민들의 혁명 세력과 공동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였으며 또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조선 인민의 항일 무장 투쟁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요한 일환이였으며 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강대한 적들과의 싸움에서 사회주의의 동방 초소를 수호함으로써 자기의 국제주의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우리 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의견 상이가 발생한 첫날부터 계속 단결의 원칙을 수호하여 왔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적들의 면전에서 의견 상이를 로출시켰을 때 공개적인 론쟁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내부 문제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형제당들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려는 책동을 반대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과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고 이를 분렬시키려는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한다.

제 1 국제당과 그 이후의 모든 경험은 기회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맑스주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혁명 운동을 추진시킬 수 없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달성할 수 없다

는 것을 보여 주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좌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며 종파주의와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공산주의 대오의 순결성을 튼튼히 수호하였으며 오늘도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제 1 국제당의 혁명적 사상과 기본 원칙,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며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오늘 비록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현대 수정주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고 있지만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근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수정주의는 분쇄될 것이며 조성된 시련은 극복되고야 말 것이다.

제 1 국제당의 창건 후 지난 100년간에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전진 도상에는 수다한 난관들이 있었으며 준엄한 시련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타개되고야 말았으며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은 앞으로 힘 있게 전진하였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계속 제 1 국제당의 혁명 정신과 원칙,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하에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전문화, 협동화는 현시기 기계 공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

홍 성 주

오늘 우리 당은 기계 공업에서 생산의 전문화, 협동화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현시기 이 부문에서의 전문화, 협동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기계 공업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기계 설비에 대한 증대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해결하는 주요 요인으로 되였기 때문이다.

전에는 속 3 개년 계획 기간이나 지어는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지 않았으며 또 이렇게 제기될 수도 없었다. 기계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 공무 직장들이 해야 할 과업까지 기계 공업이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였던 지난 시기에는 기계 설비의 생산을 아무리 전문화하려고 하여도 그것은 실현될 수 없었다.

기계 공업에서 전문화, 협동화를 강력히 촉진하는 것은 조성된 현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 문제이다. 그것은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기계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급속히 장성되였고 또 전국의 기계 공업이 유일한 지도 체계에 통합되여 이 부문에서의 생산 조직을 더욱 합리화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린 오늘의 조건에 기초하여 제기된 문제이다.

우리 당은 해방된 첫날부터 기계 공업을 창설 발전시키는 데 큰 주의를 돌렸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복구 개건기에 의례히 제기되는 과업, 기계 설비에 대한 다양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보장하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계 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그 발전의 장래 전망을 고려하여 기계 공업에서 생산의 전문화를 점차적으로 조직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당의 이러한 방침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 기간 철저히 관철되였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어려운 때에 김 일성 동지는 벌써 덕천 자동차 공장, 기양 뜨락또르 공장, 희천 공작 기계 공장 등 대규모의 전문 기계 공장들과 그 공장 주요 제품 생산의 계렬까지 규정해 주었다.

또한 당은 기계 공장들의 성격을 확정하며 공장들에 전문화 작업반, 전문화 직장을 조직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점차 모든 공장들을 전문화된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의 정확한 방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계 공업은 전후 3 개년 계획과 5 개년 계획 수행에서 자기에게 부과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면서도 오늘과

같은 자체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할 수 있었으며 각종 대형 기계, 정밀 기계들, 각종 특수 설비 및 부속품의 생산을 전문화할 수 있었다.

기계 공업 부문에서 달성된 이러한 성과는 기계 공업을 전문화하는 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결실인 동시에 앞으로 이 부문에서 전문화와 협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기계 공업의 전문화, 협동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 기술적 조건이 마련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전문화, 협동화가 현실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조건은 전국의 기계 공업을 유일한 지도 체계에 통합함으로써 기계 생산에서 분산성을 청산할 수 있게 된 그것이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근거하여 지난해 기계 공업 위원회를 조직하고 100여 개에 달하는 전국의 기계 공장들을 하나의 통일적인 지도 체계에 망라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기계 공업에서 생산의 전문화, 협동화를 강화하며 그의 전문화 수준을 한 계단 높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대책이였다.

기계 공업 위원회가 조직되기 이전에는 많지 않았던 기계 공장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요구하는 각이한 품종의 기계 설비들을 생산 보장해야 하였던 관계로 몇 개 공장을 제외한 모든 기계 공장들에서 부득불 수십 종에 달하는 기계 제품들을 각각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게다가 이 부문에서의 계획화 수준이 높지 못하고 생산 조직이 잘 째이지 못하였던 탓으로 응당 공장 성격에 맞게 생산을 전문화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한 것이 적지 않았다.

전국의 기계 공업을 유일한 지도 체계에 통합한 기계 공업 위원회의 조직은 일부 경제 성들의 기관 본위주의를 극복하며 기계 생산에서의 분산성을 퇴치케 함으로써 기계 공업에서 전문화, 협동화를 강화하고 그의 수준을 일층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었다.

기계 공업 위원회가 조직된 후 지난 1년 간의 생활은 이것을 명백히 실증해 준다. 기계 공업 위원회가 조직되기 이전에 비하여 오늘 전문화된 공장 수는 1.8배로, 전문화된 생산 지표는 1.9배로 각각 급격히 장성하였다. 이와 같이 기계 공업에서 생산의 전문화 수준이 높아진 결과 기계 공업 제품들의 질이 종전에 비하여 훨씬 제고되였고 앞으로는 더욱더 제고될 수 있게 되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은 현시기 기계 공업에서 생산의 전문화, 협동화를 강화하는 것이 완전히 성숙된 문제로 되였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여 준다.

그러면 우리 당이 오늘 기계 공업에서의 전문화, 협동화를 어째서 그와 같이 강조하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하에 지난 기간 기계 공업 부문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는 기계 공업 발전을 방해하는 원쑤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인민 경제 발전의 기초인 현대적 기계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그에 의거하여 자기 손으로 뜨락또르, 자동차,

각종 농기계들을 만들어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추진시키고 있으며 광산, 탄광, 야금 공장, 화학 공장 등 현대적 공장들을 자체의 기계 설비들로 장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계 공업은 그 발전 력사가 짧고 일'군들의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민 경제의 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 하였다.

기계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를 더욱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는 것—이것이 오늘 기계 공업 부문 앞에 나선 당면 과업이며 우리가 힘을 집중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기계 공업의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 문제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승리를 의미한다. 왜냐 하면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 문제로 된 그 자체가 원래 락후했고 전쟁으로 인하여 여지 없이 파괴되였던 우리의 기계 공업이 얼마나 멀리 전진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증시하는 척도로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성된 조건에 근거하여 기계 공업에서 생산의 전문화를 일층 발전시키는 것은 기계 공업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계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것은 생산의 전문화가 기계 공업의 발전에 미길 영향을 분석해 보면 명백하게 된다.

기계 공업에서 생산의 전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기계 공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기계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할 것이다.

생산의 전문화는 생산 과정에서 손로동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며 일'군들에게 높은 기술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기계 공업의 기술 장비 수준을 제고하며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 생산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생활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공작 기계를 비롯한 이미 전문화되여 있는 기계 제품들은 그 성능에 있어서나 그 형에 있어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비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것은 생산의 전문화가 기계 제품의 질을 제고케 하는 중요한 방도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로, 기계 공업에서 생산의 전문화는 기계 제품의 대량 생산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전문화는 생산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며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이 반복되는 특성에 기초하여 생산 조직을 대량적 생산 방법, 례하면 흐름식으로 개편하며 생산에 자동선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 경제는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다 같이 대규모적 기계 생산의 토대 우에 서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기계 설비에 대한 큰 수요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 구조, 현대적 기술 및 자체의 튼튼한 원료 기지를 가진 우리 나라의 경제는 기계 설비에 대한 커다란 수요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동북에 위치하고 있

는 우리 나라는 공작 기계를 비롯한 많은 기계 제품에 대한 광활한 대외 시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계 공업에서 생산의 전문화를 추진하여 기계 제품의 대량 생산을 적극 조직하고 그것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로, 기계 공업에서 생산의 전문화를 강화하는 것은 기계 공업 부문 간, 부문 내 생산 간, 기종 간, 공정 간 균형을 맞추고 기계 공업의 구조를 완비하여 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전문화는 생산해야 할 대상을 고정시킨다. 이것은 기업소, 직장, 기종에 항상 동일한 부하를 걸게 한다. 그러나 전문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기종에 대한 부하에서 류동이 심하다. 이것은 기종 간, 공정 간에 불균형을 초래케 하며 높은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하는 데 저애를 준다.

우리의 기계 공업이 최신의 기계 설비들로 꾸려졌고 구성이 매우 균일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의 로동 생산성이 높지 못한 것은 기종 간의 구성, 례하면 일반 기계와 특수 기계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생산의 전문화는 동일한 제작 공정을 반복케 하기 때문에 어느 부문이 약한 고리이며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생산의 전문화는 기계 공업의 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그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 고리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기계 공업의 전문화, 협동화에서 일정한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계 공업을 전문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계 공업 발전을 위한 당의 중요 방침인 전문화, 협동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완강히 투쟁할 것이다.

* *

기계 공업의 전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 것은 전국적인 기계 공장을 전문화, 협동화 체계에 망라하는 원칙에서 개별적인 공장의 성격에 부합되게 생산의 전문화 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전문화 안이 없이는 전국적인 기계 공업을 전망성 있게 꾸릴 수 없으며 기계 공업의 기술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킬 수 없다.

기계 공업 위원회가 나온 이후에 생산의 전문화가 응당한 수준에서 조직되지 못한 것은 바로 공장의 전문화 안을 잘 작성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기계 공업에서 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소재 생산과 규격품 및 특수 부속품 생산의 전문화에서 점차 완제품 생산의 전문화에로 이행할 데 대한 당의 전문화의 기본 방향에 립각하여 시급히 구체적인 공장 전문화 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 전문화 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이 주관에 의하여 그것을 관료주의적으로 작성하려는 성, 국 일

부 일'군들의 무책임성과 적전히 투쟁하는 것이다.

공장 전문화 안은 책임 일'군들과 유능한 전문 일'군들이 공장에 내려 가서 그 공장의 생산 경험, 종업원 구성, 설비 상태, 교통 운수 조건 등과 그 공장의 발전 전망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공장 평정서를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집체적인 심중한 토의를 거쳐 작성할 때만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될 수 있으며 생산에 대한 추동적인 역할을 놀 수 있다.

운산 공구 공장에서의 지난 1 년 간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공장 실태 조사에 의한 정확한 전문화 안을 작성하고 생산 조직을 철저히 진행하면 기술 준비가 생산에 선행되고 생산이 정상화되여 생산성이 급속히 장성하게 되며 생산된 기계 제품의 질도 훨씬 개선되게 된다.

기계 공업의 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된 공장 전문화 안에 의거하여 전문화를 위한 조직을 잘 진행하는 것이다.

지금 기계 공업에서 전문화된 생산은 이 부문에서의 중요 생산 지표에 비하여 볼 때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우리 앞에는 지어진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기계 공업의 전문화에서의 이러한 상태를 하루속히 청산해야 할 문제가 첨예하게 나서고 있다.

우선 기계 공업 위원회 산하 모든 기계 공장들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점차 전국적인 전문화, 협동화 체계에 망라시키는 방향에서 될수록 모든 공장들을 전문화된 공장으로 만들 것이다. 동시에 전문 공장이 못 된 공장들에서는 전문화 직장, 전문화 작업반들을 조직하여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계 설비, 규격품, 특수 부속품들을 시급히 전문화하고 일'군들에게 생산되는 기계 제품의 특성, 형, 재질 등에 대한 높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얻게 하며 전문화의 토대를 닦는 것이 긴절하다.

기계 공업의 전문화를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전문화의 기본 방향에 따라 주강, 주물, 단조품 등 소재 생산을 전문화하는 것이 선참으로 나서는 문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국의 소재 생산 능력과 그 수요량을 지역 단위로 조사하고 소재를 1 개월분 씩 생산에 선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전문화의 제 1 단계에서는 재질, 규격이 동일하고 수량이 많은 소재를 전문화하며 점차 모든 소재 생산을 전문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화 조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 정해진 전문 공장에서 생산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원래의 공장에서 그것을 중지하지 말고 생산을 이중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기계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혼란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계 공업의 전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 공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앞으로 해야 할 과업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기계 공업은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다. 그러므로 기계 공업을 전문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계속 기계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전문화된 공장을 중심으로 꾸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뜨락또르, 자동차 및 채취 기계 공장들과 그의 협동 생산을 담당한 공장들을 선차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계 공업을 꾸림에 있어서 약한 부문을 보강하고 없는 것을 보충하여 생산 구조를 더욱 완비함으로써 기종 간, 제작 공정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의 기계 공업은 빨리 나가는 행정에서 그 구조 상 일부 갖추어야 할 부문을 미처 갖추지 못하고 넘어 온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공 공정에 비하여 주강, 주물, 열처리 등 선행 공정이 따라 서지 못하며 일반 기계 공업에 비하여 전기 기계 공업이, 전기 기계 공업 내부에서도 전기 절연물 공업이 뒤떨어지고 있다. 절삭 기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선반류에 비하여 치절, 연마반, 보링, 타닝 등 특수 기계 설비들이 부족하다.

만약에 현재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의 기종 간 균형만 맞춘다하더라도 현재 능력으로 15~20%의 생산성을 더 낼 수 있다.

또한 기계 공업에서 전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서의 계획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아무리 공장을 튼튼히 꾸려 놓았다하더라도 전문화 체계에 대한 심중한 고려 없이 되는 대로 계획을 작성 시달하면 전문화는 정확히 실현될 수 없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지난 시기 적지 않은 공장들과 제품 생산이 전문화 체계에 망라되였지만 아직 전문화가 정확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바로 공장의 성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산 지표들을 공장에 시달하거나 생산이 바쁘다 하여 같은 종류의 기계 설비 생산을 여러 공장에 분산시킨 데 있다.

전문화를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계 공업 부문 일'군들은 기계 제품의 제작 공정, 생산되는 제품의 사명, 제작에 소요되는 소재 등에 의하여 생산 지표들을 명백히 구분하고 지역적 조건, 공장의 생산 경험, 로동자들의 기능 등 생산의 제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계획을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생산의 전문화는 사회적 분업 발전의 한 형태이다. 공업에서 분업이 심화되고 생산의 전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부문 및 기업소 간의 생산적 련계는 더욱 강화된다. 전문화의 발전은 생산의 협동화를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계 공업에서 생산되는 기계 설비들은 기술적 특성이 서로 다르고 재질이 각이한 소재와 수많은 부속품, 부분품, 각종 계기 등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한 공장에서는 도저히 수백 수천 종에 달하는 부속품과 부분품들을 생산할 수 없으며 만약에 생산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하게 기계 설비들과 원자재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없게 할 것이다. 협동화

를 잘 조직함으로써만이 모든 원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생산 능력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우리 당이 현시기 기계 공업에서 전문화의 발전을 강조함과 동시에 협동화의 강화를 요구하는 리유가 있다.

기계 공업에서 협동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협동 생산을 잘 조직하는 것이다.

협동화한다고 해서 기계 설비들에 대한 부속품과 부분품 생산을 지나치게 세분하거나 또는 제품을 완성하는 공장에서 능히 생산할 수 있는 것까지도 타산 없이 이곳 저곳에 협동 생산을 조직하면 도리여 완제품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할 수 있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 생산 조직은 생산의 전문화와 밀접히 련관시켜 조직할 것이며 협동 생산 범위를 될수록 간소화할 것이다.

협동 생산은 또한 기업소 호상간에 생산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적 기계 설비들은 수백 수천 종에 달하는 부속품, 부분품의 결합인 만큼 그 중에 한 개의 볼트, 나트가 없어도 그 제품은 완성되지 못 한다. 오늘 일부 기계 공장들에서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업소 간에 협동 생산품을 정확히 납입하지 못 하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성, 국, 기업소들에서는 각종 련결 부속품, 부분품, 각종 계기, 각종 원동기 등의 소요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때에 그리고 정확히 생산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기계 공업에서 생산의 협동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협동 생산에서 나타나는 기관 본위주의를 극복하며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는 볼트, 나트를 비롯한 작은 부속품이 한 개만 없어도 자동차나 뜨락또르와 같은 큰 기계들이 생산되지 못 한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비록 작고 간단한 부속인지라도 높은 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도 일'군들은 협동 생산품을 담당한 공장들에서 금액이 높은 제품 생산에만 몰두하고 협동 생산품을 차요시하여 그것을 뒤로 밀거나 되는 대로 생산하려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성, 국, 기업소들에서는 협동 생산에서 생산 조직 사업과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기업소들에서 협동 생산품을 순 별, 지표 별로 어김 없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

기계 공업에서의 전문화, 협동화를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하자면 이 부문의 각급 당 조직들에서 당 조직 정치 사업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전문화, 협동화에 대한 우리 당 정책이 가지는 정치 경제적 의의와 그 필요성을 철저히 침투시키며 그들에게 전문화, 협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똑똑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합리적인 전문화, 협동화 안을 작성하고 그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직 정치적 대책을 빈틈 없이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화, 협동화에 대한 당 정책 집행 정형을 수시로 총화 분석하고 그 정형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철저히 침투시켜 잘못되는 것을 제때에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끝으로 기계 공업 부문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전문화, 협동화의 당 정책 집행에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편향성과 불건전한 사상적 요소들과는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기초 과학의 발전

도 상 록

과학의 발전에 최대의 관심과 배려를 돌리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그것은 과학이 이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시 자연 과학 및 기술 과학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관련해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부르죠아지에게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는 과학 발전이 로동 계급에게 복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립한다. 부르죠아지는 과학을 자본주의 제도의 정치, 경제, 군사적 강화에 리용하며 피착취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데 리용한다.

과학이 자본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에게 복무할 수 없다.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점 자본의 리윤 추구에 복무하는 과학은 불가피하게 제한성을 면할 수 없다.

오직 과학의 모든 성과를 인민에게 복무시키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이 과학의 발전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이 조성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과학 발전의 도상에 가로놓은 온갖 장애물들을 제거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 불가피적이였던 과학 사업에 있어서의 분산성, 자연 생장성, 고립성 등이 없어지고 인민 경제의 긴절한 문제의 연구를 위하여 과학의 모든 력량과 수단이 계획적으로 또 합목적적으로 리용된다.

사회주의 건설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자연을 정복하고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연 부원을 최대한으로 리용 개조하는 계획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어느 사회보다도 객관적 현실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생산 실천이란 자연을 정복하는 투쟁이여서 자연의 비밀을 탐지하며 그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함으로써만 계획적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전개될 수 있다.

나라의 생산력 발전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었고 생산 활동의 범위가 넓지 못 하였던 때에도 과학 지식은 필요하였다. 그러나 그 때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비할 수는 없다.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확고히 축성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적인 설비로써 장비되였으며 이미 마

련된 밀칙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된 오늘에 와서 생산 발전은 급속한 해결을 요하는 새로운 복잡한 과제들을 과학 앞에 제기하고 있으며 생산과 과학은 보다 밀접히 결부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은 본질 상 생산력에 의존되지만 또 과학은 생산력에 반작용하면서 그의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준다.

생산은 일정한 과학 기술적 토대에 의거하고 있으며 생산력은 과학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생산 도구의 성격과 작용은 과학에 의하여 구명되는 물질 세계의 발전 법칙에 의존한다. 사람들은 생산 활동 과정에서 인식된 자연의 법칙에 의거하여 또 그에 상응하게 생산에 필요한 로동 도구들을 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인식이 심화 발전될수록 그에 의존하는 생산 도구도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과학은 생산 도구의 제작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결정적 요소로서의 생산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산자들은 자연의 법칙에 준하여 생산 도구를 리용하며 자연을 개조해 나간다. 생산자들은 또한 과학 지식에 기초하여 기술 기능을 체득하며 자신을 완숙시켜 나간다.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인류가 이룩한 지식의 부문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풍부히 만들어야 한다는 레닌의 지적을 여기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생산력과 과학 사이에 맺어지는 이상과 같은 련계는 과학과 생산이 서로 밀접히 결합되고 호상 의존해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초 과학의 발전이 생산과 과학의 련관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합성 섬유의 례를 놓고 보자. 견직물 대용 섬유로서 나이론이 나왔고 면직물 대용 섬유로서 비날론이 나왔다. 또한 모직물 대용 섬유로서 니트론(아밀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모직물, 견직물 및 면직물을 다 대신하는 폴리프로필렌 섬유가 나타나서 섬유 공업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비중이 물보다 적어서 종래의 어느 합성 섬유보다 가볍고 질이 우수하다. 그런데 이 섬유는 화학의 가장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발단되였다. 즉 동일한 분자의 많은 수가 긴 쇠사슬처럼 결합하여 한 개의 큰 분자를 형성하는 반응을 중합이라고 부르는데, 합성 섬유는 중합 반응에 의하는 것이다. 중합을 실현시키는 종래의 방법은 촉매의 존재 하에서 높은 온도와 큰 압력을 가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자연계에서는 보통 온도와 보통 압력 하에서 훌륭한 섬유가 형성된다. 이 비밀을 알아 내는 투쟁에 있어서 첫 개가를 올린 것이 금속 유기 화합물을 촉매로 하는 립체 특성 중합이라는 것이다. 이 방법에 기초하면 보통 온도와 보통 압력 하에서 중합이 진행된다.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석유 가공에서 발생하는 기체인 프로필렌을 립체 특성 중합의 방법으로 중합해서 얻는 것이다.

원자력 공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정

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핵 물리 실험실에서 핵 반응 실험을 하는 과정에 큰 원자 핵이 두 개의 비슷한 부분으로 분렬하는 핵 분렬 현상이 20 세기 30 년대 말에 알려졌고 이것이 오늘의 원자력 공업의 발단으로 되였다. 인류의 동력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지향하는 원자력 공업은 전 세계 선량한 인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전진하고 있으며 첫 원자력 발전소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룩되였다.

이렇듯 기초 과학의 발전은 생산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생산과 과학의 련관을 높은 단계에로 끌어 올린다.

기초 과학을 발전시킬 필요성은 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김 일성 동지는 제 4 차 당 대회 보고에서 새로운 과학 분야들을 개척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 과학 부문들을 급격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교시하였다. 이것은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중요한 측면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새로운 대고조에 들어 섰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나라의 경제적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 과업 수행에서 온갖 열성과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대중의 혁명적 정열에 의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기적들이 창조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히 진척되고 있다.

방대한 규모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민 경제는 과학의 보다 급속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 공정의 기계화와 자동화, 농촌 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 채취 공업의 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들을 생산에 도입 일반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부과된 영예로운 과업이다.

* *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과학 연구 사업에 있어서의 주체 확립 문제이다.

주체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귀중한 문화 유산을 현대 과학적 수단으로써 분석 정리하여 옳은 계승 체계를 수립하며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면서 선진 과학의 연구와 새로운 과학 분야의 개척을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지난 시기 과학 분야에서 달성한 큰 성과들은 과학 연구에서 주체를 확립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김 봉한 박사를 비롯한 우리의 붉은 과학 집단이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되며 인류의 과학 발전 력사에서 찬란히 빛날 경락 연구에서 달성한 업적은 우리 당 주체 사상의 뚜렷한 결실이다.

종전 학설에 의하면 신경을 가진 유기체 내의 모든 작용은 신경 계통에 의하여 유일적으로 지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양 작용도 신경이 지배할 것이다. 이 영양 작용은 아직까지 미해결 부분으로 되여 있어서 치료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였다. 김 봉한 박사는 신경이 영양 작용을 직접 지배한다고 보고서 연구를 추진시켰는데 결과는 부정적이였다. 신경은 자극을 전기적으로 전달하는 신호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영양 작용과 같은 화학적 작용을 지배하지 못 하는 것이 판명되였다. 모든 실험적 결과들이 이와 일치하였다. 물질 대사의 화학적 작용을 지배하는 것은 신경도 아니고 호르몬도 아닌 것이다. 이것은 놀랠 만한 결과이다. 원래 물질 대사를 설명하기에는 서양 의학이 너무도 빈약한 것이다.

그러면 영양 작용을 지배하는 조직은 무엇이겠는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김 봉한 박사는 우리의 고귀한 문화 유산인 경락 연구에 몰두하였다. 의학에 관한 선조들의 유산을 허 준이 16 세기 말 17 세기 초에 체계화한 데 의하면 경락은 경험적 령역에 속한다. 경락이라는 것이 있어서 경맥을 통하여 내장에 련결되여 있다고만 하였고 실험적 론증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경혈(침'구멍)에 침을 놓으면 경혈과 전연 무관계한듯이 보여지는 다른 부분의 병이 낫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기체 내에 새로운 어떤 조직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새 조직이 있으면 이것을 찾을 수 있겠고, 김 봉한 박사는 이것을 찾기에 전념하였다. 물론 다른 나라 학자들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었으나 새 조직을 찾는 방법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나라 학자들은 이 새 조직을 신경과 혈관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과거 리론의 울타리 안에서 찾으려는 것이였다. 그러나 김 봉한 박사는 새 조직을 신경이나 혈관과는 다른 제 3의 조직으로 보았다. 이것은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에 립각하여 유기체의 조직과 기능을 통일시켜 본 것이다. 연구 집단의 막대한 노력이 경주되여 드디여 1961년 8월에 경락의 실태인 봉한 소체와 봉한관을 발견하였다. 세계 학계에서는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유기체에는 경혈 밑에 봉한 소체가 있고 이 소체는 부근의 다른 부분보다 전압이 높다. 봉한 소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표층 봉한 소체와 심층 봉한 소체로 구별된다. 봉한관은 표층 봉한 소체에서부터 출발하여 심층 봉한 소체에 닿고 다시 내장과 기관에 련결된다. 봉한관은 혈관과 림파관 내외를 통과하는데 대체로 혈관과 병행한다. 봉한관 내에는 봉한액(선조들이 말한 경액)이 흐르며 봉한액의 많은 부분이 핵산으로 되여 있다. 봉한관 자체가 또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모든 결과들은 우리를 황홀하게 만든다. 확신히 경락 연구 집단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을 열어 놓았다. 이것은 당의 주체 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위대한 승리이다.

과학에서의 주체 사상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을 믿고 자기 자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김 일성 종합 대학 창립 1 주년 기념 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교시하였다: 《동무들은 조선의 농사를 더 잘 짓고 조선의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과 국가 건설에 필요한 물자를 풍부히 만들어 내며 우리의 훌륭한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를 굳게 지켜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동무들의 손으로 부강한 우리 조국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기차도, 자동차도, 기선도 다 동무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내야 하며 찬란한 문학 예술도 동무들 자신에 의하여 창조되여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1 권, 1963년 판, 368 페지).

우리의 과학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령도를 받들고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혁명 정신으로 무장함으로써만 조선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생동성 있는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 어려운 혁명 과업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리 승기 원사를 비롯한 우리의 과학 집단이 비날론 대공업화에서 거둔 찬란한 업적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에 의해서 검신된 것이다.

견사를 대신하는 섬유로서 나이론이라는 합성 섬유가 나왔다. 견직물도 필요하지만 경지 면적이 제한된 조건을 타산하면서 리 승기 원사는 목화를 대신하는 합성 섬유를 찾는 길로 나갔다. 나이론은 폴리아미드 계통이나 목화는 폴리알콜 계통에 류사한 것이므로 목화를 대신하는 섬유를 찾는다는 문제는 폴리알콜 계통의 합성 섬유를 얻는 데 귀착된다. 그러나 폴리알콜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그것에 의하여 실을 뽑을 수는 없다. 리 승기 원사는 폴리알콜을 얻고 그것을 포르말린과 함께 처리해서 비가용성 실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은 섬유가 바로 비날론인바, 세계에서 처음으로 된 일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아래와 같다:

합성의 출발 물질은 카바이드이다. 카바이드에서 아세틸렌을 얻고 아세틸렌에 물을 작용시켜 아세트알데히드를 얻는다. 아세트알데히드를 공기 중의 산소로써 산화시켜 초산을 얻고 초산에 아세틸렌을 작용시켜 초산 비닐을 얻는다. 다시 초산 비닐을 중합해서 폴리비닐 초산을 얻고 이것을 가스 분해해서 폴리알콜인 폴리비닐 알콜을 얻는다. 폴리비닐 알콜을 얻는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섬유에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 오직 리 승기 원사가 폴리비닐 알콜을 앞에서 말한 공정으로 섬유에까지 이끌어 갔다. 그러나 아직 이 섬유는 실험실적 령역에 속해 있었다.

리 승기 원사는 드디여 비날론의 공업화를 위하여 심사 숙고하였다.

이미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의 장래를 명철하게 예견하고 남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화학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방향을 명백히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이 방향에 튼튼히 립각하여 비날론의 공업화를 계획한 것이다.

우선 비날론의 공업화를 위해서는 대량적으로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출발 원료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선다. 여기에 있어서 리 승기 원사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회석과 무연탄에 착안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석회석과 무연탄은 매장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질도 우수하다. 당에 의하여 육성되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교양된 붉은 과학자들은 이 풍부한 지하 자원을 리용하는 데 착안하였다. 즉 출발 물질을 달리도 할 수 있겠으나 카바이드에 착안한 것이다. 카바이드는 석회석에서 생석회를 얻고 생석회와 무연탄을 혼합해서 전연하면 얻게 된다.

그러나 비날론의 대공업화에는 타개하여야 할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첫째로 이야기하여야 할 것은 촉매 문제이다. 초산 제조 공정에 촉매로서 활성탄을 사용하는데 이 활성탄은 갓나무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비날론 연구 집단은 갓나무를 피하고 보통 나무를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쓰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촉매를 처음에는 고정식으로 사용했으나 생산성이 낮으므로 비동식으로 교체했다. 비동식 촉매의 리용은 중간 공장에서 지장이 없었는데 큰 공장에서 각종 결합을 발로시켜 난관에 부닥쳤다. 결국 공간 속도를 높여서 해결하였다. 둘째로 제기된 난관은 초산 회수 문제였다. 즉 폴리비닐 초산에서 폴리비닐 알콜을 얻는 공정의 부산물인 초산을 회수하여야 공장의 경제적 채산이 맞는 것이다. 이 문제도 우리의 다른 화학 집단에 의하여 해결되였다. 끝으로 제기된 난관은 연신 공정이였으나 이것은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에 의하여 해결되였다.

이리 하여 년산 2만 톤의 능력을 가지는 세계 1 등급의 대비날론 공장이 건설되였으며 그의 생산은 이미 정상화되고 있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충만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혼연 일체가 되여 당의 과학 정책을 관철한 것이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우리의 학물 연구 집단에서도 빛나게 결실되였다.

꽃의 화분을 물에 넣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미립자들이 부단히 불규칙적인 운동을 계속하는데 이 현상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른다. 브라운 운동은 화률적 현상의 일종이고 화률적 현상은 자연계에 많이 존재한다. 전기 회로의 열잡음 같은 것도 잘 알려진 한 례이다. 브라운 운동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의 리론이 있으나 화률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일반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우연과 필연의 련관성 문제이다.

립자들로 구성된 이떤 계(집단)를 생각하고서 그 중의 한 립자에 착목하자. 이 계는 보통 의미의 계이여서 립

자의 위치가 시간에 의존한다. 이 때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된다고 말한다.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되면 단위 시간 동안에 위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는 이 립자가 어느 시각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한 변화량이 시간과 위치의 함수로 된다. 이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소위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된다. 이 미분 방정식에 의하면 계의 초기 상태를 알 때 그 이후의 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우연적인 요인이 참가하지 않는 과정(결정 과정)과 관련되여 있다. 이것이 보통 미분 방정식의 내용이다.

이제 브라운 운동을 생각하자. 브라운 운동을 하는 립자들을 한 개의 계로 생각하고 고찰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립자들이 시시각각으로 충돌하여 계의 상태는 불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여기에는 우연적인 요인이 참가한다. 이 때 립자가 어느 시각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 이후의 그 립자의 운명은 추적할 수 없다. 추적할 수 있다면 총체적으로 볼 때 통계적(확률적)으로 밖에 더 할 수 없다. 이 때 과정은 비결정 과정으로 된다

계의 어떤 한 립자에 착목하자.

단위 시간 동안에 위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는 확률적으로 밖에 더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은 또한 두 부분으로 갈라서 생각해야 된다. 즉 계가 총체적으로 이동하며 또한 립자들이 분산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에 위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는 계의 총체적인 이동 속도와 분산 속도를 포함하는 량으로써 확률적으로 표현된다. 이 관계를 식으로 표시한 것이 이른바 확률 미분 방정식이다.

확률 미분 방정식은 1950년 경에 알려졌다. 수백 년의 력사를 가진 보통 미분 방정식에 비하면 확률 미분 방정식은 아주 청소한 분야이다. 여러 나라 학자들이 확률 미분 방정식의 체계를 완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 하였고 우리 확률 연구 집단이 이것을 완성했다. 많은 난관들에 봉착했으나 그 때마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뚫고 나갔다. 특히 핵심적인 고리인 확률 적분의 변환 공식을 얻기에는 매우 어려웠다.

우리 확률 연구 집단이 얻은 결과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의 결과를 포괄하며 나아가서 여러 문제 전개에 좋은 무기를 제공해 준다.

특히 확률 미분 방정식의 체계의 완성은 우연성과 필연성이 서로 무관계한 것이 아니라 불가분적으로 련관되여 있으며 통일되여 있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 준다. 즉 확률 미분 방정식은 비결정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며 해의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치의 변화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확률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는 많은 우연성을 통하여 필연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며 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확률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으로 보면 필연적인 것이 우연적인 것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우연성과 필연성의 호상 련관과 통일이 수학적으로 정확히 표현된 것이다. 우리의 붉은 수학자들은 실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에 의해서만이 이룩될 수 있는 일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또한 과학을 생산에 접부시킬 데 대한 당의 과학 정책을 받들고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생산의 발전은 과학 기술적 토대에 의거하는 것이며 생산력은 과학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이와 같은 련계는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부시킨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이것을 뚫고 나가려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령도를 받들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매진할 때 비로소 과학과 생산이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러는 과정에서 과학과 생산은 호상 의존해서 발전한다.

물론 기초 과학의 발전이 생산과 과학의 련관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나, 여기에 기술 과학의 급속한 발전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당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기초 과학과 기술 과학을 발전시키며 이것들을 생산에 밀접히 결부시킬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 달성한 과학 기술적 제 성과들은 이와 같은 당의 과학 정책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칼리스, 련속 제강, 암모니아 합성 등은 바로 이러한 결실인 것이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과학 연구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찬란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이것은 당의 과학 정책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당은 해방 직후부터 과학 발전을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강력히 추진시켜 왔다. 과학 간부 대렬을 꾸리는 일부터 시작하여 연구 시설을 정비하는 데 이르기까지 깊은 배려를 돌려 왔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가렬한 조국 전쟁 시기에 과학원이 창설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과학 발전에 일대 전환을 가져 왔다. 연구 집단들이 강화되였으며 과학이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게 되였다.

과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체를 확립하는 것이다. 당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선 혁명을 위하여 전통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자기들의 온갖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는 붉은 집단들로 뭉쳐졌다.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끊임 없는 배려를 돌려 주었다.

1960년에 리 승기 원사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였다:

리 승기 선생에게

며칠 전에 나는 박 금철 동지에게서 선생이 병환으로 인하여 입원 중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의 병 치료에 도움이 될가 하여 방금 강원도 내 농민들이 나에게 보내 온 산삼 두 뿌리를 송정합니다. 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합니다.

김 일 성

1960년 10월 25일

이것이 어찌 리 승기 원사 개인에 대한 배려일가. 우리 붉은 과학자, 기술자 전체에 대한 배려이며 신임인 것이다.

이러한 당이 있고 수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과학은 개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과학이 전면적으로 세계 수준에 닿으며 이것을 릉가할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물론 우리 앞에는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축성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로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할 과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민족 경제를 건설함에 있어서 과학 기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거니와 특히 기계 공업을 일층 발전시키며 자동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 나선다. 여기에서 기초 과학의 급속한 발전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것은 례하면 자동화의 원격 조종 문제를 생각할 때 명확히 리해할 수 있겠다. 현재 원격 조종은 8 센치 메터의 파장으로 달의 표면 상태를 지상에서 기록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지구 표면 상에서의 원격 조종은 출력이 150 키로 와트일 때 500 메터의 거리에 있는 것을 탐지하는 정도이다. 지금 첨예화되고 있는 문제는 수신기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인데, 100 리 밖에 있는 굿알 진지의 불'빛을 감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초 과학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어 기초 과학의 발전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기초 과학의 발전은 또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일층 높은 수준에 오르게 하는 데 기여한다.

우리는 기초 과학과 기술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며 그에 의거하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더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미제의 남조선 농촌 《교도》의 내막

량 태 호

남조선 농민들을 봉건적 및 제국주의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동시에 그들을 무지와 몽매에서 벗어 나게 하며 민족적 및 계급 의식을 높이는 문제는 조선 인민의 절박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년 간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실시한 농촌 《교도》(敎導) 정책은 남조선 농민들을 무지와 몽매 속에 몰아 넣었으며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좀먹었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농촌 《교도》 정책이 남조선 사회 혁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 농촌에 대한 미제의 《교도》 정책을 분석 비판하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을 각성시키며 전체 조선 인민의 반미 구국 투쟁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1

남조선에서 미제가 실시하고 있는 농촌 《교도》 정책의 중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농촌 진흥》, 《농촌 개발》에 대한 《계몽》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오늘 남조선 농촌의 락후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책이 마치 《교도》에 있는듯이 말하면서 《진흥》, 《개발》을 위한 《계몽》을 촉진시킴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놈이 내세우고 있는 이 구호는 외견 상에 있어서 사상 《계몽》의 내용보다 기술 경제적 내용이 정면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가 오늘과 같은 남조선 농촌의 파국을 빚어 낸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농촌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달콤한 말로써 합리화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실현함에 있어서 로골적인 폭압과 함께 설교의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국주의자들의 이 설교는 어데까지나 폭력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그것은 피압박 식민지 민족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미화 분식하는 회유, 기만 책동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폭력과 기만과 우연의 결과를 영원화하는 것—이것을 사람들은 안정이라고 불러 왔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의 안정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생산력들이 무참하게 희생되여 왔다》(《자본론》, 제 2 권, 424 페지).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가 실시하고 있는 농촌 《교도》 정책도 바로 그러한 기만적 수법의 하나이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농촌 《교도》라는 기만적 방법을 내세우게 된 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것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정세 발전에 의한 계급 력량 관계의 변동과 관련된다.

대전 후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그 위력의 강화, 식민지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급속한 앙양 특히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의 실시는 남조선 농민

들의 정치적 각성을 비상히 제고시켰다.

남조선 농민들의 봉건적 및 제국주의적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투쟁은 날로 높아 갔다.

이것은 미제의 남조선 농촌 략탈 정책에 대한 직접적 타격으로 되였다. 이제는 미제가 종전처럼 공공연하게 남조선 농촌을 착취 략탈할 수 없게 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하에서 농촌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계속 감행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파쑈적 탄압을 강화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회유, 기만 책동에 매달리게 되였다.

즉 미제는 자신을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자》로, 남조선 농민들의 리익의 《옹호자》로 가장하면서 온갖 기만적 설교를 감행하였다.

이리 하여 바로 미제의 농촌 《교도》 정책이 나오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가 처음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다. 이미 일제가 중 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자기들의 공고한 후방을 위한 림전 계획에 기초하여 《농촌 진흥》, 《농촌 개발》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었다.

일제는 이것을 조선에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정치 사상적 공간으로 리용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농촌 《교도》는 바로 일제의 그것을 새로운 정세에 맞게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개악한 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농촌 《교도》 정책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농민들 속에 공산주의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악랄한 중상과 비방, 파쑈적 군사 테로 독재의 미화, 사회적 혼란과 빈궁의 합리화 등 온갖 반동적 사상 선전을 강화하며 다른 편으로는 남조선 지배층, 지주, 부농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닦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가 이러한 책동을 감행함에 있어서 선차적 의의를 부여한 것은 농촌 《교도》를 통한 남조선 농민들의 우매화이다.

미제는 남조선 농촌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적응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지식을 허용하며 일체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지식을 극력 배제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남조선 농민들을 낡은 사상 인습에 얽매여 놓기 위하여 책동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이 각양한 반동적 이데올로기와 우매화 기구의 《진렬장》으로 전환된 것은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미제가 농촌 《교도》 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남조선 농촌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영원히 감행할 수 있는 경제적 지반과 함께 정치 사상적 지반을 꾸리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미제의 남조선 농촌 《교도》 정책은 농촌 수탈에 유리한 전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침략의 중요 공간으로 된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시기부터 자기들을 조선 인민의 《해방자》로 가장하고 일방으로 농민 운동을 로동 운동으로부터 떼여 내며 농민들을 무지와 몽매 속에 얽매여 놓으면서 타방으로는 남조선 농업 생산을 미국 독점 자본에 종속시키기 위하여 농촌 《교도》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괴뢰 정부와 각종 《협정》을 체결하며 베이시를 비롯한 미국 《교도》 전문가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교도법》 조작, 《교도》 체계 개편 등 각종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미제는 남조선 농촌 《교도》에 직접 간접적으로 간섭하였다.

《주한 미 대사관》, 《주한 미 경제 협조처》, 남조선에 침투한 미국 재단들은 각양한 방식을 통하여 농촌 《교도》 체계를 장악 통제하고 있다.

특히 《주한 미 경제 협조처》는 남조선 농촌 《교도》 사업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주한 미 경제 협조처》 내에 수십여 명에 달하는 미국인 행정관과 전문가, 미국에서 실려 낸 조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도과, 농업과, 지역 사회 개발과, 공보과 등 각종 전문 부서를 둔 사실,《중앙 농사원》과 도《농사원》 등에 수 많은 《고문》들을 파견하고 있는 사실이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자료 등을 수집하는 동시에 미국 독점 자본, 종교 기관, 간첩 기관들과 밀접히 련결되고 있는 남조선의 사회 단체들의 개입을 통하여 《교도》 활동을 지배 통제하고 있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농촌《교도》 정책은 서울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광범한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 《공보원》에 의해서도 조종되고 있다.

남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의 각급 《공보원》은 《계몽》과 미국 문화의 시의적(時宜的) 정보를 급속히 전파시킨다는 구호 밑에 《교도》 사업의 사상적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전 서울 주재 미 공보원장이였던 슈바카는 미국의 남조선 정책에 대하여 말하면서 《오늘날 미국은 물자 수단보다도 오히려 정신적 문화 교류에 치중하여야 한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벌리였다.

최근 박 정희 도당은 농촌《교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료 기구를 조작하였다.

1962년 4월 박 정희 도당은 종래의 《중앙 농사원》 체계와 《농림부》 소속 《지역 사회 개발국》을 통합하여 《농촌 진흥청》을 조작하였다.

여기에는 종전의 《농사원》의 하부 조직인 《농사 개량 구락부》와 내freezing을 조장하며 미국식 생활 양식을 주입하는 부녀 조직 《생활 개선 구락부》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 조직체를 모방한 《4 에취 구락부》 등이 망라되여 있다.

이 밖에도 《농촌 진흥청》은 《농업 조합》, 《재건 국민 운동 본부》, 각종 종교 및 사회 단체, 행정 기관, 특수 및 립시 편성 지도 기구 등 20여 개에 달하는 협조 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기구들은 례외 없이 미제의 식민지 농촌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사상 침략적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

《농촌 진흥청》 창설에 의하여 종전에 행정 기구로부터 분리되여 있던 도 《농사원》이 《도지사》 직속의 도 《농촌 진흥원》으로, 시, 군 《지도소》가 《시장》, 《군수》 직속인 시, 군 《농촌 지도소》로 개편되였다.

이 기구들에는 《교도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된 《부락 자체 지도자》들이 망라되여 있다. 《교도 공무원》은 그의 기능에 따라 《농사 지도원》,《생활 개선 지도원》, 《지역 사회 개발 지도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현지 고용 인'군으로서 2~4 개의 지정된 부락에 2 년간씩 파견된다.

이들은 농촌에서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은 물론 농민들의 가정 생활에까지 간섭하고 있다.

2

미제의 남조선 농촌 《교도》의 반동성은 《교도》 일'군들의 설교 내용에서 표현되고 있다.

첫째로, 《교도》 일'군들은 농민들속에 숭미, 공미 사상과 함께 《지역 사회 개발》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농촌에서 생산력의 파탄과 농민들의 빈궁이 미제의 략탈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천성적인 타태성》, 《무관심성》에 기인하는듯이 말하면서 농민들의 이러한 선천적인 고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지어 미제는 진부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말사스의 《과잉 인구론》까지 끌어다가 농촌의 빈궁의 원인을 변명하려 하고 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이 남조선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과를 회피하며 남조선

농민들의 불평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음흉하고 교활한 술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지역 사회 개발》은 본래 제 2 차 대전 후 애급에서 발단하여 비률빈, 타이,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에 보급된 것으로서 그것은 재정적 《원조》의 미명 하에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독점 자본의 대외 팽창을 보장해 주는 중요 수단으로 리용되여 왔다.

남조선에서의 《지역 사회 개발》에 대한 구호는 바로 그것을 수입한 것에 불과하다.

미제는 이 구호 밑에 부농층에 자금을 대여하여 양잠 및 양계 시범 농가, 생활 개선 시범 농가 등을 조직하며 일부 지역에 《시범 부락》 등을 조작하고 있으며 개량 변소, 공동 우물까지 만들게 하였다.

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농민들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주로는 농민 공동 부담으로 자기들의 착취에 유리한 각종 시설을 건설하며 이 시설 건설에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고 있다.

1960년에 37 개의 건설 대상에 투하된 기본 자재비만 보더라도 괴뢰 정부 《보조》금은 35만 원인데 농민 공동 부담액은 그의 2 배 이상에 달하였다.

이밖에 보조 자재비, 강제 부역 등을 따져 보면 농민 부담은 괴뢰 정부 《보조》액의 수십 배에 달한다.

제반 사실은 《지역 사회 개발》이야말로 미제가 남조선 농촌에서 식민지 예속화 체계를 공고화하며 독점적 고률 리윤 획득과 군사 기지화 정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술책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로, 미제와 괴뢰 도당은 《교도》 정책을 통하여 농민들 속에 미국식 생활양식, 종교, 봉건적 악습 및 미신을 조장하고 있다.

미제는 이를 위하여 《교도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 라지오, 영화, 연극, 교육 기관 등을 동원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이 남조선에서 조국 반역, 살인 행위 등 그 어떠한 악행도 《성공과 업적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규정된다.》고 쓰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농민들에 대한 《교도》는 중세기적인 몽매주의를 설교하는 종교 단체에 의해서 보충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종교 단체는 《교도》 정책 실현의 유력한 보조 단체로 되고 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하에 종교 단체는 《기독교 농민 학원》을 운영하여 수 많은 교인들을 《농업 교도 지도자》, 《농업 교도 선전원》으로 양성해 내고 있다. 이들은 《계몽 지도 진흥 개발》을 간판으로 하여 숭미 사상을 고취하며,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내대라.》는 종교의 교리를 설교하고 있다.

이 모든 미제의 사상 미숩'군들은 례외 없이 남조선 농민들에게 봉건적 노예 사상과 함께 봉건적 도덕 질서를 설교하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 량속을 더럽히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 봉건적 질서와 도덕을 례찬하는 야담 소설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되고 있으며 단식으로부터의 도피를 《정감록 비결》(鄭鑑錄秘訣) 예언서에서 찾고 있다.

미제의 충실한 사상 미숩군'들에 의한 우민화의 조장은 남조선 농촌에서 각종 미신을 더욱 범람케 하였다.

남조선 농촌에서는 한재 때 《기우제》를 지내며 수해, 병충해를 《조물주》의 자의(自意)에 귀결시키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의 고통과 불행을 불가항력적인 농민 자신의 《사주 팔자》에 귀착시키고 있다.

세째로, 농촌 《교도》 정책은 청소년들을 우매화시키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청소년들에 대한 우매화를 추진시키기 위하여 《4 에취 구락부》를 리용하고 있다.

《4 에취 구락부》는 《농업 기술 개량, 생활 개선, 교양 제고》 등을 표방하면서 《반공》 사상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며 미

제와 그 주구들의 농민 수탈의 방법을 은폐하여 청소년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남조선 방방곡곡에 조직된 《4 에취 구락부》에는 수 많은 청소년들을 강제로 망라시키고 있다. 1962년 현재 《4 에취 구락부》 수는 1만 7,364 개인데 여기에 10~20 세의 년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61만 6,000 명이 망라되고 있다.

미제는 이 조직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약간의 물질적 리해 관계를 결부시키면서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한 미 재단》과 《4 에취 구락부》에서 얼마 안 되는 자금을 청소년들에게 대부하여 주어 《가축 증식 경진회》, 《마령서 다수확 경진회》, 각종 《교육 경진회》, 《품평회》와 도별 순회 경진회, 《4 에취 연찬회》(硏鑽會) 등을 조직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숭미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일례로 된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농촌에 녀자 《교도원》까지 파견하여 《생활 개선 구락부》를 조직하게 하고 농촌 부녀자들에게 《생활 개선》의 환상을 주입시키며 미국식 생활 양식 및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 《생활 개선 구락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족 계획》을 강요하고 있으며 《재건 국민 운동의 신생활 체계》에 기초한 내핍 생활을 설교하고 있다.

네째로, 농촌 《교도원》들은 미국 독점 자본, 예속 자본, 지주 및 부농의 착취 지반을 구축하며 그들의 정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교도 공무원》들이 강요하고 있는 《지역 농정》(地域農政), 기독교 《교도 선전원》에 의한 《단지 생산 운동》(團地生產運動)은 그의 실례로 된다.

《지역 농정》과 《단지 생산 운동》의 명목 하에 미제는 남조선으로부터 농업 원료를 쉽게 략탈하기 위하여 농민들의 수지에 맞지 않는 농작물 재배를 강요하며 미국의 잉여 비료, 농약, 종곡, 종축 등을 강제로 구입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락의 식량 수급 조절에 간섭하며 미국 잉여 량곡의 혼식을 장려하는 책동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가 류통 령역을 통하여 남조선 농촌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교도 공무원》들은 또한 《협동 조직의 지도》라는 간판을 들고 《농업 조합》 관리 운영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의 착취와 략탈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 *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농촌 《교도》 정책은 남조선에서 농민들을 우매화하며 그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략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만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남조선의 광범한 농민들과 인민들의 증오와 배격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 속에서는 농촌 《교도》 정책에 대하여 《리보다 해가 더 많다.》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 가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미제의 농촌 《교도》의 강화는 자신을 매장하는 혁명 력량을 키우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그 어떤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써도 각성되고 있는 남조선 인민을 기만 우롱할 수 없다.

《청년 전위》에 대하여

방 연 승

현시기 국내외 정세는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한 공산주의 교양에서 문학 예술이 노는 역할이 자못 크다. 여기에서 특히 혁명 전통 주제의 작품은 거대한 인식-교양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1930 년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일제를 반대하여 손에다 무장을 들고 싸워 승리한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을 서사시적 화폭으로 반영하는 것은 우리 문학 예술 앞에 제기된 가장 영예롭고도 중요한 사업이다.

림 춘추 동지가 쓴 《청년 전위》(상, 하)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대답한 훌륭한 장편 소설이다.

《청년 전위》는 항일 무장 투쟁과 그 과정에서 성장 발전한 조선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영웅적 성격을 찬연하게 반영한 대작품이다.

그것은 우선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을 서사시적으로 반영한 규모와 질적 수준에서 말할 때 그렇다. 즉 15 개 성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 과정과 유격대 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당시의 사회-력사적 환경을 큰 예술적 화폭으로 반영한 풍부성과 진실성으로 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청년 전위》는 이처럼 그 때의 엄혹한 시대상과 손에다 무장을 들고 사회를 변혁하는 시대의 참다운 아들딸들의 전형적 성격을 서사시적으로 반영한 점에서 당시대와 혁명, 인간과 투쟁을 인식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김 일성 동지의 지도 하에 시대적 영웅으로 자라 난 조선의 공산주의 청년 전위들이 지닌 위대하고도 풍부한 정신적 폭과 깊이를 기념비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청년 전위》는 1930 년대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의 성격 발전 과정과 주도적 품성인 불굴의 혁명 정신과 풍부하고 다양한 특성을 생동하게 형상화한 점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공산주의 투사로 교양함에 있어서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장편 소설 《청년 전위》의 이와 같은 거대한 인식-교양적 의의는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한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에서 이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를 스스로 말해 주고 있다.

이 장편 소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실재한 인물들과 력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씌여진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작자 자신도 직접 함께 참가하여 생사 고락을 같이 한 혁명 동지들에 대한 절절한 회상에 기초하여 씌여진 장편 소설인 점에서 각별히 우리 독자들에게 안겨 주는 바가 크다.

그것은 항일 빨찌산 참가자의 직접적인 체험과 심장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으며 따라서 당시 투쟁 력사에 대한 산 기록으로서 무엇보다도 큰 감명을 줄 뿐만 아니라 작자의 격동적인 호소력과 뛰여 난 예술적 재능에 의하여 독자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 잡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장편 소설 《청년 전위》는 당시대와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주는 사실성과 생동성이 풍부하며 동시에 거대한 미학-정서적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

*　　　*

이 작품의 구성 체계를 보면 시대와 혁명에 대한 폭 넓고 심오한 거울로 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청년 전위》가 이룩한 특징적인 성과의 하나는 항일 무장 투쟁의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모습과 당시의 시대상을 풍부하고도 다양하게 잘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의 상,하 권에 포괄된 시간적 한계를 보면 상권은 1929~1934년까지이며 하권은 하발령 남쪽에서 일제의 군용 렬차를 습격하는 전투로부터 시작하여 수 많은 대소 전투를 걸쳐 승리한 조선 인민 혁명군이 조국으로 개선하는 시기까지 반영하고 있다.

그리 하여 《청년 전위》는 1920 년대 말~1930 년대 초부터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일제를 처부시고 조국으로 개선하기까지의 기간—항일 무장 투쟁의 전 기간(시간적 길이에 있어서)을 예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물론 전 력사를 다 포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항일 무장 투쟁의 참가자로서의 작자의 직접적 체험과 높은 정치-사상적 식견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작자의 비상한 예술적 개괄력과 이 작품의 구성의 독특한 묘미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작자는 항일 무장 투쟁의 전 기간을 포괄하기 위하여 어느 한 시기에 있었던 어느 한 사변을 기본 사건으로 일관시키는 그런 구성 체계를 취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작자는 자기 작품의 슈제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 많은 사변과 전투들이 교체되여 나가는 형태로 전개시키고 있다.

이런 구성 체계를 취하는 경우 슈제트 전개에서 산만성과 평면성에 떨어질 수가 있으며 따라서 구성의 립체적 균형과 통일의 미를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청년 전위》의 저자는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하나의 일관된 기본 사건을 사건 전개의 축으로 세우지 않고도, 슈제트 전개를 년대순에 의한 시간적 순차성에 따라 발전시키면서도 구성의 립체미와 주인공들의 성격 발전의 변증법—정신적 장성의 력사를 다면적으로 보여 주었다.

여기에 이 작자의 뛰여 난 구성력과 이 작품의 구성상 묘미가 있는 것이다.

작자는 구성의 립체적인 균형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인공을 집단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개별적인 여러 주인공과 또 그 중에서도 하나의 중심 주인공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 하여 소설에서 보면 수십 명의 청년 전위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하며 류삼손, 조 정칠, 주 춘인, 박 관규, 허성숙, 리 경희, 허 순희 등이 주인공으로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류 삼손이 중심 주인공으로 되고 있다.

작자는 또한 중심 주인공 삼손의 선을 기본 줄기로 뻗어 나가는 중심적인 간선으로 설정하면서도 여러 중요한 등장 인물들의 선들—혜천대 림 춘익, 조

정철, 최 현의, 주 춘일, 박 관규, 천 룡택 등의 선들을 배합 통일시키고 있다.

작자는 이와 같은 긍정 인물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일제와의 투쟁을 그림에 있어서 많은 경우 집단적인 충돌 형태인 전투로 보여 주면서도 위만주국 군정부 최고 고문 사사끼 도이찌 소장, 와시자끼 조사 과장, 간도성 공서 경무청 고문 나가시마, 간도 지구 사령부 총고문 이누가이 등의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일제의 형사부장 최 창락과 같은 개성적인 인물들을 설정함으로써 갈등 전개에서 예술적인 생동성과 첨예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일제의 대포'밥으로서의 위만주국 군대와 경찰, 일제의 계급적 지반으로서의 조선인 지주와 중국인 지주, 혁명의 변절자로서 일제의 앞잡이로 전락된 김 성도, 김 중빈, 최 봉문, 리 성환 등의 개별적인 인물들을 설정함으로써 갈등 전개의 다양성과 첨예성을 보장하고 있다.

작품은 또 대렬 내에서의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경 기회주의와의 투쟁, 반일 구국군과의 통일 전선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투쟁도 반영하고 있다.

장편 소설 《청년 전위》(상, 하)에 설정된 이와 같은 등장 인물들의 호상 관계의 체계와 등장 인물들의 운명선과 관련된 사건 체계의 기초에 놓여 있는 갈등은 당시 현실이 처한 사회-계급적 모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혁명 투쟁과 그의 합법칙성을 폭 넓고 심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저자는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 작품의 갈등 설정에서의 일련의 특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제와의 갈등을 기본 갈등으로 일관시킴으로써 당시 조선의 민족적 계급적 모순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항일 무장 투쟁의 력사적 의의를 옳게 천명하였다. 이것은 귀중한 성과로 된다.

이 작품의 슈제트는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빨찌산 생활의 다양한 령역을 풍부하게 반영하면서 시종 치렬한 극성을 조성하여 줄기차게 전개된다. 작자는 무장 대오의 조직 과정, 동녕현성 전투, 간삼봉 전투 등과 같은 수 많은 전투, 동만 유격 지구, 처창즈, 내두산 및 장백 지구 밀영 등 유격 근거지 내 인민들의 생활, 적 강점 지구와 국내에서의 공작원의 투쟁, 유격대원들의 부부 생활 등의 다양한 생활 령역에 걸쳐서 항일 무장 투쟁 생활을 보여 주면서 유격 투쟁의 생활 세부를 풍부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유격대 생활의 다양한 생활 령역과 생활 세부에 대한 풍부한 묘사는 당시 유격대 생활을 인식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주인공들의 성격과 그의 발전을 다면적으로 보여 줌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격의 다면성과 그의 통일성, 성격 발전의 다양한 계기와 내면 세계의 운동을 다각적으로 보여 주자면 필연적으로 항일 무장 투쟁의 다면적인 령역과 유격대 생활의 세부를 풍부하게 묘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장편 소설 《청년 전위》의 구성 상 특징을 말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성과는 조선 인민의 앞길을 등대와 같이 밝히시는 인민의 수령 김 일성 동지의 령도를 구성의 중심에 높이 솟은 위대한 등대로 형상화한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일 무장 투쟁이 백전 백승할 수 있었던 힘을 옳게 형상화할 수 있었으며 불굴의 공산주의자로 성장하는 청년 전위들의 성격 발전의 계기를 진실하게 천명할 수 있었다.

상권의 구성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류 삼손과 조 정칠과 같은 주인공들이 처음에는 먼 곳에서 위대한 등대의 빛

발을 우러러 전진하면서 마침내는 그 위대한 동대의 두리에 하나로 뭉쳐 나가는 과정으로 되여 있다. 하권에서는 배'길을 잡아 주는 위대한 동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새로운 정세와 중중첩첩 가로 놓이는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으면서 승리하는 과정으로 되여 있다.

그리 하여 이 작품의 구성은 1920 년대 말～1930 년대 초 객관적으로 조성된 성숙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무장 대오를 조직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방침을 비롯하여 력사적인 회의(다홍왜 회의, 요영구 회의, 동강 회의, 남호두 회의, 소한바령 회의 등)들에서 김 일성 동지께서 제시한 제반 방침과 전략 전술의 현명성과 위대한 생활력 그리고 김 일성 동지의 위대한 사상적, 정치적, 도덕적 영향력을 진실하게 형상화할 수 있었다.

《청년 전위》의 구성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우에서 이미 간단히 지적한 바와 같이 슈제트 전개가 중심 주인공 류 삼손을 비롯한 주인공들의 통일적이고도 다면적인 성격 발전의 력사를 다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장편 소설에서 성격 발전의 력사와 인간의 운명선을 다양한 계기에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편 소설의 첫째 가는 특징은 인간 정성의 주제를 해결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장편 소설은 인간 교양에서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혁명 전통 교양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한 계단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장편 소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서사시적 작품에서의 성격 발전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은 정신적 장성 과정을 다양한 정황과 다양한 계기에서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보여 주기 때문에 독자들의 세계관 형성에서 노는 작용이 크다. 어떤 외부적, 내부적 계기에 의하여 사회-계급적으로 각성하며 생활의 변증법을 통하여 어떻게 사상 의식이 형성 발전하며 사회적 리상을 쟁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며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성격 발전 과정을 통하여 긍정의 모범을 보여 준다면 그 영향이 크고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편 소설 《청년 전위》가 달성한 성과는 큰 것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주인공들의 성격 발전 과정이 첨예하고도 긴박한 정황과 다양한 생활의 극적 계기에서 성격의 객관적 론리에 맞게 사실주의적으로 추구된 점이다.

작자는 삼손이를 비롯한 긍정적 주인공들의 성격 발전 과정과 그의 전형화에서 공산주의자-혁명가란 다름 아닌 근로자의 아들딸로서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를 깨닫고 붉은 리상을 쟁취하기 위하여 항상 열렬하고 충실하게 투쟁하는 사람이며 사회적으로 자각한 보통 사람이 사회 발전 법칙을 인식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 희생적으로 투쟁할 때 그 힘과 지혜에 있어서 비상히 특출한 시대적 영웅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진실하게 추구하였다.

아홉 살 때부터 지주'집 머슴살이를 해 온 삼손이는 자기의 생활 처지와 림 춘익과 박 파와 같은 수위 사람들의 사상적 영향에 의하여 눈이 뜨기 시작하며 마침내 사회-계급적으로 자각하여 항일 무장 대오에 참가하며 김 일성 동지의 령도를 받는 혁명 투쟁을 통하여 드디여 신출 귀몰한 군사 간부로, 세련

된 정치 일'군으로, 높은 당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겸비한 지도 일'군으로 발전한다. 작자는 이와 같은 성격 발전 과정을 통하여 공산주의 투사란 다름 아닌 이처럼 근로자들 속에서 배출된 보통 혁명 전사이라는 것을 잘 보여 줌으로써 현시기 혁명 전통 교양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세계관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심화시키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였다.

이것은 혁명적 대작을 많이 내놓아야 할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작품 창작에서 귀중한 창조적 경험으로 된다.

장편 소설 《청년 전위》가 폭이 넓은 작품으로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삼손이를 비롯한 주인공들의 정신적 장성의 력사를 폭이 넓고 심오하게 그린 데 있다.

이 작품의 서사시적 폭을 단순히 항일 무장 투쟁을 취급한 시간적 연장성의 길이라든가, 많은 사건들과 삽화들을 취급했다든가, 무장 투쟁의 다양한 생활 령역을 풍부하게 취급했다든가,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그들과 관련된 선들이 설정되였다든가, 기본 갈등과 얽혀진 다양한 갈등선을 설정하였다든가, 시대 상에 대한 넓은 개관이 지어졌다든가 하는 데만 귀착시킬 수 없다.

《청년 전위》는 이 모든 것들과 아울러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복종되여 있는 성격 창조 특히는 주인공들의 성격 장성의 력사와 정신적 운동의 폭과 심도가 보장되였기 때문에 이름 그 대로 폭이 넓은 서사시적 작품으로 될 수 있었다. 사실에 있어서 작품의 서사시적 폭은 단순히 구성의 폭으로만 규정할 수 없으며 그와 아울러 그 구성 속에서 실현되는 성격과 내면 세계의 폭과 심도로써 말할 수 있다.

⁂ ⁂

《청년 전위》의 형상 세계의 중심에 서서 나아가는 긍정적 주인공들의 형상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배출된 조선 청년의 전형들로서 형상화되였다. 이들의 빛나는 형상은 사회-계급적 규정성과 개성적 생동성, 시대성과 민족적 특성의 구현으로 하여 우리 문학에서 귀중한 존재로 된다.

이 작품에는 인삼 아바이와 같은 로세대들도 나오며 왕 로가다와 같은 중국인도 나오며 류 삼손과 같은 청년 전위들도 나오며 김 강철과 같은 소년들도 나온다. 작품의 제목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들 중에서도 작자의 묘사적인 각광을 집중적으로 받는 중심에 놓이는 인물들은 청년 전위들인 림 춘익과 보배, 류 삼손과 허 순희, 조 적철과 리 경희, 박 관규와 허 성숙 그리고 주 춘일, 현 룡대, 최 현의 동인바 이들의 형상은 매우 뚜렷하고 인상적이고 생동하다.

이들의 성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조선의 참된 아들딸로서의 시대적 자각과 높은 혁명 정신,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필승 불패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 혁명적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 등이다. 이들 청년 전위들의 성격은 인격적 특성에서 서로 통일성을 이루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뚜렷한 개성으로 형상화되였다.

슬기롭고 원만하고 지성적인 림 춘익, 끈고 의지적인 그러나 한 없이 부드럽고 어진 보배, 진취적이고 용감하고 지략이 겸비한 삼손이, 부드럽고도 강의한 허 순희, 예민하고도 겸손한 조 적철, 원칙적이고도 싹싹한 리 경희, 슷시고 텁텁하고 자기 희생적인 박 관규, 침착하고도 따뜻한, 개방적이고도 열렬한 허 성숙, 성실하고 소박한 주 춘일, 아름답고 의지적인 최 현의 동을 상기만 해도 우리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각이한 개성을 표상할 수 있다. 작자는 이들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 성

격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독자들의 가슴에 안겨 주고 있다.

누구나 이 장편 소설을 읽고 가장 감명 깊게 느끼는 것은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밝고 억센 정신적 기상이다.

사실 상 《청년 전위》의 사상 예술적 성과를 말할 때 혁명적 랑만성의 풍만한 구현을 떼놓고 말할 수 없다.

이 작품의 혁명적 랑만성은 삼손이를 비롯한 긍정적 주인공들의 사회적 리상과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 참된 생활 리념과 불굴의 혁명 정신에서 발현되는 투사의 정신적 기백이며 열정이다.

작자는 청년 전위들이 지닌 높은 리상과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과 그것을 자기 희생적으로 이끌어 오는 혁명적 열정을 줄기차게 형상화함으로써 공산주의 투사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드러낼 수 있었다.

청년 전위들의 생활적 리상과 꿈은 조국과 인민을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하며 착취와 억압을 받던 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인민의 나라를 세우며 인류의 숙망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였다.

조국을 해방하고 붉은 기를 휘날릴 그 날을 그리며 싸우는 이들의 정신적 기상은 다양한 계기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하게 형상화되였다.

삼손이는 유격대 창립 시기의 오랜 대원이다. 우리는 혁명에 참가한 지 7 년 만에, 공청 생활을 한 지 6 년 만에 입당하는 마당에서 하는 삼손의 맹세를 들어 보자.

《나는 영광스러운 공산당원으로서 조선 혁명을 위하여, 전 세계 피압박 민족과 근로 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멸적 계획 1만 명에다가 춘일 동무가 채 완수하지 못 한 5천 명까지 합하여 1만 5,000 명의 적을 내 손으로 소멸하고 조국 강산에 붉은 기를 휘날리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930 년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시대 정신을 대변한 심장의 목소리이다.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의 내부적 초상을 보기로 하자.

공청 8 구 위원회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던 림 춘익이는 원쑤들의 손에 체포되였다. 그는 당 지부 책임 서기를 구출하기 위하여 대신 체포되는 자기 희생성을 발휘한다. 그가 모진 고문을 당하여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서도 사람들을 밝은 앞날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내기 위하여 감방의 틈새기에서 흘러 드는 한 줄기 해'빛에 비겨 이 땅의 암운을 깨뜨리고 밝아 올 혁명의 승리를 말하는 장면은 근로 인민의 사회적 리상을 사랑하는 조선 공산주의자의 정신적 기상을 얼마나 격동적으로 말해 주는 것인가! 여기에서 작자에 의하여 깊이 발굴된 림 춘익의 높은 공산주의적 신념과 뜨거운 심장의 불'도가니에서 울려 나오는 투사의 랑만적 열정은 태양의 빛발과도 같이 강력하며 밝고도 빛나는 것이다.

작자는 어둡고 살벌한, 침침하고 무거운 감옥 속에서도 온 감방과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을 밝고 억센 빛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인 춘익의 랑만적인 정신력과 심장의 뜨거움을 격동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공산주의자의 내면 세계 추구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으로 돌아 가서 착취와 억압이 없는 인민의 나라를 세우려는 청년 전위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떠나서 그들의 투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리 하여 작자는 그 숨 막히는 세상에서, 그 비참한 처창즈 생활에서도, 그 어떤 어려운 전투 환경 속에서도 이들 청년 공산주의자들을 항상 휘황한 미래를 가진 사람들로서 형상화하였다.

그 어떤 힘도, 심지어 죽음도 공산주의자에게서 미래를 빼앗아 낼 수 없다.

개방적이나 사려 깊고, 활달하나 따뜻한 빨찌산 녀장군 허 성숙이 1939년 룽양툰(북류수하자) 전투에서 중대장 삼손이를 자기 몸으로 구원하고 동지들의 곁을 떠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상기해 보자.

《장군님께 전해 주오… 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 하고…죽었다고… 그러나 나는 믿는다구… 그 날은 머지 않아 올 것이라구… 삼손 동무… 순희더러… 순희더러… 곰이를 잘 키우라구… 난 곰이의 미래를 위해…죽었다구…그 애가 크거든 알려 주오…》

이 숭고한 정신적 면모는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미래를 위하여 부끄럼 없이 투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계이다.

이와 같이 작자는 공산주의자의 밝고 억센 정신 세계를 슈제트 발전의 극적인 계기마다에서 깊이 추구하고 있다.

작자는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세계의, 불멸할 인류의 영원한 청춘이라는 것을 인물들의 계승 관계에서도 힘 있게 추구하였다.

작자는 아름다운 처녀 보배가 존경하는 림 춘익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 하고 애석하게도 원쑤의 흉탄에 쓰러지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산 힘으로 원쑤와 싸워 승리한다는 것을 감명 깊게 보여 주었다.

보배는 사모하는 춘익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혁명 승리》를 수 놓은 손'수건을 직접 전하지 못 하고 희생된다. 춘익을 잡아 가려고 원쑤들이 음모를 꾸민다는 말만 듣고도 밤새껏 울어서 베개'잇을 눈물로 적시고 마는 아름답고 어진 보배의 깨끗하고도 열렬한 마음—혁명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깃든 이 손'수건은 림 춘익의 뜨거운 품에 닿으며 다음은 조 정칠의 손을 거쳐서 리 경희의 품에 간직된다. 그 손'수건은 영웅적으로 희생되는 마지막 순간에 경희에게서 성숙에게로, 또 인삼 아바이를 통하여 현외에게 전달된다. 그리 하여 혁명 동지들의 피가 스며 있고 혁명 승리를 확신하고 희생된 동지들의 념원이 깃들어 있는 이 붉은 기치와 같은 보배의 손'수건은 혁의의 품에 간직되여 승리의 그 날 동지들과 함께 조국의 모란봉에 오른다.

림 춘익 역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적 영향에 의해서 투쟁의 길에 들어 선 류 삼손과 조 정칠로 살아서 항상 원쑤를 치는 선두에 서서 나갔으며 승리하고 조국에로 개선한 그 날 조국 땅에서 새 조선의 희망이며 미래인 곰이를 하늘 높이 안아 올리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물들의 내면적 련계를 통해서도 이 장편 소설의 풍만한 혁명적 랑만성과 심오한 사상적 구상을 뜻 깊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혁명적 랑만성이란 공산주의자의 미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며 반드시 도래할 미래에 대한 굳은 신념이다.

작자는 동시에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랑만이란 백절 불굴의 혁명 정신의 산물이란 것을 힘 있게 형상화하였다.

즉 작자는 공산주의 투사의 혁명적 랑만이란 투쟁의 격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 오기 위한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떠나서 미래를 위한 그들의 열렬한 사랑을 생각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투쟁을 떠나서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으며 공상적 성격을 면하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류 삼손을 비롯한 청년 전위들은 빼앗긴 조국을 찾고 붉은 태양을 이 땅에 안아 올리기 위하여 험산 설원을 주름잡으면서 15 개 성상을 하루 같이 열렬하고 불굴하게 싸웠고 총검의 수풀을 파어 헨 투쟁으로 헤치고 해방의 언덕에 붉은 기를 휘날렸던 것이다.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삼손에게서 가장 주되는 품성이다. 그는 미래를 사

랑하는 만큼 항상 투쟁에 열렬하였고 혁명에 충실하였다. 혁명 투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누가 시키서 하는 일이 아니다. 혁명 전사들의 고도의 자각성과 혁명과 조직에 대한 당'적 충실성이 없이는 한시도 중첩된 난관을 이겨 나갈 수가 없다. 실로 고생을 밥 먹듯 하지 않고서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유격 투쟁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다. 실로 혁명 승리를 위해서는 청춘과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혁명적 충실성과 자기 희생성이 없이는 하루도 그 어려운 투쟁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권에서 삼손이와 그의 전우들이 1935년 처창즈로부터 내두산으로 가는 길을 개척할 수 있었으며 적들이 하루에도 수차 덤벼 드는 내두산 근거지를 사수할 수 있었던 힘이 혁명과 수령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있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읽게 된다.

작자는 청년 전위들이 간삼봉 전투와 묘령 습격 전투를 비롯한 어렵고도 치렬한 그 많은 전투에서 미증유의 영웅주의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혁명과 수령에 대한 그들의 고도의 충실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시종 박력있게 서명하였다.

청년 전위들의 혁명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김 일성 동지의 높은 신임과 부름을 받들고 새 기사들이 공작원으로서 삼엄한 일제의 경계망을 뚫고 국내 공작을 훌륭히 수행하는 데서도 매우 감명 깊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혁명적 랑만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열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작자는 자기 장편 소설에서 청년 전위들의 이와 같은 투쟁의 열정과 기백을 잘 드러냄으로써 공산주의자의 내면 세계를 깊이 그릴 수 있었다.

작자는 자기 작품에서 투쟁은 이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신념을 감격적으로 묘사하였다.

아담한 요람에서가 아니라 천고의 밀림 속 풀밭 우에 누워 고요히 잠자는 곰이를 사이에 두고 그의 미래를 들여다 보며 행복에 거워 속삭이는 총편 젊은 삼순 부부만도 생기해 보라!

작자는 여기에서 투쟁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만이 맛 볼 수 있는 행복감을 젊은 부부의 심장의 고동 소리로 형상화함으로써 내면 세계 추구에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착취와 억압이 없고 누구나 창조적 로동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활을 이 땅에 건설하고저 투쟁하는 청년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투쟁은 언제나 간고하고 목숨을 내건 필사적인 것이였다. 그러나 투쟁은 그들에게서 아름다움이였으며 행복이였다. 왜냐 하면 투쟁만이 일제를 쳐부시고 이 땅에 미래를 가져 오며 투쟁만이 착취와 억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 로동의 환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가져 오는 것이며 투쟁만이 행복한 그 날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맑스가 자기 딸들의 일련의 질문에 대답한 유명한 고백에서 행복에 관한 표상을 투쟁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이들 조선의 청년 전위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활 신조가 하나의 공고한 인격적 속성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전위》가 달성한 뚜렷한 성과는 이처럼 1930 년대 조선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리상이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그것을 위하여 이떻게 투쟁하였으며 무엇을 진정한 행복과 삶으로 보았는가를 잘 묘사한 데 있다.

작자는 미래를 사랑하며 그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열정은 사회 발전 법칙을 알며 혁명의 전도와 승리를 확신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훌륭하게 그리였다.

특히 작자는 청년 전위들의 필승 불패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가 김 일성 동지께서 제시한 혁명의 전도와 투쟁 강령, 혁명의 동력과 혁명 수행 방도와

재반 전략과 전술로 무장된 데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형상화함으로써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락관주의의 생활적 기초를 옳게 천명할 수 있었다.

그리 하여 《청년 전위》에 형상화된 풍만한 혁명적 랑만성은 혁명의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이며 미래를 위하여 싸우는 불굴의 혁명적 열정이며 필승 불패의 정신적 기백이다.

《청년 전위》에 그려진 생활적 내용은 참으로 간고하다. 그러나 작품은 밝고 억센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기상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어둡지 않고 밝다.

사실 동만 유격 지구의 생활, 처창즈의 생활, 내두산 근거지 생활, 장백 지구 밀영지에서의 생활들은 사람들의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운 고난의 생활이였다. 또 무장 투쟁으로 말하더라도 세계에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이였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사람들의 가슴을 후비여 내는 수많은 영웅적 희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작품이 어둡지 않고 힘찬 것은 작자가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랑만을 잘 그리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작품의 획기적인 사상-예술적 성과이다.

다음으로 청년 전위들의 성격을 통하여 힘차게 천명된 것은 1930 년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그리고 혁명적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이다.

이 작품은 공산주의자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을 참으로 가슴 뜨겁게 보여 준다.

그것은 자기 조국의 산천과 일목 일초에 기울이는 뜨거운 사랑과 자기 조국의 력사와 미풍 량속을 귀중히 여기며 착취 받고 억압 받는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원쑤와 불사신으로 투쟁하는 애국의 격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부소대장 리 경희가 1937년 유명한 소탕하 전투에서 희생된 소대장 박 판규의 복수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되는 순간에 자기 혁명 동지이며 애인인 조 정칠의 팔에 안겨서 해방된 조국을 보지 못 한다면서 그의 눈물을 닦아 주려다가 손을 떨구고 마는 장면은 공산주의자의 조국애를 얼마나 격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인가!

이들 청년 전위들의 조국애는 조국의 해방이 없이는 계급적 해방이 있을 수 없다는 높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서, 그들의 온 심장과 온 혈관에서 항상 뜨겁게 맥박치는 붉은 현조로서 형상화되였기 때문에 작품의 갈피마다에서 시'적으로 나래치는 것이다.

또한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조국 산천에서 쫓겨 나 산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 와서 사는 유격 지구 인민들의 조국애는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울리는 것인가! 우리는 적들이 계속 미친듯이 달려드는 준엄한 전투의 나날 속에서도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심지어는 개구리알을 잡아 먹으면서까지 유격대를 도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처창즈 인민들의 자기 희생성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유격대의 칠남과 누나인 십순이 부부에게서 선물로 닭떡을 받은 영순이와 택민이는 며칠째 끼니를 먹지 못 하여 구도로 허기진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먹지 않고 동무들을 생각하며 앓아 누워 있는 엄 석간 아바이에게 갖다 권하는바 이 아름답고 갸륵한 마음씨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어린 애국자의 정신-도덕적 승리이다! 이것은 붉은 마음을 지닌 애국자들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인간적 품성의 극치이다. 그 닭떡을 받아 들고 기쁜 심정으로 혁명은 꼭 승리할 것이니 죽어 가는 내가 먹기보다 살아서 싸울 너희들이 먹으라고 오히려 먹지 않고 이불 밑에 간수했던 쌀 전대(그 속에는 스물 아홉 숟가락의 쌀이 들었다)까지 내드는 공산주의자 엄 석환

아바이의 풍모! 엄 석찬 아바이가 영춘이와 대만에게 달떡을 쥐여 주며 그들의 손을 쥐고 마지막 힘을 모두어 승리하는 그 날을 위해서 자기도 조선 사람답게 싸우다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장면은 얼마나 애국적 격정으로 가득 휩싸이는 것인가! 조선 사람답게 싸우다 죽는다는 이 애국의 격정, 이 숭고한 긍지와 정신적 아름다움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인격적 속성이다.

작자는 이처럼 1930 년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내면 세계 추구에서 애국주의적 격정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하였다.

장편 소설 《청년 전위》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장고봉과 할힌골에서 일제가 쏘련을 침공하기 위한 침략 전쟁을 도발했을 때 김 일성 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어떻게 배후에서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었는가를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항일 빨찌산들의 숭고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감명 깊게 드러내였다. 또한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이 조 중 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국 인민들과 어떻게 어깨 겯고 싸웠는가를 보여 준 데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높고 심오한 혁명 정신을 폭 넓게 찾아 볼 수 있다.

《청년 전위》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폭 넓은 정신 세계를 그들의 혁명적 동지애를 통해서도 힘 있게 보여 주었다.

작자는 항일 빨찌산들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리상과 목적의 유일성, 깊은 신뢰와 존경, 따뜻한 배려와 사랑에 기초하여 통일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양한 정황에서 깊이 있게 형상화하였다.

자기 몸으로써 혁명 동지의 생명을 구원한 림 춘익, 주 춘일, 박 관규, 허 성숙, 리 경희 등의 자기 희생성만 상기해도 충분할 것이다.

관규는 혁명 동지를 위해서라면 우박치는 적탄 속을 뚫고 들어 가 자기 몸을 덮어 왕 로가다의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며 파편에 내장까지 드러난 몸으로써도 기어코 동지를 사선에서 구원하기도 하며 부대의 행군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수십 길 눈'길 속에 들어 가기도 한다.

관규는 그 어떤 최악의 조건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 목숨보다 동지의 생명과 신변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하고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형상화되였다.

관규를 아끼는 동지들의 사랑과 존경이 또한 얼마나 큰 것인가!

작자는 이런 호상 신뢰와 존경과 사랑으로 얽혀진 동지애를 감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우리는 삼손이가 내두산 앞쪽 양지바른 언덕에 안치한 춘일의 묘를 찾아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만이라도 상기한다면 1930 년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동지애가 얼마나 두텁고 열렬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삼손이는 김 일성 동지의 부름을 받들고 내두산을 떠나서 무송현으로 가게 되였다. 그는 동지의 묘 앞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길을 떠나면서 언제나 사랑하는 춘일을 잊지 않고 원쑤를 갚아 싸우겠다는 것을 머리 숙여 맹세한다.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의 뒤에 허 순희가 와 섰으며 당 지부 서기 김 호룡도 올라 와서 동지의 묘 앞에 머리 숙여 섰다.

작자는 이처럼 혁명 동지를 잊지 않고 그의 혁명 위업을 계승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를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으로 형상화하였다.

혁명 전위들의 동지적 사랑이 얼마나 원칙적인 사랑인가 하는 것은 삼손이와 순희, 관규와 성숙이, 정철과 경희 등 혁명 부부 간의 사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혁명의 불'길 속에서 맺어진 진정한 사랑이였다. 그들은 개인적 리해 관계보다 항상 혁명과 집단의 리익을 앞세웠으며 혁명 승리를 위해서만 자기들의 사랑이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으며 오직 조국이 해방되는 그 날에야 자기들의 사랑이 활짝 꽃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랑에서 안일과 리기를 용서할 수 없었으며 미래와 투쟁을 위해서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동일한 리상과 목적, 동일한 사상과 신념으로 통일된 이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호상 신뢰와 존경, 육친의 사랑과 배려로 뜨겁게 얽혀 있기 때문에 혁명적 지조와 의리가 강한 것이다.

그것은 현의가 대오와 떨어져서 원쑤들의 손아귀에 들었어도 혁명의 지조를 지켜 싸워 승리하는 과정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작자는 이들의 혁명적 동지애와 혁명적 지조와 의리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삼손이는 김 일성 동지께서 자기들에게, 아동단원들에게, 인민들에게 뜨거운 배려를 돌리시는 크나큰 어버이 사랑 앞에서 여러 번 목이 메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평범한 한 개의 혁명 전사인 주 춘일이를 잃은 슬픔을 금치 못하시는 김 일성 동지의 심뇌를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삼손이는 여기에서 혁명 동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두터웠는가를 깊이 반성해 보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작자는 혁명 전위들의 동지 호상간의 신뢰와 존경,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가 마치도 우에서부터 부은 물이 아래에까지 미친 것이라는 것을 뜻 깊게 형상화하였다.

《청년 전위》는 공통된 리상과 목표, 동일한 사상과 의지로 결합된 새로운 지반 우에서 새롭게 꽃 핀 인간성과 동지적 우애와 의리의 승리를 힘차게 구가하였다. 그리하여 《청년 전위》는 조선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영웅주의에 대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인간 관계와 거기에서 솟는 힘과 인간적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작자는 자기 장편 소설에서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위대하고도 풍부한 성격적 특징과 내면 세계를 폭 넓고 심오하게 천명하였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작품이 달성한 성과는 1930 년대 조선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영웅적 성격과 아름답고 풍부한 정신 세계를 넓고 깊이 천명한 데 있다. 특히 무장 투쟁의 첫날부터 가렬한 전투 환경 속에서, 수 많은 실재한 전투를 취급하면서도 전투 기록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투사들의 성격과 내면 세계의 예술적 천명에 복종시킨 창작적 성과는 매우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이 장편 소설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창 꽃 피는 청춘 시절에 젊은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15 개 성상 협산 준령을 넘나들면서 생명을 내걸고 피흘려 싸웠던가!

이 장편 소설은 여기에 훌륭한 해답을 주고 있다.

사선을 헤치고 오래간만에 만난 혁명 부부가 어린 미래-곰이를 두고 주고 받는 심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

《옳은 말이요. 피'자국의 력사지, 우리 곰이에게 이 사실을 똑똑히 알으켜 주어야겠소. 동지들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곰이와 수 많은 우리들의 미래를 념원하여 죽었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삼손이의 말속에는 장편 소설 《청년 전위》를 관통하는 심오한 현대성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의 참뜻을 깨칠 수 있도록 이 장편 소설은 1930 년대 청년 전위들의 내면 세계와 피'자국의 력사를 그처럼 줄기차게 천명했던 것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은 우리 독자들의 온 넋과 온 심장을 다 틀어 쥔다.

항일 빨찌산들은 우리 행복의 터전을 피로써 마련해 놓았고, 우리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 주었다. 우리는 1930 년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력사와 위대한 혁명 정신과 불멸

의 위훈을 항상 귀중히 간직하고 그를 따라 배울 때만이 참다운 조선의 아들 딸로 될 수 있는 것이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맛 보는 공산주의 투사로 될 수 있는 것이다.

*　　　　　*

장편 소설 《청년 전위》는 1930 년대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형화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그 성과를 말함에 있어서 민족적 특성의 풍부한 재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것이다.

이 장편 소설을 읽는 그 누구도 조선의 현실이 제기한 시대적 의무를 자각한 조선의 참된 아들딸들의 정신 세계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귀중한 자식들을 서슴없이 바치는 조선의 소박하고 성실한 어머니들의 뜨겁고 자애로운 모성에서 이 나라 젊은 녀성들의 강의하고 맑은 내면 세계에서 풍겨 나오는 민족적 풍격을 듬뿍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풍속 세태가 다른 이국 타향에서 살면서도 조선 인민의 력사와 전통적인 민족 생활의 풍습과 미풍량속을 지켜 가는 유격 근거지 인민들의 억센 생활에서도 민족 생활의 체취를 한 가슴 가득히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항상 위풍만 돋우고 큰 소리만 치는 사사끼 도이찌, 자기 솜씨를 과신하는 야심가인 나가시마 같은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일제의 경찰 최 창락과 혁명을 팔아 먹으며 혁명 동지를 잡아 먹으려고 미쳐 날뛴 종파 분자인 외눈깔 왕개—김 성도와 《협조회》 간부며 변절자들인 김 종빈, 리 성환, 최 봉문 등의 부정 인물 형상화에서 특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자는 이들 변절자들의 전형화에서 량면성과 악랄성, 간악한 부패성과 극악한 집요성을 아주 생동하게 형상화하였으며 그들의 운명과 말로를 아주 의미 심장하게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편 소설에서 언어 구사와 자연 묘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응당 말해야 할 것이다.

언어 구사에서의 풍부성과 정확성, 소박성과 순란성과 자연 묘사에서의 생기 발랄한 인민적 감각과 깊이 침투된 후더운 생활적 체온은 거대한 예술적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으로 하여 장편 소설 《청년 전위》는 의심할 바 없이 혁명 전통 형상화에서 우리 문학이 거둔 거대한 성과로 된다.

그리 하여 《청년 전위》가 달성한 사상-예술적 성과는 우리 시대 인간 교양에서 큰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대답하는 혁명적 대작 창작에서도 귀중한 밑천으로 될 것이다.

근로자　제 18 호　(루계 256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9월 17일　　발　행 • 1964년 9월 20일

ㄱ—430564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9호 10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 19 호(257)

1964년 10월 (상)

차 례

모든 부문에서 혁명성을 더욱 높이자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들 앞에 나선 세계사적 사명을 끝낼 수 있다. 자본의 권력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 력사 상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변혁이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로동 계급의 혁명 투사들이 이 어려운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혁명적 투지와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을 가져야 하며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을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그 어느 곳에 곤난이 없이 사회주의 제도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혁명가가 있다면, 그러한 혁명가, 그러한 사회주의자는 서푼의 가치도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지극히 어려운 투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몇 천의 곤난에 견디여 내며 몇 천의 시도들을 해 볼 용의가 있으며, 우리는 천 번의 시도를 한 뒤에는 천 한 번째의 시도에 착수할 것이다》(레닌 전집 제 27 권, 554 페지).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과업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은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로 하여 더욱 간고성을 띠고 있다. 우리는 분렬된 조건에서,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모든 부문에서 당원들과 일'군들이 혁명성을 부단히 높이고 혁명적 각성을 계속 높임으로써만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더우기 오늘 국제적으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공격에 광분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이에 발맞추어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거부하면서 사람들의 혁명성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는 조건에서 혁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혁명성을 높이는 것은 당면한 혁명 과업을 원만히 수행함에 있어서도 절실한 문제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은 7 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걸쳐 10 대 과업을 제시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로력적 위훈에로 부르고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성을 더욱 높이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에서 맡겨진 혁명 임무를 어김 없이 관철해 나감으로써만 사회

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혁명성을 높이는 것—이것은 현시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첫째 가는 과업이다.

* *

혁명성은 현대 사회의 가장 혁명적 계급인 로동 계급의 중요한 사상-도덕적 풍모이다. 이것은 그들의 계급적 처지와 력사적 사명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것이다.

로동 계급은 자체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본가 계급의 필사적 반항을 물리치기 위한 가렬 처절한 투쟁을 진행하게 된다. 력사는 반동 계급, 특히는 반동화된 자본가 계급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내놓고 물러 간 실례를 알지 못 하며 또 잃어 버린 보금자리를 되찾기 위하여 발악하지 않는 그런 계급을 알지 못 한다. 따라서 로동 계급이 자본가 계급과 결사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한 투쟁 시기에만이 아니라 정권을 잡은 이후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로 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을 쟁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레닌 전집 제 27 권, 634 페지).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은 자체의 해방적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면 반드시 불요불굴의 투지와 혁명성을 가져야 한다.

적이 무장을 들고 덤벼 들 때에는 무장으로, 사상 공세를 강화할 때에는 사상적 반격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이 혁명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또한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자각과 그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이다.

로동 계급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를 청산함으로써만 자신들을 해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해방 투쟁은 곧 모든 피착취 대중의 해방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으로 된다.

자신들의 투쟁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피착취 인류의 해방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자각할 때 로동 계급의 투사들은 거기에서 무한한 보람과 영예를 느끼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도의 혁명성을 가지고 투쟁에로 나가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은 전체 근로 대중을 위한 정의로운 위업일 뿐만 아니라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불패의 위업이다. 자본가 계급의 그 어떠한 발악도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릴 수는 없다. 투쟁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승리는 로동 계급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은 로동 계급 혁명 투사들에게 그 어떠한 곤난과 시련이 닥쳐 와도 서슴없이 뚫고 나아갈 혁명성과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선진 투사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혁명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자각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하여 고도의 혁명적 의지와 견결성으로, 용감성과 진개력, 락관주의로 험난한 투쟁의 길을 헤치고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의 전진을 보장하였으며 오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 왔다.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에서, 우리 투쟁의 슬기로운 력사에서 로동 계급의 선진 투사들, 공산주의자들

이 발휘한 수 많은 혁명성의 산 모범을 알고 있다.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이 혁명성을 더욱 높여야 할 오늘에 있어서 그들의 모범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수령 맑스는 공산주의 운동의 창시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투사들이 지녀야 할 혁명성의 모범을 실천 활동에서 구현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맑스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활동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자본가 정부들의 탄압과 추방, 사상적 적수들의 부단한 공격, 가정 생활의 혹심한 궁핍, 건강의 파괴…그러나 그 어떤 시련도 그에게서 투쟁 의욕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다. 윌헬름 리프크네히트는 맑스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그가 보다 리기적인 인간이였더라면 그는 그저 될 대로 되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고귀한 그 무엇이 존재하였습니다—그것은 곧 사업에 대한 충실성이였지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로작이며 로동 계급의 해방적 사명과 길을 밝힌 천재적 로작인 《자본론》을 쓰던 때의 맑스의 생활은 참으로 혁명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 준 본보기로 된다. 그는 빈번히 침식을 잊고 일하였다. 몇 번이나 재촉을 받고서야 식탁에 마주 앉았으며 숟가락을 놓기가 바쁘게 다시 자기 서재로 돌아 갔다. 그는 마치 피로를 느낄 줄 모르는 사람과도 같았던 것이다. 거의 온 밤을 새워 가며 일하고 아침이 되여서야 자리에 누웠다. 지어는 그의 육체가 더는 견디지 못 할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그는 피로한 기색을 표면에 나타내지 않았다. 엥겔스가 맑스를 영결하면서 말한 바와 같이 참으로 《투쟁은 그의 본능이였다》.

맑스, 엥겔스의 사업을 충실히 계승 발전시킨 레닌에게서도 이러한 혁명성의 고귀한 풍모를 그 대로 찾아 볼 수 있다.

레닌은 볼쉐위크당과 로씨야 로동 계급을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에로 조직 향도하였다. 혁명의 폭풍우가 휩쓸던 나날에 그의 활동이 고도의 긴장성과 혁명성으로 충만되여 있었다는 것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전 생활이 혁명성으로 충만되여 있었으며 지어 휴식과 오락마저도 혁명 사업과 떨어진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였다. 레닌에 관한 한 회상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레닌에게는 휴식과 오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였으며 그의 모든 로력, 생활 체계에서 동떨어진 어떤 특수한 것도 아니였다. 당을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위업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리롭게 세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는 것이 그의 생활의 전부였다.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기의 힘도, 건강도 심지어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레닌에게 있어서 생활이 곧 혁명성의 련쇄적 과정이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레닌의 충실한 전우였으며 제자였던

쓰딸린도 자기의 전 생애를 레닌이 한 것처럼 비상한 혁명적 열정과 투지, 전 개력으로써 혁명 위업에 바치였다. 1929년, 그의 탄생 50주년에 제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단체들과 개별적 동지들로부터 그의 고귀한 혁명 활동을 찬양하여 축하의 편지와 전문들을 보내여 왔다. 이에 대답하면서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들의 축하와 환영을 나는, 나를 낳았고 또는 자기의 형상과 모형대로 교양한 로동 계급의 위대한 당의 혜택으로 돌린다. … 동무들, 나는 앞으로 로동 계급의 사업에,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전 세계 공산주의를 위한 사업에 일체 나의 힘과 일체 나의 기능을 또는 필요하다면 일체 나의 피의 최후의 한 방울까지라도 바치기에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 것이다》.

쓰딸린은 자기의 전 생애를 자신의 맹세대로 혁명 위업에 충실하게 바치였다.

국제 로동 운동, 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위대한 투사들이 이와 같은 빛나는 혁명성의 모범으로써 살며 싸워 왔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어려운 시기부터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한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사상과 확고 부동한 혁명적 원칙성, 투지, 완강성, 인내성 그리고 락천성과 비상한 전개력으로 교양 받은 항일 빨찌산들은 그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시련이 닥쳐 와도 동요할 줄 모르는 절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혁명 과업이라면 사선이라도 뚫고 나가는 굳센 투지를 보여 주었다. 또한 그들은 혁명의 전도가 막연하게 생각되던 그러한 어려운 때에 있어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싸워 나가는 참된 혁명적 풍모의 전형들을 창조하였다.

전 생애를 혁명 위업에 바친 박 달 동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혁명성의 모범을 남기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박 달 동지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불요불굴의 투지와 헌신성, 대담성으로 국내에서의 반일 투쟁의 불'길을 일으켰고 투쟁 도중에 일제놈들에게 체포된 이후에 있어서는 감옥에서 혁명적 절개를 굽힘이 없이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해방과 함께 감옥에서 나왔으나 놈들의 고문으로 하여 받은 극심한 상처는 사실 그가 살아 나간다는 것조차 무서운 고통으로 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삶을 혁명과 떼여서 생각할 줄 몰랐다. 《나는 무엇으로든지 나의 심장이 고동치고, 내 혈관 속에 피가 뛰고 있는 한 혁명을 위하여, 우리 당의 위업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라고 박 달 동지는 썼다.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근로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을 공산주의 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 전통으로 교양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항일 투사 리 제순 동지에게서도 이러한 모범을 찾아 볼 수 있다.

리 제순 동지는 항일 투쟁 대오에 참가하여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장백현 일대의 조국 광복회 조직들과 국내 혁명 력량과의 련계를 보장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과업을

불굴의 헌신성으로 수행하였다. 그는 투쟁 도중에 불행하게 원쑤들에게 체포되여 교수대에서 영웅적으로 희생되는 그날까지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에 충직하였으며 용감히 싸웠다.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이것이 바로 리 제순 동지의 신조였으며 생활이였으며 혁명에 바친 전 생애였다.

혁명을 위한 투쟁에 바친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혁명성의 고귀한 모범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울리며 우리를 투쟁에로, 승리에로 힘차게 이끌며 고무해 주고 있다.

*　　*

선렬들의 고귀한 혁명 정신과 풍모를 이어 받고 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에서 혁명성의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고 있다.

세인을 다시 한번 놀래운 평양—신의주 간 전기 철도의 건설자들은 《7만산》, 《6만산》을 한꺼번에 날려 보내면서 하루에 평균 1 키로 메터씩의 건설을 추진시킴으로써 총 500 리를 헤아리는 이 긴 구간을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는 영웅적 투쟁으로 《전철 속도》를 창조하였다.

신의주 대화학 섬유 공장 건설자들은 300%나 500%이면 괜찮고 800%나 1,000%쯤 되여야 시원하다는 생산 능률의 기적적 지표들을 돌파하였다. 이 건설장의 이름 떨친 로력 영웅 오광호 아바이는 환갑을 바라 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굳게 믿고 눈'바람 몰아치는 혹한 속에서도 100여 메터의 높은 굴뚝을 단 50일 동안에 쌓는 기록적 성과를 올리였다.

무명평을 《비단평》으로 전변시킨 신도 간석지 건설 사업소 로동자들은 밀려드는 조수를 몸으로 막아 내면서 자기들의 혁명 초소를 꿋꿋이 지켜 싸웠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혁명성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계속 천리마의 대고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위대한 전진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세의 요구로 볼 때, 혁명을 계속 성과 있게 추진시켜야 할 요구로 볼 때 우리 앞에는 모든 부문에서 혁명성을 더욱 높여야 할 과업이 절실하게 나서고 있다.

사실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의 대부분은 당이 집권한 합법적 조건에서 자라 났기 때문에 그렇게 간고한 시련을 겪지 못 하였으며 많이 단련되지 못하였다. 비혁명적인 사상, 소부르죠아 사상은 바로 간고한 시련 속에서 그리고 날카로운 사상 투쟁 속에서 가장 성과 있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몇 년 전만 하여도 낡은 생산 관계와 직접 간접으로 련결되여 있었고 따라서 과거에 뿌리 박힌 낡은 사상의 잔재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또한 외부로부터, 미제가 둥지를 틀고 있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부르죠아 사상의 침습과 특히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맑스주의의 가면을 쓴 부르죠아 사상의 부단한 침습을 막아 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혁명이 오래 동안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에게 권태증이 나올 수 있고 또 생활이 나날이 풍만해지는 조건에서 안일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모든 사정은 만일 우리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지 않는다면 비혁명적 사상 요소들이 자라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혁명성이 마비되고 부화와 타락이 사람들의 생활을 좀먹고 있는 나라들의 현실은 비혁명적 사상 요소와의 투쟁을 소홀히 할 때 어떠한 위험이 닥쳐 올 수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언제나 심중한 주목을 돌려 왔으며 특히 현 정세와 관련하여 당원들과 일'군들 속에서 혁명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당의 이 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모든 부문에서 혁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시련이 닥쳐 와도 일편단심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적 원칙과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당과 립장을 같이 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당 간부는 무엇보다도 혁명에 충실하고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당을 지지하고 변절하지 않는 사람이다. 조금만 흔들어도 적에게 항복하며 이 바람에 넘어가고 저 바람에 자빠지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328 페지).

당의 로선과 당'적 원칙에 배치되는 일체 비당적 비혁명적 요소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특히 공산주의 운동의 주되는 위험으로 되는 수정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수정주의의 길잡이로 되는 사대주의적 요소의 사소한 표현과도 타협하지 말고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양풍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 립장,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우리 당의 주체적 립장에 철저히 서는 것은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사태를 정확히 판별하고 당'적 립장을 튼튼히 지키며 견결히 투쟁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다음으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요구되는 혁명성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뛰여 드는 강의한 투지이다.

모든 것을 우선 당의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복종시키는 것—이것은 혁명가의 본분이다.

당이 주는 임무에 대해서 힘들고 쉬운 것을 가리거나 자기 비위에 맞는 일'자리와 좋은 곳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혁명 위업의 승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당이 주는 임무—그것은 곧 혁명 과업이니 만큼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투쟁을 요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 당이 준 임무는 모두가 당과 혁명에 필요한 사업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당의 전체 혁명 위업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위업에 이바지한다는 영예를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특

별히 간고한 혁명을 수행해 나가는 조건에 있어서는 누구나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일이라면, 당과 혁명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떤 일, 어떤 곳이라도, 지어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곳이라도 뛰여 들 사상적 준비가 되여 있어야 한다.

《혁명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어떤 곤난이든지 이겨 나가는 강의한 맛이 있어야 한다.…하면 하고 말면 마는 태도로 혁명에 참가하는 녹거리 공산주의자가 되여서는 싸움을 못 한다》(김 일성).

당의 정책과 당이 준 임무를 옳게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일상적으로 그에 대해서 사고해야 하며 일을 더 찾아서 해야 하며 혁명적 전개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혁명성은 당 정책, 혁명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도,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함이 없이 해 보다가 안 되면 그만 두고 물러 앉는 태도와는 인연이 없다.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한 한마음으로 항상 머리를 써서 궁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붙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솟고 전망이 열리며 방법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대담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끝장을 볼 때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혁명성은 또한 혁명 승리의 합법칙성을 믿고 혁명 력량의 거세찬 힘을 믿는 데서 오늘의 투쟁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 나가며 래일을 향해 대담하게 나가는 혁명적 락관주의에서 발현되여야 한다.

혁명이 오래 끌고 간고한 과업이 계속 제기되는 조건에서 혁명적 락관주의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없다.

락관주의 정신은 혁명 전반에 대해서는 물론 개별적인 혁명 과업 수행에서도 절실한 것이다. 한두 번의 실패에 락망하고 물러 서거나 전진 도상에서 생겨나는 일시적인 난관을 견디여 내지 못하여 주저앉는다면 어떻게 장기성, 간고성을 띠는 우리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세계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바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의 일부 사람들이 혁명적 폭풍을 못'이겨 투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부단히 수양함으로써 미래를 사랑하며 앞날의 승리를 굳게 믿고 그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 락천적인 정신으로 충만되여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욱 용기를 내여 투쟁에로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생활을 더욱 락천적으로 즐겁게 조직해야 한다. 사실 빨찌산 생활의 간고성이란 어떤 어려운 로동자들의 생활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락천적으로 살았고 문화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높은 혁명적 기세를 견지할 수 있었다. 술이나 마시고 투전이나 하는 퇴폐적인 생활 속에서는 전망도 없고 반전할 생각도 없고 조국도 없고 인민도 없고 아무런 행복도 없다. 이런 생활 속에서는 절대로 혁명적 기세가 나올 수 없으며 견결한 투지가 나올 수 없으며 무엇을 연구하려는 의욕도 창발성도 나올 수 없다》(《수산물 80만 톤 고

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혁명성은 우리 일'군들의 품성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혁명적 작풍은 군중적 작풍이다.

만일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까다롭고 리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강요하며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공로는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과 같은 혁명가의 품성과는 인연이 없는 그릇된 품성이 조금이라도 발로된다면 그러한 일'군은 군중의 존경과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며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되여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남이 해 놓은 좋은 일과 잘 된 성과를 응당하게 평가하고 그를 본 받을 대신에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거나 깎아 내리려 한다면 도대체 그러한 일'군은 자신을 성스러운 혁명가들의 대오에서서 싸우는 투사라고 떳떳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은 반드시 모든 사업에서와 일상 생활에서 항상 군중들과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며 겸손하게 어깨를 낮추고 배우는 립장에 서야하며 소탈하고 허심해야 하며 이신작칙해야 한다. 실천적 경험은 그러한 일'군만이 대중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대중의 혁명 열의를 무한히 북돋아 그들을 천리마의 새로운 대고조에로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은 모든 부문에서 혁명성을 더욱 발휘하여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 초급 진지의 강화를 위하여

리 재 윤

오늘 우리 당은 농촌 초급 진지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방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농촌 초급 진지의 강화는 선차적 문제로 제기된다.

당의 지도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농민 군중의 혁명적 열의가 비상히 앙양된 오늘 당 사업을 선행시켜 당'적 령도를 강화하고 농민 군중을 조직 동원하는 것은 테제가 제시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결정적 고리의 하나로 된다.

농촌 초급 진지의 강화는 농촌에서 당의 계급 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로농 동맹을 공고화하며 당 주위에 광범한 농민 군중을 튼튼히 결속시키게 한다.

특히 국토가 량단된 정세 하에서 농촌 초급 진지의 강화는 도래할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강력한 혁명 력량을 마련하는 것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과 당 건설에서 농촌 초급 진지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자기 활동의 주되는 힘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초급 당 조직을 강화할 데 대한 우리 당 제 4 차 대회 결정과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농촌 초급 진지는 우수한 일'군들로 꾸며졌으며 그의 전투력은 일층 제고되였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농촌 초급 진지가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보루로 확대 강화되였다는 것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농촌 경리 앞에 련'이어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은 계속 농촌 초급 진지를 강화할 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함남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농촌 초급 진지의 강화는 도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제고함에 있어서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공업이 발전되고 로동 계급이 많은 조건에서 농촌 초급 진지의 강화는 농업을 공업에 따라 세우며 발전된 도시의 문화를 농촌에 보급하며 로동 계급의 혁명성을 농민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강력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농촌 초급 진지를 계속 확대 강화할 것이다.

*　　　*

농촌 초급 진지를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농촌 핵심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농업 정책은 어느 것을 물론하고 례외 없이 농촌 초급 진지를 통하여 농민 대중 속에 침투 관철되며 광범한 농민 군중을 당 주위에 결속하는 사업도 바로 그를 통하여 실현된다.

지휘 성원이 유능하여야 매개 전투 초소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대원들의 사기가 왕성하며 어떤 적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듯이 농촌 초급 진지를 유능한 일'군들로 꾸려야 당의 계급 진지가 강화되고 그 어떤 어려운 혁명 과업도 어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당에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적 핵심을 가지는 것은 당 조직들이 당 생활의 표본을 마련하며 단결의 핵심을 확보하며 당 정책 관철의 주력을 형성하며 전진 운동의 선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도당 위원회는 농촌 핵심 대렬을 계급적 각성이 강한 로동 계급 출신 간부들과 애국 렬사 유가족, 제대 군인, 인민군 후방 가족들로써 꾸리라고 한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직적 대책을 취하였다.

도당 위원회는 이 중대한 사업을 군당 위원회에만 일임하고 말로만 강조하던 지난날의 낡은 사업 태도를 버리고 매개 군당 위원회들로 하여금 자기 군내 초급 진지를 꾸리도록 지도 방조하는 한편 직접 이 사업을 틀어 쥐고 추진시켰다.

도당 위원회는 도급 기관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성이 강하고 실무 능력이 유능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중요한 리와 비교적 공업이 약한 지대의 군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군당에서 고농 및 빈농 출신으로서 타 부문에 등용한 일'군들을 모두 농촌 핵심 대렬에 망라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도당 위원회는 공산 대학을 통하여 유능한 일'군들을 양성하여 파견하는 한편 모든 군들에서도 군당 학교를 통해서 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였다.

결과 최근 년간 우리 도내 농촌 핵심 대렬은 질량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이룩하였으며 리당 위원과 세포 위원들 속에서 로동 계급 출신 간부들과 애국 렬사 유가족, 제대 군인 및 인민군 후방 가족 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 핵심 대렬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농촌에서 당의 계급 진지가 강화되고 당의 농업 정책이 제때에 침투 관철되게 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일층 제고되였다.

농촌 핵심 대렬을 꾸리는 사업과 함께 중요한 것은 농촌 초급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 도내 일부 농촌 초급 일'군들은 어려운 투쟁에서 자라 났으며 당에 무한히 충실한 좋은 일'군들임에도 불구하고 리론 수준이 낮고 조직 수완이 어린 데로부터 당 정책을 대중 속에 침투 관철시킴에 있어서나 농민 군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능숙하지 못 하였다.

이로부터 도당 위원회는 농촌 핵심 대렬을 꾸리는 사업에 못지 않게 그

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도당 위원회는 우선 그들의 정치적 식견과 지도 리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당 정책 교양을 더욱 심화시켰다.

교양망을 통하여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시키는 동시에 특히 공산 대학과 군당 학교를 통하여 그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일층 제고시켰다.

우리 도내 농촌 초급 일'군들 중 52.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시, 군당 학교 이상의 일반 정치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각종 대학 통신망과 농업 기술 학교 및 고등 농업 학교 통신망에 망라되여 공부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도내 농촌 초급 일'군들은 당 정책이 제시되면 그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고 그를 대중 속에 신속 정확히 침투 관철시킬 수 있게 되였다.

특히 도당 위원회는 모든 초급 일'군들이 기술을 소유하도록 꾸준히 투쟁하였다.

현시기 농촌 경리 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 과업과 테제가 제기한 기술 혁명 과업은 농촌 초급 일'군들의 기술 수준을 한 계단 제고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도당 위원회는 원래 초급 일'군들을 선발 배치할 때에 정치적으로 준비되였을 뿐만 아니라 실천에서 단련되고 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일'군들을 배치하였으며 리당 위원들과 세포 위원들을 선거할 때 기술자들도 망라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도당 위원회는 매개 군당 위원회로 하여금 기술 지식을 보급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리게 하였다.

도당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매개 군당 위원회는 모든 농촌 간부들을 농업 기술 학교 및 고등 농업 학교에 망라시켜 농업 과학 기술을 배워 주는 한편 기술 학습 및 실습 등을 통해서 꾸준히 배워 주었다.

특히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동원하여 제강을 검토시키며 과학 지식 보급 협회를 발동시켜 농촌 초급 일'군들에게 기술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가지도록 하였다.

결과 오늘 도내 농촌 초급 일'군들 중에는 농업 기사, 기수 자격을 가진 동무들이 나오게 되였으며 한 가지 기술도 소유하지 못 한 동무는 거의 없게 되였다.

농촌 초급 일'군들 속에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타파되였고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망 목표와 계획이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기술 크루쇼크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농촌에서 기술 혁신이 촉진됨에 따라 농민 군중들이 고된 로동에서 점차 해방되게 되였으며 사상 교양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또한 도당 위원회가 주목을 돌린 것은 농촌 초급 일'군들의 전반적 수준을 한 계단 제고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오늘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와 테제가 제시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성과적 수행은 농촌 초급 일'군

들의 전반적 수준 제고와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전반적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모든 간부들이 혁명가의 립장에 서서 이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오늘 도내 전반적 군들에서는 사람들의 수준, 성격, 취미, 발전 전망 등을 장악하고 그에 따르는 전망 목표를 세운 다음 그들을 각종 형태의 학습 체계에 인입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일부 학습에 열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짜고 들어 설복하고서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의 방법으로 교양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험은 이 사업을 당 위원회가 틀어쥐고 간부들로부터 군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혁명가의 립장에 서서 학습을 혁명하는 자신의 사업으로, 생활 상 요구로 전환시킬 때 례외 없이 성과가 달성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학습 지도에서 혁명적 사업 방법인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도입하며 군의 조직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도내 농촌 간부들과 농민 군중은 발전하는 현실에 적응한 보다 심화된 내용 상 및 방법 상 지도를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매개 군당 위원회로 하여금 우선 리를 실'속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지도 체계를 세우고 군급 기관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높이는 한편 당이 전반을 장악하면서 군의 해당 기관들이 자기 산하 조직들을 통하여 부문별 학습 체계 운영을 지도 방조하도록 책임을 지웠다. 그리고 모든 군급 기관들이 한 개 리를 담당하여 책임적으로 지도 방조하도록 하였다.

결과 이 사업에 전 군이 동원되고 리의 활동이 높아지게 되였다.

경험은 시, 군당 위원회들이 군중의 앙양된 기세에 군의 지도를 따라 세워야 하며 모든 기관들과 근로 단체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당 위원회가 자기 활동의 주되는 관심을 돌린 것은 농촌 초급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풀어 주기 위하여 아래에 내려 가 도와 주고 배워 주도록 한 것이다.

일부 초급 일'군들 중에는 사업과 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한 데로부터 혁명 과업 수행과 사람과의 사업에서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이로부터 도당 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 가서 실지 사업 과정을 통하여 도와 주고 배워 주도록 하였으며 해당 단위의 실정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형식을 선택하여 하나를 가르쳐도 똑똑히 배워 주게 하였다. 여기서 강습과 방식 상학을 잘 배합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였다.

도당 위원회와 군당 위원회들이 실지 사업과 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잘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강습을 주면서 배운 문제를 가지고 한 단위에서 실지 집행하여 견학시키고 경험을 교환하였는바 이는 일'군들이 실지 사업에서 써 먹을 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되였다.

배워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 밑에 깊이 파고 들어 가서 모든 농촌 초급 일'군들이 알 때까지 인내성 있게 꾸준히 배워 주는 것이다.

농촌 초급 일'군들을 꾸리고 배워 주는 데 있어서 현시기 중요한 것은 이미 꾸며진 핵심 대렬을 잘 보존하면서 그를 계속 보강하는 것이다.

도당 위원회는 일부 군당 위원회들에서 농촌 초급 진지를 계속 강화할 대신에 이미 꾸며진 일'군들을 이 구실 저 구실을 붙여 떼 가거나 실무 수준이 어리다고 탓하면서 빈번히 조동시키는 그릇된 현상들을 시정시키고 농촌 초급 일'군들은 한 자리에 오래 고착시키도록 하였다.

초급 간부들을 한 자리에 오래 고착시킨 결과 사람들도 잘 알고 경제도 잘 알게 됨으로써 사업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여 자기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였다.

경험은 농촌 핵심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할 때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강화되고 당 농업 정책이 철저히 침투 관철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농촌 초급 진지를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농촌 초급 일'군들에게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시키는 것이다.

농촌 핵심 대렬을 꾸리는 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농민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그들을 우리 당 주위에 집결시키며 당의 농업 정책을 어김 없이 집행하고 관철하는 데 있다.

따라서 농촌 핵심 대렬을 꾸리는 사업과 그들에게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시키는 사업은 분리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일'군들로 농촌 초급 진지를 꾸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군중 공작을 능숙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농민 군중을 쟁취할 수 없으며 농민 군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충분히 발양시킬 수 없다.

농촌 초급 일'군들이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할 때에만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여 당과 농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농민 군중의 창발성을 발양시킬 수 있으며 당 농업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

청산리 교시가 있기 전까지만 하여도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군중 공작 방법을 충분히 체득하지 못한 데로부터 군중 공작에 능숙하지 못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때때로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발로되였다.

그러나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초급 일'군들은 우선 모든 사업의 첫 공정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게 되였다.

그들은 주민의 계층 별, 성별, 년령 별 특성과 매 개인의 성격, 취미, 준비 정도, 애로 조건 등 모든 것을 충분히 료해한 토대 우에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또한 기본 군중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 있고 능숙하게 진행할 줄 알게 되였다.

농촌 초급 일'군들에게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여야 한다. 혁명적 군중 관점이 확립되여야만 군중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사람들을 료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업을 실'속 있게 할 수 있다.

도당 위원회는 농촌 초급 일'군들 속에서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농촌 초급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으로,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정신으로, 대중에 철저히 의거하는 정신으로 무장되였다.

농촌 초급 일'군들이 군중 공작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작풍을 바로잡아 주는 문제가 중요하다. 아무리 당 정책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농민 군중과 직접 생활하는 농촌 초급 일'군들의 작풍이 나쁠 때에는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없다.

농촌 초급 일'군들이 항상 농민 군중 앞에서 겸손하고 소박하며 생활에서 검박할 뿐만 아니라 례의 도덕을 잘 지키고 지방 풍습을 존중할수록 농민 군중을 그 만큼 잘 감화 교양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농촌 초급 간부들을 아끼고 존경하고 따르게 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초급 간부들이 각계 각층 군중을 아량 있게 포섭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애 쓸 때 그들은 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된다.

현시기 농촌 초급 일'군들의 작풍을 바로잡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신작칙은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실천 행동을 통하여 대중의 선봉이 되고 모범이 되여 그들을 혁명 투쟁에로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작풍이다. 농촌 초급 일'군들이 이신작칙할수록 농민 군중을 더욱 효과 있게 감화 교양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동원을 보장할 수 있다.

도당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정평군, 덕성군, 북청군을 비롯한 많은 군의 지도 일'군들이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한 결과 농촌 초급 일'군들이 그 모범을 본 받아 항상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게 됨으로써 농민 군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적극 조직 동원할 수 있었다.

농촌 초급 일'군들의 작풍을 바로잡아 줌에 있어서 현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서 혁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협동 농장은 사회주의적 대집단 경리로서 부과된 혁명 과업도 방대하고 복잡하다. 오늘 농촌 초급 일'군들에게는 집단 경리를 능숙하게 관리 운영하며 그를 계속 공고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주어져 있다.

초급 일'군들이 농장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며 제기된 혁명 과업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발휘할 때 농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계속 공고화되고 농장원들의 생활은 부단히 향상될 수 있다.

신흥군 내 농촌 초급 일'군들은 난관 앞에서 물러 설 줄 모르고 온갖 애로를 극복하면서, 함남도에서는 치산 치수 사업을 잘 하라고 한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를 이악하게 집행한 결과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경험은 모든 일'군들이 당 정책을 무

조건 관철하려는 불 같은 열의와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으면 아무리 어려운 혁명 과업도 어김 없이 수행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농촌 초급 일'군들의 작풍을 바로잡아 줌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그들 속에서 인간성과 문화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모두 사회주의 근로자로 개조되였으나 로동 계급에 비하여 아직 상대적으로 의식 수준이 어리며 오랜 기간에 걸친 개인농 생활에서 물젖은 낡은 인식, 낡은 관습의 잔재도 철저히 청산되지 못하였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일제 통치와 미제에 의한 국토의 량단과 조국 전쟁으로 인하여 그의 구성도 매우 복잡하다.

조성된 정세와 농촌 경리 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 과업은 각계 각층 농민 군중을 한 사람도 남김 없이 교양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결속시킬 것을 요구한다.

《당성》, 《원칙성》만 가지고서는 각계 각층 농민 군중을 당 주위에 결속시킬 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부드러운 작풍과 아량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동지와 대중을 굳게 믿어 주고 결함이 있을 때에는 알도록 타일러 주며 아무리 복잡한 사람이라 하여도 뜨거운 동지애와 너그러운 품성으로 감화 교양하여 혁명적으로 굳게 결속시켜야 한다.

인간성과 함께 일'군들의 문화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

농촌 초급 일'군들의 문화성을 제고함이 없이는 농촌에서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일 수 없다.

경험은 일'군들의 인간성, 문화성이 제고될 때 그 어떠한 사람도 다 교양 개조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며 도시의 문화를 성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의 경험은 농촌 초급 일'군들의 작풍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초급 단위 책임자들의 작풍을 고쳐 주는 것이 선결 문제였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격언도 있는 바와 같이 단위 책임자들의 작풍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사업하고 생활하는 일'군들의 작풍을 바로잡을 수 없다.

도당 위원회는 북청군 룡전리, 덕성군 니망지리를 비롯한 많은 리들에서 초급 단위 책임자들의 작풍을 계통적으로 료해하고 그들을 인내성 있게 지도 방조하여 작풍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모든 초급 일'군들이 그를 본받게 하였으며 리내 농민 군중이 리당 위원회 주위에 뭉쳐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농촌 초급 진지를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농촌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촌 초급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도, 그들 속에서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시키는 사업도 다 당 생활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다.

경험은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에서 만병 통치의 역할을 논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3 차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도 내에서는 지난날 당 조직들의 사업과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존재하였던 결함들이 시정되고 당 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 생활이 더 한층 강화되고 있다.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당 생활이 강화됨에 따라 그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혁명가적 수양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중 속에서 선봉적 역할이 제고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리당 위원회와 분세포 위원회들의 당 생활 조직 수준이 제고되였으며 그의 전투적 기능이 더욱 제고되였다. 그리 하여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당'적 사상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으며 우리 당의 계급 진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 생활 체계와 당 생활 지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당 생활 체계 확립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은 우선 그들로 하여금 당 규약 상 의무를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하도록 자각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이 당 규약 상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자각적으로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할 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를 체계적으로 해설해 주었으며 당 규약 학습을 정상화하였다.

당 규약 학습을 당원들의 수준과 준비 정도를 고려하여 자체 학습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당 시기 당 조직 앞에 제기된 실천적 문제와 결부시켜 집체적으로 토론하는 방법으로 또는 준비된 동무들을 동원하여 보충 해설을 해 주는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분조장들의 역할을 높여 당 규약 학습을 목적 의식적으로 조직하여 학습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게 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이 당 규약 학습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였다.

다음으로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당 생활 총화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우리는 당 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데 대한 당의 지도 방침과 당 생활 총화에 대한 목적과 의의, 조직 형식과 방법을 일반적으로 인식시키는 사업과 함께 한 개 단위에서 그를 실천해 보고 실물 교육을 통해서 배워 주는 사업을 옳게 배합하였다.

분조 당 생활 총화를 매개 당원들이 철저히 준비하여 높은 수준에서 량심적으로 스스로 총화하도록 지도 방조하였다.

이는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자각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업과 생활에서 당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게 하였다.

당원들의 당 생활 체계의 확립은 개별적 당원들과 일'군들에 대한 당 조직들의 지도가 강화될 때 더욱 철저히 수립된다.

당 조직들이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당 생활을 지도함에 있어서 류의할

것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농촌은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류동이 비교적 적고 그들이 한 부락에서 오래 동안 생활하며 분세포들이 작업반 단위로 조직되여 당 생활을 일상적으로 잘 료해하고 있으므로 당 생활 지도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 있다.

그러나 일부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문화 수준이 아직 응당한 수준에 있지 못 하며 그들 속에서 개인농 당시에 물 젖었던 산만성, 개인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들이 가끔 발로되고 있는 사정은 당 생활 지도에서 심중성과 진지성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은 군당 위원회와 리당 위원회가 경제 사업 실적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다 움직이며 초급 일'군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당 조직들이 당원들의 당 생활을 옳게 지도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항상 세밀히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당원들의 당 생활을 료해 장악하는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세포 위원장은 자기 분세포 내 당원들의 당 생활을 책임적으로 료해 장악하며 리당 위원장은 자기 산하 분조장들과 작업반장 이상의 초급 간부들의 당 생활을 책임적으로 료해 장악하며 군당 위원회는 군내 당원들과 일'군들의 당 생활을 계통적으로 료해 장악하도록 하였다.

이는 리내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당 생활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담보로 되였다.

당 생활 지도 체계 확립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당원들과 간부들의 당 생활을 료해한 데 기초해서 개선 대책과 교양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 자체의 수양을 강화하면서 그것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휘 성원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군당 위원회 부장 이상 간부들이 체계적으로 리에 내려 가 초급 일'군들을 배워 주며 군에 데려다 강습과 경험 교환회를 통하여서도 배워 주도록 하였다.

당 생활 지도 체계 확립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당 생활 조직과 지도 방법을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당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군당 위원회 각 부서들의 활동은 당원들의 당 생활 체계와 당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 것보다 경제 깜빠니야에 그 예봉을 돌리고 있었다.

이로부터 도당 위원회는 매개 군당 위원회 일'군들이 우선 당원들의 당 생활에 1 차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으며 철저히 당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경험은 당원들과 초급 일'군들의 당 생활이 강화될 때 그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사업과 생활에서 혁신이 일어 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농촌 초급 진지를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당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군당 위원회는 초급 당 조직들과 직접 련결된 우리 당의 말단 지도 기관이며 모든 당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이다. 당의 모든 결정, 지시들은 여기에서 구체화되며 이를 실

천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직 정치 사업도 바로 여기에서 진행된다.

다른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한 바와 같이 군당 위원회의 지도와 역할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농촌 초급 진지를 강화할 수 없다.

농촌 핵심 대렬을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도, 작풍을 바로잡아 주는 사업도 다 군당 위원회의 지도와 역할에 달려 있다.

경험에 의하면 군당 위원회가 농촌 초급 진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 활동의 주되는 력량을 돌려야 할 고리는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가서 실지 사업 행정을 통하여 초급 일'군들을 도와 주고 배워 주는 것이다.

이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한 조치는 우선 모든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갈 수 있도록 문건도 간소화하고 회의도 극히 적게 그것도 잘 준비하여 짧은 시간에 하게 한 것이다.

아래에 내려 가 배워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히 주의한 것은 일부 일'군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유람식으로 돌아 다니거나 걸린 문제를 풀어 주고 도와 주어 아래 일'군들로 하여금 그를 집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대행하여 그들의 독자성을 마비시키고 독판 치는 현상들과 투쟁한 것이다.

우리는 지도 일'군들의 수준을 제고하며 아래 단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다음 그에 기초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내려 가며 내려 가서는 아래 일'군들의 자립성을 존중하며 걸린 문제를 풀어 주고 지도 방조함으로써 그들의 실무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투쟁 행정을 통하여 모든 군당에서는 아래에 내려 가 도와 주고 배워 주는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커다란 전변들이 일어 나고 있다.

아래에 내려 가 도와 주고 배워 주는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발전하는 현실과 이를 미처 따라 가지 못하는 초급 일'군들의 지도 수준 간의 불일치를 급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었으며 지도 일'군 자신들도 그 과정을 통하여 수준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농민 군중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 발양됨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때에 관철되게 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 가 도와 주고 배워 주는 체계가 확립될 때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근절하고 사업에서 주관주의와 일면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농민 대중에게 신속하게 침투시키고 그것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

농촌 초급 진지를 튼튼히 꾸릴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요구와 도내 농촌 경리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달성한 성과는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꾸려진 농촌 초급 진지를 잘 보존하면서 그를 계속 보강함으로써 농촌에서 우리 당의 계급 진지를 더욱 반석 같이 다져야 한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농민 군중들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집결시키며 도내 농촌 경리 부문 앞에 제기된 10대 과업을 기한 전에 훌륭히 수행하며 테제가 재시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담보로 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 문제

경제 관리의 부단한 개선 완성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근본 문제

사회주의 건설에서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의 정확한 해결 여하에 따라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화와 그 우월성의 발양, 생산력의 부단하고 급속한 발전 등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적 문제들이 좌우된다.

특히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는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확립된 이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령도하는 맑스-레닌주의당들의 활동에서 기본 문제로 나선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적으로 승리하기 이전에는 생산력 발전의 결정적 고리가 낡은 생산 관계의 질곡으로부터 생산력을 해방하는 데 있으며 매개 나라 맑스-레닌주의 당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집중되게 된다.

그러나 생산력이 낡은 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해방되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이후 생산력 발전의 가장 큰 예비는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의 부단한 개선에 있으며 또 바로 경제 관리의 개선에 따라 승리한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공고화와 그 개별적 측면들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맑스-레닌주의당이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승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제때에 경제 지도 체계를 개편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생산력의 부단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경제 관리 체계와 그 방법은 매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정치 경제적 과업과 나라의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여야 하며 또한 매개 부문의 생산 기술적 특징과 일'군들의 관리 능력에도 적응하여야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심화 발전에 따라 부단히 개선 완성하여야 하며 매개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 지도 관리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 관계의 개별적 측면들을 완성하는 과정이며 또한 토대의 발전에 적응하게 상부 구조의 일부 고리들을 개선 완성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폭이 넓고 심각한 과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 법칙을 심오하게 인식하고 상부 구조와 생산 관계의 개별적 측면들을 능동적으로 개선 완성함으로써 토대와 상부 구조의 일부 고리,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개별적 측면들 간에 발생하는 모순을 정확히 풀어 나가야 하며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당이 사회주의 경제 관리 지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주의 하에서 긴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 상부 구조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이후 시기에 와서 이 문제의 해결에 커다란 력량을 집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력 발전의 높은 속도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인 급속한 앙양은 바로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 온 우리 당 정책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46년에 비하여 1963년에 공업 총생산액은 32 배로, 농업 총생산액은 268%로 장성하였으며 특히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이후인 1959～1963년의 5 년 간에만도 공업 총생산액은 2.6 배로, 알곡 총수확고는 1.5 배로 장성하였다.

과거 사회로부터 보잘 것 없는 생산력을 물려 받았으며 거기에 전쟁의 혹심한 피해까지 입은 결과 극히 락후한 생산력 수준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착수하였던 우리 나라가 최단 기간 내에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고 생산력 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할 수 있은 것은 매 시기 경제 관리 지도 문제에 가장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정확히 해결한 우리 당의 정책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시종 일관 경제 관리 문제를 주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에 대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상부 구조의 능동적 작용을 부단히 강화하여 왔으며 그에 의거하여 생산력 발전의 거대한 예비를 능숙히 동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청산리 교시였다.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현지 지도의 력사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인민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 관리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 원칙과 실천적 지침을 제시한 데 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날카롭게 제기된 것은 농촌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낡은 지도 체계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였

다.

김 일성 동지는 바로 농촌의 한 점, 청산리에서 실천적 모범을 통하여 이 문제의 전면적 해결 방도를 제시하였다.

청산리 지도에서 제시된 기본 원칙과 정신은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전반의 지도 관리를 새 환경에 맞게 전환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청산리 방법의 기본 요구로서 제시된, 우에서 아래 단위를 도와 주고 모든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여 전체 대중을 생산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인입하는 것은 모든 부문에 대한 지도 관리에서 반드시 견지하고 관철시켜야 할 근본적 원칙이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새 환경에 맞게 결정적으로 개편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관철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은 것은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확립이다.

우리 당은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요구를 인민 경제의 관리 지도 체계 자체에 체현시켰으며 기술 혁명이 전면적으로 촉진되고 생산 조직이 가일층 째여지는 새 조건에 맞게 청산리 방법을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경제 관리에서의 낡은, 자본주의적 잔재가 완전히 제거된 선진적 지도 관리 체계이며 사회주의적 경제 관리에 고유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한 새로운 경제 지도 체계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적 기업 관리의 요소를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는 가장 우월한 사업 체계이다.

또한 기업적 방법에 의거하는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우리 당이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창조한 사회주의 농업 지도 체계이며 집단 로동과 선진 기술에 의거하여 부단히 발전하는 사회주의 농업에 대한 관리 지도를 훌륭히 실현하며 협동 경리를 공산주의에까지 확신성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완성된 농업 지도 체계이다.

사회주의 경제 지도 관리 체계와 방법을 해결하는 행정에서 우리 당이 쌓은 풍부한 경험은

첫째로, 경제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 체계를 개선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지도 관리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둘째로, 경제에 대한 당의 령도와 국가적 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생산력 발전의 구체적 요구에 맞게 국가의 계획적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며

세째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하에 광범한 대중을 생산과 기업 관리에 전면적으로 인입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정확히 결합하는 것 등이 사회주의 경제 지도 관리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회주의 경제 지도 관리에서의 당의 령도적 역할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지도와 관리를 개선 완성하는 전 행정에서 경제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의 전면적 앙양에 따라 경제 관리 분야에서의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심화시켰다.

모든 국가 경제 단위들과 그 일'군들이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인민 경제 전반에 대한 당'적 령도 체계를 부단히 완성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였으며 또한 제 일차적 측면이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확립된 경제 지도 관리 체계와 방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바로 그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가장 훌륭히 제고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사회주의 경제 지도 관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적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것은 근본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경제 관리 지도를 발전시키는가 혹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관리 체계와 방법을 이끌고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된다.

그것은 인민 경제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의 제고가 사회주의 건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합법칙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수백만 근로 대중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창조물이다.

사회주의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근로 대중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력량을 단결시키며 명확한 투쟁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데로 대중을 동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이러한 본질적 요구는 오직 맑스-레닌주의당만이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높이며 직맹을 비롯한 각종 대중 단체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바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가 강화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서 모든 대중적 조직들을 지도하며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활동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목적에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력량이기 때문이다.

오직 맑스-레닌주의당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체 과정에서 사회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인민 대중의 리해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현 방도를 정확

히 제시할 수 있으며 대중이 목적 의식적으로 경제 건설에 동원되게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 심화될수록 당의 이러한 역할은 더욱 제고되여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규모는 방대하여지고 더 크고 벅찬 과업들이 제기되며 생산 부문들간의 련계가 복잡해지고 긴밀하여지는 것과 관련되며 또한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 인입되며 대중의 의식성, 조직성이 가지는 의의가 커지는 것과 관련된다.

경제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경제 지도 체계와 방법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경제 부문들 간의 호상 관계를 옳게 설정할 수 없고 경제 발전 도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시에 전면적으로 풀 수 없으며 특히 대중의 의식성과 조직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들을 성과적으로 취할 수 없다.

경제 건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본질적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며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케 하는 반맑스주의적 편향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반맑스주의적, 수정주의적 편향의 침습을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 자체를 강화하는 데 기초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이 부단히 제고되도록 경제 관리 지도 체계를 완성하여 왔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청산리 방법의 전면적 구현,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확립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인민 경제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은 비상히 높아졌다.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 새 농업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은 곧 인민 경제 전반에 대한 당'적 령도 체계를 완성하며 모든 행정 경제 단위들의 최고 령도 기관으로서의 당 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며 모든 지도 일'군들 속에서 당'적 사업 방법과 작풍을 확립하는 과정이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가일층 제고할 수 있는 정연한 사업 체계가 확립되였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당이 국가 경제 기관과 그 일'군들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당이 국가 경제 기관의 일을 대행해도 안 되며 그 뒤꼬리를 따라 다녀도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 당은 경제 지도 관리 체계의 매개 단위에서 당이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고 사람과의 사업을 위주로 하여 경제 건설을 지도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으며 또한 모든 당 위원회들이 국가 경제 기관들에 대한 키잡이 역할을 옳게 수행할 데 대한 방침을 관철시켜 왔다.

당 조직들이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사람과의 사업을 위주로 하여 경제 건설을 지도한다는 것은 바로 기계와 논밭을 보기 전에 생산의 주인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교양함으로써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경제 건설에 동원하는 방법으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각급 당 위원회들이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당 위원회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하여 사업 방향을 세우고 수행 방도를 제시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그 실행 정형을 검열 총화하며 당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을 반복 포치하는 방법으로 경제 사업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한 마디로 말하여 이것은 당이 경제 건설과 경제 기관들을 정치적으로 령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의 본질적 특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것을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 령도이다.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 조직들을 강화하고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당원들을 통하여 대중을 발동하고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 동원하는 것을 자기의 주되는 사업으로 한다.

《당의 혁명적 령도의 기본 요구는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부단히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 정책 수행에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따라서 당은 국가 경제 기관 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들의 당 정책 집행 정형을 지도 통제하며 간부들과 당원들, 대중들에 대한 정치, 조직 사업을 통하여 그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은 정치적 지도를 하여야 하며 결코 행정적, 기술적 지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이 만일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경제 행정 사업에 몰두하면 전반적 사업이 잘 되여 나가는지, 무엇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며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없다.

당'적 령도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은 어느 때나 확고 부동하게 견지되여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당 앞에는 물질적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더 전면에 나서게 되며 당은 경제 건설과 그 지도에 자기의 주요한 력량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에도 당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지도를 하여야 한다.

레닌은 경제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항상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주장하였으며 정치적 지도가 정확히 보장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경제 건설 자체도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 따름이다 (또 맑스주의적으로는 이렇게만 설 수 있다). 즉 문제에 대한 옳은 정치적 취급이 없이는 소여의 계급은 자기의 지배를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생산적 과업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레닌 전집 제 32 권, 95 페지).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되는 것이 생산이며 경제이라는 구실 하에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를 기술, 실무적 지도로 대체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혁명의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당의 역할을 거세해 버리는 것이다.

더우기 당 조직들과 그 일'군들의 주목을 생산에 돌리게 한다고 하면서 당을 인민 경제 부문과 국가 경제 기관에 용해시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당 자체의 운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심화 발전에 따라 경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정치적 령도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에 부합되게 건설되여야 하며 생산과 기술에만 몰두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시종 일관 당 건설에서의 지역적 및 생산적 원칙의 결합을 견지함으로써 매개 당 조직들이 사회주의 건설을 정치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강유력한 력량으로 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경제 관리 체계의 모든 고리들에서 당 위원회들을 해당 단위의 최고 령도 기관으로 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를 성과 있게 보장하였다.

당은 도, 시, 군당 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지방 당 조직들이 해당 지역 내 모든 부문들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기적으로 련결시키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지방 실정에 맞게 주동적으로 관철시키게 하는 한편 생산 단위의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제고시켜 당 사업을 생산 현장에, 생산자들 속에 더욱 심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모든 단위에서 해당 단위의 최고 령도 기관으로서의 당 위원회들의 역할과 기능을 높일 데 대한 당의 조치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당이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 경제 운영에 대한 정치적 령도, 키잡이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전제로 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집체성의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더욱더 복잡해지고 방대해지는 생산 및 관리 운영 조직을 능숙하고 기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으로부터 공장, 기업소에 이르는 경제 관리의 매개 고리에서 당 위원회들은 생산 및 관리 운영과 관련된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경제 관리에서의 《소총명》과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정확한 방침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 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에서 당 정책의 집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당 정책 관철에로 당원들과 대중을 발동시키는 조직 사업과 동원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되였다.

경제 지도 관리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의 제고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개선하고 광범한 대중을 생산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인입하며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제반 원칙들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게 한 결정적 담보였다.

매 시기 정확한 계획을 작성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며 경제 관리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관철시키며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하고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시키는 등 모든 문제들이 당의 령도적 역할의 제고에 기초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 관리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기초 우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기술 실무적 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는 데도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모든 경제 관리 단위들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며 그 실행을 위한 물질 기술적 보장 사업과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은 대규모적 사회주의 경제를 지도 관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데 기초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와 그 기관들의 계획적 관리 기능을 제고함으로써만 이러한 요구들이 해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 사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인 관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인민 경제 매개 부문의 생산력 상태에 맞게, 인민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관리 체계와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대안의 사업 체계와 기업적 방법에 의거하는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확립은 바로 공업과 농업의 새로운 발전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완성하는 모범으로도 된다.

공업에서의 대안 체계는 공업 발전의 현 단계에서 생산을 가장 과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관리 형태이다. 군중 로선의 원칙에 의거한 계획화 체계,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생산 지도 체계, 정연한 생산 보장 체계 등의 확립으로 대안의 사업 체계는 기술 혁명이 더욱 심화되고 공장 내, 부문 내 및 부문 간의 련계가 복잡하여진 우리 나라 공업 부문의 새 조건에 맞게 생산에 대한 지도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매개 공장의 관리 운영 수준을 훨씬 높일 뿐만 아니라 공업에 대한 성, 관리국들의 기술 실무적 지도 사업을 더욱 강화케 함으로써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는 국가의 공업 관리 체계의 모든 고리의 사업에서 근본적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농업에서의 새로운 지도 체계와 기업적 지도 방법의 확립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를 창설하여 거기에 농업 기술자들과 농촌 경리에 직접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집중시키고 과거와 같은 행정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 방법으로 농촌 경리를 지도케 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특히 농촌 기술 혁명의 실현을 더욱 강력히 추동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더욱더 기술 공정으로 전화되고 있는 대규모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 관리 운영에 접근시키는 구체적 형태이며 가장 우월한 방법이다.

협동화가 완성되고 농촌 경리에 선진 과학과 현대적 기술이 더욱더 도입됨에 따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생산 기

술적 조건은 필연적으로 공업에 점차 접근하게 된다. 《농업의 경영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 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접근하여 가는 만큼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도 응당 공업의 기업 관리 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한다》(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날로 기술 공정으로 전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구태 의연하게 개인농들에 대한 지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사회주의 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점차 접근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 농촌에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은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관리에 관심을 덜 돌려도 된다는 리유로 될 수 없다.

우리 당은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고 농촌 기술 혁명이 촉진됨에 따라 농촌 경리의 생산 기술적 조건이 점차적으로 공업에 접근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새로운 국가적 지도 체계와 지도 방법을 제때에 확립함으로써 농촌에 창설된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우월성을 훌륭히 발양시키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경리가 그 력사는 청소하지만 온갖 우연적 조건의 영향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해방되여 공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따라 확고하게 부단히 발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정확히 실현한 데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관리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엄격히 의거하여 지도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에서 중앙 집권적인 지도와 민주주의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다.

중앙의 모든 방침들은 광범한 생산자 대중과 모든 지방 관리 단위들의 의사와 실정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창발성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 관리에서의 중앙 집권적 지도가 보장됨이 없이는 생산자 대중과 지방의 창발성도 옳게 발양될 수 없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항상 우로부터의 중앙 집권적인 통일적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광범한 민주주의를 철저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시종 일관 견지하였다.

당은 경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중앙의 성, 국들을 조절 정비하고 생산 부문적 지도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매개 지방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역적 지도 관리 기관들을 확대 발전시켰으며 중앙의 기구를 축소하고 많은 유능한 관리 기술 간부들을 지방에 접근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통적으로 취하여 왔다.

당은 또한 생산에 대한 지방 당 조직들의 일상적인 지도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에 부문별 국가 관리 기구들의 기술적 지도 및 보장 사업을 결합시켰다.

그리 하여 우리의 경제에 대한 국가 관리 지도 체계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및 기술 실무적 지도가 훌륭히 보장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체계로 되였으며 우로부터의 통일적 지도와 광범한 민주주의를 밀접히

결합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고 있다.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는 이러한 국가의 경제 관리 조직은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활동을 하나의 목적에로 통일시키면서 매개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온갖 생산 내부 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경제에 대한 관리 지도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부단히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그것을 지방의 창발성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제에 대한 중앙 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약화시키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적 창발성》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며 경제 관리의 《지방 분권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을 마비시키는 길이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는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지만 그것은 오직 국가의 중앙 집권적 지도가 강화되는 조건 하에서만 가장 훌륭히 보장될 수 있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는 그 본성에 있어서 중앙 집권화된 경제인 것 만큼 어느 때나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중앙 집권적 절차에 의하여 움직여 나가야 한다.

더우기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 내부의 분업과 협업이 더욱 심화되며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경제 지도를 중앙 집권화하지 않는다면 지방 간, 생산 부문 간의 옳은 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며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전일체로서의 사회주의적 대규모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없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리윤》과 같은 지표에 의하여 전반적 경제 관리를 실현한다면 불가피하게 생산의 균형은 파괴되고 경제 발전에서 자연 발생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를 《자유화》하는 길이며 결국 무정부성과 막대한 혼란을 동반하는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에로 되돌아 가는 길이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부단히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경제는 자기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급격히 발전할 수 있다.

기업 관리에의 생산자 대중의 인입,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의 결합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완성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더욱 광범하게, 더욱 적극적으로 인입할 수 있게 관리 체계와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 대중을 관리에 인입하며 기업 관리에 대한 그들의 적극성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을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로 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경제 관리에 더욱더 많은 대중을 참가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로 되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경제 관리에서 생산자 대중이 노는 역할은 더욱더 증대되며 결국 공산주의 하에 가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가 없어지고 전'적으로 생산자 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제 관리만이 남게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아직은 전문적 관리

기관과 일'군들이 경제 관리를 직접 담당 수행하는 조건에서 생산의 구체적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직접적 생산자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기업 관리에 적극 인입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생산자 대중을 관리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입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의 완성 정도를 특징 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이것은 당이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항상 대중을 기업 관리에 인입하는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령도하는 전 행정에서 군중을 믿고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을 발동시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혁명적 군중 로선을 철저히 견지하였으며 특히 경제 지도 관리 체계와 방법의 완성에서 군중 로선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인입하는 문제를 능숙히 해결하였다.

군중 로선의 빛나는 구현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모든 생산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가장 적극적으로 인입하는 훌륭한 관리 체계이며 방법이다.

경제 관리에 군중 로선을 구현한 우리 당의 경험은, 대중을 기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인입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기업 관리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며 모든 경제 관리 일'군들 속에서 당'적인 사업 방법,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기업 관리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생산과 그 관리에 대해서 어느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책임 지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기업 관리의 완전한 주인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 위원회의 령도 밑에 전체 당원들과 전체 근로 대중이 다 생산을 잘 하기 위하여, 공장을 더욱 잘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이 이상 더 공장의 집체적 력량을 발휘하게 하는 길은 없다》(김 일성,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또한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철저하게 당'적인 방법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당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관리 운영에서도, 당 일'군들 뿐만 아니라 생산을 지도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전문적 관리 일'군들도 아래 사람들을 도와 주고 가르쳐 주며 대중을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발동시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생산자들의 기업 관리에 대한 자각적 열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명령과 지시 등 행정적 방법으로 관리 운영에 대한 대중의 능동적 역할을 높이는 것과 같은 과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오직 대중의 자각성과 의식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대중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의 창조적 지혜를 발휘케 하는 당'적 방법에 의해서만 이 문제는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물론 과거에 생산 협의회나 경쟁 운동도 대중을 기업 관리에 인입하는 중요한 형식들이였다. 그러나 그것들이 대중을 기업 관리의 모든 측면에 일상적으로 인입할 수는 없었다.

기업 관리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고 모든 전문적 관리 지도 일'군들이 당'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업하는 조건에서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기업 관리의 모든 측면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으며 또한 기업 관리에 대중을 인입하기 위한 제반 형식들과 수단들도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 기업 관리에 대한 당의 령도와 국가의 중앙 집권적 지도를 거부하면서 《기업 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가 수립되고 청산리 방법이 확립됨에 따라 기업 관리에 대한 생산자 대중의 열성이 비상히 제고되고 대중적 기업 관리의 더욱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형식들이 대중 자신의 힘에 의하여 수다히 창조된 사실은 기업 관리에 대중을 인입함에 있어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와 청산리 방법이 가지는 결정적 의의를 명백히 보여 준다.

기업 관리에 대중을 인입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직맹 단체들을 비롯한 대중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당이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도하는 가장 결정적인 교양자, 조직자로 되지만 그는 인전대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의해서만 그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그 관리에서 각종 대중 단체들의 기능을 명백히 규정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조직하는 행정에서 항상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직맹을 비롯한 사회 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들을 계통적으로 취하여 왔다.

특히 최근 우리 당이 취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직업 동맹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농업 근로자 동맹을 새로 조직할 데 대한 조치는 로동 계급과 협동 농장원 대중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그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인입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된다.

당은 사회주의 건설 시기 직맹 단체들의 기능과 임무 특히는 사회주의 기업 관리 운영에서의 그 역할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과 새로운 기술 및 문화 지식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기업 관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대중적 조직으로서의 직맹의 본래의 사명을 더욱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당은 농업 근로자 동맹을 새로 조직하여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과 기술 문화 교양을 담당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기술, 문화, 사상 혁명과 농업 생산 및 그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수 있게 하였다.

직맹의 역할을 높이며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조치는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서와 함께 특히 대중을 생산과 관리에 인입하는 데서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광범한 대중을 생산과 그 관리에 적극적으로 인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중요한 원칙이며 광범한 대중을 생산과 그 관리에 적극적으로 인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며 거기에 그들의 로동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사업을 정확히 결합시킴으로써 대중의 로력적 앙양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 관리에 대한 그들의 적극성과 자각성을 고도로 발양시켜 왔다.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리 당이 시종 일관 견지한 방침은 정치 도덕적 자극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물질적 자극을 안받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그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방침을 시종 일관 견지하였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은 근로자들의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 리해 관계의 타산에서 출발하는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에 대한 자극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며 당면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장래를 위해서나 보다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을 정확히 실현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과 정치적 각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는 조건에서만, 그것을 안받침하는 수단으로서만 응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일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약화시키고 정치 도덕적 자극과 분리시켜 물질적 자극 일면에만 치우친다면 근로자들 속에서 개인 리기주의를 조장시키게 되며 그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개조할 수 없으며 생산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 자극을 홀시하거나 약화시켜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질적 관심성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객관적 법칙을 자의로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당 정책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결합시켜 강력히 전개하면서 거기에 물질적 자극을 확고히 안받침하기 위해 매개 경제 부문의 구체적 특성과 근로자들의 의식 정도에 맞게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켜 왔다. 이러한 당의 조치는 생산과 그 관리에 대한 매개 근로자들의 관심과 열성을 높인 동시에 근로자들 집단의 공동의 로력과 협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이와 같이 광범한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인입하며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지혜를 경제 관리에서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를 정확히 해결함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은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우리 나라의 실천에 빛나게 구현한 것이며 그것을 더욱 풍부화하고 발전시킨 모범으로 된다.

사회주의 경제 지도 관리 문제 해결에서 우리 당이 쌓은 업적과 경험은 또한 경제 지도 관리에서의 온갖 편향 특히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 실천적 기여로 된다.

따라서 우리 당의 경험을 연구하고 체득하는 것은 모든 일'군들이 맑스-레닌주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정확히 구현하여 온 우리 당의 실천적 경험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위력한 무기로, 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그것을 더욱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당이 쌓은 풍부한 경험을 심오하게 체득하며 그것이 더욱 큰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더 빨리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남조선 위정자들의 《공업 구조 개혁》 책동의 내막

전 홍

최근 남조선 위정자들은 이른바 《경제 근대화》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공업 구조 개혁》에 대하여 굉장히 떠들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의 경제 파국과 민생고를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이 《경제 근대화》에 있다고 말하면서 공업에서 그 구조를 개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업 구조 개혁》의 중심 내용으로 되고 있는 것은 경공업이 위주로 되여 있는 현 남조선의 공업 구조를 몇 개의 기간 산업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을 병진시키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 현실은 위정자들의 《공업 구조 개혁》의 구호가 허황한 공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본래 남조선 력대 위정자들이 그러한 바와 같이 현 남조선 군사 통치배들에게는 경제를 복구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밑천도 없다.

현재 남조선에는 예속 자본가들이 경영하는 몇 개의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당장 기간 산업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업체들이 거의 없으며 그의 대부분이 시설을 전면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처해 있다.

그런데 남조선 괴뢰 정권은 시설 갱신을 위한 자금도 조달할 수 없는 긴박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남조선의 수입 및 수출 실적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1963년도 남조선의 수출액은 5,481만 딸라인데 수입액은 4억 1,523만 딸라이다. 지난 7월 상순에만도 수출액은 200만 딸라인데 수입액은 그의 6 배나 되는 1,240만 딸라에 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위정자들이 《공업 구조 개혁》에 대하여 제 아무리 떠든다 해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남조선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업 구조 개혁》의 구호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위정자들은 통치 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인민들을 기만하여 자기들의 반인민적 통치 체계를 계속 유지해 보려고 그 어떤 환상적 구호를 내세운다.

남조선 위정자들의 《공업 구조 개혁》에 대한 구호 역시 오늘 남조선에 조성되고 있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19 년 간에 걸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정책은 남조선 경제에 엄중한 후과를 미쳤다.

오늘 남조선 경제는 그 위기가 전례없이 첨예화되고 있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현재 남조선의 공업 생산 수준은 해방 전의 85% 밖에 되지 않으며 농업 생산은 해방 전 수준의 3 분의 2로 감소되였다.

공업, 농업 생산의 파탄과 함께 재정 금융과 유통 체계도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매년 늘어나는 군사 통치비로 말미암아 남조선 괴뢰 정부의 재정 지출은 군사 정변 이후에만도 근 2 배로 격증하였으며 통화량은 85% 이상 팽창하였다. 외화도 거의 고갈되였다. 지난 8월 10일 현재 남조선 외화 보유액은 1억 1,490만 딸라인데 이것은 년초에 비하여 1,420만 딸라, 7월 말에 비하여 770만 딸라나 감소된 것으로 된다.

설상 가상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의 삭감으로 말미암아 미국 《원조》에 종속된 남조선 경제는 더욱 심각한 혼란에 처하게 되였다.

남조선에 조성된 이러한 현실은 한편으로는 자주 자립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제고시켰으며 다른 편으로는 남조선 통치자들의 정치적 지반의 위험을 증대시켰다.

이제 박 정희 도당은 더는 위기에 처한 경제 형편을 그 대로 방임할 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박 정희 도당은 《경제 근대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밑에 몇 개의 기간 산업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현 경공업 위주의 구조를 중공업과 경공업을 병진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을 강조하여 나섰다.

박 정희 도당은 《공업 구조 개혁》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자주 자립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요구를 무마하며 다른 편으로는 극심한 위기에 빠진 자기들의 재정 형편을 다소나마 해결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따라서 남조선 위정자들의 《공업 구조 개혁》은 본질에 있어서 뒤흔들리는 식민지 통치 체계를 계속 유지해 보려는 책동에 불과하다.

* *

남조선 위정자들은 《공업 구조 개혁》의 방도를 공업의 예속성, 편파성을 가일층 심화시키는 길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경제를 파국과 혼란에서 구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 제 1 주의》에 적응하게 공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공업 구조 개혁》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러한 방도가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출 산업의 발전, 이것은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 특히는 민족 공업의 자립성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민족 공업의 자립성이 확고히 보장되여야만 수출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런 경우에라야 수출 산업은 자립적 공업 생산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공업 구조가 자립적 경제 토대를 축성하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대외 시장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것은 불피코 재생산 행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수출 제 1 주의》에 적응하게 나라의 공업 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은 남조선에 있어서 국내 시장과 인민들의 소비를 희생으로 하는 예속적인 공업 생산 구조에로의 전락 과정을 더욱더 촉진하는 요인으로 된다.

남조선의 공업 구조를 수출 산업에로 전환시킬 것을 중요 방도로 삼고 있는 《공업 구조 개혁》의 구호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해한 것인가는 《수출 산업》 발전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남조선 위정자들의 조치들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대외 시장에 의존하여 공업 구조를 개편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공업 구조 개혁》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 기술 등을

수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설계 도면으로부터 건설 기자재와 기계 설비, 기술 인재 그리고 건설 후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며 지어 사소한 부속품과 공구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해 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 시장으로부터의 수입에 의거하여 나라의 공업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

나라의 공업 구조는 어데까지나 자국의 자재, 자금, 기술에 의거할 때만이 그의 확고한 자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오늘 남조선과 같이 경제적으로 락후한 처지에서 대외 시장을 상대로 하여 공업 구조를 개편한다면 경제의 편파성과 예속성이 가일층 심화되리라는 것은 뻔하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에게 국내 자원을 헐값으로 략탈 당하며 비싼 원자재의 수입과 그 실현에 있어서 부등가 교환에 의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외국 독점 자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남조선 경제를 외국 독점 자본에 더욱 종속시킬 것이다.

미국 《갈프》 회사가 5백만 딸라의 직접 투자와 2천만 딸라의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울산 정유 공장의 운영권을 장악한 것은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대외 시장에 의존하여 공업 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은 남조선 경제를 더욱 엄중한 파국에로 몰아 넣으며 남조선 경제를 미 일 제국주의자들에게 2중적으로 예속시키려는 매국 배족 책동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공업 구조 개혁》의 유해성은 외국 독점 자본의 앞잡이인 예속 자본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민족 자본을 압박 말살하는 책동에서 표현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집권 초기부터 한편으로는 외국 독점체들과 예속 자본가들의 경영권을 확대하고 그들을 적극 비호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중소 기업체들을 말살하는 책동을 감행하여 왔다.

최근 시기 《공업 구조 개혁》을 위한 그들의 구호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수출 진흥법》을 조작한 남조선 위정자들은 이미 일정한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는 무역업자에 한하여 일정한 비률에 의한 수입을 허용하는 이른바 《수출 링크제》를 실시하였으며 약 70억 환의 《수출 장려 보조금》을 일부 예속 무역업자들에게 집중 공급하였다.

또한 그들은 남조선의 일부 지역들에 《공업단지》(工業團地)를 설정하고 이 지역에 수출 산업 기업체들을 두고 이에 《자금의 보조》와 《차입금의 보증》 등 각종 특혜 조건을 제공하는 《공업단지 개발 조성 법안》을 조작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최근 남조선 위정자들은 1964년 상반년 기간에 100만 딸라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린 남조선 예속 자본가들을 표창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와는 반대로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의 기업체들 중 수출 및 군납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조사 장악하고 그 이외의 기업체들을 대량적으로 《정비》하려 하고 있다.

최근 그들은 남조선 전체 중소 기업의 50~80%는 《생산 능력이 낮고》 《국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립형의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수출 산업에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경영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 인견직 공업 부문의 중소 공장들 중 단 몇 개를 남기고 거의 모든 공장들을 페쇄하려는 책동은 그의 일례로 된다.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대기업 《우선주의》에 기초한 《공업 구조 개혁》이 민족 산업과 민족 자본을 파괴 령락시키며 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지위를 제고시키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본래 중소 기업으로 대표되고 있는 남조선 민족 자본은 그의 기업 규모가 보잘 것 없을뿐만 아니라 자재난, 자금

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출 제 1 주의》에 적응하게 공업 구조를 개편한다면 남조선 중소 기업은 더욱더 파괴 몰락될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결국 국내 시장을 상대로 하는 일용 소비품 생산을 감소시키며 인민들의 소비 생활을 위협하는 것으로 된다.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 위정자들이 표방하고 있는 《공업 구조 개혁》은 남조선 공업의 식민지적 예속성, 편파성을 가일층 증대시키며 나아가서는 인민 생활의 령락 과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 *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에서 벗어 나는 유일한 출로는 미제를 몰아 내고 그 주구들을 타도하고 남북이 합작하는 데 있다.

이것은 조선 인민이 지난 19 년 간에 걸친 생활 체험을 통하여 얻은 응당한 결론이다.

오늘 남조선에 빚어진 모든 사회 경제적 악결과의 장본인이 바로 미제와 그 주구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 위정자들은 바로 이 엄연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과 혼란까지도 《경제 구조 자체의 후진성에 연유》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조선 어용학자들은 《한국의 공업 구조를 력사적으로 지배해 온 결정적인 요소》인 《봉건 체제의 지속과 일본 경제에의 종속, 8.15 해방 후에 있어서의 국로 량단으로 인한 각종 공업 생산 시설의 파괴 등》이 생산의 침체, 공업 부문 간의 불균형, 경영 규모의 령세화를 심화시킨 근본 원인으로 된다고 쓰고 있다(《사상계》 1962년 10 호).

그들의 론리에 의하면 남조선 경제의 파국과 혼란은 전적으로 과거로부터 내려 오던 경제 구조의 락후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죄악상을 은폐하려는 음흉하고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물론 과거의 경제 구조 상 락후성이 해방 후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일정한 저애로 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해방 후 남조선 경제 발전을 가로막은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될 수 없다.

나라의 경제 발전은 사회 제도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인민의 리익과 사회의 번영을 근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회 제도 하에서는 경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를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다.

반대로 소수 특권 계급의 리윤 획득을 추구하는 사회 제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 구조 상 편파성과 기형성을 초래하며 나아가서는 경제의 종속적 처지를 면치 못 하게 된다.

오늘 남북 조선의 각이한 경제 형편은 바로 서로 다른 두 사회 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 남조선 위정자들의 매국 배족 정책으로 말미암아 현 남조선 경제 구조의 식민지적 성격은 전례 없이 심각화되고 있다.

남조선의 공업 구성에서 중공업과 경공업의 비률은 1:4 이며 남조선 공업 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직 공업과 식료 공업은 미국 잉여 농산물을 가공 처리하는 데 불과하다.

또한 전반적인 남조선의 공업 생산은 미국이 《배정》하는 원자재의 품종과 수량, 가격에 따라 제품의 품종과 규모, 원가가 좌우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이 《경제 구조의 후진성과 빈곤의 원인을 후진국 자체에서가 아니라 응당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악영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쓰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 위정자들은 경제의 파국과 혼란이 본래의 공업 구조의 후진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상 그것은 남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빚어낸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과거 공업 구조의 후진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북반부 공업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더우기 북반부 공업은 지난 전쟁에서 전례 없는 엄혹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 3 년 간에 파괴 소각된 공장과 시설만 해도 8,700여 개소나 된다.

그런데 오늘 북반부 공업은 어떠한가.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락후성을 극복한 것은 물론 그처럼 혹심했던 전쟁 상처도 회복하였으며 이제는 제 발로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구축되였다.

현재 북반부에서는 자기의 설비, 기술, 자재, 자금, 로력으로 각종 현대적인 공장, 기계 설비 등을 만들며 필요한 제품을 생산 보장하고 있다.

북반부의 이러한 성과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륭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하고 있다.

남북 조선의 대조적인 사실은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과 혼란이 본래의 경제 구조의 후진성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말하는 남조선 위정자들의 론거가 허위 날조이며 그것은 위기에 빠진 자기들의 통치 체계를 구원해 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그들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북 합작을 실현하는 문제는 오늘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되는 가장 긴박하고 절실한 민족적 과제의 하나로 된다.

전국의 풍부한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북반부의 강력한 경제력을 동원한다면 남조선의 파괴된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 향상시킬 수 있다.

문제는 결심하고 일떠서서 실천하는데 달려 있다.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우리 민족의 절실한 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 앞에 부과된 이 성스러운 민족적 과제를 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 반동 문학에서의 프로이드주의

김 해 균

문학 예술이 어떤 사상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예술 작품의 가치와 역할을 규정하는 근본 문제로 된다. 만약 예술 작품이 반동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것은 헐써 사람들의 리성을 깨우쳐 주는 정신적 가치물로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대중의 정신 생활을 타락에로 이끄는 무서운 독소로 밖에 될 수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 나라의 부르죠아 문학 예술이 바로 그러하다. 부르죠아 문학 예술의 반동적, 반인민적 경향성은 제국주의 지배 계층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조성되며 강요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총칼의 위협만으로 막아 낼 수 없는 피착취 대중의 반항 기세를 반동 문학 예술의 독소로써 저지시키며 무마해 보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 뚜렷한 실례를 남조선 반동 문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괴뢰 통치배들을 사촉하여 처음부터 류례 없는 폐로 통치를 실시하는 한편 저들의 략탈적인 식민지 통치를 은폐하며 남조선 인민의 반항 기세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부르죠아 반동 사상 조류들을 광범히 류포시켰다.

외국 부르죠아 반동 사상 조류들에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 남조선 반동 문학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이 빚어 낸 참혹한 현실을 비호하고 모든 추악하고 퇴폐적인 것을 례찬하면서 대중을 정치 도덕적으로 부패 타락시키며 남조선의 사회적 혼란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반동 문학 가운데서도 특히 악독한 독소를 전파하고 있는 것은 프로이드주의를 사상 미학적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색정주의 작품들이다. 남조선 반동 문학의 지배적인 경향의 하나로 되고 있는 이런 류의 작품들은 로골적인 성'적 방종과 패덕 패륜을 설교함으로써 남조선 인민의 건전한 정신 세계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으며 젊은 남녀들을 륜락의 나락에로 떠밀어 넣고 있다.

남조선 문학에 미친 프로이드주의의 해독적인 영향은 그것이 색정주의 문학의 직접적인 온상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거의 모든 반동 문학 조류들을 색정주의 독소로 오염시키면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퇴폐 타락의 파국에로 내몰고 있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반동 문학의 본질을 폭로함에 있어서 프로이드주의의 반동성과 그 해독적 작용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된다.

* ● *

일반적으로 색정주의 문학의 사상 미학적 바탕으로 되고 있는 프로이드주의는 20 세기 초에 오지리 정신병 의사 프로이드에 의하여 꾸미진 정신 병리학에 관한 《학설》이 그 기초로 되고 있다.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은 프로이드와 그 추종자들에 의하여 정신 병리학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 생활의 제 현상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20 세기 부르죠

아 반동 철학의 한 조류를 이루게 되였으며 문예학을 포함한 사회 과학 전반을 포괄하는 반동 리론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은 인간 생활을 잠재 의식 즉 본능과 의식의 충돌로 보며 인간 활동의 원동력이 잠재 의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이드주의는 특히 잠재 의식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적 본능이라고 말한다.

프로이드는 이와 같은 본능설을 들고 나오면서 인간을 사회 력사적 환경에서 떼여 내여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로 보며 인간 리성에 대한 성'적 본능의 우위를 주장한다. 그리 하여 신경증을 포함한 개인의 불행과 모든 사회적 재난이 인간의 성'적 본능이 억제 당하는 데서 온다는 결론을 끌어 낸다.

인간은 그가 처해 있는 사회 력사적 환경과 경제적 제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인간의 본능이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주의자들은 한편으로 인간의 본능 특히 성'적 본능을 례찬하면서 부르죠아지의 향락주의를 고취하며 다른 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불행과 모든 사회악의 진정한 원인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일찌기 레닌이 클라라 제트킨과의 담화에서 프로이드주의를 《부르죠아 사회의 두엄 밭》에서 피여 난, 그들의 성'적 방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류행적인 괴물이라고 규탄하면서 그 사회 력사적 지반과 계급적 본질을 해명한 바 있다.

프로이드주의는 이와 같은 반동적 본질로 하여 부르죠아지의 적극적 지지와 환영을 받으면서 자본주의 나라들에 급격히 전파되였으며 맑스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죠아지의 중요한 무기로 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프로이드주의자들에 의하여 사회학, 철학, 륜리학, 미학, 문학 평론 등에 관한 정신 분석학적 저서, 론문집이 대량적으로 출판되였으며 미국의 어용학자들은 목청을 돋우어 프로이드에게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례를 들어 론문집 《프로이드와 20 세기》에서 그들은 프로이드를 코페르닉스에 비교하였으며 20 세기를 《프로이드의 세기》라고 떠들었다.

미제는 프로이드주의를 저들의 구미에 맞게 개악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위한 사상적 도구로 세계 각국에 대량적으로 재수출하고 있다.

그리 하여 해방 후 남조선에서도 미제의 강점 하에 있는 모든 지역들에서 그러하듯이 프로이드주의는 지배적인 반동 사상 조류의 하나로 되였으며 프로이드주의 신봉자들은 수 많은 번역물, 저서, 론문들을 통하여 남조선 사회 문화 생활에 그 독소를 퍼뜨리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빚어 낸 참혹한 현실을 미화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프로이드주의 신봉자는 《근친 살상과 정신 분석》이라는 글에서 근친 살상을 포함하여 남조선에 성행하고 있는 온갖 범죄 행위의 근원은 무의식이 억제 당하고 있는 데 있다고 하면서 범죄 행위의 방지책으로서 《무의식이 의식보다 중요시될 것》과 《성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프로이드주의 신봉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프로이드의 잡교대를 그 대로 늘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실례만으로도 프로이드주의가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을 얼마나 한심한 리성 상실자로 만들었으며 사상 분야에 미치고 있는 그 해독적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프로이드주의의 반동적 본질은 특히 남조선 반동 문학에서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프로이드주의는 해방 후 처음으로 들어 온 것

은 아니다. 벌써 1920 년대 초기 부르죠아 작가들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의 영향을 받아 추잡한 색정주의를 례찬하는 《련애 소설》을 썼으며 그것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복무하였다. 이러한 프로이드주의는 제 2 차 대전 후 미제에 의하여 가공되고 개악되여 해방 후 남조선에 광범히 류포되였으며 오늘 남조선 반동 문학의 중요한 사상 조류의 하나로 되고 있다.

프로이드주의의 반동적 본질이 우선 남조선 반동 문학 평론의 미학적 견해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사실주의 문학 예술은 객관적 현실의 진실한 화폭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창조적 로동과 생활의 진정한 의의를 가르쳐 주며 그들을 고상한 미학적 리상으로 교양한다. 그러나 인간 활동의 원동력을 잠재의식이라고 주장하는 프로이드주의는 문학의 인식 교양적 기능과 작가의 리성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문학 작품을 작가의 본능이 의식의 통제를 뚫고 표현된 것이라는 황당한 견해를 내여 놓는다. 즉 예술 작품은 꿈이나 신경증이 그러하듯이 객관적 현실의 반영인 것이 아니라 잠재 의식 특히 성'적 본능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프로이드주의자 캘빈 홀은 《프로이드 심리학 입문》이란 책에서 예술 작품은 작가가 《실재 현실에서 그들의 성'적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 창조적 환상에 호소한 것》이라고 썼다.

우에서 이미 례로 든 남조선의 프로이드주의 신봉자는 론문 《근친 살상과 정신 분석》에서 《인간 생활에서 도덕성보다 욕정(欲情)이 더 강한 원동력》이라고 말하면서 레오나르드 다윈치의 그림 《마돈나》나 섹스피어의 작품들이 모두 성'적 본능의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유명한 예술가들의 고상한 창작적 동기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있다.

문학 예술의 사회적 본질을 부정하고 창작을 병적 과정으로, 작가들을 리성 상실자로 보는 황당한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프로이드주의자들은 선진 인류가 남겨 놓은 문학 예술 작품들의 내용을 혹독하게 외곡하며 그 고상한 인식 교양적 가치를 말살해 버리려 하고 있다.

미국의 한 프로이드주의자는 섹스피어의 비극 《햄리트》의 주인공 햄리트의 침울하고 회의적인 성격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아저씨와 햄리트 사이에 얽혀 있는 성'적 갈등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성한 육친적 관계를 동물적인 란륜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햄리트의 성격이 우울하고 내성적인 것은 그가 범죄 행동이 꺼림 없이 자행되고 있는 부패한 당시 사회를 반대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였으나 자기에게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을 느낀 데서 온 것이였다. 섹스피어는 영국 인문주의자들이 당시 사회에 대해서 느낀 환멸을 햄리트의 성격에서 구현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햄리트는 그 시대의 사회적 모순을 체현한 하나의 예술적 전형인 것이지 결코 동물적인 본능에 포로된 패덕한의 형상은 아닌 것이다.

서구 프로이드주의자들의 이러한 잠꼬대를 뒤따르면서 남조선 반동 평론가들은 우리의 민족 고전을 파렴치하게 외곡 모독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

남조선의 한 프로이드주의 신봉자는 《정신 분석학적 시험》이라는 글에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우리 나라 고전 신화와 고전 문학에 적용하여 《단군 신화》, 《영신가》, 《처용가》들을 모두 《성'적 욕망》과 결부시키고 있으며 고대 인민들의 소박한 념원을 반영한 아름다운 문학 유산을 파렴치하게 모독하고 있다. 례컨대 그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을 태몽(胎夢)과 관련시키면서 인간이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한 성'적 욕망이 꿈에 의하여 환상적으로 실현된다

는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의 주장을 여기에다 억지로 련관시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단군 신화》는 결코 그 어떤 성'적 욕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곰, 범 등의 동물을 의인화하여 당시의 인간 생활을 환상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남조선의 또 한 평론가는 《항거 없는 성 춘향》이라는 글에서 춘향을 매춘부로, 리 몽룡을 폭군으로 묘사하면서 《춘향전》을 색정 소설이라고 외곡 모독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춘향과 리 몽룡의 깨끗한 사랑을 기본 줄거리로 하여 당시의 봉건적인 신분 제도와 사회적 관계를 날카롭게 비판한 《춘향전》의 고상한 사상적 내용을 외곡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의 독소에 의하여 리성을 상실한 남조선의 반동 평론가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귀중한 민족 문학 유산을 모독하면서 결국은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 반동 문학에서 민족 문학을 거부하고 세계주의 문학을 떠벌리며 성'적 방종으로 일관된 미국 문화를 선전하는 자들의 선두에 프로이드주의 신봉자들이 서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프로이드주의의 반동적 본질과 그 악독한 영향은 남조선의 반동 문학 작품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창작에서 프로이드주의를 사상 미학적 신조로 삼고 있는 일련의 남조선 반동 작가들은 인간을 동물적인 욕망에 의하여 움직이는 야수로, 인간 관계를 성'적 갈등으로 묘사하면서 프로이드의 본능설을 구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 반동 문학에서 지배적인 조류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색정주의 문학은 프로이드주의의 《무엄반》에 직접 뿌리를 박고 있다.

례를 들어 중편 소설 《이역(異域)의 산장(山莊)》은 깊은 산 속에 있는 외딴 집을 배경으로 하고 늙은 남녀와 젊은 남녀를 등장시켜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추잡한 성'적 갈등과 동물적인 장면을 로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심지어 주인공들 사이에 개까지 등장시켜 인간들을 동물과 같은 처지로 끌어 내리고 있다.

이러한 추잡한 소설들은 성'적 방종과 란륜을 조장시키는 《미국식 생활 양식》을 정당화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현실에서 떼여 내여 색정 세계에 몰아 넣음으로써 그들의 계급적 각성과 민족 의식의 장성을 억제하는 데 그 악독한 반동적 본질이 있다.

남조선 반동 문학의 색정주의 작품들 속에는 인간을 동물적 본능의 노리개라고 하는 프로이드주의의 본능설을 구현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개인과 사회의 불행과 재난이 성'적 본능이 억압 당하는 데서 초래된다고 하는 프로이드의 또 하나의 괴변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편 소설 《막다른 골목》은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근거 없이 안해를 의심하여 고민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제자인 어린 녀학생에게 불순한 마음으로 접근한다. 그는 자기와 녀학생 사이의 불순한 관계를 증오하는 안해를 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인간 비극의 막다른 골목》에 몰아 넣는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녀학생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마침내 그 《막다른 골목》에서 출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작가들은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인간 비극의 막다른 골목》이 미제의 강점에 의하여 조성되였다는 사실을 감추는 한편 《인간 비극》에서 벗어 나는 길은 오직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인간 도덕을 거부하고 성'적 방종을 설교하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무서운 고통과 빈궁을 들씌우고 있는 사회악의 진정한 근원을 보지 못하도록 독자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한때 외국의 한 프로이드주의 정신병 의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싸우

다가 극도의 생활고 속에서 병에 걸린 로동자에게 그의 불행이 자본가의 착취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부 생활에 있다고 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부 생활을 정상화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오늘 남조선의 프로이드주의 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을 통하여 바로 이런 잡교대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반동 문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프로이드주의의 악독한 본질은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프로이드의 본능설은 이미 우에서 말한 '성'적 욕망을 《삶의 본능》으로 들고 있는 한편 성'적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과 상대방을 괴롭힌다고 하는 이른바 《죽음의 본능》이라는 것을 꾸며 냄으로써 색정주의에다 로골적인 인간 증오 사상을 결합시키고 있다.

프로이드주의의 이런 반동적이며 범죄적인 사상을 고취한 문학 작품의 실례의 하나는 단편 소설 《육(肉)과 혼(魂)》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자기 안해의 아름다운 얼굴에 질투를 느끼고 끓는 물을 끼얹어 안해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다. 안해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초산을 넣고 다닌다. 그는 심지어 죄 없는 어린 딸에게까지 복수할 것을 기도한다. 이러한 과정에 안해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간호원이 안해를 대신하여 주인공의 얼굴에 초산을 부어 복수한다. 작가는 이런 변태적인 인간 성격들을 통하여 리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 행위와 인간 증오 사상을 로골적으로 고취하고 있다.

프로이드주의가 남조선 반동 문학에 미친 해독적 영향은 결코 이런 색정주의 작품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고독과 불안, 죽음과 부조리를 설교하는 실존주의 문학 조류에 속하는 반동 작품들도 프로이드주의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최근 시기 발표된 대표적인 실존주의 작품의 하나인 단편 소설 《기만자》는 주인공이 자기의 처와 친구의 안해를 괴롭혀 련'이어 그들을 자살케 한 다음 마침내 친구까지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인다.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늘어 놓으면서 자살과 살인 행위를 찬미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절망과 공포에서의 출로를 범죄 행위에서 찾고 있는 실존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주제 사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작가는 인간 관계를 동물적인 란륜 관계로 보는 프로이드주의에 기초하여 정황을 설정하고 실존주의의 인간 증오 사상을 프로이드의 본능설에 의하여 보충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이드주의는 실존주의와 결합하여 그 반인민적 반동적 본질을 더욱 악랄한 것으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조선의 《반공》 문학을 색정주의로 《윤색》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리용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단편 소설 《백의(白衣)의 기치》, 《분수령》을 포함한 일련의 《반공》 작품의 작가들은 공허하고 허위적인 내용을 메우기 위하여 프로이드주의자들의 수법을 빌어 추잡한 장면에 대한 로골적인 묘사를 작품에 끼여 넣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미 아무런 진실도 말할 수 없게 된 남조선의 반동 작가들은 바로 이런 수법으로 저속한 독자들의 구미를 자극하고 그들의 사고 능력을 마비시켜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된 흉악한 《반공》 사상을 접수시키려 하고 있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색정주의 문학의 직접적인 사상 리론적 바탕으로 되고 있는 프로이드주의는 기타 반동 문학들이 의거하고 있는 각종 부르죠아 사상 조류들과 결합되여 남조선 반동 문학 전반에 걸처 직접 간접으로 해독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 하여 프로이드주의는 사상적 내용에서만 아니라 미학적인 견해, 표현 방법, 묘사 수법 등에 있어서도 남조선 반동 문학의 반사실주의적 특성을 격화시키고 있다.

문학을 객관적 현실의 형상적 반영으

로 보는 사실주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부르죠아 형식주의 문학은 문학 작품을 주관적 환상, 《의식의 흐름》, 본능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프로이드의 본능설에 기초한 미학적 견해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특히 의식의 밑바닥에는 성욕에 굶주린 야수, 패덕한, 범죄자들로 이루어진 《괴물의 복합체》가 있어 이 《초현실》적인 《괴물의 복합체》를 《해방하는 것》이 문학 예술의 사명이라고 떠벌리는 이른바 초현실주의 미학과 프로이드의 미학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리 하여 프로이드주의는 오늘 남조선 반동 문학 특히 시 분야에서 《초현실주의자》로 또는 《주지주의자》로 자처하는 반동 작가들의 《미학적 지침》으로 되고 있다.

프로이드주의는 또한 표현 방법과 묘사 수법의 측면에서 자연주의 문학과 밀접히 련결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자연주의 문학은 생활에서 비본질적이며 우연적인 현상을 복사 라렬하며 추잡하고 저렬한 것을 확대하여 묘사함으로써 생활의 본질을 외곡한다. 추잡한 것들을 즐겨 묘사하는 자연주의 작가들의 눈이 색정 세계에로 쏠리게 되며, 독자들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데로 지향하는 프로이드주의자들이 자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응당한 귀결이다. 오늘 남조선 반동 문학에서 거의 모든 색정주의 작가들이 자연주의 수법에 의거하고 있으며 자연주의 작가들이 많은 경우에 음탕한 장면을 확대하여 로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실이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남조선 반동 문학에 침투하고 있는 프로이드주의의 반동적 본질의 중요한 표현은 대체로 이상과 같다.

실제 상 프로이드주의는 그것이 발생된 이래 《신프로이드파》니, 《서서파》니 하는 잡다한 변종들에 의하여 그 반동적 본질이 더욱 악랄화되고 있다.

례컨대 《서서파》의 대표자 융그는 인간 행동의 원동력이 프로이드가 말한 개인의 성'적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에 있다고 하면서 《집단적 무의식》은 한 민족이 선천적으로 타고 난 고정 불변한 《민족적 잠재 의식》 또는 《민족적 성격》을 이룬다고 말한다. 융그는 민족적 성격을 이렇게 단순한 심리적 기질로, 고정 불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쑈들의 인종론을 정당화하고 히틀러의 대종 학살에 심리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히틀러는 민족적 기질로 보아 응당 다른 종족들을 《지도》할 종족의 두목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 하여 융그는 문학 예술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집단적 무의식》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프로이드주의의 이런 잡다한 변종들은 프로이드의 《무의식》 또는 《성'적 본능》을 리론적 토대로 하면서 이른바 《정통파》의 학설을 더욱 개악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침략 정책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무기로 복무하고 있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조선 반동 문학에 침투한 프로이드주의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부르죠아지의 방종한 생활과 그들의 반인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하였다. 따라서 그것이 제국주의의 모순이 가일층 첨예화되고 부르죠아지가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심각한 파탄에 직면하게 된 20 세기 초에 발생하여 제국주의 여러 나라에 광범히 전파되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프로이드주의는 그 자체의 이런 반동적 본질로 하여 언제나 온갖 사회악이 범람하고 있는 곳에 전파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곳에서 그것은 건전한 사회적 리상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진 어용 매문가들의 저속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각종 색정주의 잡문들을 만들어 내

게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런 색정주의 잡문으로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그들의 건전한 사고를 마비시킴으로써 저들의 죽어 가는 운명을 연장해 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갖 사회적 혼란과 범죄, 타래와 방탕한 생활을 더욱 조장시킬 뿐인 이런 색정 잡문이 제국주의자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으며 모순에 가득 찬 현실 생활 속에서 움트는 대중의 투쟁 의식을 말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도 이런 색정주의 문학 예술은 벌써 광범한 인민 대중의 배격과 규탄을 받고 있다. 원래 그런 것들은 남조선 근로 인민의 생활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으며 절박한 생존의 권리를 위해 일떠선 그들의 투쟁 의식을 무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4.19 이후의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기세가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남조선 문학 예술계에서도 추잡한 색정 문학을 반대하고 절박한 인민 생활에 작가적 관심을 돌리며 시대의 절실한 문제에 대답할 것을 호소하는 량심적인 작가, 평론가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그들은 싸우는 인민의 념원을 대변하는 전투적인 작품을 통하여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행위를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이런 문학의 세력은 아직 크지 못 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건전한 리성을 깨우쳐 주는 그 참된 호소로 하여 그것은 독자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부단히 자라 나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하였던 것처럼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 평론가들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총검의 위협을 박차고 자기들의 작품으로써 인민 대중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더욱 과감하게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잡한 색정주의 문학이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 하게 하며 그 악독한 영향으로부터 독자 대중을 건져 내고 남조선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문답 학습

사회주의 상업에서의 봉사성

봉사성은 사회주의 상업 활동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봉사성이 높은가 혹은 낮은가에 따라 그 상업 기관 또는 상업 일'군들이 일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상업에서 봉사성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상업 기관 혹은 상업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는 생활 필수품들을 제때에 확보하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살 수 있도록 제반 조건들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 상 편리를 백방으로 도모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봉사성을 높인다는 것은 상업 일'군들이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봉사성을 높이는 데서 매일 매시각 손님들을 직접 대하는 판매원들의 활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와 함께 봉사성을 높이는 데는 상업망을 합리적으로 포치하며 상품을 그 지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잘 확보하며 판매 조직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하며 상업망의 설비, 도구들을 충분히 갖추며 상점을 문화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문제들이 모두 포괄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여야만 손님들의 편리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높은 봉사성은 사회주의 상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상업이란 본질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다. 즉 사회주의 상업의 기본 목적은 인민의 리익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바로 사회주의 상업의 이러한 인민성, 계급성이 중요하게는 높은 봉사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상업의 인민성은 무엇보다도 상업 일'군들이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며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 책임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데서 표현되며 인민의 충복답게 그들을 친절하게 성심 성의로 대하는 데서 표현된다.

또한 상업 일'군들의 활동에서 계급성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것은 상품 공급 사업을 사회주의 건설에 유익하게, 로동 계급과 그 동맹자인 농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립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상업의 이와 같은 본질적 특성이 실지 상업 조직과 일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높은 봉사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상업에서도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상업 자본가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된다. 그러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봉사성》은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리윤 추구를 위하여, 대중에게서 더 많이 긁어 내기 위하여 필요하다. 자본가들의 《봉사성》 뒤에는 철저한 사기와 협잡이 가리여져 있는 것이다. 엥겔스는 자본주의 상업을 《합법적 사기》라고 지적하였다.

오직 사회주의 하에서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봉사성, 인민 대중을 위한 봉사

성이 문제로 된다.

또한 사회주의 하에서는 상업 활동에서 봉사성을 부단히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보장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기초한 상품 자원의 계통적인 증대와 상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강화,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장성 등은 상업에서 봉사성을 부단히 높일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봉사성을 높이자면 상품 원천이 계통적으로 증가되여 상점에 상품들이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상점 시설들이 확대되고 더 좋게 꾸려져야 하며 또한 주민들의 구매력도 계속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있기 때문에 높은 봉사성은 사회주의 상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상업을 창설 발전시키는 전 행정에서 봉사성을 높이는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으며 또 봉사성을 높일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추는 데 큰 력량을 경주하였다.

상업 일'군들 속에서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상업망을 확대 정비하며 그 조직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 상품 류통 부문에서 봉사성은 현저히 높아졌으며 특히 최근 시기 이 면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 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상업 부문에서 봉사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상업에서 봉사성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은 어데 있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 나라 상업의 우월성을 더 잘 발양시키며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는 환절로서의 상업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데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상업에서 봉사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여 있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생산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는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한 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하여 질 좋고 다종 다양한 생활 필수품과 문화 용품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한편 당의 배려에 의하여 상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으며 새로운 상업 체계가 정연하게 수립되였다. 우리의 상업망들과 상업 체계는 현시기 상업 부문 앞에 제기된 모든 과업들을 능히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 강화되였다.

이제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을 더 잘 발휘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상업 일'군들의 봉사성 여하에 달려 있다.

상업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사업 조직을 잘 하고 봉사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상업은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더 훌륭히 기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생산에 대한 상업의 반작용도 강화될 것이다.

현시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상업 일'군들의 봉사성 제고가 가지는 의의는 정 춘실 로력 영웅의 경험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정 춘실 동무가 일하는 전천군 종합 공업품 상점 일'군들은 그 지방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상품들을 어김 없이 확보하여 공급함으로써 구매자들이 빈 손으로 돌아 가는 일이 없게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정 부인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편리를 주기 위하여 판매 시간과 로력 조직도 잘 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우리 가정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료해 장악하는 사업을 일상화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상품 공급을 계획적으로 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조직자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상업 일'군들이 상품을 사 가는 사람의 립장에서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맡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일할 때 주민들의 살

림은 더욱 향상될 것이며 생활은 째이고 홍겹게 될 것이다.

둘째로, 현시기 봉사성을 더욱 높일데 대한 요구는 우리 인민의 생활상 요구가 전례 없이 높아졌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 속에서는 영양가 높은 식료품과 질 좋고 다양한 일용 필수품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오늘 많은 녀성들이 직장에 진출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전에는 가정에서 자체로 만들던 부식물과 의복류까지도 상업망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상업 일'군들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으며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상업 일'군들이 기여하여야 할 바는 훨씬 많아졌다.

상업 일'군들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봉사성을 더욱 높이지 않는다면 인민들은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과 배려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이제 와서는 우리의 상업망이 큰 것으로부터 자그마한 것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상품을 제때에 정확히 공급하지 못 한다면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이 바로 우리 상업 일'군들에게 봉사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망은 생산에 대한 반작용을 강화하여 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도록 더욱 자극하는 동시에 자체 가공 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많은 새로운 상품을 직접 만들어 내야 하며 주문 판매, 이동 판매, 배달 판매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상품 공급 사업을 조직 전개하며 판매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세째로, 봉사성 제고 문제는 오늘 문화 혁명을 더욱 촉진하여야 할 요구와도 관련된다.

상업은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자인 동시에 문화 생활의 조직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든 근로자들은 가정 살림과 문화 생활에 필요한 생활 자료와 필수품들을 상업망을 통하여 장만한다.

또한 손님들은 판매원들의 말과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판매원들의 조언을 받아 생활 문화 확립에 필요한 이러저러한 물건을 산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업망들은 단순한 상품 공급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문화적인 생활을 조직해 주는 데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상업망들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상품 진렬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상업 정책의 정당성과 나라의 경제 발전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고 느끼게 하며 도시를 아름답고 환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문화 정서 교양에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오늘 문화 혁명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상품 류통 부문과 그 일'군들이 하여야 할 임무는 더욱 커졌다.

근로자들의 가정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며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것도 상업 일'군들의 봉사성과 많이 관련되여 있다.

상업 일'군들이 봉사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면 줄수록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한층 문화 위생적으로 꾸려질 것이며 우리 나라 문화 혁명은 더 빨리 추진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 상품 류통 부문에서 봉사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상업에서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은 무엇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지도 일'군들이 봉사성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지는 것이다.

상업에서 봉사성의 제고는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로부터 출발한 우리 당의 일관한 요구이며 현시기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상업 부문 지도 일'군들은 봉사성 제고에 1 차적 주목을 돌리면서 자기 부문 내 모든 일'군들이 봉사성 제고에 적극 힘쓰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당의 상업 정책을 심오히 연구하며 특히 일'군들 속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문제는 상업 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옳게 인식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을 가지며 근로자들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데 있다.

상업 일'군들의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감과 책임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자들에 대한 그들의 봉사성은 제고될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52 페지).

둘째로, 일'군들 속에서 군중 관점을 철저히 확립하며 자각적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기술 실무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군중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관련된 문제이며 사상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 부문 당 조직들은 일'군들에게 봉사성 제고가 가지는 중요성과 그 의의를 옳게 인식시키며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복이라는 관점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을 그들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 하여 상업 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성심 성의 근로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봉사성 제고에 필요한 기술 실무적 대책들을 제때에 강구하는 것이다.

우선 주민들의 구매력과 수요에 대한 연구를 일상적인 사업으로, 상업 활동 개선의 첫 공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상업망 포치를 합리적으로 하며 주문 판매, 이동 판매, 배달 판매 등 여러 가지 형식을 옳게 배합하여 판매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아침 저녁 판매를 광범히 조직하며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구성과 생활 조건에 맞게 판매 시간과 로력 조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업 일'군들 속에서 문화적 소양과 고상한 도덕 품성을 배양하고 상품 판매 조직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정통하도록 자체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개 판매원들은 판매 전 준비 사업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그들의 요구에 재빨리 응함으로써 필요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상품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적극 방조를 주어야 한다.

상업 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봉사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당의 깊은 배려가 인민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가 닿도록 하며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휘시켜야 할 것이다.

한 재 영

근 로 자 제 19 호 (루계 257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10월 3일 발 행 • 1964년 10월 5일

ㄱ—430589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0호 10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20 호 258
1964년 10월 (하)

차 례

공산주의자와 인간성

1

오늘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특히는 일'군들 속에서 인간성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 관계 즉 사회주의적 동지적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화시켜야 할 사회 발전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정치-사상적으로 굳건히 뭉쳐진 우리 당과 전체 혁명 대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당은 우리의 통일된 혁명 력량을 사람들의 인간적 관계의 측면에서까지 더욱 공고화할 것을 당 건설에서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성과적 해결 여부는 당원들 특히 지도 일'군들 속에서 인간성을 더욱 발양시키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최근 년간에 일'군들이 당성, 문화성과 함께 인간성을 높일 데 대하여 수차 강조하였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성은 뗄 수 없는 풍모의 하나이다. 인간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 만큼 그가 공산주의자로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다.

당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풍부한 일'군들만이 대중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응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 *

사람들의 인간성의 자유로운 발양과 전면적인 발전은 오직 사회주의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자본주의 하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하에서 부르죠아지는 자본의 지배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항심을 거세하며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무디게 하기 위하여 《자선》, 《박애》, 《만민 평등》, 《인권 옹호》 등 허울 좋은 가짜 인도주의를 제창한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일하지 않는 부르죠아지는 호의 호식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착취 우에서 행복을 찾는 반면에 근로자들 자신은 피땀 흘려 일하고도 학대 받고 굶주리는 이 불공평한 사회에서 《평등》과 《인권》을 떠드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다.

자본가들은 돈과 재물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가리지 않으며 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억압과 착취가 지배하는 계급 사회에서 특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 계급

과 피착취 계급 간에는 물론 착취 계급 호상간에도 인간성이란 있을 수 없다.

참된 인간성은 오직 피착취 근로 대중과 그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쳐 싸우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고유한 품성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성은 가장 높은 형태의 인간성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 계급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를 없애기 위하여 싸울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한 사람의 온갖 착취를 끝장 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관계를 맺으며 그 기초 우에서 누구나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발전하며 다 같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성은 결코 단순한 리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성을 론할때 우선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 즉 사회주의의 전취를 위한 계급 투쟁, 사회 혁명과 련결시킨다.

착취 제도를 전복함이 없이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진실로 인간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마련할 수 없다.

착취 계급 사회에서 그 제도를 반대하는 계급 투쟁과 사회 혁명을 떠나서 인간의 사랑과 존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한갓 공념불에 불과하다.

계급 투쟁과 혁명 문제를 떠나서 《인도주의》요, 《인권 옹호》요, 《인류에 대한 사랑》이요 하고 소위 《인간성》의 구호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자들은 대중으로 하여금 부르죠아지와 착취 계급의 억압과 략탈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거나 부르죠아 인도주의의 선전 앞에서 완전히 굴복 당한 가련한 사람들이다.

오늘 미제를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저들의 침략과 략탈을 은폐하며 식민주의 정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평화》 구호에 적극 매여 달리면서 자기들이 마치 인류의 운명에 대한 그 어떤 인도주의적인 배려나 책임감이라도 있는듯이 떠들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침략과 략탈에 의거해서 살아 가는 제국주의자들에게서, 그 대변자들에게서 인류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간 증오와 야수성을 키워 주며 《사람은 사람에 대한 승냥이》로 만든다.

착취 계급 사회 특히 자본주의-제국주의 하에서는 인간성이 피착취 근로 대중 속에서도 옳게 발양, 발전될 수 없고 부단히 침식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성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러한 착취 제도의 파괴를 위한 계급 투쟁, 혁명 투

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인간성 문제를 그와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바로 진정한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현실적 길이다.

오직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로동 계급이 주권을 틀어 쥔 조건에서만, 모든 사람이 착취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주의 조건에서만 사람들 사이에 참된 인간 관계가 맺어질 수 있으며 오직 이 때에만 인간성이 전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할 수 있다.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우리 나라에서 인간 관계는 호상 신임과 존경, 배려, 방조에 기초하는 동지적 관계로 특징 지어진다. 인간적인 배려와 사랑은 사회 생활에서의 사람들의 기본 관계로 되고 있다.

현실은 이것을 잘 보여 준다.

북반부에 수립된 프로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착취와 압박의 사회적 근원이 청산되고 계급 교양, 공산주의 교양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사람들의 정치-도덕적 풍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는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도덕 품성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화상 당한 한 어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려 3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살을 떼여 이식해 준 흥남 비료 공장 의료 집단과 함흥 의과 대학 학생들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다.

김 정순 영웅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 속에 뛰여 들어 얼음'구멍에 빠진 일곱 명의 학생들을 건져 주었다.

리 홍렬 동무는 혁명 동지의 심리적 고통을 풀어 주기 위하여 50여 통의 편지를 도처에 보내고 173 개의 인민반을 찾아 다니면서 끝내 전쟁 시기에 헤여졌던 오누이를 서로 만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집까지 내여 주어 새 생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된 우리 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사회 성원들의 새로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보여 주고 있으며 고상한 인간성이 활짝 꽃 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배려, 존경과 신뢰가 전 사회적인 지배적 도덕 규범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그처럼 힘들여 진행한 교양 사업의 빛나는 열매이며 우리 사회의 불패의 생활력의 담보이다.

* *

우리 일'군들이 인간성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인간성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

한 사랑과 배려의 품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에 대한, 인민 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도덕적 풍모이다.

공산주의적 인간성은 인민이 력사의 창조자이고 혁명의 동력이라는 관점에 기초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인민 대중이며 그들의 힘과 지혜이다.

인민 대중을 믿지 않거나 경시하는 관점을 가지고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대중을 안중에 두지 않고 그들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또 대중의 력량을 떠나서 혁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어디까지나 혁명적인 군중 관점에 철저히 서서 대중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충복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대중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 지어 생명까지라도 바칠 각오가 되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군중 관점에 옳게 설 때만이 우리 일'군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성의 소유자로 될 수 있다.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가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혁명적 군중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체득하는 것이다.

일'군들의 인간성은 사람들과의 사업을 통하여, 군중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생각할 수 없으며 반면에 군중에 대해서 호령하고 명령하며 관리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당의 군중 관점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혁명적 군중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체득하여야 한다.

군중 앞에서 틀을 차리거나 세도를 쓰는 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일'군들의 권위와 위신은 틀을 차리거나 호령하는 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겸손성에서, 사업에서의 이신작칙에서 보장된다. 왜냐 하면 자각된 우리 근로자들은 오직 그러한 풍모를 가진 일'군들만을 자신들을 위한 진정한 일'군으로 믿고 존경하며 모든 것을 그에 의탁하며 그들의 모범을 따라 투쟁에 나서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일'군들이 로동자, 농민 즉 혁명 군중 속에서 나왔으니 만큼 그들 앞에서 틀을 차리거나 관료주의적으로 행세하는 것은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잊어 버리는 것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군중을 대함에 있어서 언제나 까다롭지 말고 너그러워야 하며 쌀쌀하지 말고 따뜻하여야 하며

숭고한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계급, 자기 인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급적 원쑤를 미워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계급적 원쑤들을 미워하는 정신이 없는 사람에게서 결코 자기 계급,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을 바랄 수 없다.

만일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칠저한 증오가 없다면 그들의 발'굽 밑에서 전대미문의 기아, 빈궁, 무권리에 허덕이는 형제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들을 해방하려는 투쟁 정신도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제를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 지주, 자본가들을 미워하는 정신이 없다면 그들의 압제와 착취 밑에서 신음하는 수억만 피착취 근로 대중에 대한 사랑, 그들의 해방을 위한 세계 혁명을 말할 수 없다.

참으로 인간성의 문제는 착취 계급에 대한 칠저한 증오, 그들로부터의 피착취 대중의 해방을 위한 열렬한 투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성이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려는 적대 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성은 그 어떠한 초계급적 인간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의 인간성은 오직 로동 계급의 계급적 립장, 혁명적 립장에서 출발한 것이며 공산주의적 당성에 기초한 것이다.

당성, 계급성, 인간성은 서로 련관되여 있다. 인간성이 없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당성, 계급성을 말할 수 없으며 당성이 없는 사람에게서 참다운 인간성을 생각할 수 없다.

당성과 인간성을 대립시키거나 량자간의 불가분적 련계를 리해하지 못하고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치는 것은 다같이 참된 당'적 립장과는 완전히 모순된다.

자기 계급, 자기 당, 자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의 정신은 공산주의적 인간성의 불가분의 두 측면을 이룬다.

우리 일'군들이 고귀한 인간성의 소유자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명적 수양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적 수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성은 더욱 풍부해지며 따라서 이것은 대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데 있어서,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여 주는 데 있어서 힘으로 된다.

혁명적 수양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이다.

맑스-레닌주의 원리 학습과 당 정책 학습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군중 로선을 확립하기 위한 당의 력사적인 투쟁 경험을 옳게 체득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간성의 문제를 옳게 파악하여 자

신의 신념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의 구현을 위하여 더 잘 노력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김 일성 동지의 높은 덕성에서 배워야 하며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지도되고 교양 육성된 항일 빨찌산들의 고귀한 인간성의 모범에서 꾸준히 배워야 한다.

항일 빨찌산들은 오직 공산주의자들에게만 고유한 인간성의 모범, 자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생동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 자신을 부단히 수양함으로써만 더욱더 풍부한 인간성의 소유자로 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을 이어 받고 그것을 생활에서 구현하고 있는 천리마 기수들의 인간성의 모범에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일'군들은 공산주의적 인간성의 진수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실생활에 잘 옮길 수 있다.

인간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당 생활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인간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당 생활의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하고 인간성이 결여된 언행의 사소한 표현과도 타협하지 말고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것도 인간성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문화적 소양을 높여야만 사람들의 생활을 그 내면 세계에 이르기까지 더욱 깊이 리해할 수 있으며 부드럽고 인정미가 있는 일'군으로 될 수 있다.

혁명적 수양을 통하여 더욱 풍부한 인간성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정치-사상적으로 굳건히 다져진 진 사회의 통일 단결을 인간적 면에서까지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빨리 추진시킬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조 종 환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오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는 맑스-레닌주의의 적들과의 사상 투쟁에서 중요하게 제기된다.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가까와 오고 인민 대중의 혁명적 의식이 제고되면 될수록 더욱더 《반공》 선전에 광분하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깜빠니야의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방송, 신문, 출판물 등 온갖 선전 수단들은 사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없다고 집요하게 중상 비방하고 있다. 이에 오늘 남조선의 군사 파쑈 도당이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은 마치 부르죠아 민주주의를 《만민을 위한》 것인듯이 가장하면서 인민 대중을 속이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그것이 제아무리 비단옷 차림을 하여도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로 변할 수 없다.

현대 수정주의자들도 민주주의의 계급성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결국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킨다는 미명 하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와 당의 령도를 약화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항상 계급적 성격을 가지며 《순수 민주주의》, 《초계급적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와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계급 사회에 있어서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추상적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어떠한 류형, 어떠한 형태의 국가이든 불문하고 그것은 반드시 어느 계급의 독재이며 어느 계급의 민주주의라고 인정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은 지주, 자본가 등 한 줌도 못 되는 소수 착취 계급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인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

아 민주주의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다.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는 그 어떤 다른 민주주의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공산주의에로 가는 과정을 통하여 점차 완성되면서 나중에는 조락된다. 가장 완성된 민주주의는 고유한 의미에서 벌써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재를 떠난 《순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떠난 독재가 있을 수 없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한 문제의 두 측면이다.

계급적 원쑤들을 진압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으며 반면에 인민들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의거하여 계급적 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주, 예속 자본가 기타 반동 분자들과 반혁명 분자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줄 수 없다.…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인민이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광범한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인민의 원쑤들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여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126 페지).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이후에도 의연히 계급적 모순은 존재하며 계급 투쟁은 계속된다. 전복은 되였으나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낡은 세력들은 외부에 기대를 걸면서 공개적인 또는 은폐된 형태로 사회주의를 공격하며 자본주의 제도의 재생을 기도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없으며 불가피적으로 적대적 요소들이 조장 발전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계급 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적아를 엄격히 구분하고 인민의 락원을 다시 빼앗으려는 원쑤들의 기도를 철저히 폭로 분쇄함으로써 인민 대중에게 모든 자유와 권리와 복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당은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였으며 소수의 적대 분자들을 철저히 제압함과 동시에 각계 각층 군중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교양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며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없는듯이 말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와 인연이 없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제한되고 민주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그 어떤 독재를 초월한 조건 하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사실 상 적아를 뒤섞어 놓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 계급의 계급성을 말살하며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실현

하자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약화되고 나라의 자유주의화가 실현되는 데서는 자본주의 요소들이 자라 나고 부르죠아적 사조와 생활 양식이 조장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부르죠아 서방에 대한 환상적인 동경과 무비판적인 모방이 있게 되며 퇴폐적인 기풍이 수 많은 젊은 세대들과 인테리들을 휩쓸게 되고 개인 리기주의와 향락주의, 자유주의적 경향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 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사회 질서의 문란, 각종 범죄 행동의 범람을 막을 수 없으며 지어는 당과 국가의 비밀까지도 적들에게 서슴없이 팔아 먹는 현상을 산생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당 및 국가 생활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원칙을 정확히 관철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당 및 국가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서 불가분리적인 두 개 측면 즉 중앙 집권적 측면과 민주주의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은 개별적 로동자들의 단독적인 투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단결하지 못 하고 무정부 상태에서 행동한다면 그들은 적에게 각개 격파 당하고 말 것이다.

로동 계급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통일될 때에만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전투력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들의 력사적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에 립각한 강철 같은 통일이 필요하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325 폐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의거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경제를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에 광범한 대중을 인입할 수 있다.

모든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여 있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생산, 분배, 류통, 소비에 대한 국가의 중앙 집권적 관리와 통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는 《중앙 집권화된 경제, 중앙으로부터의 경제의 건설이기 때문이다》(레닌 전집 제 28 권, 511 폐지).

현대적 생산의 복잡한 제 과정을 관리하며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로 향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 집권적인 통일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경제 건설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며 그 내부적 련관이 더욱 복잡해지는 조건에서 중앙 집권적 지도를 떠나서 생산의 관리 운영을 생각할 수 없다.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는 조건 하에서만 경제 문화 건설에서 근로 대중의 적극성과 자각적 열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통일적 목적과 지향, 지도를 떠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상 빈 말에 불과한 것이며 자유 방종을 찬미하는 것으로 된다.

민주주의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중앙 집권제를 약화해도 안 되며 중앙 집권제 일면만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해도 안 된다. 이 두 측면을 정확히 결합시켜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높이 발양 발전될 수 있다.

우리 당은 모든 부문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온갖 낡은 사상 관습과의 투쟁을 강화하여 적들이 발붙일 수 있는 바탕을 제거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적 사상과 자각적 규률로 부단히 무장시키고 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였으며 또한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생산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현대화되는 조건에서 중앙에서의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더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결과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 열의와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고 있으며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은, 중앙 집권적 지도를 민주주의에 대립시키면서 중앙 집권제를 강화하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면 중앙 집권제를 축소해야 하는듯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황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소위 《중앙 집권제의 반대》, 무원칙한 《민주주의의 발양》 등에 대하여 떠든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약화하고 《지방 분권화》에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약화하면서 《선거권》, 《지방적 창발성》, 《사회적 자치》, 《공민의 권리 평등》, 《자유》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국가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만 일면적으로 강조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사회 계급적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부르죠아적 립장에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다.

중앙 집권제를 말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 《자유》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의식적 활동의 의의

를 낮추는 것이며 모든 것을 자연 발생성에 방임하는 속류 진화론적 립장인 것이다.

이러한 립장은 객관적 법칙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 리용이 가지는 의의를 저하시키며 인간의 자연적 본능과 감정을 절대화하면서 그의 사회 계급적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적으로 자유 경쟁을 초래하며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의 부식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혁명 력량을 변질시키며 로동 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그의 전투력을 마비시키는 데로 떨어지고 만다.

당 및 국가 생활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정확히 관철시켜야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최고의 정치적 조직인 당만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중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제시해 줄 수 있으며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심으로 무장시킬 수 있으며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가 보장됨으로써만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정확히 관철시킬 수 있으며 당 및 국가 생활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정확히 관철시킬 수 있다.

특히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인민 대중은 자기들의 의식성과 자각성을 부단히 제고할 수 있으며 자기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지 않고 대중 속에서 당의 정치 사업과 교양 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개화 발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전체 근로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인입하고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하며 국가 및 경제 관리에 광범히 참가시키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민주주의적 방향에로의 전진 여하와 민주화 여하의 중요한 표현은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인민들의 참가 정도의 여하에서 나타난다.》(《김 일성 선집 제 1 권, 1955년 판, 236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당의 경험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당의 령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코 당이 행정 경제 사업을 대행하는 것과

는 인연이 없다. 그것은 오직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키잡이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해당 당 위원회를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게 함으로써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가 더욱 강화되게 하였다.

공업과 농업에 새로운 지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제 관리에 대한 당 조직들의 령도적 역할이 더욱 제고되였으며 경제 지도에서 사람과의 사업이 첫 공정으로 되고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정연한 사업 체계가 확립되였다.

모든 부문에서 해당 당 위원회는 당 조직들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을 발동시키고 당원들은 전체 군중을 발동시키게 되였다.

당의 집체적 지도의 원칙이 철저히 실현됨으로써 대중의 민주주의적 의사와 창발적 의견들이 더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발현되게 되였으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이 선행됨으로써 대중이 당 정책 관철에로 더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되였다.

특히 청산리 방법에 의하여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지도가 하부에 접근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국가 및 경제 관리에 광범한 대중이 더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였으며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이 남김 없이 발휘되게 되였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널리 발전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높이 발양되고 있는 가장 뚜렷한 표현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행정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경제 관리에 적극 참가할 뿐만 아니라 직접 관리자로 되며 모든 분야에 걸쳐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당을 정치적 령도 기관으로부터 하나의 토론 구락부로 전락시키고 당 기관을 경제 기관화함으로써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문학 예술 분야에 대한 당적 지도를 거부하고 자유주의화에로 나가는 것을 참다운 민주화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하고 당의 정치 교양 사업을 약화하는 데서는 퇴폐적인 부르죠아 사상과 생활양식의 침습을 막을 수 없으며 자본주의 요소들의 새생을 막을 수 없다.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혁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수정주의자들과 투쟁할 것은 물론이고 수정주의가 싹 틀 수 있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과도 무자비하게 투쟁해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390 페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프로레타리아 독재,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당의 령도와 대립시키면서 《민주주의》, 《자

유》에 대하여 일면적으로 떠드는 것은 순전히 공담이며 자기들의 파렴치한 수정주의적 책동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 계급의 계급성, 혁명성을 말살하고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약화하면서 부르죠아적 관계를 조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 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도와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당의 령도를 부단히 강화하며 이와 배치되는 사소한 자유주의적 경향과도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성과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

10 대 과업 수행을 위한 도당 위원회의 임무

정 지 환

최근 우리 당은 앞으로 1~2 년 동안에 전 당과 전체 인민이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전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매개 도 앞에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각 도 부문별 10 대 과업을 설정한 우리 당의 금번 조치는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도의 역할을 백방으로 제고함으로써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7 개년 계획의 강령적인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금후 1~2 년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3 년 남짓한 기간에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기초 우에서 농촌 경리와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힘을 집중할 데 대한 과업이 훌륭히 실행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는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 섰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당이 제시한 도별 10 대 과업을 받들고 금후 1~2 년 동안에 완강하게 투쟁한다면 7 개년 계획 말에 예견된 기본적인 지표들을 훨씬 앞당겨 달성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더욱 큰 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우리 평안 북도 당 조직들 앞에도 새롭고 무거운 과업이 부과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지난 8월 11일 평북도 당 위원회 확대 상무 위원회에서와 신의주시에서 있었던 공화국 창건 16 주년 기념 경축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 도 앞에 제기되는 10 대 과업과 그 수행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었다.

평북도 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수상 동지가 제시한 이 과업에 무한히 고무되여 그 관철을 위해 한결같이 일떠나 투쟁하고 있으며 7 개년 계획 기간에 도 앞에 부과된 영예로운 임무를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완수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 *

각 도 부문별 10 대 과업을 설정한 우리 당의 금번 조치는 현시기 우리 나라 도들에 조성된 제반 조건과 가능성들에 의거하여 도가 더 많은 일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7 개년 계획

올 보다 훌륭히 완수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된다.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도가 차지하는 위치와 거기에 있는 커다란 예비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우리 나라의 도들은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진척됨에 따라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였으며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더한층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조건들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의 도들은 오늘 방대한 경제 사업들을 직접 조직 운영하며 지도하고 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대규모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최근 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수 많은 지방 공업 기업소들이 새로 창설되였으며 많은 공업 기업소들이 중앙 공업 체계로부터 지방 공업에로 이관되였다.

우리의 지방 정권 기관들은 이 방대한 규모의 지방 공업 기업소들을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 많은 농목장들과 수산 부문 기업소들, 도시 경영 및 도시 건설 기관들, 상업 기관들,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중앙 공업도 성 국들의 직접적인 지도 관리 하에 두면서 그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지금 우리의 도들이 관리하거나 지도하고 있는 공장, 기업소 수는 과거와 비할 수 없으리 만큼 많아졌으며 그에 따라 도의 생산 규모와 그 잠재력이 비상히 증대되였다.

우리 나라 도들의 생산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가 하는 것은 오늘 한 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업 생산이 과거 북조선 인민 위원회가 관리하던 것 만한 량과 맞먹고 있다는 데서도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한 몇 개의 수리 공장과 경공업 공장들, 소규모적인 광산 밖에 없었던 평북도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오늘은 최신 기술로 장비된 수 많은 대규모적인 중공업 및 경공업 기업소들과 매개 시, 군에 평균 13 개에 달하는 320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다.

평북도는 우리 나라의 다른 모든 도들과 같이 위력한 공업 지대로 전변되였으며 중요한 식량 기지로 발전하였다.

오늘 평북도는 우리 나라 가계 제작 공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력 및 화학 공업과 경공업 기지를 가지고 있다. 평북도는 또한 우리 나라 농업 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해 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평북도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평북도는 우리 나라에서도 공

업의 비중이 대단히 큰 도이다. 평북도에는 발전소, 화학 공장, 광산, 탄광들도 있고 경공업 공장들도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 금속 공업을 제외하고는 주요 공업 부문이 다 있다.

다시 말하면 평북도에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밑천이 있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403 폐지).

평북도는 오늘 75 톤 탑식 기중기, 4 립방 메터 엑쓰까와또르, 1,000 톤 프레스, 6 메터 호뼁, 400 마력 디젤 기관 등을 비롯하여 각종 광산 기계 설비, 공작 기계, 농기계 등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과 각종 공구 등 나라의 기술 혁명 수행에서 절실히 필요한 생산 수단들을 다량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 전력 생산량의 34.8%, 알곡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 대규모의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평북도는 앞으로 년 1억 1천만 메터의 천을 짤 수 있는 2만 톤의 화학 섬유를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평북도가 우리 나라 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 벌써 12.9%였으며 1962년에는 15.4%로 장성하였다. 도내 공업 총생산액은 1963 년에 일제 말기에 비하여 66.3 배로 늘어 났다.

평북도는 우리 나라의 모든 도들과 같이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촌 경리를 가진 나라의 강력한 생산 기지로 되였다.

우리의 도들은 거대한 규모로 장성된 생산을 성과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인민 경제 각 분야에 대한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도의 역할을 부단히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최근 년간 우리 나라 도들의 지도적 기능은 크게 확대되였다.

지금 우리의 도들에는 국가 계획 위원회 도 위원회, 도 농촌 경리 위원회, 도 건설 위원회, 도 경공업 위원회, 도 내무 총국 등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지도 관리의 주요 기관들이 새로 창설 또는 정비되여 사업하고 있으며 각기 자기 지방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게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복무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 연구 기관들도 가지고 있다.

더우기 공업에 대한 도당 위원회들의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도당의 경제 부서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담당 지도원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가 더욱 강화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공장, 기업소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의 공장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도 철저히 제고되였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도가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 하에 도내 경제 사업 전반을 틀어 쥐고 그에 대한 기동적이며 구체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경제 발전을 강력히 촉진시키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도들은 공업과 농업 및 상품 류통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단위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문제로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의 도들에 조성된 제반 조건과 생산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함으로써 도들로 하여금 나라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더 잘 복무할 수 있게 하며 도 내의 모든 력량을 7 개년 계획 완수에로 집중케 하는 데 있다.

사실 상 우리의 도들이 관리하는 생산의 규모가 비상히 증대되였으며 또한 도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된 오늘에 와서 도의 력량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도가 일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바로 여기에 따라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수준이 매우 높고 그 내부 적 련계가 아주 복잡하여진 새로운 조건에서 도 특히 도당 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 공업을 성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 관리국들의 지도와 함께 공업에 대한 도당 위원회들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최근 년간에 우리가 공업을 지도하는 행정에서…도달한 중요한 결론이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각 도 부문 별 10 대 과업을 설정한 우리 당의 금번 조치는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도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부과된 중심적인 목표들을 뚜렷이 알고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며 당 정책 관철에서의 도의 책임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7 개년 계획의 성과적인 완수를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또한 그것은 매개 도들이 처한 구체적인 자연 경제적 조건들과 특성에 맞게 도의 경제 발전을 보다 급속히 촉진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전반적 지역들의 발전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장하게 하며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도의 역할을 더한층 높일 수 있게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도 단위 중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의 력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 동원케 하며

도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가 하는 것은 지난해 평북도에 대한 현지 지도 시에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한 우리의 투쟁 경험을 통하여서도 명백히 실증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지난해 10월, 평북도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금년에 우리 도 앞에 제기되는 전반적인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의 건설과 신도 갈밭 조성 공사, 평양—신의주 간 철도 전기화 공사 등 기본 건설과 공업 및 농업 부문에서 화력을 집중하여 점령하여야 할 중점적인 고지들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것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하여 일떠선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명확한 투쟁 목표로 되였으며 도당 위원회가 중심 고리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도 앞에 부과된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게 하였다.

도당 위원회는 전국의 지원 하에 수상 동지가 제시한 이 중점적인 고지들을 점령하는 데 도 내의 모든 력량을 조직 동원함으로써 그 규모에 있어서 아주 방대한 기본 건설과 대자연 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으며 공업과 농업 생산에서 큰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다.

실로 매해에 걸친 현지 지도를 할 때마다 도가 해결하여야 할 전반적인 사업과 함께 중심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지난 시기 도당 위원회가 도 내의 경제 사업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 고리를 정확히 풀어 나갈 수 있게 한 기본 요인으로 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각 도 부문별 10대 과업을 설정한 우리 당의 조치가 현 시기 우리 나라 도들에 조성된 제반 조건과 가능성들에 의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 대한 우리 당의 실천적인 지도 경험을 통하여서도 그 우월성이 이미 확증된 가장 합리적인 대책으로 된다는 것을 힘 있게 증명하여 주고 있다.

* *

우리 나라 서북방의 위력한 공업 지대이며 중공업과 경공업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평북도 앞에는 오늘 다른 모든 도들과 함께 7 개년 계획의 수행과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부과되여 있다.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도 내의 연료— 동력 공업과 광업,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등 기간적인 중공업 부문의 발전에 계속 중요한 력량을 돌리는 한편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1966년에 가서 평북도에서는 지난해보다 2 배나 더 많은 석탄과 광석을 캐 내야 하며 금속 절삭 기계의 생산량은 2 배 이상, 에쓰까와또르 생산량은 1.3 배 이상, 디젤 기관 생산량

은 1.9 배 이상, 직물 생산량은 1.8 배 이상, 수산물 생산량은 1.7 배 이상 각각 장성시켜야 한다. 또한 이 기간에 우리는 알곡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식량의 여유를 더 많이 조성하며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육류를 공급해야 한다.

최근 1~2 년 간에 평북도에서는 도 내의 전반적인 문화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도 큰 전환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까운 기간 내에 평북도를 더욱 발전된 공업, 농업 지대로 전변시킬 것이며 평북도로 하여금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당이 제시한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을 관철함에 있어서 도내 경제 발전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이미 도내 경제 발전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도가 자기 앞에 부과된 과업을 잘 수행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정적으로 도당 위원회의 사업 여하에 달리게 되였다.

도당 위원회는 도내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주인이며 그의 제 1 차적인 혁명 과업도 도내 경제 발전에 대한 지도이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 도내의 경제 발전을 지도하는 것이 도 당 위원회의 제 1 차적인 혁명 과업이다. 이 과업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따라서 도당 위원회가 혁명 과업을 잘 실행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이 평가될 것이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였다.

도내 경제 발전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당 위원회가 당 정책을 튼튼히 틀어 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정치 사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당 중앙 위원회가 도 앞에 제시한 과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빈틈 없이 짜고 들어 하나하나 풀고 넘어 갈 때 당 정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여 나갈 수 있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도 내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현시기 각 도 부문별 10 대 과업을 제시한 우리 당의 의도와 도 앞에 제기된 과업, 이 과업의 해결이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가지는 의의와 우리 생활에 가져다 줄 전망을 계속 광범히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이 명확한 투쟁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다.

특히 도당 위원회는 도 내의 모든 지도 일'군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당 정책과 최근 년간 평북도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관철하는 데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더 잘 불러 일으키게 하며 공화국 창건 16 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앙양된 도내 근로자들의 충천된 기세를 10 대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견지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당 위원회는 10 대 과업 관철을 위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킴과 함께 매개 부문에서 당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을 미리 방지하며 이 기간 중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력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청수 지구를 비롯한 중요 생산 및 건설 현지에서 도당 위원회 확대 상무 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집행 대책들을 사전에 토의 강구하는 데 큰 주목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이미 도당 대표자회에서 10 대 과업 관철을 위해 제기되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포치하였다.

도 앞에 제기된 과업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조건에서 도 내의 각급 당 조직들 특히 시, 군당 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더우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제고하며 군 내의 모든 력량과 예비를 10 대 과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군 사업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고 지도하는 군당 위원회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도 내의 각급 당 조직들 특히 시, 군당 위원회들을 더 잘 꾸려 주며 그 사업 수준을 한층 더 제고시킴으로써 모든 당 조직들이 당 사업을 보다 정상화하며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지도 방조할 것이다.

동시에 도 내의 모든 시, 군들과 중요 기업소들에 명년과 명후년에 도달하여야 할 중심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줌으로써 10 대 과업 수행에서 시, 군당 위원회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모든 력량을 이 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 고리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로동 행정 사업을 일층 개선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지금은 공업이나 농업, 그 어느 부문을 불문하고 기술 혁신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우리는 도 내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선 앞으로 남은 기간에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결속 짓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여 10 대 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탐구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강력히 조직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 탐구 사업의 성과적인 보장을 위하여 도당 위원회는 매개 부문마다 한 단위에 지도를 집중하여 모범을 창조하며 그 경험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도 내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비생산 로력을 극력 축

소하고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일'군들의 수를 증대시키며 이미 경험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작업반 간의 련합 혁신 운동과 작업 공정들 간에 련대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을 더욱 조직화함으로써 이 기간에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2배 이상 제고하며 제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한 계단 더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도 우리는 이 기간에 기계화를 강력히 촉진시키며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확대 공고히 하는 한편 전기화와 화학화를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알곡의 정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적은 사료와 로력으로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10대 과업 수행을 위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도당 위원회 부서들 특히 경제 부서들과 기업소 담당 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도당 위원회 조직부와 선전 선동부가 더 많이 공장, 기업소, 농촌에 접근하여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선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 부서들이 반드시 전망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생산 현장에 침투하여 지도 방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당 위원회는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당 조직 정치 사업 정형, 생산 계획 실행 정형들을 계통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걸린 고리를 풀어 주며 공장 당 위원회의 《키잡이》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시기 도내 경제 발전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도의 모든 지도 일'군들이 정치 리론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공업과 농업, 문화 혁명에 대한 지도 리론을 소유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지도 일'군들이 정치 리론을 모르고 경제 지식이 없으면 당 정책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으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사업에서 아무러한 창발성도 발휘할 수 없다.

우리가 하여야 할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사업 대상이 많아진 지금에 와서 도내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특히 혁명의 지휘 성원들인 간부들이 리론 수준과 지도 능력을 높이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열'쇠로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제기되는 그 모든 새롭고 방대한 과업을 능숙하게 처리해 나가기 위하여 또한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계속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기술 경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여야 한다.

우리는 도내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특히 지도 일'군들 속에서 학습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학습하는 것을 당 생활의 기본 문제로 삼도록 적극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동시에 도당을 비롯한 도급 지도 기관의 책임적인 일'군들이 학습에서 이신작칙하며

하부 일'군들의 학습을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함으로써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생활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특히 도 내의 모든 지도 일'군들과 시, 군당 조직들이 지난 시기 일'군들 속에서 학풍을 수립하고 정치 리론 수준 제고와 함께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준 창성군과 벽동군 당 조직들의 경험을 본받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지난 시기 창성군에서는 간부들 속에서 학풍을 수립하며 일'군들의 지도 리론을 부단히 높일 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해에 벌써 군내 협동 농장들과 공장 관리 일'군들 중에서 50여 명이 고등 경공업 학교와 고등 농업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금년에는 또다시 48 명의 관리 위원장과 직장장들이 고등 기술 학교를 졸업하는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창성군과 함께 벽동군에서도 지도 일'군들이 자기들의 리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오늘 지방 산업의 많은 일'군들이 고등 경공업 학교를 졸업하고 기수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는 창성군과 벽동군의 이러한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도급 지도 간부들로부터 도 내의 공장과 농촌의 지배인, 관리 위원장, 작업반장에 이르는 모든 지휘 성원들이 모두 당 정책에 정통하며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 수행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갈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전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그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견결한 혁명 투사로, 참된 공산주의 교양자로 육성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오늘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 사업 기풍과 사업 방법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혁명 과업 수행의 성과 여부는 지휘 성원들인 간부들의 사업 작풍, 그들의 사업 방법에 크게 의존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의 집행에 대하여 언제나 관심하며 당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며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일단 시작한 일은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밀고 나가며 모든 문제 해결에서 자력 갱생의 높은 정신을 발양할 때 우리 사업에서는 큰 성과가 있게 되며 인민들의 살림은 더욱 유족하여질 것이다.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부들이 이신작칙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의 모든 경험은 지도 일'군

들이 흙짐을 한 번 져도 먼저 지고 돌을 한번 날라도 먼저 나르는 사업 작풍을 견지할 때 군중은 당이 준 혁명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지방 산업과 산 지대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군당 일'군들을 비롯한 군급 지도 일'군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솔선 모범을 보임으로써 군 사업에서 큰 혁신을 일으킨 창성군과 벽동군 당 일'군들처럼 일함으로써 군중들로 하여금 당 정책 집행에 자각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계속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지도와 기업 관리에서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평북도 당 위원회는 도 내의 모든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 집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견지하고 항상 꾸준하고 세심하게 일하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 방법의 잔재를 완전히 근절하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을 당이 제시한 혁명 과업 수행에로 한결같이 조직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여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가 평북도 앞에 제시한 영예로운 10 대 과업을 빛나게 실현할 것이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의 중요 예비

석 중 봉

기업 관리 운영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당은 오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것은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국가 축적과 인민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킴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 생산 능률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여야만 제한된 로력을 가지고서도 생산을 급격히 장성시킬 수 있으며 국민 소득을 증대시켜 나라의 축적과 인민 생활 문제를 동시에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10 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 고리를 바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서 찾고 있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것은 ,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 문제가 매개 공장, 기업소의 사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단경대 건설 기계 공장의 실례가 잘 보여 준다.

그것은 우선 공장에 부과된 국가 생산 계획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결정적 고리이다.

오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장 앞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로력을 가지고 생산을 계통적으로 증대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례컨대 우리 공장의 1962년 생산 계획 과제는 1961년에 비하여 148.8%로 장성한 반면에 로력은 같은 기간에 110% 밖에 장성하지 않았다. 특히 1964년 상반년의 경우에는 생산 과제가 1963년 상반년 실적에 비하여 130%로 장성하였으나 로력은 같은 기간에 단 103% 밖에 장성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 하에서 생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비는 기술 혁

신과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여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였다.

우리 공장에서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의 3 년 간에 생산 실적이 년 평균 약 30%씩 장성하였는데 그것의 근 80%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의 제고는 기업소의 재정 토대를 강화하며 로동자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그들의 생산 열의를 높여 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장, 기업소의 재정 토대의 공고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는 국가 예산에 대한 납부 계획을 얼마나 초과 완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대시키며 기업소 기금을 얼마나 형성하는가 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국가 납부의 완수와 기업소 기금의 다소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사업과 관련된다.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로력을 적극적으로 절약하여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임으로써만 국가의 생산, 원가 및 리윤 과제를 초과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소 기금도 많이 형성할 수 있다.

우리 공장에서 국가 예산에 대한 납부액이 1961년을 100으로 할 때 1962년에 453%로, 금년 상반년에 1961년 상반년에 비하여 일약 904%로 증가한 것도 바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인 것과 크게 관련되고 있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의 제고, 생산 및 국가 예산에 대한 납부 계획의 초과 수행은 기업소 기금의 점차적 증대를 가져 오게 함으로써 공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소의 살림살이도 보다 더 풍부하고 알뜰히 꾸릴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로동자들의 총수입 중에서 계획 초과 수행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지불 받는 액이 근 10%에 달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로동자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고 로동이 보다 즐거워지니 그들의 생산 열의도 더욱 높아지고 생산은 계속 올라만 간다.

지난 기간 우리 공장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년도 / 구분	1961	1962	1963	1961년 상반년에 비하여 1964년 상반년
생산 실적 장성	100	148.8	158	210
로력 장성	100	110	110.7	122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장성	100	135	143	174
생산 계획 수행률	103.5	101.5	108.7	104.8

* 1962년에 일부 제품의 도매 가격이 인하된

것을 고려한다면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성장률은 더 높을 것이다.

우의 표는 우리 공장에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로력으로 생산액을 빨리 장성시켰고 해마다 국가 생산 계획 과제를 초과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당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는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의 결정적 고리는 기술 혁신에 있다

기술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선진적인 작업 방법을 생산에 광범히 도입함이 없이는 로동 생산 능률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일 수 없다.

기술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지도 일'군들로부터 매개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현시기 기술 혁신이 없이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코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자기 공장의 구체적 실정에서 명백히 인식하는 문제이다.

현시기 기술 혁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전진하느냐, 그 자리에서 답보하느냐 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기본 생산을 시작한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고 해당한 기계 설비들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던 우리 공장에서 기술 혁신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각이한 제품을 생산하던 작은 기업소들이 하나의 건설 기계 공장으로 통합된 당시만 하여도 공장에는 생산 설비들이 극히 불비하였고 생산 공정 간에는 심한 불균형이 조성되고 있었으며 작업 공정들에는 손로동이 적지 않게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술 혁신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 부단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이 없이는 공장에 부과되는 생산 과제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었는바 기술 혁신은 우리 공장에서 그야 말로 사활적인 문제였다.

공장 초급당 위원회는 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공장의 바로 이와 같은 구체적 실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들을 세웠다.

당 위원회는 우선 대중들로 하여금 기술 혁신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높여 주는 데 선차적 관심을 돌렸다.

당 조직들과 근로 단체들, 선전 선동 수단들이 여기에 동원되였다.

당 위원회 위원들과 지도 일'군들은 강연 제강을 들고 작업 현장으로 나갔으며 선동원들과 학습 강사들까지도 로동자들 속에 침투하였다.

·종업원들이 매 시기 공장 앞에 제기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 혁신이 가지는 중요성을 사실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자 청년 가공 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들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창의 고안, 합리화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한 달에 한 건 이상 새 기술 도입 운동》과 《생산의 전문화와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작업반 간의 련합 혁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게 되였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 청년들은 기술 혁신의 앞장에 섰고 《늙은 축》도 뒤떨어질세라 이를 악물고 달려 들고 있다.

특히 지난 해까지만 하여도 《우리들이 어떻게 창의 고안을 하겠는가》라고 하던 녀성 로동자들 속에서도 기술 혁신안이 련이어 제기되고 있다. 청년 가공 직장 소형 선반공 리 보부 동무가 연유 탕크 스핀돌 가공 지구와 벨트콘베야 로라 상하부 덮개 가공 지구를 창안 도입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2배 이상으로 높인 데 뒤이어 금년 상반년에만도 녀성들이 제기하여 생산에 도입한 창의 고안은 7 건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기술 혁신에 한결같이 떨쳐 나섰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전체 종업원들이 당이 제시한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 한 사람 같이 동원됨으로써 우리 공장에서는 금년 상반년에만도 171 건의 기술 혁신안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결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은 금년 6 개월 동안에 128%로 높아졌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장이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기술 발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며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세밀히 진행하는 것이다.

로동자들의 개별적인 창안 사업을 공장적인 기술 발전 계획으로 정확히 종합하여 옳바른 기술 발전 계획을 작성함으로써 대중의 높아진 창조적 열성에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 혁신의 성과를 높이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술 발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부과된 국가 생산 계획 과제와 밀접히 결부하여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며 무엇보다도 국가 생산 계획 과제를 초과 수행하는 방향에서 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위한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광범한 대중을 기술 발전 계획 작성에 적극 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 초급당 위원회는 참모 부서들에서 기술 발전 계획 예비안을 직장 별, 작업반 별로 작성케 하고 참모 성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산 현장에 내려 가 로동자들과 구체적으로 토의케 하였다. 토의 과정에서는 기술 발전 계획의 실행의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타산하였는데 례하면 로동자들의 숙련 정도, 기술 발

전 계획 수행과 기본 생산 과제 수행과의 호상 관계,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간, 로동자 호상간, 직장 및 작업반 호상간의 협조 문제, 기계 설비들의 기술 조건과 성능, 자재를 비롯한 기타 일체 보장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였다.

예비안은 공장 참모 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심의한 후 당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토의 비준하여 완전히 법적 성격을 띤 과제로서 직장과 작업반에 내려 간다.

이와 함께 공장 당 위원회는 기술 발전 계획 수행을 위한 모든 물질 기술적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장에서는 대중의 기술 혁신 운동에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기술 발전에 의거하여 국가 생산 과제를 초과 수행할 수 있는 전제를 조성하였다.

지금 우리 공장의 전체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기술 발전 계획을 매달, 매 분기 별로 넘쳐 수행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데서 우리가 체험한 중요한 경험의 다른 하나는 사소한 혁신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 조장 발전시키는 것이 전면적 기술 혁신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연 및 사회 현상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에서도 초기에는 사소한 것 같던 새로운 기술, 선진적인 작업 방법이 점차 큰 것에로 발전되며 확대되는 실례가 허다하다. 더우기 대중 속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는 이러한 것이 많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 속에는 《큰》 혁신안만을 바라보면서 《작은》 혁신안을 홀시하는 그릇된 관점이 남아 있으며 이것이 기술 혁신에 대중이 참가하는 것을 적지 않게 저애한다.

우리 공장에서도 초기 일부 동무들은 자그마한 지구들이 창안된 것을 보고는 《그 따위 지구나 만드는 것도 창안인가》라고 하였다.

당 위원회는 이러한 그릇된 관점을 극복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작은 것 같이 보이는 창안이라도 그것이 완성되여 생산에 도입 일반화될 때 국가에 얼마나 큰 리익을 주는가를 실물로 보여 주게 하였다.

례컨대 당 위원회는 벨트콘베야의 카리아 로라 생산에서 나사와 덮개 대신에 링그를 사용해 보자는 로동자들의 제의를 적극 지지하고 속히 완성하도록 방조해 준 결과 초기에는 그것이 극히 작은 것 같이 보였으나 짧은 기간 내에 생산에 도입 일반화됨으로써 막대한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은 로동자들은 기술 혁신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였으며 기술 혁신은 점차 큰 것에로 발전하여 갔다.

27 마력 복동 권양기 생산에서 종전에는 쌍 치차를 설치하던 것을 하나로 개조하고 바라반의 두께를 얇게 하는 등 부분품들의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년간을 통하여 84 톤의 강재와 4,740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원가를 30%나 낮추었다. 이 외에도 12.5 톤 급 문형 기중기, 3.5 톤 급 천정 기중기, 철판 완곡기, 빠우 연마기, 탁상 볼반, 철판 진동 절단기 등 기본 생산 부문에서만도 10여 대의 기계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 공장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고 생산 공정 간의 옳은 균형을 보장하여 생산의 률동성을 보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례컨대 생활 필수품 직장에 내려 간 기사, 기수들은 석유 곤로의 심지관 제작을 프레스화하자는 로동자들의 발기를 적극 지지하여 자신들이 직접 일부 작업을 담당 수행하면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 준 결과 짧은 기간 내에 성능 높은 프레스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였다.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의 강화는 이 직장의 기계화 수준을 95%로 높이고 (그 중 프레스화가 80%) 쌍 석유 곤로를 《평양 상품》 제 7 호로 등록시킬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최근 공구 및 기계화 직장 로동자들은 기사, 기수들의 방조 밑에 완전히 자동화된 2 메터 호뼁반을 완성하였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기술 혁신의 촉진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전체 로동자 대중의 기술 기능 수준과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이 문제 해결에서 공장 당 위원회가 중요하게 관심을 돌린 것은 기능 별, 수준 별로 되는 기술 학습 체계를 확립하고 유능한 기술자들을 학습 강사로 선발 배치하여 기술 및 일반 지식 학습을 정상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특히는 기술자들이 직접 생산 현장에 내려 가 생산 과정에서 로동자들을 가르치고 도와 주도록 하는 것이였다.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서 열 마디의 연설보다는 한 번의 시범이 더 효과적이였다.

기사, 기수들은 선반에서 절삭 속도를 높이는 문제, 용접에서 대상물의 변형을 방지하는 문제 등 중요한 기술 문제들을 직접 생산 현장에서 로동자들에게 배워 주었다.

공장 당 위원회는 또한 직맹, 사로청 등 근로 단체들의 사업을 통해서도 로동자들의 기술 및 일반 지식 수준을 높여 주었다.

특히 과학 지식 보급 협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과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데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혁신안을 직접 생산에 도입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례하면 공장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성원들은 로동자들과 함께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여 석유 곤로 석면포 심지를 돌 심지로 개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많은 외화와 직물을 절약하고도 심지의 수명을 2 배나 연장시켰다.

이 과정은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및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과정인 동시에 기술 혁신 과정이였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실들은 당 위원회가 구체적인 조직 정치 사업을 진행하여 대중을 기술 혁신에 이악하게 달라붙게 한다면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은 빨리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로동 행정 사업의 강화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의 중요한 예비이다

로동 행정 사업은 다 사람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다.

로동 행정 사업을 생산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요소인 사람과의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야만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로동 행정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동 행정 사업의 구체적 내용들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실시하여 로동자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주는 것이다.

물질적 자극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며 그것을 기술 혁신 과업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은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관철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자체 정량 사업을 물질적 자극으로 안받침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이였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철저한 관철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작업 기준량의 설정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광범한 생산자 대중이 자체 정량 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될 때에 성과적으로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자들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체 정량 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의 수입도 체계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분배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공장 관리부는 로임부 동무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심중히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웠다.

공장의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는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로동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임 지불은 로동자들의 능력의 제고에 따라 가면서 종전의 작업 기준에서 점차적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실시하였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자체 정량 사업에 대한 열의를 고무하였다.

그것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능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작업 방법을 도입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동시에 수입도 점차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 조직은 자체 정량 사업을 보다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게 하였는바 8월 한 달 동안만 하여도 청년 가공 직장의 매 작업반에 비치된 **새 기준량 등록부**에는 49 건의 새 기준량이 등록되였다. 이것은 종전에 비하면 실로 10여 배에 달하는 수'자이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작업 기준을 창조한 로동자와 그렇지 못한 로동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차이를 조성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하지 않고 낡은 작업 방법을 답습하는 로동자들을 새로운 기준량 창조에 불러 일으키게 하며 합리화안, 새로운 작업 방법을 더 빨리 도입, 일반화하게 한다.

지금 이 직장에서는 기술 혁신안이 제기되거나 새로운 작업 방법이 나오게 되면 저마다가 빨리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새 기술, 선진 작업 방법이 일반화되는 기간은 종전에 비하여 거의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기술,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등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이다.

새로 창안된 기계 설비, 합리화안이 생산에 도입되는 경우에 창의 고안 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술 혁신의 촉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 일단 창안된 기계 설비들, 새로운 작업 방법의 효과를 더 빨리 발휘하도록 하며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창안품, 새로운 작업 방법을 적극 접수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다.

로동자들이 새로운 선진 작업 방법, 새로 창안된 기계 설비들에 익숙하기까지에는 일정한 기간 그 능력을 다 발휘시키기가 그리 쉽지 않다. 만약 작업 기준을 단꺼번에 새로운 선진 작업 방법, 새로운 기계 설비들의 기술 기준의 수준에서 설정한다면 로동자들의 수입은 적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지장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작업 방법이 도입되는 초기에는 작업 기준을 기술 기준보다 낮게 설정하고 로동자들이 숙련되여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준을 높여 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로동자들이 다 기술 혁신에서 적극성을 발휘케 하고 거기에 관심하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새 기술 도입과 자체 정량 사업 및 창의 고안에 대한 보수 조직은 서로 밀접히 결부되였다.

그것은 새 기술, 새로운 작업 방법의 도입이 창의 고안 및 자체 정량 사업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공장에서 취한 이와 같은 조치들은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힘 있는 추동력으로 되게 하였다.

로력 배치, 작업반 조직의 합리적 실현은 로동 행정 사업의 중요 구성 부분이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우선 전체 종업원 중에서 직접 부문에 있는 로동자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직접 부문에 있는 로동자의 비중이 감소된다면 아무리 기술 혁신을 한다고 해도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은 뜻 대로 높아질 수 없다.

공장 당 위원회는 사무를 간소화하고 간접 부문에서 기술 혁신을 추진시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등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직접 부문 로동자 비중을 높이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이리 하여 직접 부문 로동자 비중은 체계적으로 장성하였는바 1962년에 53.6%이던 것이 지금은 58.7%를 차지한다.

직접 부문 로동자 수의 장성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의 중요한 요인이였다.

직접 부문 로동자 비중을 증대시키는 것과 함께 로력 배치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군들을 그들의 소질과 능력, 체질에 따라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녀성들의 비중이 종업원 총수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에서 그들의 체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당한 일'자리에 배치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하였다.

례컨대 녀성 선반공들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그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소형 및 경량 부분품들을 가공하며 단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대에 돌리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로력 배치는 로동 년한이 짧고 체질이 약한 녀성 로동자들과 신입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수행하는 작업에 빨리 익숙하게 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게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로력 배치 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는 작업반과 교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특히 교대 조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전에는 직장들에서 교대를 작업반 간에 진행하였다.

이러한 교대 조직은 기대 관리에 빈틈이 생기게 하고 책임성을 약화시키게 함으로써 적지 않은 작업 휴지 손실을 가져 왔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장에서는 작업반 내부에 1, 2 교대를 조직하고 기계 설비들을 작업반들이 완전히 단독적으로 책임 지게 하였다.

작업반 교대 조직의 이러한 개편은 일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던 본위주의적인 경향을 제거하고 기계 설비에 대한 로동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이 외에도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하고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증산 경쟁 운동을 광범히 조직하는 등 일련의 조직 정치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함으로써 로동 행정 사업을 전 공장적인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 행정 사업의 개선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중요한 예비의 하나였다.

* *

우리 공장이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에서 달성한 성과는 아직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 공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 그람의 철재, 단 몇 분의 시간이라도 더 절약하는 등 공장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키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품의 질을 한층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지금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1966년까지에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1963년의 2 배로 높일 결의 밑에 줄기찬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는 만경대 건설 기계 공장 당 위원회 위원장 임)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반동적 문예 정책

한 두 일

남조선 위정자들과 반동 문예인들은 문학 예술의 《순수성》, 《창작의 절대적 자유》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이것은 미제와 괴뢰 도당의 사상적 대변자로서의 남조선 문학 예술의 반동성을 엄폐하기 위한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온갖 문학과 예술은 이런 혹은 저런 계급, 당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한다.

《사회에서 살면서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부르죠아 작가, 화가, 배우들의 자유란 돈'주머니와 매수와 급료에 대한 가장된 예속에 불과한 것이다》(레닌《문학에 관하여》, 6 페지).

비애와 절망, 색정과 퇴폐주의, 전쟁과 살인 등을 선전하는 남조선 문학 예술은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괴뢰 반동 통치 제도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남조선 문학 예술의 반동성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 도당이 실시하고 있는 문예 정책의 내용에서 표현되고 있다.

* *

남조선에서 미제가 실시하고 있는 문예 정책의 주요한 사상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반공》 및 전쟁 선동, 색정주의, 허무주의 등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문학 예술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진영과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악의에 찬 허위 선전을 진행하며 극도의 퇴페와 타락, 무기력을 고취하기 위한 책동을 발악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러한 책동은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 광범히 류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본래 실존주의는 20 세기 자본주의 세계의 심각한 위기와 절망을 반영하고 있는 반동 철학 사상이다.

이 철학은 일명 《불안의 철학》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그의 제창자들은 즐겨 《고민》, 《불안》, 《절망》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력설하면서 세계에는 《나》 이외에 아무 것도 없으며 과거와 미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실존주의 철학의 이러한 주장은 개인 리기주의, 허무주의에 대한 설교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류례 없는 온갖 악덕과 패륜을 합리화하고 살인과 갈

은 범죄 행위를 례찬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문예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자기들의 충실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반동적 문예 정책의 기초를 실존주의에 두고 있다.

그들은 실존주의 외에도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끌어 들여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절대화하는 색정주의 문학 예술을 조장하고 있다.

이 모든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들은 남조선에서 자연주의 문학 예술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 력대 위정자들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온갖 반동적 자연주의 문학 예술을 조장하여 왔다.

최근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괴뢰 도당의 문예 정책은 그 수법에 있어서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데 특징이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반공》, 《숭미》 사상을 악랄하게 고취하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민족 문학 예술 발전에 관심하는듯이 가장하고 있다.

박 정희가 금년 《년두 교서》에서 《민족 문화 예술의 창달》에 대하여 운운한 것은 자기들의 반동 문예 정책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들이 남조선에서 반동적 문예 정책의 본질을 이처럼 달콤한 말로써 감싸고 있는 것은 결코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본래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주요한 의의를 부여한다.

그들은 민족 문화의 말살 책동을 통하여 식민지 인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자기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반동 문예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더욱더 날뛰고 있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각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의 영향력과 19 년 간에 걸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정책은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을 비상히 제고시켰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이 처한 비참한 생활 처지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서는 미제를 몰아 내고 그 주구들을 타도하며 나라의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미 군정을 겪고, 4.19를 치르고 과도 정권을 거쳐 민주당 통치를 받았고 다시 5.16을 통해 군사 통치도 받아 보았으나 민중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태산격으로 암담하기만 하다.》고 개탄하면서 《살'길은 민족 통일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특히 남조선 인민들의 각성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반동 문예 정책이 로골화됨에 따라 더욱 높아졌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민족 문화를

과괴 말살하는 박 정희 도당을 규탄하면서 통일된 조선의 민주주의 민족 문화 건설을 위하여 남북의 문화 교류를 위한 접촉과 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국의 통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청년 학생들의 6.3 봉기는 이것을 잘 실증하여 주었다.

남조선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로 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과를 은폐하며 날로 장성 강화되는 평화 통일 력량을 억누르고 인민들의 주목을 딴 데로 돌리려는 흉책으로서 반동 문예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적 문예 정책은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반공》《숭미》 사상을 고취하며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식민지 파쑈 통치의 사상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에서 식민지적 반동 문예 정책을 가장 악랄하게 실시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 문예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되고 있는 것은 우선 진보적 문예인들과 문예 단체의 활동을 야만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반동 문예인들을 비호 육성한 것이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군정을 실시하고 영어를 관용어로 사용할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문학 예술을 포함한 일체 언론, 출판 활동을 극력 탄압하기 위하여 《군정 명령 제 8 호》(1945년 10월)를 발표하였다.

미제는 이 《군정 명령》으로써 1948년 초까지만 하여도 600여 명에 달하는 문화인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으며 1949년까지 서울에서 61 개의 신문, 잡지 출판사를 강제 페쇄하였다.

특히 전후 미제와 괴뢰 도당은 진보적인 언론, 출판, 문학 예술 활동에 대한 탄압을 가일층 강화하였다. 1955년 8월 《문화인 등록령》을 공포 실시하고 그 후 이를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자유 예술인 련합회》를 비롯한 문예 단체 10여 개를 강제로 해산시킨 사실, 1958년 한 해에만도 《국민 여론》을 비롯한 75 종의 정기 간행물을 페간시킨 사실 등은 그 실례로 된다.

더우기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문학 예술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실현에 리용하기 위하여 진보적인 작가들을 《용공》이란 딱지를 붙여 검거, 투옥, 학살하는 등 전례 없는 가혹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박 정희 도당은 파쑈 악법인 《언론 륜리 위원회법》을 남조하여 남조선 출판 보도 기관들과 진보적인 문예인들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이와 같이 진보적인 문예인, 문예 단체들을 탄압하는 동시에 반동 문예인들을 비호 육성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 일제 시기 《순수 예술》의 미명 하에 일제의 조선 침략과 태평양 전쟁을 직접 간접으로 합리화하면서 민족 반역의 길로 전락했던 반동 문인들과 부르죠아 문학 예술을 찬미하는 온갖 인간 쓰레기들을 규합하여 자기들의 반동 문예 정책 집행에 내몰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반동 문예인들에게 항상 자기들의 문예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분골 쇄신》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리 승만의 직접 비호를 받고 있던 김 모가 괴뢰 도당의 지시 대로 문학 작품에서 《국책적 및 사회적》인 것을 제1차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남조선 작가, 예술가들의 규탄을 받듯이 문학 예술인들을 강권으로 동원하려는 박 정희의 시도도 진보적인 작가 예술인들의 조소와 비난을 받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은 문예 분야에서의 각종 《시상제》, 《저작권법》 등을 조작하여 반동 문예인들을 비호 육성하고 있다. 례컨대 《자유 문학상》은 1953년에 조작되여 매년 1회씩 시상되고 있는데 황 모의 《카인의 후예》, 김 모의 《밀다원 시대》 등 공화국 북반부와 사회주의 진영을 비방 중상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을 퇴폐와 타락의 길로 이끌려는 작품들을 《우수한 작품》으로 선발하고 있다.

《자유 문학상》의 반동성은 그것이 미제의 아세아 침략을 담당하고 《순미》 사상 선전의 선두에 서 있는 《아세아 재단》에 의하여 조작되였으며 거기서 재정적 방조를 받고 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가히 알 수 있다.

오늘 군사 정권도 《신인 예술상》 각종 《문예 현상 모집》 등을 통하여 《반공》을 내용으로 하는 문예 작품을 다량적으로 창작시키고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반동 작품을 극력 장려함으로써 반동 문예인들을 양성하고 진보적 경향성을 띤 작품들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흉책에 불과하다.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 문예 정책의 또 하나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조선 인민의 빛나는 문화 유산에 대한 파괴 략탈 책동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 문화 유산이 인민들의 애국주의 사상과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 제고에서 노는 역할과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을 자기들의 충실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반동 문예 정책 실현의 중요한 초점을 민족 문화 유산을 말살하는 데 두었다.

그들은 남조선의 모든 문화 유물을 닥치는 대로 악랄하게 파괴 말살하였다.

미제는 서울 대학교 소장본인 리조 실록을 비롯한 8,000여 점의 국보적 도서들과 《중앙 박물관》, 《덕수궁》에 소장되여 있던 미술 공예품 등 7,800여 점의 문화재를 강도적으로 략탈하

였다. 그들은 괴뢰 도당으로 하여금 《문화재 해외 전시안》을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키게 하고 200여 점에 달하는 고귀한 고전 미술 공예품을 략탈하는가 하면 문화재가 보관된 곳에 군용 도로를 닦음으로써 귀중한 문화재들을 파괴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귀중한 문화재를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도시 계획》이니 《주택 기지》니 하면서 이미 5, 200 메터의 서울 《성곽》을 허물었으며 수 많은 석탑, 성문 등을 파괴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서울 《경복궁》을 비롯한 적지 않은 문화 유물들을 유흥장으로 전변시키는 참을 수 없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또한 남조선 괴뢰 정권은 수 많은 문화재를 외국에 팔아 넘기는 민족 반역 행위를 감행하였다.

박 정희는 《외화 획득》이라는 명목 하에 《리조 백자》 55 점, 리조 말기에 만든 85 점의 목재 《장》 및 《함》을 비롯하여 수 많은 귀중한 문화재를 팔아 먹었다. 이에 대하여 《동아 일보》까지도 남조선 문화재는 《이미 외국에 많이 판매되여 앞으로 한국 연구를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해야 할 판》이라고 개탄하였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 도당이 민족 문화의 말살을 위해 이러저러한 형태로 감행한 범죄 행위는 실로 허다하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양키 문화를 부식시키려는 흉악한 책동에 불과하다.

현시기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 문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은 또한 미 일 제국주의의 부패한 문화를 남조선에 끌어 들여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것이다.

박 정희 도당은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를 운운하면서 《오늘날의 안일하고 퇴폐적인 우리 문화 현상을 비판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 재건의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야 하겠다.》느니 《사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전통과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 문화의 선양에 힘써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 문화의 창조》를 호소하면서 말과는 달리 미제의 각종 침략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식》을 류포하는 연극, 영화, 노래, 소설을 비롯한 각종 문예 작품들을 끌어 들여 남조선에 범람케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군국주의 문화까지 끌어 들여 남조선 문화를 더럽히고 있다.

부패한 제국주의 문화의 침투는 남조선 현실을 외곡하며 저속한 재즈나 샹송의 구린내 나는 소음으로 민족 음악을 희롱하거나 로이드 안경에 개화장을 든 리 도령, 요부로 화한 춘향으로 우수한 민족 고전 《춘향전》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서야 어찌 《건전한 문예 작품의 창작》이 가능하며 《민족 문화의 창조》가 가능하겠는가.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가 《대중 음

악 가운데 재즈 음악이 아니면 서양이나 일본 것을 모방한 것이 압도적이》며 《라지오나 또는 청소년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들은 거의 미국의 재즈, 불란서의 샹송, 그렇지 않으면 류행가 따위로서 국민이 즐겨 부를 만한 가요가 없》으며 《한국은 문화적 식민지인 인상을 씻을 수 없다.》라고 개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 도당이 실시하고 있는 문예 정책의 반동적 본성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 *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 문예 정책은 남조선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 문학 예술을 좀먹은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반공》을 주제로 하는 악질적인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서 모의 소설 《항변》, 성 모의 소설 《잃어 버린 사람들》, 박 모의 시 《우리는 불, 적을 심판하는》 등은 모두다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와 그의 정당한 정책을 비방 모독하는 극반동적인 작품들이다.

그것은 《사유 문학》(1963년 2 호)에 실린 구 모의 희곡 《수치》(전 3 막 3 장)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 희곡의 밑바닥에는 시종일관 인간 학대와 증오, 죽음에 대한 강요, 저속한 색정의 무서운 가시가 흐르고 있다.

이 희곡은 현재 다시 드라마화되여 여러 선전 수단을 통하여 계속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의 자연주의 문학에서 《반공》, 전쟁 선동 문학과 함께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색정주의 문학이다. 리 모의 《인간보》, 류 모의 《패륜아》, 렴 모의 《동서》 등은 그 중 극히 대표적인 것들이다.《인간보》에서는 쥬리애라는 《양공주》의 육체를 시종일관 로출시키고 있으며 《패륜아》는 그 제목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아들의 애인은 아버지가 희롱하고, 어머니(계모)는 아들이 희롱하는 패륜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들은 《예술은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수단》(프로이드)이며 인간은 《성'적 집계》로서 동물에 불과한바 이 세계에는 인간 륜리, 사회 질서, 문명과 진보도 없으며 오직 추악한 동물적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렬설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 작품들은 오늘 남조선의 독자들에게 무기력과 부패 타락을 선전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킨다.

남조선 문학 예술에는 또한 허무주의적 내용이 범람하고 있다. 김 모의 소설 《발광 직전》에서는 조선 사람은 미군이 버린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는 너저분하고 구질구질한 존재라고 모독

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을 거세하고 자살 행위를 례찬하고 있다.

손 모의 《피해자》는 자유 로동자 박순이란 인물을 통하여 온갖 감언 리설로 월급을 수개월씩 주지 않은 회사 사장을 도리여 자기를 해고시키지 않는다 하여 감사히 여기면서 월급을 못 받아 온 것을 안해에게 용서를 비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로동 계급에게 무기력성을 강요함으로써 미제와 괴뢰 도배의 략탈과 억압을 반대하는 그들의 혁명적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 문학 예술에는 형식주의가 또한 창궐하고 있다. 사상적 내용을 거부하고 《순수 미》, 《순수 형식》을 추구하는 이 형식주의 미학은 오늘 남조선의 문학,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 널리 류포되고 있다. 특히 남조선의 시 문학에서 이 형식주의는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조선 문학 예술의 이러한 내용은 미제의 침략과 략탈 정책 실현에 직접 간접으로 방조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 문예 정책은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정신 도덕 생활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이 유린되고 《미국식 생활 양식》에서 오는 패륜과 패덕, 테로와 깽, 도박 등의 온갖 범죄 행위가 범람하고 있다. 매일 증가되는 이러한 범죄 행위들은 미국 문화의 전파와 직접 관련되고 있다.

현재 남조선 영화관들에서는 《천상 붙은 사나이》, 《죽도록 사랑하련다》, 《정조》, 《애정 행로》, 《복수의 결투》 등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바 이것들은 다 살인 강도 행위와 부화한 련애 관계를 례찬한 것들이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학생 리 모는 자기 아버지를 권총으로 쏘아 살해한 동기에 대하여 그것은 《미국 영화를 본 것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대로 해 본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미제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의 부르죠아적 부패 타락상을 그 대로 반영한 것이다.

미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죄악적 후과는 남조선 대다수 문예인들의 생활 처지의 악화와 문화 기관들의 경영난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다.

남조선에서 소위 신극을 표방하여 이름 있다고 하는 극단까지도 재정난으로 년간을 통하여 겨우 2~3 회 공연하는데 불과하며 남조선 출판물에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극 자체는 마치도 수천 발의 총탄에 맞은 물체처럼 구멍이 숭숭 뚫어진 것》들로 관중의 조소와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남조선의 대다수 문학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조건과 자유가 보장되여 있지 않으며 그들의 생활과 삶은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다.

남조선 예술인들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한가는 그들의 대다수가 오락, 흥행 장소에서 직업을 구하고 있으며 그 밖

에 다수는 실업 상태로 거리에서 방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아리랑》의 주인공으로 이름 있던 녀배우 신 모가 본 직업을 잃고 구멍가게를 차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괴뢰 도당이 파견하여 파리 《공연 행각》을 떠났던 《민족 극단》이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려비까지 대여 주지 못하여 파리에서 인질로 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남조선 예술인들 속에서는 실업자만이 아니라 생활난과 고민으로 자살자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인 박 요는 수필 《하루살이》에서 《살고 싶다는 의욕보다 죽고 싶다는 의욕이 더하다》라고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

남조선에 빚어진 이러한 후과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반동 문예 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다.

미제의 반동 문예 정책이 남조선 인민들과 특히는 청소년들을 부르죠아 독소와 양풍으로 병들게 만들고 그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는 후과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누구인들 격분하지 않겠는가.

오늘 광범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미제의 반동 문예 정책과 그것이 남조선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면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반대 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늘 우리 앞에는 파국에 처한 남조선 문학 예술을 적들의 파괴로부터 구출해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남조선의 《과학자, 문화 예술인들은 반동적 미국 문화의 침습을 반대하고 생활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적 민족 문화의 건설에 용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적 문예 정책과 그 후과를 청산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함으로써만 우리 인민의 민족 문화와 미풍 량속은 활짝 꽃필 것이며 인민들의 혁명 의식은 더욱 거세게 불타 오를 것이다.

문답학습

당과 인전대

우리 당은 최근 년간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며 인전대들의 역할과 그의 기능을 제고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성과적으로 집행하려면 당과 인전대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는 로동 계급이 자기의 독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구로서 그것은 향도력과 인전대로 구성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서 향도력이란 곧 당을 의미한다.

당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 형태로서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서 모든 대중 조직들을 지도하여 그 조직들의 활동을 로동 계급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유일한 목적에로 인도한다.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서의 향도력은 조선 로동당이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그 투쟁의 선두에서 대중을 령도하고 이끌고 나아간다.

로동 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강력한 인전대를 가져야 한다.

레닌은 로동 계급의 당이 인전대를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진 계급의 전위대로부터 그 계급의 대중에게로 가며 그로부터 근로자 대중에게로 가는 약간의 〈인전대〉가 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실시할 수 없다》(레닌 전집 제 32 권, 4 페지).

사실 상 당이 자기의 믿음직한 방조자인 인전대를 가지지 않는다면 마치 뼈만 있고 살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고 말 것이며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지 못 하게 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서의 인전대란 당의 외곽 단체들인 국가 기관, 근로 단체들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정권 기관, 경제 문화 기관들과 직업 동맹,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녀성 동맹, 농업 근로자 동맹 등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조직 집행하는 인전대들이다.

인민 정권 기관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이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이다. 인민 정권 기관은 당의 령도 밑에 자기에게 부과된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과 적대 분

자들에 대한 진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 동맹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대중적인 정치 단체로서 당과 로동 계급과의 련계를 보장하는 당의 인전대이다.

정권이 반동들의 수중에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와는 달리 로동자, 농민이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정권 기관과 직업 동맹이 그의 목적과 리해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한다.

현시기 우리 나라 직업 동맹은 로동계급 대렬을 공산주의적 붉은 대오로 계속 튼튼히 꾸리며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확고히 무장시켜 당과 국가가 제기한 생산 과제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또한 그는 근로자들의 로동 조건을 개선하고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 단체로서 당과 청년 대중을 련결시키는 당의 인전대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청년들을 당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 그들을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지, 덕, 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한다. 동시에 청년들을 당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계급적 원쑤들을 미워하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한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도록 청년들을 준비시킨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나라 협동 농민들과 국영 농목장 및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관, 기업소,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한 혁명적 대중 단체로서 우리 당과 농업 부문의 근로 대중을 련결시키는 당의 인전대이다.

당은 인전대들의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독재 체계를 유지하고 자체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한다.

인전대들은 반드시 당의 통일적 령도 밑에 당이 제시한 유일한 방향에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인전대들에 대한 령도적 역할은 오직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 로동당에 의해서 수행된다.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정치적 수령이며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이 우리 혁명을 령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정치를 지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정치적 수령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최고의 조직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다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452 페지).

그러면 왜 우리 당이 모든 인전대들을 령도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조선 로동당은 혁명

적이며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되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모든 문제 해결에서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능숙히 조직 동원한다.

우리 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가능한 것이다.

둘째로, 우리 당은 근로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정치적 조직으로서 대중의 높은 신임과 풍부한 투쟁 경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자기 정책의 정당성으로 하여 모든 근로 대중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모든 인전대들의 활동에서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인전대는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다.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들은 각이한 분야에서 활동하므로 전체 근로 대중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할 수 없다. 전체 근로 대중이 유일한 로선과 정책, 동일한 방향에서 활동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전대는 당의 령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접수하고 그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전대들이 통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 수행에서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다.

당과 인전대의 호상 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우리 당을 위시한 모든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혁명 투쟁 경험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명백히 확증되였다.

우리 당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 걸쳐서 당과 인전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확고히 의거하였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당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전대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인전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해방 후 초기 당은 인민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권 기관들과 직업 동맹, 민주 청년 동맹, 녀성 동맹, 농민 동맹 등 대중 단체들을 조직하였다.

당시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한 사실은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해방 직후 조직되였던 공청 조직은 보다 광범한 청년 군중을 망라시킬 수 없었다.

우리 당이 공청이라는 국한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청년 대중들을 공산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데 난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였다.

이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공청을 해산하고 청년들의 광범한 통일적 조직으로서의 민청을 조직할 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였다.

당의 이러한 로선은 당시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순응하는 가장 정확한 로선이였으며 특히 각계 각층의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인민 대중을 광범히 묶어 세우기 위한 당의 정치 로선의 근본 방향을 반영한 방침이였다.

그러나 반당 종파 분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즉시 이행을 표방하면서 공청을 해산하고 민청을 조직하는 것이 마치도 후퇴인듯이 주장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반당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교활한 책동을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당의 이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당은 그 후에도 매 시기마다 인전대들의 조직을 부단히 정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에 성과적으로 조직 동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단계에 들어 서면서 당은 인전대들에 대한 령도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가 변화하였으며 그들의 사상 의식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청년 동맹 앞에는 새로운 보다 높은 임무가 제기되였다.

새로운 임무는 그에 적응하게 민청을 더욱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며 그의 역할을 일층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민청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여 혁명 과업 수행에서 청년 동맹의 역할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울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에서는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데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한 현명한 조치로서 인전대를 강화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해방 직후 조직되였던 농민 동맹은 토지 개혁을 비롯한 농촌 문제 해결 및 개인 농민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업적을 달성함으로써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오늘 농민 동맹은 우리 나라 현실에 잘 부합되지 않게 되였다.

당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상응하게 농민 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협동 농민을 비롯한 농업 부문의 광범한 근로자들을 망라하는 강력한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조직체인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내오게 하였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 즉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며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농촌에서 핵심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나라 농촌에 남아 있는 비조직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움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더 잘 관철하여 혁명 발전을 전반적으로 더욱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은 이와 같이 인전대들을 조직하고 그를 개편 발전시키는 사업과 함께 그의 각급 위원회들을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하였다.

특히 로동 계급 출신 간부들과 애국 렬사 유가족, 제대 군인 등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일'군들을 각급 인전대에 보내여 그 질적 구성을 부단히 제고하였으며 그들을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되고 정치 리론 수준이 높은 일'군들로 체계적으로 교양 육성하였다.

동시에 인전대의 각급 위원회들에서 집체적 협의제를 강화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모든 혁명 과업을 제때에 관철하도록 지도하였다.

당은 인전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과 함께 인전대들에 정확한 사업 방향과 그 수행 방도를 제시하고 집행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즉 인전대들의 책임 일'군들로부터 혁명 과업 수행 정형에 대한 보고를 정상적으로 청취하고 우수한 경험을 종합하고 일반화함과 함께 결함과 부족점을 시정하여 주면서 막힌 고리를 제때에 풀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 통제하여 그 기능을 높이였다.

인전대들에 대한 이러한 당의 령도는 그 어떤 강제나 명령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인전대 내에서 사업하는 당원들은 자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모범으로 대중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대중을 설복 해설하는 방법으로 교양하였다.

당은 인전대들에 정확한 사업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켜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지도하였다.

인전대들에서 사업하는 당원들이 자기의 본신 임무를 튼튼히 틀어 쥐고 직접 아래를 도와 주는 사업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군중 속에 들어 가 그들의 수준에 맞게 사업을 창발적으로 조직 집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당은 인전대에 대한 령도적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인전대들이 전체 군중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 조직 동원할 수 있도록 그의 역할을 제고시켰다.

현시기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전대들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전면적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인전대들은 자기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업 체계를 확립하며 시도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여 부단히 사업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의 인전대들은 지난날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을 붉은 일색으로 꾸리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통 같이 단결시킴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7 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완수하는 투쟁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박 면

근 로 자 제 20 호 (루계 258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 년 10월 17일　　발 행 • 1964년 10월 20일

ㄱ-430617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1호 11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21 호 (259)
1964년 11월 (상)

차 례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직업 동맹의 역할

김 왈 룡

오늘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 강화하는 것은 직업 동맹 단체들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영웅적 로동 계급이 창조한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로서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 온 군중적 혁신 운동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묶어 세우며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애국적 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가 훌륭히 구현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에 철저히 의거하고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혁명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려는 당과 대중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에 확고히 기초하고 있다.

인민 대중에 대한 깊은 신뢰와 혁명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은 항상 우리 혁명 위업의 성과와 승리의 기본 열'쇠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남김 없이 동원하는 데서 찾았으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온갖 난관을 타개하면서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얻어진 대중 속에서의 우리 당의 확고한 위신과 신망, 당의 강철 같은 통일과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체계의 확립, 정책과 로선 수립에서의 당의 과학적 예견성과 그 집행에서의 원칙성, 혁명적 전개력은 근로 대중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당의 의지와 사상을 자기들의 것으로 접수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로 동요 없이 전진하게 하였다.

그리 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은 유감 없이 발휘되게 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축적된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에 기초하여 위대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발생 발전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청산리 교시와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가 있은 이후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당 사업을 사람과의 창조적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와 모든 초소를 포괄하는 전 인민적 운동으로 확대되였으며 그것은 천리마 직장, 천리마 공장 운동으로 발전되였다.

금년 9월 말 현재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는 공업 부문에서만 하여도 105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그 중 25만여 명을 망라한 1만 1, 618 개의 작업반이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받고 159 개의 작업반이 2중 천리마의 영예를 지니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은 더욱 훌륭히 발휘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선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높은 혁명적 열의와 집체적 창발성을 발휘하고 자기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면서 기술 혁신 운동을 부단히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을 증대시키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있다.

공업 부문의 1, 059 개의 천리마 작업반을 료해한 데 의하면 여기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도 천리마 칭호를 받기 전 1 년 간에 비하여 근 4 배에 달하는 창의 고안, 발명, 합리화안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였으며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다른 작업반들에 비하여 평균 40% 이상을 더 높이였다.

또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근로자들을 경제 관리에 자각적으로 인입시키는 대중적 경제 운영의 방법으로 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으로 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당 정책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성원들을 당의 사상 의지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당 정책을 끝까지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고 작업반을 하나의 사상 의지로 단합된 붉은 집단으로 꾸려 나가고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려는 념원에서 출발하여 뒤떨어진 집단과 사람을 도와 전반적 앙양을 일으키는 것을 고상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작년도 한 해 동안에만도 2,000여 개의 천리마 작업반이 3,800여 개의 작업반을 도와 주어 선진적 수준에로 끌어 올렸으며 그 중 543 개의 작업반이 영예로운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어제'날의 락후 분자가 선진 분자로 교양 개조되고 있으며 뜨거운 동지애로써 동지들을 교양하고 도와 줌으로써 자기의 집단을 붉은 집단으로 꾸리는 참된 공산주의 교양자들의 대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의 하나인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력사적 과업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

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되여 가고 있다.

실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앙양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공고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웅대한 7 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는 결정적 시기에 들어 섰다.

오늘 우리 인민 앞에는 7 개년 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겨야 할 전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더우기 최근 우리 당은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투쟁하여야 할 중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개 도에서 수행하여야 할 공업, 농업 부문 등의 10 대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앞에 제시된 이 방대한 과업은 전체 근로자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켜 그들의 열의를 고도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거대한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한다.

바로 이러한 사정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천리마 작업반 운동 자체 발전의 요구이기도 하다.

오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층 심화 발전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생활 원칙이 구현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뿐만 아니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작업반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들의 사상 의식과 혁명적 열의가 앙양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 운동 초기의 지도 체계와 지도 방법으로써는 결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개선 강화함으로써만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항구적 운동으로 옳게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직업 동맹 단체들의 지도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수공업적으로 진행하거나 행정 실무적 처리로서 대치시킬 것이 아니라 구체적 면에까지 파고 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함으로써 이 운동이 인민 경제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관리의 훌륭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학교로서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직업 동맹의 지도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그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중요한 본신 임무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하에서의 직업 동맹의 임무는 로동 계급을 단합하여 자본가 계급의 정권을 전복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그러나 로동 계급이 주권을 장악한 사회주의 하에서의 직업 동맹은 정권 기관과 리해 관계가 일치하는 만큼 당과 국가가 준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로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학교로 된다.

정권의 주인으로 된 로동 계급의 진정한 리익은 오직 인민 정권을 공고 발전시키고 나라의 경제와 문화 건설을 촉진시킴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 우리 나라에서 경제 기관 일'군들과 직맹 일'군들은 다 같이 공화국을 부강하게 하며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2 권, 39 5 페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바로 직업 동맹의 이러한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때에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도, 생산 보장도, 절약 사업도, 로동 보호와 후방 생활에 대한 문제도 모두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9 차 전원 회의에서는 직업 동맹 단체들이 사회주의 경쟁의 가장 높은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자기 활동의 중심 고리로 튼튼히 틀어 쥐고 이것을 확대 발전시키며 이 운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력량을 집중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 운동의 질적 수준을 한 계단 높이는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는 것도,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결국은 기술 혁신을 어떻게 더 잘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경제 형편은 전후 복구 건설이 진행되던 시기와는 전혀 다르며 또 5 개년 계획을 수행하던 시기와도 다르

다. 과거에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발동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예비를 얻어 낼 수 있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비약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과 기술적 진보없이 대중의 열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부단한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이 집단적인 기술 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기술 혁명 수행에서 영예로운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맹 단체들이 천리마 기수들에게 기술 혁신이 가지는 의의와 당의 방침, 그 수행 방도를 명확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창의 고안 및 발명, 합리화 운동에 정력적으로 달라붙어 집단적 지혜와 창발성을 고도로 발휘함으로써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기술 장비를 부단히 강화하고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 혁신은 창조적이며 심오한 탐구를 요하는 사업이므로 자력 갱생의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직맹 단체들은 모든 운동 참가자들이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새 기술 도입을 위한 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극복하고 일단 시작한 기술 혁신은 끝장을 내도록 투쟁함으로써 필요한 기계와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있게 생산 보장하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반 간 련합 혁신 운동》은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는 효과적인 형태의 하나이다.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 천리마 기수들은 이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면서 작업반 간의 협조와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3 배에 달하는 각종 기술 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였으며 기술 경제적 지표들을 모두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직맹 단체들은 이러한 경험을 본받아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작업반 간 련합 혁신 운동을 더욱 광범히 조직 전개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시키고 생산에서 부단한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보다 높은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서 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로동자들이 강의한 의지와 함께 선진적인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며 그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급속히 높일 것을 요구한다.

직맹 단체들은 모든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이 기업소 내의 성인 교육과 기술 기능 학습 체계에 모범적으로 참가하며 개별 기능 담당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고 기계 설비에 정통하며 그들 속에서 다기능공, 고급 기능공 대열을 부단히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기수들은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

직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들에서 로력 조직을 잘 하고 로동 규률을 강화하여 로력을 극력 아껴 쓰며 기계 설비를 애호 관리하고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 속에서 온갖 랑비 현상을 배격하고 오작 불합격품을 근절하며 외화를 극력 절약하고 원단위 소비 기준을 계통적으로 낮추며 적은 자재로 더 많은 기계들과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 경제를 더욱 높은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며 원가를 낮추고 가까운 년간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으로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중요한 의의의 하나는 그것이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방법이며 대중을 기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인입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데 있다.

직맹 단체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계획 작성과 생산 조직 사업에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참가하도록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발전된 기술과 복잡한 생산 과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업 관리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특히 천리마 작업반 운동 과정에서 창조되였고 발전된 직일 작업반장제, 내부 채산제, 자체 정량제 등 새로운 대중적 기업 관리 운영 방법을 모든 작업반에 보급 일반화함으로써 전체 천리마 기수들로 하여금 재능 있는 관리 일'군으로 능숙한 조직자로 부단히 육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통하여 전체 군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며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건히 묶어 세우는 것이다.

전체 군중을 교양 개조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 정세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본질적 요구로 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생산에서의 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데서 종전의 사회주의 경쟁과 중요하게 구별된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 제 1 차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모든 사업을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를 개조하며 생산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사람들의 사상 의식이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기초한 것이다.

만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단순한 증산 경쟁 운동으로 취급하면서 생산 일면에만 치중하고 집단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생산에서의 혁신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미 달성한 성과도 계속 공고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직맹 단체들은 응당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의 중심을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데 두어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이 운동 참가자들의 일시적인 흥분과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확고한 공산주의적 신념과 세계관에 기초하여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 운동을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운동으로 옳게 끌고 나갈 수 있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도 사상 동원 사업을 선행함이 없이는 이 운동 참가자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성과적으로 발양시킬 수 없다.

직맹 단체들은 근로자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계속 반복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운동에서 창조적 지혜와 창발성을 더욱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키고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려는 견결한 혁명 투사로 교양 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 전통 교양을 우리 나라 혁명 운동사와 결부시켜 폭 넓고 깊이 있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천리마 기수들이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우리 당의 력사적 뿌리, 과학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관철할 뿐만 아니라 군중 속에서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 선전하는 능숙한 정치 선동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 지리, 문화 유산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와 인민, 자기 계급과 자기 당을 사랑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 속에서 남반부 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이 달성될 때까지 견결하게 투쟁하도록 계속 혁명의 사상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교양하며 혁명적 락관주의를 주입함으로써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온갖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화하여 안일과 부화,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를 근절하고 집단주의 정신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하며 모두가 높은 인간성과 문화성을 소유하고 건강한 체력을 가진 우리 시대의 새 인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 교양에서 가장 위력한 방법은 긍정적 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승리한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 기수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긍정적 모범들

이 도처에서 속출되고 있다.

직맹 단체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희귀한 사건에만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착실하고 꾸준하게 일하며 더 많이 생산하고 절약하는 긍정적 모범들을 널리 보급 일반화하여야 한다.

직맹 단체들은 대중 속에서 널리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모범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지지하여 주며 특히 근로자들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긍정적인 싹들을 보급 일반화하는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반들에서는 뒤떨어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짜고 들어 교양하며 천리마 기수들이 창조한 인간 교양의 다양한 방법과 경험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모든 작업반들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직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직맹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성심 성의로 일하도록 정치 사상적으로 더욱 단련 육성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하나의 단합된 붉은 가정으로 묶어 세우며 한 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모두가 서로 돕고 밀며 이끌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한 계단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운동에 대한 지도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대중의 혁명적 기세가 높으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 오늘 그의 지도 수준을 높임이 없이는 이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없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직맹 단체들의 지도 수준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이미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받은 작업반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들은 하나의 사상 의지로 단합되여 로동과 생활에서 공산주의적 기풍을 발양함으로써 대중의 모범이 되고 있는 붉은 집단이다.

오늘 1만 1,600여 개의 천리마 작업반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이 운동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 하에 이 운동을 확대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직맹 단체들은 모든 천리마 작업반들이 달성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리마 작업반 내의 핵심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직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장, 직맹 분초급 단체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들을 작업반의 전반적 사업을 잘 조직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고착시키며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한 계단 높이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나라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촉진되여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작업반 핵심들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천리마 작업반을 옳게 끌고 나갈 수 없다.

직맹 단체들은 책임 간부들이 작업반 핵심들을 개별 담당하여 교양하는 체계를 세움으로써 당 정책 교양과 기술 실무 교양을 항상 생활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강습과 경험 교환회를 수시로 조직하며 특히 천리마 기수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우수한 경험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경제 관리 지식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 리론과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핵심들을 군중 공작 방법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인간 개조 사업을 촉진시키며 천리마 작업반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 기본 고리의 하나이다.

직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 내 핵심들에게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군중 사업 방법을 깊이 체득시키는 동시에 천리마 기수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천리마 기수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선구자로, 참된 공산주의 교양자로 되게 하며 그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모범이 되고 한 사람이 열 사람, 백 사람을 교양 개조하며 모든 작업반을 하나의 붉은 공산주의적 집단으로 꾸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천리마 작업반 성원들을 고착시킴으로써 모든 천리마 작업반원들이 자기 대렬을 공고히 하고 계속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천리마 작업반의 질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며 그의 영향 하에 모든 작업반들을 천리마 작업반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더욱 많은 군중이 참가할 때에 전진 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동력으로서의 자기의 힘을 더욱 훌륭히 발휘할 수 있다.

더우기 혁명을 완수하며 전체 근로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 없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강력한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이 운동의 본성 자체가 대중화를 요구한다.

직맹 단체들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더욱 많은 근로자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하도록 하며 특히 주도적 부문과 기본 생산 부문들에서 이 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본질과 그의 정치 경제적 의의,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해석 침투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운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적으로 타산된 정확한 전망적 결의를 가지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천리마 작업반 칭호 수여를 위한 요구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천리마 작업반 칭호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으로 되는 영예롭고도 고상한 칭호이다.

직맹 단체들은 일시적인 생산 성과나 어떤 개별적인 업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집단이 하나의 사상으로 단합되며 로동과 생활에서 공산주의적 기풍을 높이 발양하는 동시에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원가를 계통적으로 낮추고 사고를 내지 않으며 모든 성원들이 기술 기능 및 문화 수준을 급속히 제고함으로써 대중의 모범이 된 그러한 집단과 성원에게 천리마 칭호가 수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천리마 작업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더욱 강화하며 천리마 기수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그들의 영예와 긍지를 북돋아 줌으로써 이 운동을 계속 성과 있게 끌고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직맹 단체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청산리 방법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 지도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형식주의를 극복하며 이 운동을 계속 공고 발전시키는 기본 고리로 된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천리마 기수들 속에 깊이 들어 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 침투하며 그들의 건의 실행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주는 등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한 개 단위에 내려 가 전형을 창조하고 그를 전반에 보급 일반화하는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 사상적으로 훌륭히 준비되여 있을 때만이 청산리 방법을 더 잘 관철할 수 있으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직맹 일'군들은 당의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 그리고 필요한 경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 동맹의 전투력의 원천은 당의 령도에 있으며 각급 직맹 단체들은 당의 일상적인 지도 통제를 충실히 받음으로써만 자기 앞에 부과된 본신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 진행 정형을 당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며 당이 준 방향과 결론에 근거하여 이 운동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이 운동의 생활력을 계속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한 계단 높임으로써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적 풍모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김 진 택

우리는 아름다운 인간들로 부자가 되였다. 이것은 로동당 시대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측면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감격적인 공산주의적 미행의 주인공들이 도처에서 속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 개조의 위대한 흐름 속에서 사회의 전체 성원들의 정신적 풍모는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다. 수년 전에 비하여 사람들의 일하는 솜씨, 사람들의 사는 본새도 많이 달라졌다.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사업 총화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오늘 우리 당은 근로 대중을 낡은 사상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어려운 사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고 지적하였다.

이 결론의 정당성은 그 때로부터 3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실생활에 의하여 더욱 확증되였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은 오늘 더욱 심화되였으며 더욱 폭넓어졌다.

이러한 형편에서 새 인간들의 정신적 풍모를 리론적으로 개괄하는 문제가 절실한 과업으로 나선다. 이것은 인간 개조의 위대한 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건설 위업 전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절실한 요구로 된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철학 리론 전선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될 것이다.

철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분야에서도(물론 여기에서는 형상화를 통한 개괄이 문제로 된다)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새 인간들의 풍모를 신문 기사로써 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새 인간들의 풍모에서 발현되는 공통적이며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절대로 요구된다.

우리 시대 발전의 본질적 요구를 표현하는 특징들을 옳게 인식한 경우에라야만이 새 인간들의 풍모를 정당하게 그리고 더욱 생동하게 그릴 수 있다.

새 인간의 풍모를 일반화하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말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데 비하여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새 인간들의 공산주의적 미거를 취급하는 글들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나 그들의 풍모를 리론적으로 개괄하고 일반화한 론설은 거의 없는 형편에 있다.

물론 이 사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두 사람의 재간으로 해 치울 수 있는 사업도 아니며 하루 이틀에 자리를 낼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사회 과학 부문의 많은 학자들과 작가, 예술인, 기자, 편집원들이 이 사업에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접촉과 연구를 거듭해야 하고 자료를 수집, 정리해야 하고 천리마 기수들과 더 많이 상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옳은 방법론이 필요하다. 과학적 방법론이 없이는 개괄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이 있을 수 없다.

새 인간의 정신적 풍모를 일반화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정신 도덕적 기질의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규정 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옳은 방법론에 립각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첫째로 제기되는 것은 우리 나라 도처에서 나타나는 수 많은 혁신자들, 천리마 기수들의 행동에서 표현되는 개별적 현상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거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특징들을 추상해 내는 귀납법에 의거하는 것이다.

각이한 분야에서 출현하는 개별적 혁신자들의 행동과 사고 방식,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 하여 이 개별적 인간들의 행동이 어떤 특징들로 호상 련결되여 있으며 그들의 사고와 품성에서 무엇이 본질적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자면 실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

어느 한 천리마 기수의 특징을 가지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 인간들의 공산주의적 풍모의 특징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전형적인 풍모를 이러저러하게 체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완성된 공산주의자는 아닌 것이며 따라서 고귀한 품성과 더불어 부족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들의 우점과 부족점은 매 사람의 개성적 특질과 결부되면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가령 충실한 사람이다, 동정심이 강한 사람이다, 혹은 의지가 굳은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어느 한 측면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각이한 성격적 특질로 이루어지는 많은 혁신자들을 계통적으로 조사 연구하여야 한다. 그래야 천리마 기수들 전반의 본질적 특징들로 되는 풍모를 구명해 낼 수 있다.

사람들의 본질적인 특징이 또한 생활

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사실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물론 매 사람의 생활도 다양하지만 그러나 매 사람은 역시 혁명 사업의 일정한 초소에서 반복성을 띠는 일정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양한 성격을 띠는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는 수다한 새 인간들의 생활을 연구하여야 한다.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로동 계급의 풍모만이 영웅적인 수는 없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그 어디에서 일하거나 마찬가지로 기적의 창조자들로 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돌아 가는 기대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은 만선기 날리는 배'전에서, 그리고 트락또르 달리는 협동의 포전에서 각이한 사업, 각이한 공정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름다운 공산주의적 인간 풍모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사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사업들의 특성이 특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 빛을 뿌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사업이란 어느 특정한 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에 어렵고 복잡한 임무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각이한 부문의 수다한 천리마 기수들과 상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평범한 인간, 그러나 일에 달라붙어서는 비상한 열의와 창발성, 용감성을 나타내는 각이한 특질의 인간들을 찾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함으로써만 우리는 례컨대 동지애, 당에 대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지, 로동에 대한 성실성… 등을 소유한 새 인간의 특징을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증할 수 있다. 동시에 같은 동지애라도 바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지애의 특성과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사회주의 하에서 일반적으로 론의될 수 있는 도덕적 범주와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하는 것을 생동하게 표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총체적인 성격과 풍모를 규정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렇게 많은 개별적인 자료를 연구 분석하는 것은 새 인간의 정신적 풍모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작업이 없으면 천리마 기수들의 본질적 특징을 포착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피상적이며 추상적인 론의에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방법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일정한 제한성이 있게 된다. 사람들의 공통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특징들을 추상해 내는 귀납법은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의 이러저러한 측면들을 불가피하게 일반적인 도덕적 범주에서만 보여 주게 된다. 이것은 아직 천리마 기수들의 풍모를 보여 주는 특징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결정적이며 규정적인 역할을 노는가, 매개 특징들은 사람들의 풍모의 어느 측면을 규정해 주는가를 보여 주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물,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풍모도 그것을 발생 발전의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천리마 기수들의 풍모를 규정하는 제 특징들이 력사적으로 어떻게 발생 발전하였으며 현 발전 단계는 어떠하며 또 그 장래성은 어떠한가를 보아야만 매

개 특징들의 역할과 의의를 인식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 둘째로 제기되는 것은 력사적 고찰의 방법이다.

력사적 고찰은 인간의 정신적 풍모의 형성 발전에 작용한 제 요인들을 밝히며 이 요인들의 호상 작용과 그 발생 발전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정신적 풍모가 형성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사회적 제 관계의 총체이다. 매 사람의 정신적 풍모에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가 나서 자란 사회적 관계의 총체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거기에는 당대의 사회 제도와 민족-국가적, 당'적, 계급적 제 관계와 그것들이 력사적으로 발전해 내려 온 제 과정이 포괄된다. 여기에는 사람들에게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풍습과 민족적 기질이 포함되며 생활 환경(사회적 변혁을 포함하여)이 작용하며 당의 적극적인 교양 조치가 작용한다.

이 제 요소들은 호상 밀접히 결합되여 서로 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 인간의 총체적인 풍모가 형성되며 민족적 특성이 형성된다.

력사적 고찰은 이 제 과정에 대한 발생학적 견지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전제로 한다. 인간의 정신 도덕적 기질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런 연구에 의거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례컨대 민족적 특성과 같은 것을 해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의 형성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 력사적, 민족적, 당'적인 제 요인들을 정확히 고찰하여야 한다.

우선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의 특징들의 발생을 우리 혁명의 발전 과정, 우리 사회 제도의 발전 과정과 옳게 결부시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적 풍모의 형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곧 우리 혁명 발전의 산물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된 천리마 운동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천리마 운동의 담당자로서, 그의 기수로서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민족적 특성에 옳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천리마 기수들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의 가장 우수한 전통의 계승자들이며 그 빛나는 구현자들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 량속이 천리마 기수들의 공산주의적인 특질 속에서 꽃피며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사람들의 성장을 연구할 때 특히 당의 교양적 활동에 대한 옳바른 고찰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새 인간의 형성은 물론 제도의 산물이지만 그러나 그 자연 발생적 산물은 아니다. 당의 목적 의식적인 교양적 활동을 떠나서 공산주의적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교양은 혁명 전통 교양과 결합시키며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생산 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하는 당의 방침을 떠나서는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의 형성 발전을 리해할 수 없다.

례를 들어 우리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는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 경험과 생활 기풍이 생동하게 그려진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생활의 교과

서로 되고 있다. 오늘 천리마 기수들은 항일 빨찌산들처럼 살며, 배우며, 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그들의 풍모를 형성함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놀았다. 우리 혁신자들의 정신적 풍모에서 빨찌산들의 그러한 고귀한 풍모를 찾아 보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천리마 기수들의 품성과 작풍에는 또한 위대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구현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누구보다도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힘 썼다.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는 모든 사업을 청산리 방법으로, 사람과의 산 창조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품성이 형성되였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우리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의 형성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인이다.

이와 같이 혁명 전통 교양, 청산리 방법이 사람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놀았는가를 해명함이 없이는 천리마 기수들의 풍모에 대하여 깊이 인식할 수 없다.

이리 하여 우리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볼 때 거기에 어떤 사회 력사적 제 요인이 작용하는가를 구명함으로써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발생학적 견지에서 력사적 고찰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새 인간의 품성을 시대의 요구의 견지에서 해명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시대의 요구의 견지에 서서 사람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고찰하는 것은 천리마 기수들의 품성을 일반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방법론적 문제로 된다.

시대의 요구는 인간의 정신적 풍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맑스주의는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가르친다. 영웅, 선진적 인간이란 바로 시대 발전의 본질을 반영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영웅들은 곧 우리 시대가 낳은 사람들이며 천리마 기수들은 바로 로동당 시대의 산아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질의 주되는 특징과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요구의 견지에서 그것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개인적 기질은 그것이 어떤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새 인간의 긍정적 특징으로는 될 수 없다. 그것은 낡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극복되고 말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들에게서 발현되는 어떠한 기질이 시대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것이 현재에는 미미하고 고착되지 못 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새 인간의 긍정적 특징으로서 점차 고착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 서서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을 옳게 규정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시대가 요구하는 성격형을 발견할 수 있다.

시대의 요구란 시대 발전의 본질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며 대중을 흥분시키고 대중의 최대의 관심사로 되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대중에 의해서 느껴

지며 그들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제기된다.

이러한 요구는 구체적으로는 당 정책에 반영되여 있다. 당은 시대와 력사 발전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자기 활동을 통하여 매 시기의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 과업과 목표를 규정한다.

당은 이러한 과업과 목표 속에 대중의 념원과 지향을 정확히 구현하면서 그 실행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 대중을 부른다. 우리 시대의 모든 변화 발전은 곧 우리 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의 요구란 곧 당의 정책적 요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의 요구를 잘 알기 위해서는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이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변경시킨다. 사람들에게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질이 형성된다. 말하자면 당 정책적 요구 즉 시대의 요구는 그에 적응한 성격을 낳게 한다.

모든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 성격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영웅은 곧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원만하게 반영한 사람들이지 어떤 특종의 기질을 가지고 태여 난 사람들이 아니며 영웅 일반도 아니다.

리 신자를 놓고 생각해 보자.

그는 우리 사회에 흔히 있는 농촌 녀성이다. 그는 특별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지고 있은 것도 아니며 남 다르게 유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면 뒤떨어진 사람들을 이끌어서 당이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부강한 사회주의 농촌을 이룩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과 정열을 바쳤다. 그가 휴식마저 잊으면서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 주고 깨우쳐 주기에 얼마나 가슴을 태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비록 소박한 농촌 처녀였지만 그의 소행은 청산리 교시가 있은 이후 농촌 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전형으로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로 되였다.

이러한 성격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당 정책적 요구를 깊이 아는 데 기초하고 있다. 당 정책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으며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 전체 근로자들의 관심사로 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새 인간을 리해할 수 없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천리마 기수들의 성격적 풍모를 정확히 개괄하기 위한 방법론 상의 측면들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적 풍모에서 발현되고 있는 주되는 특징들과 민족적 특성, 그 사회 계급적 본질을 정확히 해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인 것이다.

이 방법들은 호상 밀접하게 련관되여 있다. 그 중 어느 하나도 홀시될 수 없다. 이 세 가지 방법들에 정확히 의거해서 문제를 고찰할 때만이 일면성과 주관주의를 면할 수 있으며 도식화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시대적 요구의 견지에서 시 인간 성격을 고찰하며 또한 형상화한다면 그것은 도식화에 떨어지는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시대적 요구의 견지에 설 때만이 도식화에서 벗어 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시대적 요구의 견지에 선다는 것은 현실에 더욱 깊이 침투하고 현실 생활의 호흡과 맥박을 더 잘 느끼며 그 속에서 형성된 인간 성격을 생동하게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지에 설 때만이 현실적이며 전형적인 인간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현실의 요구 속에서 자라 나는 새로운 인간형을 열렬히 긍정하고 낡은 요소들을 신랄히 풍자해야 하는 당'적 립장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당의 령도를 받으며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의 성격을 특징화하는 것이 도식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다.

도식화는 결코 시대와 당 정책의 립장에서 문제를 고찰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대로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 하고 생활과 떨어진 그 어떤 곳에서 인간의 이러저러한 성격을 고안해 내는 데서 생긴다. 시대의 요구를 모르고 생활을 왜곡되게 묘사하는 경우에 도식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는 바로 현실과 인간의 성격을 더 깊이 있게 반영하며 일반화하기 위하여 당의 정책을 더욱 심각히 연구해야 하며 시대의 요구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당의 정책적 요구를 모르고, 시대의 요구를 파악함이 없이는 오늘 뿐만 아니라 래일을 내다 볼 수 없으며 그런 현실에서 산생되고 발전하는 인간 특징을 심오히 연구할 수 없다.

생활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영웅들을 정당하게 특징 지을 수 없으며 그들에 대한 성격 가정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으로 되게 할 수 없다. 실례로 시대의 요구의 립장에 서지 않고서는 리신자, 길 확실, 리 명석 영웅들과 같은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 속에서 오늘의 영웅적 현실을 창조한 빛나는 시대적 성격, 시대의 진청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것을 높은 긍지와 열정을 가지고 묘사, 일반화할 수 없다.

물론 사회주의 사회의 제 관계를 일반화하여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하에서는 인간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전을 추상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규정하는 이러저러한 특징들을 발생, 발전시키는 모든 요인들의 작용과 역할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들 속에서 모범의 힘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현실적인 의의를 가질 수 없는 하나의 도식에로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은 결국 사람들의 행동을 고무 추동할 수 없다. 오직 생활에 튼튼히 의거할 때만이, 시대적 요구를 가장 철저히 반영할 때만이 우리에게 가깝고 평범하고 우리의 행동을 고무 추동할 수 있는 시대적 성격을 일반화할 수 있다.

이상에서 새 인간들의 도덕적 풍모를 일반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를 서술하였다.

말하자면 이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였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지 그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길이 아무리 멀고 거기에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걸어 간다면 목적지에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적 풍모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 지체함이 없이 달라붙어야 하며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여 나가야 한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의 계속 혁신을 위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리 세 식

오늘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중요한 일환인 기본 건설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 건설에서의 새로운 혁신이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웅대한 7 개년 계획을 완수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기본 건설에서의 새로운 혁신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전반적 진행 과정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서 제기된 긴절한 문제이다.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 경제 발전 특히는 7 개년 계획 후반기 경제 발전의 요구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웅대한 7 개년 계획의 전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는 결정적 시기에 들어 섰다.

7 개년 계획의 전반기에 우리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강화하고 농업을 새로운 토대 우에 올려 세웠다.

금번 당이 제시한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은 이미 얻은 이와 같은 성과에 기초하여, 화학 비료, 강철 생산과 전기, 채굴 공업 등을 비롯한 기간적 부문의 생산 능력을 1966년까지 7 개년 계획 말 수준에 끌어 올림으로써 7 개년 계획을 기한 내에 완수하기 위한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7 개년 계획의 후반기에 제기된 10 대 과업은 선행 단계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의 핵심 부문들을 새 기술의 지반 우에 올려 세움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시켜야 할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요구에 기초하여 설정된 과업이다.

10 대 과업이 지닌 이러한 임무는 후반기 기본 건설의 특수한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였다.

후반기 기본 건설은 우선 기술적으로 새롭고 복잡하다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징이다.

7 개년 계획의 후반기에 진행될 기본 건설은 10 대 과업이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이 산업 건설이다. 후반기에 진행될 이 산업

건설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공정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본 건설 앞에 기술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실지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 생산 및 구단광에 의한 제철 등의 건설 과정은 이것을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다.

후반기 기본 건설의 특징은 또한 건설에서 신설과 확장의 비중이 전반기에 비하여 높아진 데 있다.

7 개년 계획의 전반기에서는 3 개년 계획 및 5 개년 계획을 통하여 조성된 중공업 기지의 정비 보강이 건설에서 주되는 것이였는데 후반기에는 중공업 기지의 확장과 신설이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후반기 기본 건설에서는 또한 총체적인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한 개 대상의 규모에서도 전반기에 비하여 증대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또한 후반기 기본 건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업과 인민 생활의 요구에 상응하게 건설을 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서 자체의 자재, 자체의 기술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과 후반기 기본 건설의 이러한 특징은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과 일대 비약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야 할 필요성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조국이 분렬된 조건에서,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대치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러한 정세는 경제 건설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건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시기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로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우리 당은 건설 분야에서 전변을 일으킬 것을 제기하면서 다만 그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하고 있다.

지난 기간 우리는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기본 건설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와 경험을 얻었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1957년 10월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건설을 공업화함으로써 세계를 경탄시킨 《평양 속도》, 《비날론 속도》를 창조하였으며 기본 건설 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켰다.

사회주의 건설이 촉진됨에 따라 기본 건설에 대한 요구가 질량적으로 계속 증대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당은 1961년 3월 전원 회의에서 철재와 목재를 비롯한 자재와 자금, 로력을 절약하여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1963년 1월에는 전국의 기본 건설 관리 지도 체계를 개편하고 건설을 정규화,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여 기본 건설의 중요 부문들인 설계, 건재 생산, 건설 시공, 등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 지도 체계가

수립되였으며 건설의 모든 부문들이 계약에 의하여 호상 제약하면서 활동하는 사업 체계가 확립되였다. 이것은 기본 건설의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건설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담보를 주었으며, 건설 기술의 발전을 힘 있게 촉진시키고 건설물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 당의 정확한 기본 건설 정책, 그에 의하여 이룩된 거대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은 오늘 우리가 당의 의도 대로 기본 건설 사업 전반을 혁신하며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7개년 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10대 과업의 성과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업, 농업 부문의 건설 전반에 고려를 돌리면서 기간적 중공업 부문 특히 화학 비료, 강철 생산과 전기, 채굴 부문에 투자와 물질 기술적 력량을 집중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지난 시기 기본 건설 부문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요구에 대한 심중한 타산에서 출발한 당의 이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에서 새로운 비약과 거대한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로 된다.

기본 건설 부문 전체 일'군들이 당의 방침에 확고히 서서 10대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면 무엇보다도 건설의 계획화, 건설 기술의 발전, 건설물의 질, 기업 관리의 개선 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선차적 과업으로 제기되는 것은 계획화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기본 건설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각 경제 부문들의 합리적인 균형과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빈 터에서 민족 경제의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매년 방대한 기본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현시기 계획화 사업의 개선 문제가 강조되는 리유는 이와 함께 공업, 농업 부문의 10대 과업과,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건설 과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7개년 계획 후반기의 기본 건설은 그 내용에서 새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자체의 자재, 자체의 기술로 건설되는 만큼 주객관적 조건, 투자의 선후차, 각 부문들의 속도와 균형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계획화 사업이 진행될 것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건설 분야에 새 관리 지도 체계가 확립된 사정과 관련하여 절실한 문제로 되고 있다.

물론 최근 시기 기본 건설 분야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그러나 계획화 사업은 아직 급속히 발전하는 기본 건설의 요구에 충분히 수응하지 못 하고 있다.

현시기 기본 건설의 계획화를 개선하는 사업에서 중심 내용으로 되는 것은 우리 당의 계획화 방침에 립각하여 기본 건설의 계획 작성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계획의 과학성과 구체성을 보장하며 건설의 집중화를 실현하여 조업 개시를 촉진하는 것이다.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으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실증된 원칙, 건설을 널어 놓지 말고 중심 고리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집중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 우리가 자신의 힘에 의하여 복잡한 현대적 경제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조건에서 당의 이 건설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일 우리가 이 원칙에서 리탈하여 계획화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경제 건설 전반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서는 당이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에서 제시한 방향에 립각하여 화학 비료, 강철 생산과 전기, 채굴 부문 등을 비롯한 기간적 생산 건설에 투자와 물질 기술적 력량을 집중하며, 그 부문 내에서도 대상을 널어 놓지 말고 력량을 집중하여 한 대상씩 해결하며 생산 능력의 조업 개시를 촉진시켜야 한다. 한 대상 내에서도 시공 조직에서 선후차를 잘 가리며 선차적 공정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계획하며 특히 산업 건설 부문에서 한 개 생산 계통씩 집중적으로 시공해 나가는 방침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에서의 경험은 매우 교훈적이였다. 이 곳 건설자들은 전반적 조업에 선행하여 한 부문의 조업 개시를 보장함으로써 막대한 전력을 더 생산하였다.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설의 주객관적 조건, 투자의 선후차 등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 작성의 과학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확한 타산, 이는 계획 작성의 필수적인 전제이다.

기본 건설 계획화에서는 건설 대상에 대한 기술 경제적 타산, 시공의 물질 기술적 력량과 그 능력에 대한 타산, 제반 물질적 보장 조건에 대한 타산, 건설 전망에 대한 타산 등을 잘 하여야 한다.

계획 작성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계획화의 초석인 건설 대상에 대한 기술 경제적 타산을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선 건설주 기관들에서는 중간 시험을 거쳐 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기술 과제를 작성할 것이며 설계 기관들에서는 그에 기초하여 반드시 계획 작성에 앞서 설계를 보장하고 이 설계에 확고히 립각하여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계획화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만일 건설주 기관들이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정확한 과학 기술적 담보도 없으며 경제적 타산도 확실치 않은 대상을 계획에 예견하고 건설해 줄 것만 기다린다면 이것은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계획 작성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각 도 건설 위원회를 비롯한 건설 분야의 모든 단위들에서 로력, 기계, 설비 등의 건설 력량과 자재, 대상 설비 등의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작전 및 전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전 계획 작성 단계에서의 이와 같은

타산은 시공, 설계, 건재 생산, 대상 설비 생산 등 각이한 부문들의 계획화가 기본 건설 계획이라는 하나의 종합적인 목적에 복종되도록 하며 건설 계획화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설계, 시공, 건재 및 대상 설비 생산 부문 등 여러 부문 간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기관 본위주의적 요소를 근절하고 자체의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립장에서 기본 건설 계획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특히 보장 부문에서 기일에 대한 타산을 정확히 하며 시공에 설계와 설비 자재들을 결정적으로 선행시켜 건설의 정상화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도 건설 위원회를 비롯한 건설 기업소들에서의 전투 계획 작성도 건설 력량 및 보장 조건을 세밀히 타산하며 부서 간, 공정 간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하는 기초 우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즉 예비안 토의로부터 계획 작성의 전 과정에 시공, 기술, 공무 동력, 로동 행정, 자재, 후방 등 모든 부서들을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며 그리 함으로써 각 부문의 전투 계획이 기업소의 건설 계획과 정확히 맞물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례하면 일정한 계획 기간에 진행될 건설 대상의 성격과 그 작업량에 따라 로동 행정에서는 로력과 직종 별 기능 발란스를 따지며 기술 부서에서는 설계 도면, 표준 조작법의 작성과 공구 지구 등 기술 준비 대책을 따지며 공무 동력에서는 필요한 기계 설비들과 동력 설비들의 능력, 기술 상태 및 소요되는 보수품의 량과 그 해결 방도를 따지며 또 자재부에서는 품종 별, 규격 별로 건재의 보장 방도를 타격야 한다.

이와 같이 계획화를 위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타산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전투 계획을 작성하며 그에 따라 매개 부문 별로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설 계획 작성에서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건설의 전망에 대한 타산을 예견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건설 생산의 특성은 착공에 앞서 설계와 대상 설비들의 물질 기술적 준비 단계가 1 년 또는 2~3 년의 긴 기간을 요한다는 데 있다. 이런 사정은 계획 단계에서 전망 계획을 고착시키고 그에 립각하여 설계와 중요 대상 설비의 제작을 계통적으로 선행시키는 엄격한 제도를 세울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전망을 구체적으로 타산함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우연성 즉 돌발적인 사태에 대처할 예비를 조성함으로써 계획화에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기계화 부문에서 예비 부문을 조직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며 높은 기동성을 갖도록 잘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서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계획화 사업에서 생산을 아는 사람이 광범한 군중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세운 계획을 반드시 군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 데 대한 당의 계획화 원칙을 계속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군중 토의를 준비 있게 또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하여 계획을 군중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게 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서슴없이 제기하게 하며 계획 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도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기본 건설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기본 건설의 부문 간, 공정 간의 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계획 규률을 강화하는 문제가 건설의 정상화에서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특히 공업, 농업 부문의 방대한 10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오늘 그것은 매우 긴절한 문제로 되였다.

과학적으로 타산된 정확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건설에서 계획 규률을 보장하며 사업의 정상화를 달성하게 하는 중요 담보이다.

그러나 이에 면밀한 조직 사업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계획 규률은 준수될 수 없다.

그러므로 건설의 보장 부문들에서는 설계, 건재 및 설비들을 제정된 시일에 반드시 공급할 것이며 시공에서는 수립된 작업 공정 계획을 어김 없이 집행함으로써 건설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로 그리고 지표 별로 반드시 수행하는 엄격한 계획 규률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기본 건설 사업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건설의 공업화 방침을 견지하면서 계속 이 분야에서 전면적인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기간 우리는 당의 방침을 받들고 기술 혁신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3년에 조립식 건설의 비중은 산업 건설에서 25.5%, 주택 건설에서는 70.5%에 달하였으며 중요 건설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수직 운반 작업에서 91%, 콩크리트 혼합 작업에서는 87.2%로 제고되였다. 건재 생산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건재의 질이 제고되였으며 설계 사업에서도 큰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낡은 수공업적 건설 방법을 퇴치하고 건설 전반에 걸쳐 새로운 조립식 건설 방법과 새 기계 기술을 도입 적용한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진척에 따라 증대되는 기본 건설에 대한 질량적 수요를 종래 형태의 공업화만으로써는 원만히 해결할 수 없게 되였다.

지금 우리는 더 선진적이며 경제적인 새 구조, 새 건재, 새 건설 방법을 건설에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혁신 운동을 이 분야에서 강력히 전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시기 건설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촉진된 결과 건설의 기술 장비가 비상히 강화되고 기술자, 기능자 대렬이 크게 장성된 조건에서 건설 부문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였다.

만일 지난 시기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현 상태에서 더는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시기 기본 건설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의 기본 방향은 새로운 구조 도식과 건설 방법을 도입하여 자금, 자재,

로력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질좋게 건설할 데 대한 1961년 3월 전원 회의 결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당의 이 기본 방향에 립각하여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에 저애를 조성하고 있는 보수주의와 교조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미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여 새 기술에 대한 과학 연구 사업을 홀시하거나 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며 또한 종래의 비경제적인 낡은 방법을 고집한다면 건설에서 더 빠른 전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 풍토, 생활 풍습, 경제 발전 정도가 다른 남의 나라의 기준을 그 대로 도입 적용하거나 우리 나라 자연 부원에 기초한 창발적인 연구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건설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 운동의 광범한 전개는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건설 기술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에서의 보수주의, 교조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설계 및 건설 과학 연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설계 및 과학 연구 일'군들의 복잡한 계산과 인내성을 요구하는 수다한 반복 실험과 시험을 통하여서만 건설에서 어떤 구조, 어떤 건재, 어떤 건설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설계 및 건설 과학 연구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자들의 대렬 특히 각 부문 별, 전공 별 연구 핵심들을 꾸리며 과학 연구를 위한 물질 기술적 조건을 잘 지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과학자, 기술자들 자신이 건설 과학 연구 사업을 결정적으로 발전시키며 그의 질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내외의 기술 발전 정형에 항상 정통하며 그들 호상간에 과학 기술 교류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공 현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을 연구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여 그들과의 협동 연구를 강화하며 또한 건설에 자재와 설비를 제공하는 련관 공업 부문들과의 협동 연구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지금 건설 기술 발전을 위하여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는 예비 응력 철근 콩크리트나 박막 구조, 새로운 강철 구조 등의 연구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우량한 강재와 세멘트를 비롯한 각종 건설용 재료의 연구 및 생산을 완성해야 한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건설 현장에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다.

우선 광범한 건설자 대중 속에서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적 창의 고안 운동에서 중심은 건설 작업을 기계화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건설 기업소들에서는 기계 공장에서 생산하여 제공하는 현대적 기계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창의

고안 운동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많은 중소형 기계들을 자체로 제작 리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그 성능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기본 건설 부문에는 실로 수만 대에 달하는 막대한 량의 각종 건설 기계 설비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 리용률을 개선하는 문제는 새 기계의 도입에 못지 않는 큰 의의를 가진다.

3

기본 건설 사업의 새로운 혁신에서 건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건설물의 질은 그 수명을 연장시키며 리용 가치를 높인다. 만일 건설물의 질을 2 배로 높인다면 그것은 그만한 량의 건설을 더한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 수준이 비상히 높아졌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 조건에서 이것은 매우 긴절한 문제로 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건설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지어져 있다. 건설물에 대한 수요가 일정한 정도 충족되였고 건설 기술 장비가 높아졌으며 또한 건설물의 질 제고에서 경험이 축적되였다. 이제는 우리들이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집행하는가에 그것이 크게 의존하게 되였다.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를 만들고 건재를 생산하며 건설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사상 의식과 기술 실무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건설 부문의 창조물은 한 번 쓰고 마는 소비품과는 달리 말 그대로 백년대계이다. 그런 만큼 비록 한 개의 부재, 한 개의 철근을 만들더라도 정성을 들여 잘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며 로동자들 속에서 기술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건설물의 질 제고를 위하여서는 기술 조직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건설 및 건재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실험실을 꾸리고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일체 원자재들과 부재들을 실험하며 그 력학적, 화학적 성질이 설계 상의 요구에 적응한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후에야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점차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공에서도 매 작업의 방법과 기능 수준이 설계 상의 기술적 요구를 만족시키는가를 실지 작업에 앞서서 과학적으로 시험하는 사업을 조직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설물의 질 제고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건설 작업의 공정들에 대한 정확한 표준 조작법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준 조작법을 이미 얻은 경험과 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잘 만드는 것인데 중요 공정들의 기술 조작법은 전문 연구 기관들과 시공 기관들이 협동하여 작성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로동자들이 반드시 작업 지시와 함께 설계 도면과 표준 조작법을 받은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감독 통제 사업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문 감독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자 대중을 이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대중이 규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작업의 질에 대하여 호상 관심하고 통제하며 서로 방조할 때 건설의 질은 더욱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건설 부문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서는 새로운 건설 관리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새 체계가 확립된 이후 기본 건설의 관리 운영 수준은 급속히 제고되였다. 즉 기본 건설 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가 강화되고 당의 방침에 따라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되였다.

이제 문제는 기본 건설에 대한 통일적 관리 지도 체계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성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며 기업 관리 운영 수준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전국의 기본 건설 사업에 대한 작전 지휘부로서의 국가 건설 위원회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문제이다. 국가 건설 위원회의 협의제 기능을 더욱 높이고 전국적인 기본 건설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계, 건재 생산, 시공 부문 간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새로운 건설 기술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며 건설 기준 및 지도서들을 작성 공포하는 사업들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 건설 부문의 중앙급 기관들에서 새 관리 체계에 상응하게 사업 방법을 개선하고 아래 단위를 구체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특히 지도국들은 깜빠니야와 문서 놀음에 매여 달릴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건설 기관들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업무 행정에 대한 지도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 하여 건설 계획의 수행을 직접 내각 앞에 책임 지는 기업 단위인 각 도 건설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며 그가 자기의 기본 건설 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새 체계의 요구에 상응하게 건설주 기관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전문 건설 관리 지도 체계가 확립되여 있다 하더라도 건설 대상의 기술 공정을 연구하고 기술 과제를 작성하며 건설을 주문하는 건설주 기관들의 높은 책임성과 적극적 방조가 없이는 기본 건설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는 복잡한 산업 건설을 원만히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대상의 건설들에서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그러므로 건설주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건설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기술 과제를 만들고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 합의들은 제때에 진행하며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감독 통제하는 강력한 사업 체계를 세움으로써 기본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새 관리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발휘시킴에 있어서 건설 부문의 모든 기업 관리 단위들이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사업에서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일 지방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 우만 쳐다 보고 조건을 지어 주기만 기다린다면 새 체계의 우월성은 원만히 발휘될 수 없다.

기업 관리에서 지방 건설 기관 및 기업소들이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은 또한 그것들이 공업과는 달리 각이한 조건에서 각이한 대상을 건설하는 것 만큼 수시로 새로운 정황에 부닥치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례하면 지방 건재 리용에서 돌이 많은 데서는 돌로, 석비레가 있는 데서는 석비레로, 나무를 손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서는 나무로, 공업 페설물을 리용할 수 있는 데서는 공업 페설물을 가공하여 건재로 리용한다면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줄 수 있다.

지방의 지대적 및 기후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에 적응하게 시공 조직 및 수송 조직을 적극 개선하며 지방 인민 경제 타 부문의 기술적 잠재력을 료해하고 건설 기술 발전을 위하여 그 도움을 받는 것 역시 극히 필요하다.

새 체계의 우월성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업 관리 운영 수준을 더욱더 제고하여야 한다.

모든 건설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시키며 이미 그 우월성이 증시되고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현물 평가제를 전반적으로 도입 공고화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본 건설 사업에 대한 관리 지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지도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높여야 한다. 모든 지도 일'군들이 학풍을 세우고 당 정책과 경제 및 기술 지식을 연구 체득하며 해당 부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도 리론을 소유하고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물론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부문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전면적 기술 혁신을 일으키며 건설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관리 지도 수준을 제고한다면 기본 건설의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날 것이다.

기본 건설 사업에서의 새로운 비약은 10 대 과업의 수행과 나아가서는 7 개년 계획의 완수를 확고하게 담보할 것이다.

현시기 미국 독점 자본의 부패의 심화와 그 특징

김 화 천

현시기 전 세계 인민들 앞에는 단결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숭고한 혁명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제국주의의 경제적 및 정치적 상태와 그 특징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리론, 실천적으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의 력사적 지위를 규정하는 특징의 하나는 그의 부패성과 기생성이 심화된다는 데에 있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란 곧 기생적 또는 부패하여 가는 자본주의이며 따라서 사멸하여 가는 자본주의인 것이다. 제국주의 시기에는 사회 경제적 전진 운동을 자극하던 요인들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저하되며 반면에 그 전진을 막는 새로운 장애들이 조성된다. 그리 하여 기술적 진보와 생산력의 발전이 지체되며 전면적인 정치적 반동이 대두하게 되고 문화와 사회 생활 령역에서 패덕과 타락이 지배하게 된다.

오늘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가일층 심각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에 고유한 이러한 부패의 경향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쇠퇴와 멸망을 촉진하는 내적 과정으로 되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국에 대하여 말할 때 부패의 경향은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로골적이고도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억만 장자들과 그 사환군들이 《영원한 번영》과 《나라의 부강》을 그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는 미국은 실제 상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에서 주로 경제적 령역에서 미 제국주의가 어떻게 더욱더 썩어 가고 있으며 그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게 된다. 이것은 경제에서의 독점 자본의 지배가 바로 미 제국주의의 실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만큼 심화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부패 경향의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미 제국주의의 대내외 정책의 본질을 옳게 리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

오늘 미국 독점 자본의 부패의 경향은 가일층 심각화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 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그 영향은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 령역에서의 독점 자본의 부패 경향의 심화는 무엇보다

도 만성적인 침체와 결합된 생산의 극히 완만한 장성에서, 물질적 생산 부문의 축감과 군수 생산 부문들의 일면적인 확대에서 그리고 사회 생산물의 기생적 소비와 랑비의 미증유의 증대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수년 동안 미국 독점 자본은 지난 전쟁 시기 혹심한 파괴를 입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한 독점적인 상품 공급자로서 자기의 경제적 지위를 현저히 제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조선 전쟁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그의 경제적 지위는 명백히 하강선을 긋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불안 상태에 휩쓸려 들어 가게 되였다.

경기 순환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생산 장성의 저조 상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빈번히 폭발하는 공황은 경기 순환의 주기를 단축시켜 생산의 침체가 만성적인, 지어 거의 상시적인 현상으로 되게 하고 있다. 례컨대 전후 년간에 1948~1949년, 1953 ~ 1954년, 1958 ~ 1959년, 1960~1961년 공황들이 련속 폭발되였으며 한 공황으로부터 다음 공황에 이르기까지의 간격은 계속적으로 감소되였다. 공황 후 생산 장성의 최고 수준도 감소되고 있는데 1948 ~ 1949년 공황 후에는 그것이 34%였다면 1953~1954년 공황 후에는 10%, 1957 ~ 1958년 공황 후에는 불과 8%였다(1948~1949년 공황과 1953~1954년 공황 사이에 비교적 그 주기가 길고 생산 장성의 최고 수준도 높은 것은 조선 전쟁과 관련되여 있었다). 공황의 빈번한 폭발은 많은 생산 부문들에서 공황 전 생산 수준을 미처 회복하기도 전에 새로운 공황에 휩쓸려 들어 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경기 순환에서의 이러한 극심한 난폭은 생산 장성 속도를 저하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후 년간 미국에서의 공업 생산의 년 평균 장성률

1946 ~1950년…………6.4%

1950 ~1955년…………5.3%

1955 ~1960년…………2.3%

보는 바와 같이 공업 생산의 장성 속도는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일련의 기간적인 공업 부문들—야금, 석탄, 자동차 및 기타 공업 부문들—그리고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이 절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목전의 생산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사태가 생산 설비의 현저한 부분을 녹 쓸게 하고 있으며 로동 능력을 가진 수 많은 근로자들을 만성적인 실업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 유지 수단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관변 통계에 의하더라도 현재 공업에서 생산 설비의 가동률은 전체적으로 80% 정도이며 일련의 생산 부문들에서의 설비 가동률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처해 있다. 1962년에 전재 공업 부문에서는 그 생산 능력의 74%, 흑색 금속 공업에서는 불과 60%가 리용되였을 뿐이다. 이리 하여 미국의 년간 총생산액은 생산 능력에 비하여 무려 300 ~ 400억 딸라나 더 적은 수준에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방대한 설비들과 생산 능력이 유휴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감소는 독점 자본이 제품의 생산을 향

적으로 장성시키는 것보다 도리여 제품의 생산비를 저하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생산 능력의 《과잉》을 증대케 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생산 설비들의 방대한 《과잉》 상태는 새로운 설비들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축감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정상적인 운동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 설비들의 이러한 《과잉》, 기업의 만성적인 조업 부족은 취업에서의 난관을 증대시키고 실업자 대렬을 격증시키는 등 극히 심각한 사회 경제적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 매년 수십만의 로동자들이 현직으로부터 구축 당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압도적인 대다수에게는 거의 아무런 일'자리도 차례지지 못 하고 있다. 실업자 대렬이 얼마나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최근 수년간 이를테면 1957 ~1964년 기간의 그 동태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완전 실업자 대렬은 이 7~8 년 기간에 년 평균 293만 명으로부터 470만 명으로 즉 1.6 배 이상으로 증대되였다. 여기에 반실업자들을 합한다면 실업자 대렬은 천 수백만으로부터 지어 2천만에까지 달하고 있다. 케네디나 존손도 인정한 바와 같이 실업 문제는 미국에서 최대의 난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전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결국 이 나라에서는 방대한 인원들이 사회적 유용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되고 있으며 많은 로력 자원이 생산 발전에 전혀 리용되지 못 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은 생산의 제 요소들과 가능성들을 리용함에 있어 사실 상 무능력한 존재로 되고 있는 것이다.

현시기 미국 독점 자본의 부패는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물질적 생산 부문이 상대적으로 축감되고 그 대신 비생산 부문이 확대되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생산의 침체와 제품 실현에서의 난관의 증대는 불가피적으로 더욱더 많은 자본과 로동력이 상업 및 봉사 기관들 그리고 관료, 군사, 경찰 기구의 확충에 돌려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러한 비생산적 분야들은 계속 팽창되고 있다. 결과 비생산 분야들에 종사하는 자들은 지금 전체 로동력의 60 ~62%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의 비중을 훨씬 릉가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은 국가 기관의 공무원이 매달 평균 2,600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1964년 첫 7 개월 간에는 련방 정부 기관들의 종업원들만 하여도 1만 8,339 명이 늘어 났다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제 구조도 기형적으로 반전하고 있다. 자본과 로동력이 생산 분야에 투하되는 경우 그 대부분은 군수 생산 부문들에 집중되고 있다. 독점 자본은 거듭되는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하며, 유휴 상태의 생산 능력들에 《활기》를 불어 넣으며 생산의 《앙양》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또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것은 민수 생산 부문들을 희생으로 하여 일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소위 《국민 총생산액》에서 군수 생산이 차지하는 몫은 1947년에는 8.0%, 1956년에는 14.0%, 1958년에는 15.5%로 각각 높아졌다(2 차 대전 개시 이전인 1939년에는 그것이 1.9%였다).

개별적 생산 부문들을 놓고 보면 해당 부문 생산량에서 군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 1963년

현재 항공기 제작 공업에서는 94%, 조선업에서는 61%, 전기 기계 생산에서는 21%의 생산물이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였다.

현대적인 최신 과학 기술의 제 성과도 군수 생산 부문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특히 핵물리학, 화학, 수학, 력학, 전자 공학 등 과학 부문들에서의 귀중한 성과들은 독점의 수중에 전'적으로 횡취됨으로써 원자 무기, 로케트 무기 등을 생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이렇듯 경제의 군사화는 전쟁을 위한 무기 및 기타 군수 물자들의 생산에 복무하는 거대하고도 전일적인 경제 체계를 수립하였다. 경제의 군사화로 말미암아 사회의 재생산 과정에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간 및 기타 경제 제 부문들 간의 유기적인 련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군수 물자의 실현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일정에 제기되고 있다. 생산된 군수 물자의 실현—그것은 인명을 살상하고 물질적 재부를 파괴하는 전쟁이 없이는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 미국 독점 자본이 집요하게 감행하는 전쟁 정책의 물질적 기초는 바로 이러한 경제의 부단한 군사화에 있는 것이다. 경제의 군사화는 비록 일시적으로는 생산의 장성을 자극할 수도 있었으나 조만간에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며 상시적인 전쟁 소동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군수 생산 부문의 팽창, 경제의 선면적인 군사화 그리고 독점 자본의 전쟁 정책은 미국 경제의 극도의 기형화와 취약성을 증시할 따름이다.

독점 자본의 부패는 그의 기생주의와 불가분리로 통일되여 있으며 사회적 생산물과 로동력의 극도의 랑비와 탕진을 동반한다. 독점 자본의 부패물 생동하게 보여 주는 이 측면은 미국 독점 자본에게 있어서 특히 다양하고도 추악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사회의 한 극에서는 미국 전체 세대수의 절반 이상이 기아와 반기아적 상태에 허덕이고 있을 때 사회의 다른 극에서는 막대한 사회적 부가 아무런 유용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는 극소수의 사회적 기생충들, 금리 생활자들, 독점 자본가들의 수중에로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 그들의 저속하고도 퇴폐적인 취미와 향락을 위해 탕진되고 있다. 이른바 악명 높은 《미국식 생활 양식》도 독점 자본이 탕진하고 있는 수십 수백억금의 딸라를 물질적 밑천으로 하여 《개화》되면서 그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있다. 실례로 석유 왕 록펠러 일가의 유력자인 윈스로프 록펠러(뉴욕주 지사인 넬슨 록펠러의 형이다)는 자기의 처와 리혼하기 위하여 《위자료》로서 640만 딸라를 썼으며 3,000만 딸라를 내걸고 다시 어떤 박사의 처를 빼앗아 냈다 한다. 1년 간 한 세대의 소득을 3,000 딸라로 친다면 이는 무려 1만 2,000여 세대의 1년 간 생활비에 대등한 금액을 《처 흥정》에 써 버린 것으로 된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 속에서는 개, 고양이 등을 기르면서 거기에 더 고가한 장식을 하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관습처럼 널리 류행되고 있다. 어떤 부자의 처는 자기의 개를 기르는 데 무려 1만 5,000 명 로동자의 1년 간 로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였으며 개에 목걸이, 잠옷, 외출복들을 갖추어 주었고 개가 죽었을 때는 성대한 《장례식》까지 치렀다 한다.

억만 장자들의 향락과 취미는 이러한 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문화와 예술을 무위 도식하는 자들의 권태감을 풀기 위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정상적인 인간의 건전한 두뇌로써는 도저

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색정적이고 추잡한《문화》와《예술》의 각 가지 종류가 횡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독점 자본의 부패 경향의 이러한 심화는 필연적으로 금융 과두 지배와 반동이 전면적으로 강화되게 하고 있다. 최근 년간 미국의 행정부들은 견실한 공산당원들과 로동 운동의 지도자들을 공공연히 탄압하는 수다한 악법들을 조작하였으며 로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등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말살하고 있다. 미국의 인종주의자들은 흑인들에 대한 부당한 폭행을 감행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유린 학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독점 자본은 로동 운동의 대렬을 와해시키며 로동 계급의 전투적 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각종 매수, 회유 정책에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어용 로조의 기회주의적인 지도자들과 앞잡이 등《로동 귀족》들에게 높은 임금과 후한 특권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자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파괴하기 위한 주요한 사회적 지주로 길러 내고 있다. 금융 과두 정치의 지반은 이러한 매수된 사회적 지주들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으리 만큼 썩어 버렸기 때문이다.

*　　　*

제국주의 시기 자본주의의 부패와 기생성의 근원은 다름 아닌 독점의 지배 특히 금융 과두의 지배 그 자체에 있다. 본래 독점은 제국주의 시기에 고유한 독점 가격 기구를 리용함으로써 기술적 성과들에 민감하게 의거하지 않고도 고률의 독점적 리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생산에 기술적 진보의 제 성과를 도입하며 생산을 장성시킬 데 대한 문제가 자유 경쟁의 조건 하에서처럼 그렇게 첨예하게 나서지 않는다. 거액의 자본 설비, 원료, 과학 연구 수단과 기술 인원들을 장악한 독점은 저들의 필요에 따라 지어는 과학 기술 상의 새로운 성과들을 고의로 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혹 개별적인 자본가들이 경쟁자를 타승하며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전반적인 사태의 본질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시적이나마 독점 가격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 진보와 따라서 모든 다른 진보를 즉 전진 운동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소멸되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기술적 진보를 인위적으로 지체시킬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22 권, 360 페지).

그러면 현시기 미국 독점 자본의 부패 경향은 어떠한 요인들의 작용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고 있는가? 그것은 주요하게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장성과 해외 자본 수출의 류례 없는 증대들에 기인되여 있다.

제 2 차 대전 후 미 제국주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발전에서 전형적인 나라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전한 나라로 되고 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장성은 경제의 군사화에 적극 복무하고 있다. 독점체들은 군비를 미증유의 규모로 확장함으로써 막대한 물질적 재부를 탕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 유용 로동으로부터 유리시키는 거대한 사회적 랑비를 조성하며 근로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즉 군비 경쟁의 강화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중요한 기능으로 되고 있

다.

다음의 수'자들은 미국 예산에서 직접적 군사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급속히 장성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년 도	증가률	예산 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몫(%)
1947 년	100	37
1953 년	361.1	70.2
1962 년	363.3	59.6
1963 년	384.0	59.8
1964 년	414.6	60.7

여기에 간접적 군사비 지출들을 고려한다면 실제 수'자는 훨씬 더 커진다. 례컨대 1964~1965 회계 년도의 군사비 지출액은 774억 딸라로서 정부 예산 지출 총액의 80%를 차지한다.

이러한 군사비 지출의 대부분은 비록 복잡한 중간 고리들을 거치기는 하지만 결국은 군수 생산의 왕들인 대독점체들의 주머니로 들어 가고 있다. 국가는 예산 자금을 가지고 군수품 주문을 수행하는 독점체들에게 원료, 자재, 로력, 기술 등을 눅은 값으로 제공해 주면서 생산된 군수 물자들은 아주 비싼 값으로 구입하고 있다. 군수용으로 생산된 물자들의 가격은 일반 용품들의 가격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여 있으며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독점체들에게는 제품 판로가 항상 《믿음직하게》 담보되여 있다.

그리하여 미국의 거대 독점체들이 받고 있는 리윤 총액에서 군수 주문 수행에서 얻는 몫은 매우 크다. 실례로 1959년의 개략적인 계산 자료는 500 개 최대 회사들의 납세 후 리윤 총액에서 군수 주문 수행으로써 얻은 리윤액의 비중이 16.8%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만일 그 대부분이 군사 침략적 사명과 결부되여 있는 해외 투자에서의 리윤액의 비중 25.2%를 합한다면 그것은 리윤 총액의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군수품 주문의 수행은 공황 등에 의하여 생산이 감퇴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리윤에서는 손실을 당하지 않거나 혹은 거의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합법칙적인 추세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장성과 경제의 군사화는 지배적 독점들로 하여금 국가 기구에 적극 의거함으로써 독점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그로부터 높은 표율리윤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장성은 독점 자본의 부패를 산생케 하는 경제적 기초를 비상히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의 부패와 기생성은 급속히 증대되는 해외 자본 수출에 의하여서도 심화되고 있다. 제 2 차 대전 이전 시기만 하여도 그들은 자본 수출면에서는 다른 제국주의 렬강들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전후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자본 수출권을 탈취하면서 자본 수출을 대규모적으로 확대하였다. 해외 상품 판매 시장 문제가 첨예화됨에 따라 미국의 자본 수출액은 계속 커 가고 있다. 1963년 현재 사자본의 해외 투자액 660억 딸라, 정부의 해외 투자액 약 210억 딸라를 합하면 그것은 총액 870억 딸라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쟁 전 시기 1939년의 해외 자본 수출 총액을 거의 8 배나 릉가한 것으로 된다.

국내에서는 새 투자가 부진 상태에 있고 광범한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걸식 상태에서 헤매이며 생산의 침체

와 경제 부문들 간의 불균형이 우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과잉》 자본은 보다 높은 리윤을 위하여 해외에로 방출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 수출에 의하여 다른 나라들에서 특히 《후진》 국가들에서 렴가한 로동력과 원료를 리용함으로써 독점 자본가들은 국내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높은 초과 리윤을 짜 내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이 해외 자본 수출에서 얻고 있는 리윤액은 매년 평균 약 140억딸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의 가장 중요한 착취 대상은 아세아, 아프리카 등 소위 《후진》 국가들이다. 그들이 이 지역 나라들에 투하한 자본의 리윤률은 30 ~ 100% 혹은 그 이상에 달하고 있다. 미국 본국에서의 리윤률이 10 ~12%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문'자 그 대로 강탈 행위인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원조》 역시 군사 침략 정책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자본 수출의 특수한 국가 독점적 형태로 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은 《원조》를 미끼로 하여 그것을 받는 나라들의 경제 명맥을 완전히 틀어 쥐려하고 있으며 《원조》액보다 수 배나 더 많은 리득을 긁어 내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실례만 들더라도 그들은 그간 35억 딸라의 《경제 원조》를 준 대신 100억 딸라 이상의 재부를 략탈해 갔다.

이리 하여 미국 독점 자본은 수억만 다른 나라 인민들의 《등에 업혀》 그들의 피와 땀을 빨아 먹으면서 살지고 있는 현시대의 가장 큰 국제적 착취자로, 강도적인 고리 대금업자로, 금리 생활자로 되고 있다.

* *

미국에서의 독점 자본의 가일층의 부패는 그들의 대내외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지배적 독점 세력들은 부패의 심화와 첨예화되는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국가 독점적 착취 체계의 《보강》, 정치적·반동과 파쑈화 그리고 특히 군비 경쟁과 전쟁 도발 행동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지금 전면적인 핵 전쟁 준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도처에서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감행하는 모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전후 미국 독점 자본의 력사는 이러한 전쟁 도발 책동으로 일관되여 있다. 부패와 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그들의 전쟁 책동도 보다 악랄하여지고 있다.

최근 시기 그들은 동남 아세아 지역에서 범죄적인 침략 행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적대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실은 독점 자본이 부패하면 할수록 미 제국주의가 인류의 사회 경제적 진보에 대한 흉악한 반동으로 전화되고 있으며 더욱더 새 전쟁의 주되는 위험으로, 화근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그것은 또한 미 제국주의가 자기 운명을 다 산 극도로 취약하며 몰락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늘 미 제국주의의 새 전쟁 도발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 이를 철저히 폭로 분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회 경제적 전진 운동이 제기하는 절실한 요구로 되고 있으며 진정한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숭고한 투쟁 임무로 되고 있다.

전 세계 인민들이 굳게 단합하여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일 때 미 제국주의의 전쟁 정책은 반드시 분쇄되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가혹한 고리대 착취

지 한 석

남조선 농촌에 부식되고 있는 고리대 착취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오늘 남조선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민족 해방 혁명 수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아직도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와 함께 고리대 착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 고리대는 농업 소득의 막대한 부분을 농민 경리로부터 리탈시킴으로써 남조선의 농업 생산력을 파괴하고 농민 생활을 극도로 령락시키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가 남조선 사회 경제 발전의 질곡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농민들에 대한 각종 고리대 착취는 금지되여야 하며 농민들이 진 토지 채무와 빈농민들의 인체 부채는 폐기되여야 한다. 남조선 농촌에서 봉건적 관계의 청산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길을 열어 주며 농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 공업의 발전에도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 관계를 분석 비판하는 것은 오늘 남조선 농민들을 각성시키며 인민들을 남조선에서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민족 해방 혁명 수행을 위한 투쟁에 궐기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1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 고리대 착취는 봉건적 지주 토지 소유에 기초한 소작 제도와 함께 봉건적 착취 체계의 기본적 형태로 되고 있다.

지주, 부농을 비롯한 남조선 농촌 고리대업자들은 미제와 괴뢰 도당의 비호하에 농민들을 채무 노예의 사슬에 얽어매 놓고 그들의 고혈을 짜 내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이러한 착취 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은 남조선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관련된다.

본래 고리대 착취는 고리대 자본의 기능 형태로서 그것은 상품 및 화폐 류통의 발전과 함께 소생산의 부단한 령락 파산에 기초하고 있다.

《리자부 자본의 특징적 형태로서의 고리대 자본은 자기 로동에 의하여 생활하는 농민과 소수공업 장주(匠主)의 소생산의 우세에 상응하는 것이다》 (맑스 《자본론》 제 3 권, 2 분책, 184 페지).

자연 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소생산은 여러 계기들 즉 불의의 재난과 비상 사고, 착취 계급들의 수탈로 말미암아 부단히 파산 령락된다. 소생산의 부단한 령락과 파괴는 필연적으로 소생산자들의 절박한 자금적 요구를 촉발시킨다.

소생산의 부단한 령락과 파괴—이것이야말로 고리대 자본이 기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으로 된다.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 고리대 착취가 성행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 년 간에 걸쳐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한 식민지 략탈 정책은 고리대가 성행할 수 있는 광범한 사회적 조건을 조성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 2 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일정하게 장성하였던 미국 농업 생산은 공업 생산과 함께 전후 자본주의 시장의 협소화와 국내 근로 인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축감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만성적 과잉 생산 공황에 빠지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수탈의 중심을 상품 시장화에 두었다.

즉 그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과잉 상품의 실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미국 독점 자본의 리윤을 보장할 것을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그 주구들을 조종하여 남조선의 경제 특히는 농업 생산을 더욱더 파괴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 시기부터 자기들의 괴뢰들을 통하여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완전히 틀어 쥐고 그를 자기의 군사화 정책에 유리하게 재편성하는 한편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였으며 농촌에서 봉건적 지주 제도를 보존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실시한 이러한 식민지 략탈 정책은 고리대 착취를 조장시켰다.

우선 그것은 남조선 민족 경제를 파탄시킴으로써 생산 자본의 고리대 자본에로의 전화 과정을 촉진시켰다.

남조선에서 《농지 개혁》을 실시한 이후의 농촌 현실은 그의 실례로 된다. 남조선 농촌에서 지주들은 미제가 실시한 기만적인 《농지 개혁》을 통하여 막대한 토지 대금을 획득하였다. 이 지주들 중의 일부는 미제와 괴뢰 도당의 《특혜》 조치에 의하여 《적산》을 《불하》받아 산업 자본가로 전화되였으나 대부분의 지주들은 그렇게 되지 못 하였다.

공업과 생산 분야에 손을 뻗칠 수 없게 된 지주들은 토지 대금과 봉건적인 고률의 지대를 통하여 획득한 자본을 화폐 또는 비료, 쌀 등의 상품 형태로 고리채화하게 되였다.

고리대 자본의 형성 과정은 남조선 농촌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진행되였다.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산업에서의 자본 투자의 길이 막힌 조건 하에서 도시의 자본가들은 중간 상인으로 또는 고리대업자로 등장하였다.

그들은 주로 춘궁기에 농민들의 절량 상태를 리용하여 고리대 착취의 손을 뻗쳤다.

다음으로 그것은 남조선에서 농민 경리의 극심한 령세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고리대 착취가 성행할 수 있는 지반을 만들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와 제국주의적 략탈의 2중적 중압은 남조선 농촌 경리를 여지 없이 파괴 령락시켰다.

남조선의 농호 당 평균 경지 면적은 1944년에 1.11 정보이던 것이 1960년에는 0.86 정보로 축감되였다. 같은 기간에 0.5 정보 미만의 토지를 경작하는 극빈농가는 약 33만 2천 호나 증가하여 1960년에 총 농가 호수 중 1 정보 미만의 토지 경작 농가는 73%, 0.5 정보 미만의 토지 경작 농가는 42.9%에 달하였다.

농가 수지 동태는 한심한 형편이다. 1958~1960년 자체 농업 소득에 의한 생계비의 충당액은 0.5 정보 미만의 토지 경작 농가가 41~50%이며 토지 경작 면적이 좀 많다고 하는 1.5~2 정보의 토지 경작 농가들도 85~90%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남조선 농민의 70~80%가 자기의 힘으로 농사할 수 없으며 극심한 기아와 빈궁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바로 이러한 농민 경리의 령세화, 농민 생활의 빈궁화는 남조선 농촌에 고리대가 밀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영농과 생활의 긴박한 자금의 수요는 농민들로 하여금 고리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이 남조선 농촌에서 고리대 착취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2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 고리대 착취가 전례 없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리대 자본이 낳는 리자는 그의 비생산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경제적 한계가 없이 비률이 높은 데 특징이 있다.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고리대 자본의 리자률은 화폐 수요자의 지불 능력 또는 저항 능력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한계도 모른다.

오늘 제국주의의 식민지 및 예속국에서의 고리대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띠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에는 이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가 가혹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남조선 농촌에서는 리자률이 년 평균 90~100%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동서 고금에 드문 사실이다.

리자률과 함께 그 형태에 있어서도 가혹성을 띠고 있다.

남조선 농촌의 고리대 형태는 대체로 현물 고리대와 현금 고리대로 구분된다. 현물 고리대에는 주로 현물(비료, 종곡, 식량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색거리》, 《장리》 등이 속하며 현금 고리대에는 화폐 형태로 제공되는 《변'돈》, 《보리'돈》, 《체계 제도》 등이 속한다. 이 두 형태의 고리대에서 현물 고리대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고리대 총액의 60%를 점하고 있으며 그 역시 거의 전부가 《장리'벼》, 《색거리》, 《곱

패기》 등을 위주로 한 식량 고리대로 되고 있다.

고리대에서의 현물 고리대인 식량 고리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농민들이 자기의 농업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남조선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그 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는 현물 고리대 형태가 우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상환 기간이 극히 짧다.

남조선 농촌 고리대는 그 상환 기간이 대체로 수개월 간에 불과하다.

괴뢰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58년에 고리대의 60~70%가 《3~4월 보리'고개》로 불리는 춘궁기에 집중되여 있었고 그의 상환 기간은 거의 모두 6~7 개월로서 추수 직후인 11월과 12월에 상환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는 그 규모와 포괄 범위가 방대한 데 특징이 있다.

남조선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부채는 매년 약 20억 원의 폭을 가지고 장성하고 있다. 《군사 정변》 이후 남조선 농민 부채액은 1960년에 비하여 50%나 장성하였다.

남조선 농민 부채의 대부분은 개인 고리채이며 부채 총액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 고리채는 남조선 농가의 90%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이러한 고리대 착취 현상은 농업 생산력과 농민 생활의 파괴 몰락 과정을 더욱 급속히 촉진시키고 있다.

최근 시기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 현상들은 더욱더 가혹성을 띠고 나타나고 있다.

현재 남조선 농촌에서는 고리대의 보다 혹독한 형태인 《립도 선매》, 《립맥 선매》와 《청전 매매》, 《흑전 매매》 등이 광범히 성행하고 있다. 이 고리대는 불과 2~3 개월 동안에 100% 이상의 리자를 낳고 있다. 이 고리대 형태를 통하여 도시의 매점인 또는 중간 상인들이 농업에 침투하여 직접적 생산자인 농민들을 더욱더 몰락시키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는 남조선에서 농촌 고리대가 전례 없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이러한 고리대 착취는 봉건적 소작 제도와 함께 남조선의 농업 생산력 발전과 사회 경제 발전에 저애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고리대는 생산 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고 기생충으로서 이것에 붙어 빨아 먹고 이것을 비참하게 만든다.

고리대는 생산 방식의 고혈을 빨아 먹으며 이것을 쇠약케 하며 재생산이 점점 더 비참한 제 조건 하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맑스 《자본론》 제 3 권 2 분책, 186 폐지).

남조선 농촌에 창궐하고 있는 고리대 총액 130억 원의 리자률을 60%로 추산한다 하더라도 년간 70~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농업 소득이 농업 생산으로부터 유리되여 고리대업자의 수중에 흘러 들어 가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남조선에 농업 생산력과 농민 경리가 여지 없이 파괴 몰락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남조선에서 농업 생산력과 농촌 경리의 파괴 령락은 중세기적인 농기구에 의한 손로동의 지배, 토지의 황폐화, 시비량의 감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는 호미와 낫, 보습 등이 기본 생산 수단으로 되고 있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수 많은 농경지가 매몰, 류실되고 있다. 지난 19년 간에 남조선에서 매몰, 류실된 토지만 해도 130만 정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병충해로 말미암아 해마다 농작물의 수확고가 감소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생산력의 극심한 파탄은 농민들의 생활을 령락시키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리농하는 현상이 증대되고 있으며 해마다 절량 농민들의 수가 늘어 가고 있다. 지난해 남조선의 절량 농가는 140만 호에 달하였다.

남조선 농촌의 이러한 현실은 남조선 농민들의 불평 불만을 증대시켰다.

이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는 남조선에서 뒤흔들리는 식민지 통치 지반을 계속 유지해 보려고 음흉하고 교활한 책동을 꾸미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의 조종 하에 박 정희 도당은 《농어촌 고리채 정리》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들고 나섰다.

박 정희 도당의 이 구호가 허위와 기만에 찬 구호라는 것은 명백하다.

남조선 괴뢰 정권이 조작한 《고리채 정리법》의 내용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고리채 정리법》에는 년 리자률 20%를 넘는 개인 고리채를 년 리자률 20%의 《공채》로 대체하며 5년 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농어촌의 고리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지적되여 있다.

개인 고리채와 대체하겠다고 하는 《국채》의 리자률이 20%로 규정되고 있는 사실은 고리채의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리채 정리법》에 의하면 또한 농어촌 고리채 총액 130억 원 중 그의 4분의 1도 못 되는 28억 원만을 《정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나머지 100억 원은 그 대로 방임해 두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고리채 정리법》은 농업 생산력 발전과 농민 생활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 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의 고리채 문제는 남조선 농민들의 절박한 자금난을 고리대에 의거함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자금적 담보를 주는 것으로써 정리되여야 한다.

그러나 매국 배족 책동만을 일삼고 있는 남조선 위정자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할 능력도 없다.

오늘 극심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박 정희 《정권》은 농민들의 긴박한 최소한의 영농 자금마저도 대 주지 못하고 있다.

1962 년도에 그들이 농촌에 《방출》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어 댄 《영농 자금》은 76억 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농촌에서 최소 한도의 소요 영농 자금액의 절반도 못 되는 적은 수'자이며 그것마저 제때에 대 주지 않았다.

1963 년도 영농 자금 방출액은 또다시 축감되여 약 40억 원으로 되였다.

남조선 괴뢰 정권이 약간의 영농 자금을 농촌에 대 준다 해도 그 대부분을 지주, 부농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조작해 낸 《고리채 정리법》의 략탈적 성격은 영농 자금을 가혹한 방법으로 회수한 사실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1962년 4.4 분기에 영농 자금 및 비료 대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농촌으로부터 86억 원을 회수하였다. 이것은 그가 집권한 후 1962년까지 영농 자금의 명목으로 농촌에 대부한 자금 총액을 일시에 회수한 것으로 된다.

그들의 이러한 농촌 자금 회수 책동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졌다. 박 정희 도당이 농민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한 후 농민들이 《소 값이 돼지 값이 되고 돼지 값이 개 값》이 되였다고 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제반 사실은 미제의 조종 하에 들고 나온 박 정희 도당의 《농어촌 고리채 정리》라는 구호가 날로 증대되는 남조선 농민들의 불평 불만을 무마하며 자기들의 뒤흔들리는 정치 경제적 지반을 유지해 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력사는 착취자들이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꾸며 내는 그 어떠한 책동도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그것은 실패로 끝 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이 꾸며 낸 모든 책동이 바로 그러하였다.

오늘 남조선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표방하고 있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 책동 역시 파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남조선 농민들은 지금 《고리채 정리에 의하여 얻은 것보다 손해가 더 많다》고 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정권의 농촌 략탈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농민 생활을 개선하려면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에서 철저한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일체 고리대는 법적으로 금지되여야 한다.

바로 이것만이 남조선의 농업 생산력 발전과 령락된 농민 생활 개선을 위한 길을 열어 준다.

남조선에 미제가 남아 있고 괴뢰 정권이 통치하는 한 철저한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과 고리대 착취 관계의 청산은 있을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그 주구들을 청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투쟁 과제이다.

남조선 농민들은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를 남조선으로부터 몰아 내고 그 주구들을 청산하고야 말 것이며 이미 북반부 농민들이 걸어 온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할 것이다.

싸우는 아프리카 문학

하 수 홍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폭풍은 수 세기를 두고 아프리카를 짓누르던 암운을 헤치고 《암흑의 땅》으로 불리던 이 대륙에 광명의 길을 열어 놓았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새로운 아프리카의 건설을 위하여 일떠선 아프리카 인민들이 신구 식민주의의 온갖 장애를 짓부시면서 노도와 같이 이 길을 달려 나아가고 있다.

> 듣느냐 저 오랜 놋쇠의 부르짖음,
> 다급히 울리는 징소리를,
> 듣느냐 우리의 분노의 노래,
> 용맹과 사랑의 노래를!
> 노래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
>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는 힘을.
> …
> 자유의 뜨거운 해'볕으로
> 눈물의 바다는 말라 버린다.
> 일어 나라 형제들아! 그대들은 보리라
> 콩고, 검은 아프리카의 심장을,
> 다시는 남의 손에 매이지 않는
> 우리네 청춘의 조국을!

미제와 그 주구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된 아프리카의 참다운 아들이며 콩고의 열렬한 애국자인 루뭄바는 이렇게 아프리카의 새날을 노래하였었다.

진보적인 작가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아프리카 문학은 인민들의 투쟁과 승리를 노래하고 그들의 전진을 고무하면서, 대륙의 새 력사를 반영하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어제는 아프리카가 그러했듯이 세계의 주목 밖에 있던 이 청소한 문학이 오늘은 대륙의 새 기상을 안고 세계 문학에서 당당히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아프리카 문학은 아랍 계통과 흑인 계통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주로 흑인 문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한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아세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전투적인 문학과 함께 아프리카의 진보적인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이 적지 않게 소개되였다. 그것은 우리와 지리적으로나 력사적으로 먼 아프리카의 문학을 리해하며 아울러 그곳 인민들의 소박하고 열렬한 정신 세계와 생활을 리해하는 데 일정하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은 무엇보다도 자유와 해방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원쑤들에 대한 끝 없는 증오, 투쟁에 대한 힘찬 호소로 하여, 전투적이며 진취적인 기백으로 하여 우리 독자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 문학에서 보게 되는 이런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특징은 곧 그 작가들의 진보적인 견해와 사실적인 창작 태도를 말해 준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가 빚어 낸 아프리카 대륙의 참담한 현실을 정면으로 보며, 또한 투쟁으로써 침략자를 타도하고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여야 하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력사적인 사명을 리해함으로써만 그러한 작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

진보적인 아프리카 작가들은 이와 같이 현실과 인민들의 투쟁을 자기들의 창작에 진지하게 반영하면서 바로 그것으로 자신들이 또한 투쟁의 거류 속에 투사로서 자랑스럽게 서 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언어의 문학들을 아프리카 문학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부를 때, 그것들이 같은 대륙에 존재한다는 지역적 표징 뿐 아니라 더 많이는 이 문학들에 공통한 이런 전투적인 특징을 념두에 두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

투쟁과 떼여 놓고 아프리카 문학을 이야기할 수 없다—그것은 그 문학이 걸어 온 길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아프리카 흑인 문학의 력사는 청소하다.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20 세기에 들어 서서야 발생하였다. 원래 아프리카 흑인들은 고대 문명의 자랑스러운 개화를 이룩하였었고 유구하고 재능 있는 구전 문학의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식민주의 기반 하에서 더 일찌기 글문학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 당하여 왔다.

짧은 력사이기는 하지만 흑인 문학은 간고하면서도 승리적인 발전 행로를 거쳐 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디에서나 그런 것처럼, 아니 그 어디에서보다도 더 혹독하게 아프리카 흑인들을 압박하고 착취하였으며 정치적으로 무권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몽매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문화 유물을 략탈하고 그 전통을 질식시켰으며, 식민지 인민들을 문명의 혜택 밖에 얽매 두고 그들의 민족 교육과 어문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며, 문학을 포함한 일체 민족 문화 창조의 조건을 박탈하였다.

비로소 20 세기 초에야 아프리카의 애국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식민지 통치자들의 탄압을 무릅쓰고 문학 창작이 시작되였다. 그들은 앙양되는 민족 해방 운동의 사상적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작품에 외래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자기 인민의 비참한 노예 생활과 인민의 가슴 속에 끓는 반항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였으며 민족 의식의 각성을 호소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작가로서 시인 아브둘 카씸 빈 쟈말디니를 들 수 있다. 1907년의 아프리카 인민 봉기를 취급한 력사시 '《마지마지》와 기타 많은 작품들에서 그는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인민의 반항과 봉기 지도자에 대한 인민의 흠모의 정을 묘사하였다.

흑인 문학의 선구자들은 한편 민족 문화의 전통을 되살리고 민족의 말과 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인민들 속에서 문화 계몽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민족어로 신문, 잡지들이 발간되였었다.

이에 당황한 식민지 통치자들은 이들 애국적인 지식인들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는 한편 어용 문화 및 교육 기관과 종교 단체들을 통하여 민족 허무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온갖 퇴폐적인 부르죠아 문학 조류를 류포시켰다.

식민주의자들과 통치층 및 반동 작가들이 끌어 들이는 퇴폐적인 문학 조류(비록 아프리카 문학에서 주도적인 것은 못 되지만)를 반대하는 진보적인 작가들의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준비 위원회 위원장 시빠이는 대회에서 한 자기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우리의 기본 문제와 우리가 가는 길은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사람의 그것과 전혀 상반된다…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 인민들의 력사와 오늘과 래일 그리고 그들이 진행하는 투쟁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우리에게 있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은 문제'거리로 될 수 없다…》

식민주의자들의 발광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새로운 문학은 그 작가 대렬이 날로 확대되였으며 인민들 속에서 더욱 확고한 지지를 받게 되였다.

그러면서도 일련의 나라의 량심적인 작가들에게 있어서 의연히 창작적인 고충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남아 있은 문제는, 우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민족어문의 발전이 억제 당하였으므로 민족어가 아니라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종주국의 말로 창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주민의 절대 다수가 문맹자여서 문학 작품이 인민들 속에 침투되는 길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였다.

이 애로는 오늘도 다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글 아는 사람이 1%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일련의 독립한 나라들에서도 여전히 불어, 영어, 포도아어 등을 서사어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작가들은 민족어를 발전시키고 더욱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한편 부득이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조건에서도 민족적 풍격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청년 시인 틸리뉴 미캐야의 작품에서 보게 되는 민요적 운률과 향토적 정서가 그 한 례로 된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특히 1950 년대에 아프리카에서 민족 해방 운동은 일층 고조되였으며 투쟁의 불'길이 온 대륙을 휩쓸었다. 이것은 아프리카 문학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시기로 되였다. 투쟁 속에서 새로운 작가군이 형성되였으며 창작은 사상 예술적으로, 량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리 하여 현대 흑인 문학의 기초가 쌓아졌다.

이미 우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진보적인 작가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아프리카 흑인 문학은 작품에 일관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열렬한 지향으로 하여 독자의 심정을 울린다.

그것은 바로 이 자유가, 노예의 멍에를 쓰고 수백 년 동안 참혹한 생활의 길을 더듬어 온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결같은 념원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그것을 인민들의 얼굴에서 읽고 신음 소리에서 듣고 가는 곳마다에서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에게서 느끼고 자신의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제게르의 창작을 들고 보자. 제국주의 기반 하의 케니아의 암담한 현실을 폭로한 그의 《태양 아래》는 작품 전체가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분노의 기소장

으로 되고 있다. 침략자를 단죄하며 자유를 호소하는 그의 격렬한 감정의 발로는, 다름 아닌 양몰이 노예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투쟁 대오에서 전투적인 세례를 받았으며 독학으로 글을 배워 작가로 된 자신의 간고한 생활 체험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자유에 대한 절절한 감정은 작가들의 개개의 작품에서 식민주의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주구들의 용서 못할 죄행에 대한 폭로로, 원쑤들에 대한 증오로, 온갖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 있는 아프리카의 넋에 대한 예찬으로, 투쟁에 대한 호소로 전개되고 있다.

버녀디디의 자서전적인 장편 소설 《클렘버에》는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아동들에게 《베푸는》 노예 교육의 리면과 잔악한 인민 탄압 책동을 폭로하면서, 한 흑인 고아가 그들의 온갖 괴임과 강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도리여 그들에게 항거하며 마침내 투쟁 대렬에 들어 서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소설은 식민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도 인민들의 각성을 막지 못 하며 자각한 의지를 꺾지 못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련의 작가들은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에 남긴 죄악적인 후과에 대하여, 놈들이 그 곳에 건설해 놓은 도시의 부패한 생활을 통해서도 폭로하고 있다.

젊은 소설가 씨프리안 에크벤지가 쓴 장편 소설 《도시 사람들》은 청춘의 희망을 안고 도시로 나간 한 청년의 운명을 통하여 퇴폐적인 부르죠아 생활과 문화의 웅거지인 도시가 흑인들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다 주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이 보고 겪은 도시 생활은, 흑인들에게는 기아와 질병과 집 없는 생활을 주고 《문명》의 향유자들에게는 방탕과 쾌락을 주는 모순의 집적이였다.

세네갈의 오랜 작가 아브둘라이 싸드쥐가 쓴, 한 흑인 녀성의 운명을 취급한 장편 소설 《마이무나》도 수 많은 녀성들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대도시의 《화려한 생활》을 가부장적 농촌 생활과 대비시키면서 폭로한 작품이다.

자유의 갈망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요구한다. 모잠비크의 현대 시문학의 선구자인 루이 데 노로니야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오 아프리카, 잠자는 노예여!
울려 퍼지는 저 진보의 웨침을 들어라—
《오 아프리카여, 때가 왔다!
일어 나 행동하라!》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에서 울리는 투쟁에 대한 호소는 우에서 본 것처럼 원쑤에 대한 증오로 안받침됨으로써 더욱 격동적이며 승리의 신념으로 충만되여 있다.

말리 시인 마마두 골로고는 아프리카를 휩쓰는 혁명의 폭풍우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아프리카 상공에 울부짖는 폭풍우여!
나의 알몸뚱이를 그 대로 드러내노니
너의 이글이글한 대기의 물'결로
이 몸을 깨끗이 씻어 다오,
착취와 압박과
횡포와 재난의 질곡 속에
천백년 내려 오던
고난과 치욕의 멍에를
네 거세찬 물'결로
산산이 부셔 다오.

이러한 자유, 이러한 투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조국의 번영을 위한 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념원한 것이다.

아프리카 작가들의 어떠한 주제, 어떠한 내용의 작품을 읽든 우리는 그 구석구석마다 스며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애착, 그 자연과 인민과 그들의 풍속에 대한 살뜰한 정을 느끼게 된다.

1962년에 서거한 시인 로버트 샤아반의 작품들은 그것이 식민주의자들의 비인간적인 죄행을 격분으로 규탄하는 시인 경우에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다함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에서 작가들의 관심은 조국을 찾은 인민들의 환희와 새로운 생활을 보여 주는 데 보다 많이 쏠리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물리치고 피로써 다시 찾은 조국, 쟁취한 독립에 대한 기쁨을 작가들은 인민들과 더불어 노래하고 있으며, 그런 드높은 감정으로 그 땅 우에 새 생활을 창조하고 다시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경각성 있게 수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름답게 꽃피누나,
땅이여!
내 손'길 닿기를
그대는 기다리누나.
그대는 나의 땅!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대는 나의 땅—
황금의 땅이여,
약동하는 대지여!

많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은 오늘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국의 미래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행복한 래일에 대한 념원으로 표현되고 있다.

카메룬 작가 몽고 베티는 장편 소설 《왕의 질병의 기적적인 완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종교적 침략과 지방 추장의 무능을 단죄하고 아프리카의 전도를 우려하는 두 청년의 형상을 묘사하면서 아프리카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갖은 음흉한 방법으로 지방 인민들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파멸시키는 《문명인》 선교사 떼간과 스물 세 명의 첩을 거느리고 부패한 생활에 젖어 있는 추장—왕은 아프리카의 몰락하는 과거를 대표하고 있으며, 두 청년 크리스토프와 비탐은 이런 현실에 격분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미래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작가는 과거의 불가피한 사멸을 예고한다. 한편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두 청년의 견해를 대립시키면서 각이한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크리스토프는 낡은 세력과의 적극적인 투쟁을 주장하며 인민들의 단결과 강력한 당의 결성을 계획하는데, 비탐은 돈 있는 자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황금을 축적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비록 크리스토프의 길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보여 주지는 않고 있으나 아프리카의 장래가 서구라파식 《문명》도, 재래의 가부장적 제도도 아님을 명백히 시사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종족 제도와 모든 낡은 유습도 청산해야 한다는 사상은 벤쟈민 마티프의 중편 소설《아프리카여, 우리는 너를 모른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작가는 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들과 대농장 소유주이며 백인들과 결탁하여 리윤만을 추구하면서 농촌의 낡은 제도를 고집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그리면서, 타락하고 비겁한 상인과 농장주들이 아프리카의 발전에 장애로 되며 그들이야 말로 식민주의자의 비호 밑에서 치부하는 파렴치한들임을 폭로하고 있다. 동시에 작품에는 백인들이 백년 동안에 한 모든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한 해 동안에 해내리라는 굳은 신념과 정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믿음직하게 그려지고 있다.

우리는 선진적인 일부 작가들의 작품에서 아프리카의 래일을 떠멜 힘으로서 로동 계급의 형상을 정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현대 문학에서 일보 전진의 싹이라고 할 수 있은 것이다.

세네갈 작가 우스만 쎔벤은 장편 소설 《마술 지팽이》에서 몇 해 전에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준, 세네갈—수단 칠도 로동자들의 영웅적인 파업 투쟁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로동 계급의 완강한 힘을 구체적인 생활 화폭을 통하여 훌륭히 보여 주고 있다. 파업 로동자들은, 총탄을 퍼부으며 흑인 거주 구역의 상업을 봉쇄하며 수도를 막아 버리고 무고한 주민들을 체포 투옥하는 경찰의 야수적인 탄압을 단합된 힘으로 물리치고 마침내 백인 경영주와 황색 로조의 배신적인 지도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다.

작가는 파업 로동자들에 대한 다부문 로동자들의 련대성도 잘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파업 로동자들의 가슴에 고동치는 것이 백인들에 대한 인종적인 증오감이 아니라 계급적, 민족적 원쑤를 반대하는 고상한 애국적인 감정이며 바로 혁명적 당이 그들에게 그런 투지를 안겨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보적인 아프리카 작가들의 애국적이며 인민적인 지향은 유구한 민족 문화 유산을 복구 정리하며 그 전통을 자기들의 창작 실천에서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인민들 속에 더욱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생활 감정과 념원을 더욱 생동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그 한 실례로 말리, 가나를 비롯한 서부 아프리카 나라들의 문화일'군들에 의한 그 곳의 문화 유산 발굴 사업은 거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문화 계몽 사업에 작가들이 더욱 헌신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인민의 힘은 무궁하며 더우기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인민의 힘은 불패이다. 아프리카의 주인은 아프리카 인민이며 더는 그 어떤 힘도 이 인민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지 못 한다. 진보적인 아프리카 작가들은 자기 인민들에게, 세계에 이것을 선언하면서, 바로 그 인민들에 의하여 어제'날의 《암흑의 대륙》에 드디여 행복의 락원이 건설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프리카 흑인의 민족적 긍지를 소리 높이 웨치고 있다.

말하라 두려워 말고
말하라 부끄러움 없이
모든 인류 앞에서 말하라
내 아버지와 그 조상들처럼
나는 흑인이라고.
어머니가 흑인이기에
나도 검은 사람, 허나 노예는 아니다.

나는 자유로운 인간, 나의 조국은
아프리카, 나의 조국 만세!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 인민들의 오랜 투쟁에 의하여 오늘 이 대륙에서는 위대한 력사적 전환이 일어 나고 있다. 각성한 2억 6천만 아프리카 인민들은 식민주의의 마지막 거점을 쓸어 버리기 위하여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련방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아직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 앙골라, 모잠비크 등 포도아령 식민지들과 기타 지역들에서는 무장 투쟁이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독립을 달성한 많은 나라에서도 나라의 모든 생활 령역에서 식민주의의 자취를 지워 버리며 광명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변천된 조건에서의 새로운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멎지 않고 래일로 뻗어 갈 것이며 작가들의 자유와 투쟁의 노래도 멎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투쟁은 아프리카의 《소생》과 그의 새로운 력사의 원동력이며 아프리카 인민들의 어제와 오늘일 뿐만 아니라 래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작가는 자기의 주인공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투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러 새삼스럽게 리해하려고 애 쓸 필요가 없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절실한 생활 문제로 되여 있기 때문이요》.

진보적인 아프리카 작가들은 자기들의 사상 예술적 시야를 더욱 넓히고 퇴폐적인 부르죠아 문학의 침습과 사상적 영향을 물리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위대한 전환을 자기들의 창작에 보다 폭 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 제 21 호 (루계 259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11월 3일　　발행 • 1964년 11월 5일

ㄱ—430647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2 호 11 월 20 일

평 양 근 로 자 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 22 호 (260)
1964년 11월 (하)

차 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력사 교양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력사 교양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애국주의는 추상적 개념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력사, 전통, 민족적 특성, 생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직접 흘러 나오는 산 감정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과거를 잘 알며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잘 아는 데서만이 생기는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3 권, 1953년 판, 289 페지).

따라서 애국주의 교양은 원리 해석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조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조국에 대한 깊고 넓은 리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조국의 력사를 잘 알려 주어야 한다.

조국과 인민이 걸어 온 력사적 행로를 잘 알 때에만 참으로 조국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며 또 거기에서만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은 오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군중 교양 체계에서 력사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　　　*

력사 교양은 우선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게 해 준다.

조국에 대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영광스러운 조국을 가진, 슬기로운 민족으로 된 자각에서 오는 애국적 감정이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풍모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사적 사명은 결코 민족적 긍지를 높이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사명이 민족 국가들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조건 하에서 각 민족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반드시 자기들 앞에 나선 해방적 사명을 자체의 힘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용기와 긍지가 필요한 것이다. 원래 모든 민족은 력사적으로 자체의 민족적 발전을 통하여 인류의 력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으로서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와 지배 계급의 온갖 압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훌륭한 애국 전통을 이룩하였으며 인류 문화의 보물고에 크게 이바지한 수 많은 과학, 예술, 문화의 재보들을 남기였다. 특히

해방 후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온갖 간난 신고를 무릅쓰고 이 땅 우에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새 사회—사회주의 사회를 창설하였으며 락후하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유구한 세월에 걸쳐 우리의 선렬들과 인민들이 이룩하여 놓은 이러한 가치 있고 귀중한 모든 것과 그것을 이룩한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 이러한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대한 긍지, 그들의 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려는 열망, 이것이 없이는 이 땅 우에 인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민족적 긍지를 높이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도 전'적으로 합치된다. 매개 나라 근로자들이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나라 혁명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로 국제 혁명의 한 고리를 성과적으로 담당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것은 국제 혁명에 이바지하는 가장 옳은 길인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남만 바라 보게 되거나 맡은 일에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와 지혜가 나오지 않아 혁명 과업을 옳게 해결해 나갈 수 없다.

레닌은 혁명에서 매개 민족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국제주의에도 부합된다고 지적하였다:

《민족적 자랑의 감정은 우리들 대로씨야의 자각한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무관계한 것이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기의 국어와 자기의 조국을 사랑한다》(레닌 전집 제 21 권, 105 페지). 《대로씨야인의 민족적 자랑의 리익은 대로씨야인(과 기타 모든 민족)의 프로레타리아의 **사회주의적** 리익과 일치한다》(같은 책, 109 페지).

참으로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혁명적 풍모이며 애국적 감정인 것이다.

조국의 력사에 대한 교양은 이러한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배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력사 교양은 우선 과거 선렬들, 인민들이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며 온갖 압박자들을 반대하여 얼마나 용감히 싸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계급적 각성, 조국과 인민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 자기 조국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쟁 결의와 신심을 높이게 한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력사를 통하여 외적들의 거듭되는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와 존엄을 지킨 슬기로운 민족이며 온갖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의 전통을 가진 인민이다. 실로 조국의 력사는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쳐들어 온 원쑤들에게 그 때마다 참패와 죽음을 주고 나라의 영예를 고수한 투쟁의 력사로, 지배 계급의 온갖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의 력사로서 찬연히 빛나고 있다. 수나라 300만의 침략군과 당나라 50만의 침략군을 맞받아 싸워 이긴 고구려 인민들의 애국 투쟁, 3 차에 걸치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고려 인민들의 불굴의 투지, 임진 조국 전쟁 당시 왜군을 격멸한 우리 인민의 승리, 이러한 싸움에서 배출된 민족의 명장들인 을지 문덕, 강 감찬, 리 순신 장군들이 세운 위훈

과 업적 그리고 갑오 농민 전쟁을 비롯한 역압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끊임없는 계급 투쟁, 그 중에서도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근세 우리 인민들의 투쟁들과 특히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전개된 반일 무장 투쟁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애국 지성, 용감성, 불굴의 투지, 슬기롭 긍지 높이 간직하게 한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선렬들이 이룩한 이러한 업적과 고귀한 유산에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을 가지며 항일 선렬들의 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당의 령도 밑에 해방 후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와 업적, 그것을 낳게 한 우리 당과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를 가진다.

력사 교양을 통하여 애국주의와 민족적 긍지를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민이 이루어 놓은 찬란한 과학 문화의 재보와 그것이 세계 문화사에, 세계 인민에게 이바지한 자랑찬 사실을 잘 알려 주는 것이다.

우리 조국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동의학의 창시국이며 또 천문학과 금속 활자 제조에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진 나라이다. 예술 분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성과는 특히 찬란한 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3 세기 (3국 시기)에 대규모적인 관현악단이 출현하였는바 이것은 종전에 세계 최초의 관현악단의 조직으로 알려졌던 당나라의 그것에 비해서도 4~5 세기나 앞선 것이다. 7 세기 신라에서는 벌써 100여 명을 헤아리는 대합창단이 조직 운영되고 있었다. 무용도 3국 시기에 매우 발전해 있었다. 사실 당시 우리 선조들이 만든 그 정밀한 악기들의 섬세한 음과 노래, 춤의 멋들어진 가락들은 현대적 척도로 재여도 예술성의 극치들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력사 교양을 통하여 선조들이 이룩한 이와 같은 자랑찬 업적과 유산, 사적들을 잘 알려 줄 때 근로자들은 더욱더 민족적 긍지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더 부강하고 아름다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력사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슬기로운 민족적 전통을 성과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게 해 준다.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라의 부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은 애국주의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이다. 조국의 오늘의 발전은 과거사의 연장이며 지속이다. 과거의 력사와 전통을 제쳐 놓고 오늘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조국의 오늘을 더욱 빛내게 하려는 애국심이 있다면 반드시 력사적 전통에 의거해야 하며 그것을 옳게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인민은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한 훌륭한 애국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유산들 특히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당—조선 로동당을 가질 수 있었으며 로동당의 령도 밑에 오늘의 행복한 생활과 후손 만대에

넘겨 준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력사 교양은 대중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의 애국 전통 특히는 1930년대 김 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이룩된 혁명 전통을 깊이 파악하고 계승케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력사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또한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생산과 건설에서의 귀중한 경험들을 옳게 계승할 수 있다.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농업, 목축업, 수공업, 건축 등의 분야에서 매우 높은 발전을 보고 있었다. 이 분야에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오늘의 인민 경제 발전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실 매개 군에 지방 공업을 창설 발전시킨 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 인민이 력사적으로 발전시켜 오던 생산적 경험과 기술에 적지 않게 의거하였다. 노박덩굴이나 칡을 이겨서 천을 짜는 일이며 산과실들을 리용해서 훌륭한 식료 공업을 창설하는 일이며 도자기 공업, 제지 공업을 발전시키는 일 등은 모두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경험과 방법을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건축술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우리 조상들은 쇠붙이 하나 쓰지 않고도 수백 년을 견디여 낼 수 있는 목조, 석조 건물들을 지어 놓았다. 평양의 보통문이며, 서울의 남대문이며, 강계의 인풍루, 안변의 석왕사,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안악의 3 호 고분 등을 비롯한 수 많은 건축 유산들은 오늘에 있어서도 건축술의 발전에 있어서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건축 사업은 특히 나라의 백년 대계에 관계되는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값싸고 보기 좋고 인민들에게 편리하게 되도록 배려하는 데서 애국주의를 발현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우리는 조상들이 이룩한 고귀한 건축술을 계속 연구함으로써 수상 동지의 교시 대로 오늘의 건설물도 더 질 좋고 값싸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 낼 수 있다.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는 과거에 이룩한 유산들을 널리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오늘의 민족 문화 건설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한다.

세계의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 불후의 공헌을 남긴 김 봉한 교수의 경락 실태의 발견도 다름 아닌 전통의 연구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찌기 인간과 가축의 생체에 경락 계통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기초한 치료 체계를 확립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벌써 서양 의학이 치료할 수 없었던 일련의 병들을 수다히 치료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창조한 동의학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발견된 경락 실태의 계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과거의 치료 예방 경험들의 섭취에 더욱더 노력한다면 보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다.

예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거두고 있는 높은 경지의 성과도 바로 전통을 옳게 계승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오늘 근로자들 속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고 그들을 애국적 헌신성에로 부르고 있는 노래와 춤들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민요와 민간 무용의 계승 발전으로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황금의 예술》, 《세계 최고봉의 예술》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집중시키며 투쟁에로 부르는 예술 종목들의 거의 모두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예술 형식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킨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문화 예술의 계속 높은 발전을 위해서도 사람들 속에서 과거의 전통에 대한 계승에 더욱더 관심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력사 교양은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게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애국자로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적 립장에 서서 자기 나라의 발전과 자기 나라 혁명 발전에 대하여 책임적이고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맑스-레닌주의와 선진 경험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나라의 부흥 발전에 최대한으로 이바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를 세우려면 자기 나라의 력사를 알아야 하며 우수한 전통을 알아야 한다.

력사를 잘 알아야 우리 인민들의 힘을 더욱 굳게 믿고 우리 인민의 힘으로 우리 혁명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지게 되며 굳건한 책임적 립장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력사는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조국이 처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민만은 변함 없이 애국적 립장을 지켜 싸웠고 조국의 영예를 고수한 결정적 동력이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대주의적인 지배층을 반대하고 나라를 지켜 싸운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은 력사의 수다한 사변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력사적 사실은 인민의 힘에 의거한다면 반드시 나라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우리 혁명을 성과 있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 준다.

또한 주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이고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나라의 현실과 특성을 옳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로 된다. 력사 교양은 이 문제를 풀어 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우리 나라의 실정, 우리 나라의 특성을 잘 알려면 반드시 우리 나라의 발전을 력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실정, 우리 나라의 특성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구한 력사적 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력사를 잘 모르고서는 오늘의 우리 나라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로자들 속에서 력사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나라의 특성을 옳게 깨닫고 그에 맞게 일할 때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더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력사 교양은 근로자들 속

에서 애국주의 정신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 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 *

력사 교양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자로 교양하는 무기로 되여야 한다.

1962년 5월 3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근로자들 속에서의 력사 교양 강화의 중요한 지침으로 된다.

력사 교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 력사 과학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끌어 올리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력사가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방법론에 립각하여 우리 나라의 사료들을 분석하고 그를 체계화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 력사를 란폭하게 외곡 날조한 일제 어용 학자들, 반동적 부르죠아 사가들이 남겨 놓은 후과와 여독을 시급히 퇴치하여 우리 나라 력사 과학을 진정한 인민의 력사로 더욱 완성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현시기 광범한 대중들 속에 우리 나라 력사를 널리 보급 선전하는 사업이 중요한 당'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것 만큼 우선 지도 일'군들 자신이 력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식을 높이는 것이 선차적 문제로 된다. 일'군들이 조선 력사를 깊이 학습하고 체득할 때만이 대중 속에서도 그를 널리 선전할 수 있고 또한 사업에서도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들의 구미를 옳게 고려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력사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됨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 력사 교원들의 임무가 특히 무거워졌다. 력사 교원들은 응당히 이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광범한 군중 속에서도 교양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교원들은 력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는 동시에 반드시 력사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기초우에서 사람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혁명가로 교양하는 데 집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력사 교원들 자신이 력사에 대한 지식을 더욱 풍부히 하는 동시에 그것을 높은 긍지와 흥분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토에 대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력사를 감화 교양의 방법으로 설득력 있게 알려 줄 수 있다.

조국의 력사를 소개하며, 력사 지식을 보급함에 있어서 작가, 예술인들에게 돌려지는 사회적 기대가 매우 크다.

력사 지식에 대한 자료는 다른 선전 수단과 함께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 활동을 통하여 대중에게 널리 전달된다. 때문에 작가, 예술인들 자신이 조국의

력사를 더 깊이 연구하고 교양적 가치가 풍부한 력사적 소재들을 주제로 선택하여 소설, 희곡, 씨나리오 등을 더 많이 창작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과거 선조들이 남긴 고전 작품들을 발굴하여 널리 소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력사 지식을 보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출판물이다. 출판물에서 력사물을 널리 소개하는 동시에 그것이 대중 속에서 더 큰 실효를 나타내도록 쉽고도 흥미 있게 취급해야 하며 또한 력사적 사실들을 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리론적 분석을 주는 글들도 많이 실어 대중의 세계관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 속에서 조국의 유구한 력사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럽고 슬기로운 력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선조들이 남긴 유적 유물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오늘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유적 유물에는 애국적 인민들의 기상과 기백이 깃들어 있으며 재능 있는 우리 인민들의 솜씨들과 슬기로운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다. 이것은 모두가 귀중한 국보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적 유물들을 우리 세대들의 교양 자료로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후대들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명산대천과 지방의 가는 곳마다에 수 많이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소중히 보관 관리하고 애호하며 원쑤들에 의해 파손되였거나 낡은 것은 복구 정비하는 사업을 전 인민적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력사 교양을 옳게 진행한다면 이것은 응당히 자발적인 군중적 운동으로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유적 유물 발굴에 계속 관심하고 노력한다면 파묻혀 있는 귀중한 국보들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력사 교양을 잘 하려면 그것에 대한 보급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직장들과 일터에서 계획적으로 현지 답사, 명승지 견학, 감상 모임, 좌담회 등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하여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 력사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조국에 대한 더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해야 하며 과거 선조들의 투쟁을 더듬어 보고 오늘의 행복을 귀중히 여기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매 지방에서 우선 자기 지방에 대한 향토사와 그 곳에 있는 유물, 유적,투쟁 사적들을 잘 알게 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당은 우리들에게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산천에서 살면서 사회주의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향 마을에는 조상들이 남긴 유적 유물이 있고 아름다운 전설들이 깃들어 있다. 이것을 알아야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나오며 그 곳에서 안착하여 고향 마을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다 바쳐 일할 수 있다.

자기 향토의 자랑스러운 것을 이어 자기 마을을 잘 꾸리는 것은 곧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것으로 된다. 우리는 그 곳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해야 한다.

력사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옳게 관철한다면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애국주의 정신을 한층 높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10대 과업 관철에서의 청년들의 임무

홍 순 권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에서 제기된 10대 과업은 앞으로 2 년 간에 우리가 점령하여야 할 중심적인 전투 목표로서 그것을 점령하는 것은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오늘 사로청 단체들과 청년들에게는 10대 과업 수행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영예롭고 어려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

10대 과업 관철에서 청년들이 돌격대가 되는 것—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당과 조국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현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청년들의 당면 임무의 하나는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서 경제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조국이 부르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반드시 앞장 서 나아가야 한다.

또한 10대 과업 자체가 어려운 과업으로서 사람들의 전투적 기백을 요구한다. 따라서 불요불굴의 투지와 혁명적 기백이 강한 우리 청년들이 이 영예로운 투쟁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은 10대 과업 관철에서 앞장 설 수 있는 실제적 력량으로 준비되고 있다.

당의 옳은 령도 하에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조직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 청년들의 위력한 전투적 조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전 동맹에 당'적 사상 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백절 불굴의 투지, 용감성 그리고 높은 혁명성을 체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조선 청년들이 과거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 밑에서 가혹한 민족적, 계급적 압박을 받으면서 일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행정에서 그리고 해방 후 미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영웅적 투쟁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 행정에서 체현된 것이다. 그리 하여 당이 제기하는 위대한 사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언제나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중요한 고리를 담당해 나서며 언제나 용감하고 대담하게 앞을 헤치고 나가는 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자랑으로, 전통으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항상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어려운 일의 돌파구를 담당하였으며 영웅적 기개를 남김 없이 시위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극히 짧은 기간에 수많은 남녀 청년들이 농촌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평양—신의주 간 전기 철도 공사 때에는 전국 각지 청년들이 당의 부름에 열렬히 호응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건설장으로 달려 나갔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진리를 탐구하려는 의욕이 높고 새것에 민감하며 보수주의, 소극성과는 비타협적이며 새로운 과학 기술 지식을 습득하며 그것을 사업과 생산 실천에 적극 도입하려는 비상한 열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당의 옳은 교육 정책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중등 이상의 일반 지식과 기본적인 생산 기술 지식을 체득하고 있다. 우리의 많은 청년들은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적인 과학 기술로 무장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그들이 소유한 이러한 훌륭한 자질로 하여 나라의 기술적 진보와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놀고 있다. 청년들은 기술 발명과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의 선두에 서 있으며 그의 적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공업 부문에서만 하여도 4만여 건,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3만 7,000여 건의 각종 발명 및 합리화안이 청년들에 의하여 도입되였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청년들의 귀중한 정신적 특질은 또한 원대한 전망과 높은 리상이 있는 것이며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악하고 완강한 것이다.

아름다운 꿈과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는 것은 혁명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투쟁 의욕, 높은 리상과 포부는 그들에게 자기 생애의 뚜렷한 투쟁 목표와 투쟁 신심을 주며 난관 극복의 정신과 혁명가적 기질을 발휘하게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산이라도 허물듯한 높은 기세를 가지게 하며 혁명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생활을 명랑하고 락천적으로 꾸려 나가려는 기백을 준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한 해방 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창조적 로력 투쟁에서 체득한 귀중한 경험들이 있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 발전의 매 단계마다 언제나 새 조국 건설의 역군으로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년들은 전쟁 전 인민 경제 부흥 발전 시기 비상한 열성을 발휘하였다. 57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철산 광산, 신천 탄광 개발 공사에 달려가 위훈을 세웠으며 수많은 청년들이 보통강 개수 공사, 단천항 축항 공사, 통림 철도 부설 공사에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고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서 《청년 작업반》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애국적 증산 경쟁의 앞장에 섰다.

우리 당과 인민이 한 덩어리가 되여 맨주먹만 가지고 전쟁의 상처를 가시던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도, 내외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제 1 차 5 개년 계획을 2 년 반 동안에 완수하던 때에도 그리고 7 개년 계획의 전반기 과업을 수행하던 시기에 있어서도 청년들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담당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이악하게 관철하고 있다. 수천

수만의 남녀 청년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평남 북부 탄전과 강계 청년 발전소를 비롯한 탄광, 발전소 건설장에 진출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청년들은 해주—하성 간의 200리 광궤 철도를 단 75일 간에 건설했으며 대규모의 현대적 비날론 공장을 단 9개월 간에 일떠세웠으며 그리고 수십만 정보의 땅에 관개 체계를 도입하는 대자연 개조 투쟁과 민주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대도시 건설에서 《천리마 속도》, 《비날론 속도》를 창조하였다.

오늘도 청년들은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양하고 있다.

민청 제5차 대회가 있은 후에만도 7,500여 명의 청년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강철, 비료, 세멘트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사와 중요 철도 시설 공사장에 진출하여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 있다. 오늘 공업 부문의 중요한 단위들에서는 2,600개에 달하는 청년 돌격대들이 활동하고 있다.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강계 청년 발전소의 건설, 평양—신의주 간의 철도 전기화, 평양 화력 발전소 및 김 일성 종합 대학의 건설 등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세우는 건설장에서 새로운 《천리마 속도》를 창조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실로 커다란 로력적 업적들을 쌓아 올렸다.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영웅적 투쟁을 쌓을 수 있는 우수한 자질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주력군으로 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민청 제5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청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훌륭한 자질로 하여 사회 혁명과 새 사회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전투적 기백을 발휘하여 10대 과업 관철에서 또다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여 불멸의 위훈을 떨쳐야 할 것이다.

* *

청년들이 10대 과업 관철에서 앞장 서려면 우리의 전투적 위력을 발휘하여 계속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0대 과업에서 어렵고 중심적인 전투 목표들은 석탄 및 광물, 강철, 비료, 전력, 알곡 고지들이다. 이 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워야만 10대 과업 수행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전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7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끝낼 수 있다.

청년들은 이 부문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선 채취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청년들이 앞장 서야 한다.

채취 공업은 공업의 첫 공정으로서 이것을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인민 경제 다른 부문의 높은 발전 속도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방력도 강화할 수 없다.

탄광, 광산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 고리는 갱 건설과 굴진을 생산에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부문에 청년들이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며 특히 고속도 굴진 대열

에 청년들이 적극 참가하며 선진적인 채탄, 채광 방법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광, 광산 개발 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지질 탐사 사업을 갱 건설과 굴진에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는 것이다.

지질 탐사 사업에는 특히 불요불굴성과 완강한 투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청년들이 지질 탐사 사업에 적극 진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서 창조적 지혜와 혁명적 투지를 발휘하여야 한다.

금속 부문의 청년들은 선진 용해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전기로, 평로의 용해 시간을 단축하고 로저 면적 당 생산량을 높이며 파고철을 회수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 서야 한다. 그리고 강재를 규격 별, 품종 별로 생산 보장하며 강재의 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화학 공업 부문의 청년들은 화학 비료와 살초제, 살충제 그리고 화학 섬유의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동시에 청년들은 본궁, 순천, 청수, 아오지 등 화학 공장 확장 건설 공사에 적극 진출해야 하며 건설 속도와 건설의 질을 보장하는 데서 혁명적 정열을 발휘하여야 한다.

전력 생산 부문 청년들은 전력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중소 규모 발전소 건설을 병행하여 진행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 부문 청년들은 운봉 발전소, 평양 화력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서 로력적 위훈을 세우는 동시에 소형 발전소 건설을 위한 군중적 투쟁에서 앞장 서야 한다.

농촌 청년들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영광스러운 담당자들이다.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앞장에 서서 향토 건설과 문화적이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사회주의 농촌의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알곡 생산을 높이는 데서 청년들이 창조적 지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단위 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논 면적을 넓히고 새 땅을 얻어 내여 산'골에까지 튼튼한 알곡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개간 사업에서 청년들이 본보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료 기지 조성, 역축 관리, 양어, 유지림 및 갈밭 조성과 과수업 발전, 산'짐승 잡이 등 긴절한 부문들에서 청년들이 앞장 서야 한다.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 있게 끝 내는 것이 10대 과업 관철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지금 청년들 속에서 한창 고조되고 있는 《100 날 전투》를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생산 계획을 일별, 주별로 어김 없이 끝 맺고 모든 청년들이 년간 계획을 원만히 결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10대 과업 관철에서 앞장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10대 과업의 성과적 수행의 기본 고리는 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 광범한 청년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하여 과학과 경험을 옳게 배합하고 로동자와 기술자들의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이 도처에서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하여 대중적 혁신 운동의 불'길

을 더욱 높여야 한다. 동시에 청년들 속에서 과학 기술의 령마루에 오르기 위한 행군을 대대적으로 조직 전개함으로써 모두가 높은 과학 지식을 소유하고 한 가지 이상의 전문 기술을 가지며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 맡은 사업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기수, 기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농촌 청년들은 다 뜨락또르를 운전할 능력을 소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대 과업 관철에서 또한 청년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업 생산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은 10대 과업 관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아무리 많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질이 낮다면 나라의 생산력 발전과 인민들의 일상 생활 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청년들은 당의 의도 대로 모든 제품의 질을 1~2 년 내에 선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조건과 가능성, 예비, 지혜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경공업, 기계 제작 공업 및 기본 건설 부문을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확립하며 생산 문화를 높이며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청년들이 더욱 힘차게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또한 절약 투쟁에서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며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 것은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빨리 향상시키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청년들 속에서 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원 단위 소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것을 계통적으로 낮추며 기계 설비를 애호하고 그의 리용률을 높이며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있는 것은 아껴 쓰고 없는 것은 찾아 내면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군중적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전체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파고철, 파지, 파유리를 비롯한 페기, 페잔물을 회수하기 위한 광범한 사회적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그람의 칠이나 석탄이라도 더 절약하고 지축하며 한 알의 낟알과 한 줌의 비료라도 더 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이 제시한 10대 과업 관철에서 청년들이 앞장 서기 위해서는 각급 사로청 조직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는 것이다. 오직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청년들의 정치적 열성을 부단히 높일 수 있으며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10대 과업 관철에 효과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로청 조직들은 청년들 속에 깊이 들어 가서 정치 사업을 앞세워 모든 사로청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전투를 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며 군중 문화 예술 활동과 군중 체육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일'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렇게 될 때만이 청년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전면적으로 발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각급 사로청 조직들의 활동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사업 작풍과 방법을 개선하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항구적인 사업과 깜빠니야 사업을 옳게 결합하며 일반적 지도와 심화의 방법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우가 아래를 실'속 있게 도와 주며 한 점을 뚫고 경험을 창조하여 그것을 일반화하며 당 정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로청 일'군들의 사업 수준에 크게 달려 있다. 사로청 일'군들이 우선 혁명적 학풍을 세워 꾸준히 배움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깊이 소유하며 일반 지식 수준, 문화 수준 등 전반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이 특히 당성 단련과 혁명적 수양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굳건히 세우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 전사로 되여야 한다.

또한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 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준수하며 안일성, 해이성을 배격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일'군들 자신이 모든 부문의 사업과 생활에서 청년 군중의 모범이 되고 기수가 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10대 과업 관철의 돌격대로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10대 과업의 관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천리마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오늘 전 당과 전체 인민이 10대 과업을 받들고 7 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돌격전에 들어 섰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각급 조직들과 청년들은 전체 인민의 천리마 대진군 속에서 로동당 시대의 청년으로서의 전투적 위력을 다시 한번 떨치자.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을 더욱 높이자

김 길 현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은 객관적 현실에 상응하게 당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고 혁명 정세가 우리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됨에 따라 각급 당 조직들 앞에는 어렵고도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중중첩첩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 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임무를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혁명에 대한 당'적 령도는 각급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의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인 당 위원회의 지도적 기능을 높이는 문제는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

당 조직들이 자기의 지도적 기능을 부단히 높이며 그것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만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계 각층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고 당원들과 근로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옳게 조직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각급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 대렬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한편 당 위원회를 우수한 당 핵심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켰으며, 위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결과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이 일층 제고되였으며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거침 없이 침투 관철되게 되였으며 상하가 일치 단결되고 기맥이 서로 상통되여 전 당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게 되였으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혁명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날로 변화 발전하는 우리의 현실은 당의 령도적 기능을 더욱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당의 령도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우리 당이 취해 온 일련의 조직적 대책을 계속 관철하여야 하며 특히 각급 당 조직들이 당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 문제가 중요하다.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을 부단히 제고하는 문제는 당 사업을 정상화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은 당 사업의 정상화에서 표현되며 당 사업의 정상화는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을 높이는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당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 위원회가 사업의 전반을 장악하고 정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제기된 혁명 과업을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철저히 의거하여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습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당 위원회들이 자기의 본신 사업을 놓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끌고 나갈 때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을 높일 수 있으며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사업의 정상화는 당 조직들의 당'적 기능을 제고하며 당 사업을 보다 심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본질적이며 항구적인 요구로 된다.

모든 당 조직들이 우리 당이 이미 강조해 온 당 사업의 정상화가 가지는 본질적 의의와 요구를 명백히 인식하고 그를 계속 관철하는 것은 당 사업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 사업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기본 요구의 하나는 우선 매개 당 조직들이 당 사업 즉 사람과의 사업을 틀어 쥐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당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당 조직들이 캄빠니야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자기의 본신 사업인 정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 사업의 정상화—이것은 당 사업이 끊임 없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는 시간적 계속성과 함께 항상 기본 문제, 본신 사업을 놓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모든 당 조직들이 다 자기의 사업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 대상과 기본 임무에 철저히 립각하여 그것을 일상적으로 끌고 갈 때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은 더욱 제고될 수 있으며 제기된 모든 과업이 빠짐 없이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당 조직들이 당 내부 사업을 옳게 틀어 쥐고 그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당 내부 사업이 강화되여야 혁명의 지휘 성원들인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정치 사상 리론적으로 확고히 무장시킬 수 있으며 전체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 조직들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제고될 때 혁명 전선의 매개 초소에서 각계 각층 군중들이 한결같이 발동될 수 있으며 제기된 혁명 과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당 조직들이 잘 움직이고 당원들이 발동되면 당 사업이 잘 되는 것이며 당 사업이 잘 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잘 되여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사업이 정상화되고 못 되는 것은 당 내부 사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당 조직들이 당 사업의 기본인 당 내부 사업을 하지 않고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사업에 매달리게 되면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의 사업을 정상화할 수 없다.

당 사업 정상화의 기본 요구는 또한 당이 모든 사업의 전반을 장악하는 것이다.

당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 전반을 튼튼히 장악하여야 한다.

사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함으로써만 지도에서 일면성을 극복하고 모든 부문과 단위의 사업을 빠짐 없이 통일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당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우리 당은 어느 한 측면이나 부문만을 지도할 수 없으며 응당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에 대하여 관심하며 그를 지도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전반 장악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당 내부 사업 전반을 틀어 쥐고 끌고 나가는 것이다. 당 내부 사업은 호상 유기적으로 련관되여 있으며 통일되여 있다.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 등 어느 한 고리도 빠짐 없이 전반을 장악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끌고 나갈 때 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으며 당의 령도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당 조직들이 행정 경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일상적으로 지도하여야 각 부문에서 제기되는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으며 인민 경제 전반에 걸쳐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례외 없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자면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공업, 농업, 건설, 운수, 교육, 문화, 보건 등을,공업에 있어서도 중공업과 경공업, 중공업에 있어서도 금속, 기계, 화학, 채굴 공업 등 모든 부문을 빠짐 없이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공업을 강조하면 농업을 소홀히 하거나 경제 문화를 강조하면 군사에 관심을 적게 돌리는 것과 같은 현상들은 다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데 기인된다.

전반 장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문제이다.

당 위원회들이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만 전반을 장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당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은 우리의 혁명 사업에서 두 개의 측면인 동시에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이며 그 긴밀한 결합은 우리 당 령도의 중요한 특성이며 기본 사업 방법이다.

당 내부 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당을 강화할 수 없으며 당을 강화함이 없이는 혁명 과업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당 내부 사업에서의 성과는 곧 행정 경제 사업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행정 경제 사업과 동떨어진 당 조직 정치 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

행정 경제 사업을 포치한 다음에는 당 내부 사업을 따라 세우며 그것이 끝나면 다시 행정 경제 사업을 포치하는 등 부단한 반복 과정을 통해서 당은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

로 관철할 수 있다.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 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를 유기적으로·결합하는 것은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당 내부 사업을 료해 장악할 뿐만 아니라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등 전반을 장악할 때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전반을 장악함으로써만 당 조직들은 키잡이를 잘 하여 어느 한 부문도 빠짐없이 통일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으며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 고리를 포착하여 그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전투에서 지휘 성원들이 언제나 모든 전선을 지휘하면서 동시에 주타격 방향을 제때에 옳바로 포착하여 그곳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전 전선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과 같다.

당 조직들이 행정 경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인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려면 반드시 실정을 정상적으로 료해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정을 료해하여야 전반적 전선에서 어느 고리가 잘 되고 어떤 고리가 약하며 어떤 고리에 력량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정확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옳게 조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반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사업, 행정 경제 사업 등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장악하는 것은 결코 한두 사람의 소총명으로써는 불가능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혜가 발휘되여야 전반을 장악할 수 있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가 보장될 때 해당 단위의 그 어떤 사업도 빠짐없이 장악하고 제때에 방향과 그 수행 방도를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옳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항구적인 사업과 당면하게 제기된 과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력량을 옳게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는 행정에는 항구적인 사업과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업이 허다하게 제기된다.

항구적인 사업과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제기된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들을 능숙히 해결하는 것은 오직 각급 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일하는 솜씨 여하에 달려 있다.

만일 이 량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그의 수행을 위해서 력량을 옳게 조치할 때에는 사업에서 일면성을 극복하고 집상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피동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래 전망적인 사업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갈 때 시기적으로 바쁜 일이 제기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동시에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전망적인 사업을 앞당기며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계기로 된다. 례하면 회의나 강습을 조직하는 것은 다 깜빠니야에 속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한 계단 추켜 세우

기 위해서 반드시 하여야 할 사업이며 따라서 본래의 사업을 더 잘 하는 방향에서 조직되여야 하며 회의나 강습의 실질적인 효과는 그 후에 본래의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으로써 표시되여야 한다. 당 정책 집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당 정책이 나오면 그를 정확히 집행하면서 이미 집행해 오던 당 정책도 동시에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이미 제기된 당 정책을 계속 꾸준히 집행하면서 새로 제기된 당 정책을 이와 결부시켜 집행할 때 모두가 다 효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급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항상 문제를 서로 련관시켜 통일적으로 고찰하고 신중히 연구하여 명확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모든 사업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다.

당 사업을 정상화하고 당 조직들의 기능을 제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 사업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당 사업 체계가 확립되였다는 것은 각급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자기의 기본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를 철저히 수행할 줄 알며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가 째이고 규률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자기의 기본 임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당 조직들에서는 그의 위치와 기본 임무에 상응하게 직제와 직능이 규정되여 있다. 따라서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자기 앞에 부과된 기본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기 자기의 직제에 따라 규정된 직능과 내부 사업 준칙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은 사업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직능과 내부 사업 준칙은 당 조직들과 그 일'군들로 하여금 본신 임무로부터 리탈함이 없이 목적 지향성 있게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하며 능동적으로 겉서 정열하게 사업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작성된 직능과 준칙에 따라 자기의 본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정확한 직능과 내부 사업 준칙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당 사업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당 위원회들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당 사업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고리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어느 한 고리도 빠짐없이 모든 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업에서 파동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사업을 정상화하자면 당 조직들이 진만 [illegible]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 조직들이 시기별로 진행할 사업 방향과 내용이 명확히 반영된 년간 계획과 그것을 구체화하여 당면한 투쟁 목표를 뚜렷이 밝혀 놓은 분

기, 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년간은 물론 월 주간에 할 모든 사업을 잊지 않고 주동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 특히 당 위원회들에서는 년간 전망 계획과 분기, 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하며 매개 일'군들은 일별로 된 주간 행동 계획을 가지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것을 제도화하며 습성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로 맞물려 돌아 감으로써만 모든 사업이 정상화되고 빈틈 없이 조직 전개될 수 있으며 사업에서의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면밀한 계획이 없이 일할 때에는 목적 지향성 없게 주동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계획은 매개 부문 간, 단위와 고리들 간, 그리고 일'군들 호상간에 서로 맞물리도록 과학적이며 구체적으로 작성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 사업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총화 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짓는 문제이다.

당이 일단 포치한 사업을 시기 적절하게 수습 총화하는 것은 이미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며 축적된 경험을 일반화하며 앞으로의 사업을 더욱 계획적이며 정상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의 력량을 옳게 수습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각급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자기의 사업을 일별, 주별, 월별, 분기 별, 년간 별로 총화하며 청산리 교시와 대안 교시, 강서군 교시 집행에 대한 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당 조직들이 당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문 기관 일'군들로부터 사업을 어떻게 조직했으며 그의 진행 정형은 어떠하며 이미 얻은 경험과 당면하게 걸린 문제는 무엇인가를 일상적으로 보고 받거나 실지 현장에 내려 가서 그들과 담화를 통하여 사업의 진행 정형을 료해 분석하여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당이 이미 포치한 사업들을 제기된 방향에 의거하여 정확히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총화를 진행함으로써만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이 항상 당의 령도 하에 당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기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다.

각급 당 조직들이 바로 이와 같이 행정 경제 기관들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집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지도 검열하고 총화함으로써 정상적인 당 사업을 통하여 경제 과업을 푸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당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 사업 체계를 확립하며 계획적으로 사업하며 총화하여 모든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은 바로 일'군들의 능력과 수준에 달려 있다.

부단히 변천하는 환경과 새롭게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들을 옳게 분석하고 처리하며 우리의 전진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일'군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일'군들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투에서 지휘 성원이 정황을 판단하고 결심과 명령을 신속 정확히 하달하듯이 전반을 료해 장악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에서 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다.

일'군들의 식견과 안목을 넓히며 수완을 배양하는 강력한 수단은 당 정책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일'군들이 비록 주관적으로는 당에 충실하려고 속다짐하였다 하더라도 실지로 당 정책과 수상 동지의 교시를 잘 모르며 당 사업 실무에 밝지 못하고 또한 하부 실정에 어둡게 되면 그들은 불피코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범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당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군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들이 당 정책의 본질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원칙에서 현실 문제를 옳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정에 적응하게 사업할 줄 알며 당원들과 군중 속에서 사람들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하며 그들을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에로 조직 동원할 줄 아는 세련된 당 일'군으로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군들이 복잡 다단하고 부단히 변천하는 정황 속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과 차요적인 것을 갈라 내며 과학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기능을 일층 제고할 수 있게 하며 당 사업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 일'군들이 우리 당 정책과 군중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필요한 기술 경제 지식을 소유하며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 방법을 체득함으로써만 당 사업을 정상화할 데 대한 당'적 요구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할 수 있다.

각급 당 조직들이 이상과 같은 제반 대책을 정확히 관철할 때 의심할 바 없이 당 사업은 정상화될 것이며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림산 공업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

김 동 훈

림산 공업은 나라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림산 자원을 조성, 채취 및 가공하는 공업의 중요한 한 구성 부문이다. 그것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각종 생산 수단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생산 공급한다.

림산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 경제의 확대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합법칙적 요구이다.

채굴 공업, 선박 건조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기본 건설과 관개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확대 재생산의 튼튼한 법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인민 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각종 목제 용품과 섬유 및 종이 등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도 목재를 대량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는 인민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며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목재의 용도는 확대되며 그것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다.

림산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목재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라의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부단히 공고화함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림산 공업의 발전은 또한 산간 벽지에서 생활하는 농민들의 사상 의식 및 문화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림산 공업은 자체의 특수성으로 하여 산간 오지대를 따라 분포되면서 산간 벽지의 농촌들과 직접 접하게 된다. 림산 마을들은 로동자 지구를 형성하여 농촌 마을에 린접하거나 또는 직접 농민들의 주택 지대에 함께 위치하게 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림산 공업은 또한 자체의 강력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에 의거하여 린접한 협동 농장들의 농업 생산을 지원한다.

이리 하여 림산 공업의 발전은 농업 생산의 장성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추진하며 로농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

그 뿐 아니라 림산 공업은 농한기를 리용하여 농민들을 목재 생산에 인입함으로써 생산 활동과 생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로동 계급의 수준에 끌어 올리게 하며 특히는 그들에게 공업적 기업 관리 운영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

림산 공업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노는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 첫 시기부터 림산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우리 당은 산림 면적이 국토의 77%

에 달하면서도 채벌해 쓸 나무가 그리 많지 않은 조건을 고려하여 한편으로는 채벌한 나무의 실수률을 높이고 그 부산물까지도 종합적으로 리용케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산림 축적을 채벌에 선행하여 증대시키도록 하는 원칙에서 당면한 목재의 생산 및 리용과 산림의 전망 축적 간에 정확한 균형을 조성하면서 림산 공업을 발전시켜 왔다.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은 적들의 파괴로부터 산림 자원을 구출하고 그것을 더 풍부히 조성하기 위하여 식수 조림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 왔으며 각 시, 군에 산림 경영소를 설치하고 수천 명의 보호원을 배치하여 국가적인 산림 보호 대책을 강구하였다.

전후에 와서 당은 미제에 의하여 파괴된 림산 공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림 자원 조사 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직 진행하고 산림 조성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당은 지방 공업을 창설하며 기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 필수품 직장을 꾸리게 하는 등 림산 공업의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대책도 강구하였다.

당은 또한 이 부문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강화하며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지금 우리 나라 림산 공업 부문의 매개 단위들에서는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가 도입 일반화됨으로써 웃사람, 웃기관이 아래'사람, 아래 기관을 도와 주는 기풍이 확립되어 가고 있으며 생산에서 큰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 특히 생산 조직의 기층 단위인 림산 작업소를 거점으로 하는 정치 사업의 강화는 당'적 령도를 더욱 강화하고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당은 림산 공업 부문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강화하고 사업 방법,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선진적인 채벌 방법을 도입하며 목재 생산에 새로운 기계 기술 수단들을 대량적으로 도입할 방침도 제시하였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는 림산 기업소들에서 순환식 채벌 방법에 의한 생산의 집중화를 실현하며 림산 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자연력을 목재 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목재의 원가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림업 로동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당이 제시한 순환식 채벌 방법에 의한 생산의 집중화는 목재 생산 장성의 중요한 요인이였으며 운재 공정에서의 강하천의 리용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원가 저하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또한 최근 년간 림산 공업 부문에는 기계톱, 뜨락또르, 자동차 등 현대적인 기술 수단들이 현저히 증가되였다. 림산 공업에서 힘든 작업들은 급속히 기계화되여 가고 있다.

당은 림산 로동이 산간 벽지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로동자들의 생활을 고착시키며 그들의 문화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하에 우리 나라 림산 공업에서는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전후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나라의 많

은 무림 목지에는 수십억 본의 나무가 심어졌고 황폐화되였던 산림은 오늘 급속히 록화되여 가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는 전쟁 전에 비하여 근 7 배에 달하는 목재를 공급하면서도 산림 축적을 근 3 배로 증가시켜 앞으로 목재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목재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목재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서 보다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 *

현시기 림산 공업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김 일성 동지가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림산 공업을 공장화하는 문제이다.

림산 공업의 공장화는 이 부문에서 생산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산림을 계획적으로 조성, 채벌함으로써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며 림산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 결정적 방도이다.

림산 공업에서의 생산의 분산성은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할 수 없게 하며 생산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림산 공업의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림 지역의 일정한 중심 지점에 생활과 로동의 기본 터전을 꾸리고 림목지들을 확대되는 규모에서 계획적으로 조성하면서 생산을 집중화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림산 공업은 공장화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림산 공업을 공장화함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나라 산림의 구체적인 상태와 조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산림의 축적과 채벌 간의 균형 관계를 옳게 설정함으로써 순환식 채벌 방법에 의한 생산의 집중화를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산림의 축적과 채벌 간의 균형을 옳게 설정한다면 그 지역의 중심 또는 편리한 지점에 생산과 생활의 기본 거점을 꾸리고 순환하면서 정상적인 목재 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

순환식 채벌 방법의 도입은 림산 공업의 공장화의 기본 고리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 나라 산림은 그 구성이 각이하며 나무들이 리용 정급에까지 자라나는 기간은 70~80 년이다. 그러나 산림에는 이미 리용 정급에까지 다 자란 나무, 자라고 있는 나무 그리고 방금 자라나기 시작한 나무들이 혼합되여 있으며 성숙 기간이 각이한 수목들이 있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의 산림 조건에서 채벌 주기는 대략 20~30 년으로 된다.

이것은 채벌과 산림 축적 간의 균형 설정의 과학적 기초로 되며 이러한 정확한 균형은 순환식 채벌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전제이다.

산림 축적과 채벌 간의 옳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채벌이 진행되는 차제로 계절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연, 기후적 조건에 맞는 경제적인 수종들을 점차 증대되는 규모에서 심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채벌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림목의 피해를 적게 하고 이미 심어 놓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 사업을 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인민이 이 사업에 관심하도록 하며 특히는 나무를 직접 채벌하는 림업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그들을 살림살이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상으로 철저히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 축적과 채벌 간의 균형을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복 채벌을 피하고 리용 경급에 도달한 나무들만을 먼저 채벌하여 채벌의 순환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무들의 성숙을 촉진하므로 산림 축적을 채벌에 앞세울 수 있게 한다.

림산 공업의 공장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운반 공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무엇보다도 이 부문에서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선 운재 공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림산 공업에서의 생산 공정은 벌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운재 작업으로 되여 있다.

이 공정은 자연 지리적 조건, 산림 조건 및 계절적 조건 등에 의하여 일정한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이 부문에서는 각이한 방법에 의한 운재 공정이 도입된다. 험한 산 지대에서는 삭도, 잉크라잉, 단선 로라 등에 의한 운재 공정이 도입되며 경사가 심하지 않은 지대에서는 뜨락또르, 자동차, 기관차 등에 의한 운재 공정이 도입된다. 그 뿐 아니라 여름에는 산하천의 물, 겨울에는 눈판이 운재에 광범히 리용된다. 이와 같이 운반 공정에는 다양한 운재 수단들과 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양한 운재 수단과 방법의 적용은 단일 운반 경로에서는 불합리하다.

운재 과정을 여러 공정으로 조직하면 할수록 상하차 작업이 증가되며 따라서 여기에는 보충적 생산 수단과 로력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재 공정을 단순화하면서 중간 운재 거리를 단축하는 방향에서 생산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것은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생산 과정에 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모조리 탐구 리용하는 문제이다.

특히 현재 운재 거리가 멀어진 조건에서 지형 조건과 계절적 조건 등에 따라 자연력을 운재 공정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례하면 여름철에 운재에서 산하천들을 리용한다면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생산량을 훨씬 증대할 수 있으며 산지 경사를 리용한다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운재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신양 림산 사업소 설령 작업소는 이런 면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이 기업소에서는 물이 흐르는 험한 골짜기에서는 수통 운재, 경사가 심한 산판에는 단선 로라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매년 근

10만 립방 메터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목재를 운반해 내고 있다.

이곳에서는 특히 림진선에 잉크라잉을 련결시켜 중간 운재 거리를 단축하고 같은 림철 대차를 두 공정에서 리용케 함으로써 생산 과정을 단일하게 련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자연 조건을 생산 공정에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높은 능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림산 작업 전반, 특히는 운반 공정을 전면적으로 기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점차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림산 공업에서 로동 지출의 절대적 비중이 운재 부문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공업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림산 공업에서도 현대적 기계 기술에 기초함으로써만 목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 수 있으며 림산 로동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수 있다.

목재 생산의 기계화 및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설비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예비 부속품 생산을 선행시키며 현존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림산용 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리 하여 림산 공업의 전 생산 과정이 다른 부문의 공장과 같이 현대적인 기계 기술에 기초한 생산 체계로 전환되게 하여야 한다.

림산 공업을 공장화함에 있어서는 또한 림산 마을들을 중심으로 하여 목재 가공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목재의 종합적 리용 대책을 추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림산 마을의 부양 가족들을 생산에 인입할 수 있게 하며 채벌한 나무의 초리, 아지, 뿌리까지 전부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목재의 리용 측면을 확대한다. 따라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목재 생산으로써도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당이 제시한 바와 같이 림산 작업소들의 생산 과정을 나무의 채벌로부터 시작하여 부산물의 종합적 리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정연한 생산 체계에로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다.

림산 공업을 공장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의 다른 하나는 림업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순환 채벌 지구의 중심 지역에 림산 마을을 형성하고 여기에 모든 문화 후생 시설들을 갖추어 줌으로써 이곳을 림업 로동자들의 고착된 생활 거처로, 고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림업 로동자들로 하여금 공장 로동자들과 같이 소직적이며 규률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처서판식》 낡은 생활 관습을 철저히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림업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림산 작업용 운수 수단들을 그들의 출퇴근 시에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불비하거나 림산 마을과 채벌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채벌장에 합숙들을 아담하게 꾸려 그들의 편리를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한다.

림업 로동자들은 공장 로동자들과 같이 안착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하나는 상부 토장을 잘 꾸리는 것이다.

림산 공업 기업소들에서의 상부 토장은 공장의 직장과 같다.

상부 토장은 채벌장, 하부 토장, 합숙 및 림산 마을을 련결하는 고리이다.

그것은 채벌장과 하부 토장과의 생산 과정에서의 련결도 상부 토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로동자들이 아침 저녁에 모이는 곳도 바로 이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선전실, 합숙실, 오락실 등을 잘 꾸려 주어야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킬 수 있다.

그런데 상부 토장은 고정적으로 오래 동안 고착되지 않는다. 상부 토장은 베일 나무를 따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건설되는 모든 시설물들은 반드시 이동, 조립식으로 되어야 한다.

림산 공업을 공장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관리 사업을 림산 공업의 특수성에 적응하게 조직 진행하는 것이다.

림산 공업의 관리 사업의 개선 방침은 이미 1963년 8월 김 일성 동지가 량강도 현지 교시에서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것은 작업소를 관리 운영의 기본 단위로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림산 사업소들은 몇 개 생산 지역들을 포괄하는 림산 구역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림산 사업소는 로동자들의 생활과 로동의 조직의 단위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작업소는 림산 마을에 위치한 로동자들의 생활처이며 사회적 생산의 기층 단위이다. 림업 로동자들은 작업소를 거점으로 하여 생활하며 바로 여기에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채벌 작업이 조직된다.

작업소는 작업소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하에 모든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림산 사업소의 지시 하에 경영 활동을 조직 진행한다.

그러므로 림산 공업을 공장화하자면 림산 작업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림산 작업소 당 위원회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림산 작업소 당 위원회들은 작업소 지도 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로 하여금 대중에 의거하여 기술 준비를 비롯한 모든 생산 준비와 생산 조직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림산 사업소, 총국, 관리국, 성 기관들은 새로운 지도 체계에 적응하게 지도 방법을 개선하고 직접 아래에 내려 가서 도와 주며 후방 공급 사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작업소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공고화하고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북돋아 주어야 한다.

림산 공업 부문 당 단체들은 보다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여 당이 이 부문 앞에 제시한 혁명 과업을 영예롭게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구악을 무색케 하는 신악

신 복

최근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신악을 반대 배격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가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체험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응당한 귀결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조종 하에 여러 차례 교체된 력대 괴뢰들 치고 사회적 혼란과 민생고를 증대시킨 죄과를 범하지 않은 자는 없다.

리 승만도, 장 면도, 박 정희도 다 하나 같이 미제와 함께 그러한 죄행의 장본인들이다.

그러나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박 정희 도당이야말로 선행 위정자들을 훨씬 릉가하는 죄악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박 정희 도당이 집권한 후 3 년여에 걸친 기간 남조선은 사회적 혼란과 민생고가 전례 없이 심화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남조선에는 700만이나 되는 실업자와 반실업자, 130만이 넘는 절량 농가, 800만에 달하는 제 집 없는 사람들, 600만 명의 지스토마 환자와 240만 명의 신경 분렬증 환자, 315만 명의 문맹자와 100여만 명의 미취학 아동들이 있다는 것은 남조선의 극심한 사회악과 민생고를 그 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

남조선에 조성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은 사회의 광범한 계층들 속에서의 현 《정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남조선 출판물까지도 이에 대하여 《구악 부패의 일소》를 념불처럼 외우는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구악이 일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구악보다도 더 큰 죄악이 횡행하게 되였다고 쓰고 있다.

따라서 신악을 반대 배격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목소리는 남조선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정당하고 절실한 것이다.

*　　　*

현 남조선 위정자들은 미제의 조종 하에 괴뢰 정권에 들어 앉은 시초부터 남조선의 모든 사회악을 제거하겠다고 굉장히 떠들어 댔다.

박 정희 도당은 소위 《혁명 공약》에서 《모든 부패와 구악의 일소》, 사회의 《청신한 기풍의 진작》 등 허울 좋은 말들을 늘어 놓았다.

그러나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그들이 늘어 놓은 말들이 허황한 잠꼬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박 정희가 집권한 후 3 년 간에 남조선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부정, 부패의 경향이 전례 없이 우심해졌다.

남조선의 《대한 일보》는 《오늘날 우리의 민생의 어려움이 이처럼 무자비하기로는 일제 년간에조차 없었던 일이고 개국 4,000 년 이래 어느 시대에도 없

었던 일이였다.》고 쓰고 있다.

남조선에서 사회악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남조선 사회 제도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사회악의 산생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소수의 착취자들은 자기들의 리윤 획득에 유리하다면 그 어떠한 범죄 행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행한다.

맑스는 한 책의 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연이 진공(眞空)을 두려워 하는듯이 자본은 리윤이 없거나 또는 리윤이 극히 적은 것을 두려워 한다. 상당한 리윤만 있다면 자본은 과감해진다. 10%의 리윤이 보장된다면 자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20%의 리윤이라면 자본은 활기를 띠며, 50%이라면 적극적으로 대담해지며, 100%이라면 인간의 법을 모두 유린하며, 300%이라면 자본에게는 단두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범하지 않는 범죄는 없다》(《자본론》 제 1 권 2 분책, 530 페지).

자본가의 바로 이러한 경제적 본성은 사회 정치적 면에서 반동화를 촉진시키며 침체, 부패의 경향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사회악이 불가피하게 산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에서의 사회악의 증대는 남조선 지배층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관련되고 있다.

오늘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 및 봉건적 생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예속 자본가, 지주 등이 지배 계급으로 되여 있다.

남조선에서는 약 500 명의 예속 자본가들이 남조선 경제의 주요 명맥을 틀어 쥐고 있다. 중요 경제 부문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제조 공업에서 40%, 채취 공업에서 약 80%, 대외 무역에서 50% 이상에 달한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약 10만의 지주들이 미제의 남조선 농촌 략탈의 중요한 기둥으로 되고 있다.

이 모든 착취자들은 미국 독점 자본이 베푸는 이른바 《특혜》 조치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미제에게 의탁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지배층이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 착취하며 그 어떠한 일도 거리낌 없이 감행하는 경제적 기초로 된다.

이상의 사실은 남조선의 사회악이 사회 제도 자체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남조선의 력대 괴뢰 정권 하의 매시기마다 사회악은 계속 증대되였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의 사회악은 그 범위와 심도에 있어서 선행 《정권》 당시의 그것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여지 없이 유린 말살되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애국적 력량과 진보적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공법》, 《인신 구속에 관한 림시 특례법》,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정당법》 등을 비롯하여 무려 3,560여 건의 악법들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들은 리 승만, 장 면이가 집권한 15 년 간에 3,325 건의 악법을 조작한 데 비하여 단 3 년 간에 239 건이나 더 많은 악법을 조작하였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이 매일 3 건 이상의 악법을 조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정희 도당이 조작한 이 악법들은 수'자 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 상 측면에서도 종전의 악법들을 릉가하였

다.

주 리 승만 시기에 진보적인 세력을 탄압 말살하기 위하여 조작한 《국가 보안법》에서는 《반 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의 지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처벌하기로 규정되여 있었다면 박 정희 도당이 조작한 《반공법》,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반 국가 단체와 그 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처벌하기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놓았다.

동일한 형의 형벌에 있어서도 종전에 비하여 비할 바 없이 가혹하게 되였다.

《국가 보안법》에서는 《반 국가 행위의 선동 선전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가하고 있으나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가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리 승만의 《시위 행렬 및 집회 규칙》, 장 면이 조작하려던 《데모 규제법》보다 더 반동적인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각종 부당한 제한 조항들을 설정하고 있다.

남조선에는 이 외에도 《로동 쟁의 조정법》, 《사회 단체 등록에 관한 법》, 《신문 및 통신에 관한 법》, 《방송법》 등 각종 파쑈적 악법들이 있다.

이와 같이 박 정희 도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위에 대하여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놓고 인민들에게 파쑈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

1962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남조선에서는 구속 령장에 의하여 검거된 건수가 무려 7만 2,812 건에 달하였으며 수 많은 애국적 민주 인사들이 무참하게 처형, 학살 당하였다.

작년 5월에도 박 정희 도당은 소위 《국가 반란 음모 사건》을 날조하여 《4월 혁명단》, 《4월 혁명 총련맹》 등 애국적 단체들의 간부들을 체포 투옥하였으며 그 후 괴뢰 국회 의원 선거 시에는 《외군 철수, 남북 협상, 평화 통일》을 주장한 사람들을 《승공 통일 국시 위반죄》로 체포 구금하였다.

그들은 6.3 봉기 시에 《친진보, 반보수(親進步, 反保守)》를 주장한 《민족 민주주의 장례식》까지도 반《정부》 음모라고 하면서 《내란죄》를 적용하였으며 애국의 일념에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청년 학생들의 시위 투쟁을 《란동》으로 몰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들씌우고 있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이 저들의 잔명을 부지하려는 파쑈적 광란에 불과하다.

남조선에는 그 어떤 공정한 법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무법과 전횡만이 지배하고 있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까지도 《종래에는 6 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무법과 불법이 첨가되여 8 법으로 되였다.》고 개탄하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신악은 또한 자배층의 부정, 부패 행위가 우심한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세상에 폭로된 바와 같이 남조선 괴뢰들은 《풍한 산업》의 김 모에게서 2억 환, 《4대 의옥 사건》을 통하여 2천만 딸라를 받아 먹었다. 또한 《삼분 폭리 사건》에서 69억 원, 《한 일 회담》의 흥정인 《대일 청구권》의 일부로서 1억 3천만 딸라, 어업 문제 흥정의 《선금》,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 자금 등으로 수억 원을 받아 먹었다.

남조선에서 날마다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대규모의 투기, 모리 행위와 함께 《세제 개혁》이니, 《특별 융자》니 하면서 지주, 예속 자본가들에 대하여 《특권》을 부여해 준 대'가로 박 정희 도당이 횡취한 금액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오늘 기아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남조선 천지를 뒤덮고 있으나 박 정희 도당은 사기, 뢰물, 기부금의 형식으로 인민들로부터 실로 막대한 돈과 재물을 략탈하고 있다.

박 정희가 개인, 명의로 저금한 것만 해도 《적게 잡아서 500만 딸라》이고 김 종필은 《그것의 2 배》이며 《최고 회의 의원》들이 은밀히 사취한 것이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스턴월드》)

박 정희 도당이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벌려 놓은 소위 《부정 축재자 처벌》 책동이 흐지부지되고 만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속담에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괴뢰 정권 상층들의 이와 같은 부정 축재 행위는 말단 관리들에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돈'벌이》의 하나로서 매관, 매직 행위를 례사로 감행하고 있는데 《군수》 한 자리에는 최소한 30만 원, 《서장》급은 20~30만 원, 《사무관》급은 10만~15만 원씩 받아 먹고 있다.

박 정희 무리들의 부정 행위 중 괴뢰 정부의 94 개 《중앙급 기관》들에서 빚어낸 것만도 《군사 정변》 이후 지난해 3월까지의 기간에 무려 7, 850여 건으로서 그 총액은 괴뢰 정부의 1963년 《예산》의 3 분의 1에 해당하는 250억 원에 달한다(《한국 일보》).

지금 남조선에서 괴뢰 중앙급 기관들의 관료들 뿐만 아니라 괴뢰 군대 내의 상층까지 사병들의 부식비와 군 보급 물자를 락취하는 사기, 절잡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이 박 정희 도당의 부정, 부패 행위에 대하여 《구악을 찜쪄먹는 신악》, 《박 정권 치하는 부정, 부패의 전성기》라고 야유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에서 신악은 또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 의한 경제의 극심한 파국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남조선의 군사 통치배들은 집권 초기부터 《자립적 경제 건설》이니, 《민생의 구출》이니 하는 허울 좋은 말들을 떠들어 댔다.

그러나 남조선의 경제 형편은 그 구호들이 공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집권한 이후 오늘까지의 기간에 남조선 경제는 더욱더 파국에로 굴러 떨어졌다.

지난 5월 3일에 있은 환률 인상 이후에만 해도 남조선 중요 기업은 원료난, 자금난, 판로난으로 하여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하여 공업 생산은 더욱더 저하되였다. 남조선 농촌 경리도 파괴 령락되였다. 오늘 남조선 농촌의 유일한 생산 도구는 낡은 호미와 낫, 보습에 불과하며 그것마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개 수리 시설이 한심한 형편에 처해 있음으로 하여 농민들은 해마다 자연 재해로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결과 남조선 공업, 농업 생산은 [illegible] 저하되였다. 남조선 공업 생산 수준은 [illegible] 비하여 8[illegible]%로 떨어졌으며 농업 생산은 3 분의 2로 줄어 들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실업자와 실량민

들의 수를 더욱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최근 남조선 출판물들이 《신악 밑에서 기아 선상에 헤매이는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혁명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민들의 생활은 날로 비참해갈 뿐이다》고 개탄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박 정희 도당은 또한 최근 일제와 결탁하여 일본 독점 자본까지도 끌어 들이고 있다.

군사 정권 하의 3 년 간에 일본 독점 자본은 《기술 제휴》, 《무역》, 《기술 협조》, 《보세 가공 무역》, 《직접 투자》 등 형식으로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다. 1963년 현재 남조선에 침투한 일본 독점 상사의 수는 73 개에 달하고 있다.

이 독점 상사들은 남조선에서 직접 간접으로 경제적 착취와 략탈을 감행함으로써 파국에 처한 남조선 경제를 더욱더 파멸의 길에 몰아 넣고 있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이 남조선 경제를 미 일 제국주의의 2중의 예속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남조선에서 신악의 다른 하나의 측면은 양풍과 왜풍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유구한 민족 문화와 미풍 량속이 여지없이 유린 말살되고 있는 것이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퇴페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계속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양풍과 왜풍을 끌어 들이는 것은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킴으로써 그들을 제국주의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의 부패한 문화를 끌어 들여 민족 문화를 말살한 죄과에 대하여 말할 때 남조선의 모든 력대 위정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도 박 정희 도당이 범한 죄행은 선행 위정자들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현재 남조선에는 외세에 대한 굴종과 인간 증오 사상을 고취하며 패륜 패덕과 색정주의를 례찬하는 미 일 제국주의의 문학 예술 작품들이 범람하고 있다.

남조선에 범람하고 있는 예술 작품들은 모두가 양풍과 왜풍으로 충만되고 있다. 그것은 주로 남녀 간의 추잡한 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백주에 복면을 하고 재물을 강탈하는 살인 강도들을 《용감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다.

부패한 미 일 제국주의의 반동 문화의 침습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극심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 있는 각종 범죄 행위, 세기말적인 패륜 패덕 행위 중에는 남조선의 반동적 문학 예술 작품들을 읽고 그 주인공을 모방한 행위들이 적지 않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살인, 깽, 절도, 사기, 협잡 등 일련의 범죄적 사건들이 증대되고 있다.

군사 정변이 일어 났던 1961년에 하루 평균 1,296 건에 해당하는 47만 3,522 건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1962년에는 72만 7,985 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1963년 9 개월 간에만도 56만 9,658 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범죄 건수의 증가와 함께 그 형태도 더욱 흉악해지고 있는바 친족 살해, 강도 살인, 치정(癡情) 살인 등 끔찍스러운 참극들이 날마다 신문 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또한 박 정희 도당은 수 많은 남조선 녀성들을 미제 침략군의 롱락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 동지

를 틀고 있는 미제 침략군의 《권태증을 풀어 준다》고 하면서 서울과 지방에 《워커힐》을 비롯한 각종 《유흥장》을 증설하여 놓고 9만여 명의 녀성들을 미군의 《위안부》로 만들었다.

우리 나라 조상 전래의 미풍 량속이 남조선에서처럼 여지 없이 유린 말살된 적은 일찌기 없었다. 바로 박 정희 도당이 《명랑한 사회》, 《청신한 기풍》으로 묘사하는 오늘날의 남조선 사회의 실태는 이러하다.

남조선에서 사회악이 전례 없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현 남조선 괴뢰 정권의 계급 구성과 관련된다.

박 정희를 비롯한 현 남조선 괴뢰 정권의 두목들은 거의 다 친미, 친일 파쑈 테로 분자들이며 미제가 체계적으로 길러 낸 특무들이다.

이러한 《관록》의 소유자들로 꾸려진 《제 3 공화국》, 《국회 의원》의 계급 구성을 보면 그 대부분이 예속 자본가, 지주, 관료배, 정상배들이며 기본 계급인 로동자, 농민의 대표는 한 명도 없다. 또 괴뢰 정부의 《관료》들의 계급 구성을 보아도 모두다 친미, 친일 분자들이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 정권이 존재하는 한 사회악이 더욱 증대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가 철폐되지 않는 한 그 누가 정권 기관에 들어 앉든지 간에 남조선 정권이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권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처지에도 개선이 있을 수 없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단행본, 103 폐지).

※ ※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 미제가 남아 있는 한 그 어떠한 괴뢰가 《정권》에 들어 앉든지 간에 사회악은 결코 제거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구악》을 무색케 하는 《신악》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따름이다.

남조선에서 온갖 사회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인민 정권의 수립이다.

력사는 진정한 인민 정권이 수립되였을 때 온갖 사회적 혼란과 민생고는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진정한 인민 정권 하의 공화국 북반부는 해방 직후에 이미 과거의 사회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전하게 발전하여 왔다. 오늘 북반부 인민들은 사회악에 대하여 과거 사회의 낡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도 북반부 인민들이 걸어 온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화근인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만이 실현될 수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이 숭고한 혁명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인종주의와 미국의 대내외 정책

엄 창 종

오늘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인종적 차별과 인종 격리 문제는 가장 날카로운 사회 계급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흑인들은 소위 《노예 해방 선언》이 선포된 지 100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인간 이하의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다. 미국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2천만의 미국 흑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혹심한 인종적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학살까지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종적 차별과 멸시는 결코 개별적인 인종주의자들이나 그들의 단체들에 의해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종주의는 미국의 대내외 정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형식적으로는 인종 차별을 철폐할 데 대한 각종 《법안》들이 조작되고 있고 흑인들의 《평등》과 《자유》에 대한 신화가 류포되고 있지만 이것은 미제의 반동적인 인종주의 정책을 엄폐하며 흑인들의 투쟁을 무마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

오늘 미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세계 반동의 지주일 뿐만 아니라 현대 인종주의의 아성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종주의는 국내에서 흑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타민족 즉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 인민들을 략탈하고 노예화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

1

인종주의는 인간들의 비본질적인 외부적 특성(피부색, 머리칼과 눈의 색갈 등)으로써 인간을 《고등》 인종과 《열등》 인종으로 구분하는 사회 생물학적 반동 사상이다.

여기로부터 인종주의는 인간들의 피부색이나 기타 생물학적 징표와 사회 문화적 발전에 따라 인간 집단을 《고등》 인종과 《하등》 인종으로 구분하여 놓고 한 인종은 다른 인종에 비하여 《고등》하기 때문에 지배자로 되여야 하며 그와 반대로 다른 인종은 《열등》하기 때문에 《고등》 인종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노예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여기에 이 《리론》이 지배 계급의 착취의 도구로, 식민지적 략탈과 침략의 사상적 무기로서 리용되는 바탕이 있으며 그 반동적 본질이 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종적 차이는 자연적인 외부적 현상으로서 인간의 사회 문화적 활동

능력의 발전에는 아무런 본질적 의의도 가지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종적 차이가 인종 차별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되게 된 것은 오직 계급의 출현, 계급적 지배의 형성과 관련되여 있는 것이다. 즉 인종 차별은 사회적 현상이며 계급 사회의 산물이다.

현대 인종주의는 이미 구라파 자본주의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침투하여 원주민들을 략탈하기 시작하던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 시기에 이르러 체계화되고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원주민들을 노예화하며 잔인한 략탈을 감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상적 공간으로 리용되였다.

인종주의는 벌써 국내적 범위를 벗어나 대외 침략의 사상적 무기로 되였다.

인종주의자들은 유색 인종에 대한 착취와 압박, 피지배 계급의 계급적 각성을 모호하게 하며 그들의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며 저들의 세계 제패를 위한 반동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인종주의를 리용하고 있다.

부르죠아 인종주의자들은 생물학적 성과를 외곡하고 인류는 같지 않는 자기의 선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선조에 따라 인류는 선천적으로 《우렬》의 차이를 가진다는 인류 기원의 《다원론》을 제창함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대외 침략과 략탈을 정당화하고 유색 인종의 지배를 합리화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19 세기 불란서의 외교가이며 현대 인종주의 창시자인 고비노는 자기의 저서 《인종의 불평등에 관한 경험》에서 다른 모든 인종에 비하여 아리아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아리아족만이 유일하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종이라고 설교하였고 영국의 사회학자 키트는 자기의 저서 《열대 지방에 대한 통치》에서 사회적 진보는 자연 도태의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생물학적으로 더 《완전》한 민족은 모든 면에서 《우월》하며 《불완전》한 민족은 그 《불완전》성 때문에 보다 《완전》한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당시 식민지 략탈의 선두에 서 있던 영국과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조작된 이 《인종론》은 아프리카에 대한 영국 식민지 략탈의 직접적 집행자였던 쎄실-로즈나, 중근동에 대한 불란서 식민지 정책의 집행자였던 쥴페리 등 부르죠아 정치가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을 위한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 되였다.

인종주의가 제국주의 대외 침략의 로골적인 사상적 무기로 리용된 것은 독일 파쑈즘의 대두 시기이다. 인종주의는 이때 벌써 제국주의 대외 침략의 무기로 체계화되였으며 파씨즘과 군국주의의 사상적 기초로 되였다.

독일 파씨즘의 사상적 대변자들은 파쑈 독일의 세계 제패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간 증오 사상으로 안받침된 파쑈적 인종론을 조작하였다. 인종론의 두목 히틀러는 소위 《위대한 민족의 창설》을 제창하고 《곤충과 같이 번식하는 수백만 열등 인종을 살륙할 권리를 가진 나에게 항거할 자 누구냐》고 웨치면서 수백만 인민들을 가장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한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저들의 지배를 확립하려고 망상하면서 동방 민족들 중에서 일본

민족은 《천손 민족》(天孫民族) 이니, 《야마도》(大和) 민족이니 하면서 일본 민족만이 《대동아 공영권》의 《맹주》로, 아세아의 《지도자》로 될 수 있다고 떠벌렸다.

그들의 인종주의 정책은 특히 조선 강점과 중국, 동남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전쟁 시기에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종주의 정책은 제 2 차 세계 대전시기 파쑈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의 패망과 더불어 분쇄되고 말았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인간 증오 사상으로 일관된 현대 인종주의는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국제 헌병이며 전 세계 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미 제국주의의 계급 지배와 침략 정책의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 리용되고 있다.

2

미국은 《제노 싸이드》(인종 섬멸)의 고향이다. 아메리카 대륙이 구라파인들에 의하여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곳 원주민들은 비교적 평온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이리떼처럼 밀려 든 서구라파 식민지 략탈자들은 황금 략탈과 치부욕에 눈이 뒤집혀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략탈하였으며 살륙하였다.

이러한 대량적 학살로 인하여 로동력의 부족을 느낀 식민지 략탈자들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네그로(흑인)들을 노예로 끌어 갔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흑인들의 수난의 력사와 류혈의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는데 흑인과 기타 유색인들의 이 류혈의 력사의 페지마다에는 《제노 싸이드》 정책과 극단한 인간 증오 사상이 안받침되여 있다.

여기에 바로 인종주의가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심각한 사회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리유가 있다.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 제도는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후에 이르러 더욱 로골화되였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였다. 오늘 인종 차별과 인종 격리 제도는 미국의 대내외 정책의 근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 인종 차별과 인종 격리 제도는 무엇보다도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치부욕을 충족시켜 주는 데 리용되며 그에 근원을 두고 있다.

독점 자본가들은 흑인 로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으로부터 막대한 《부가 리윤》을 짜 내고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전에는 북부, 동부에 집중되여 있던 대기업소들이 대전 후 미 련방 정부와 주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와 방조 밑에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와 남부에로 이동하였다. 이것이 값 눅은 흑인 로동력을 목표로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흑인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으로부터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년 40억 딸라에서 최고 300억 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부가 리윤》을 얻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또한 빈번히 반복되는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의 하나를 흑인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에서 찾으면서 그들을 영원히 산업 예비군으로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 자본가들은 임금 인상과 생활 향상을 위한 미국 백인

로동자들의 투쟁을 좌절시키는 데 흑인 로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과 상시적인 흑인 산업 예비군을 리용하고 있다.

미국 지배층과 미국 독점 자본가들이 인종주의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리유는 미국에서 날로 심각화되고 있고 계급적 모순을 인종적 관계로 엄폐하며 백인 로동자들과 흑인 로동자들 간의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려는 데 있다.

미국 전체 로동 계급 대렬 중에서 20%를 차지하는 흑인 로동자들은 전투적 부분을 이루고 있는 만큼 날로 강화되고 있는 백인 로동자들과 흑인 로동 계급 간의 전투적 단결은 독점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되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미국에서의 흑인 문제는 단순히 인종 멸시나 차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 흑인에 대한 미국 지배층들의 인종주의 정책은 인종적 차별과 계급적 압박 및 착취의 두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종 차별 제도를 반대하는 미국 흑인들의 투쟁은 인종적 평등, 해방, 자유를 위한 투쟁이며 동시에 미국 독점 자본의 계급적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흑인들은 미국 독점 자본가들이 실시하는 인종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및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비인간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

인종주의자들은 경제적 압력, 각종 법률적 제한, 테로, 《지혜의 검증》 등 이러저러한 수법을 통하여 선거권의 제한은 물론 흑인들에 대한 각종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

1946년에 테네씨, 알라바마, 죠지아, 루이지아나, 뉴욕 등지에서 흑인 제대 군인들이 린치를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였을 때 경찰들은 그들을 마구 쏘아 죽였으며 1947년에는 《3 케이단》이 또다시 발광적으로 날뛰기 시작하였다.

로젠버거 부부가 원자 폭탄 비밀을 루설했다는 《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이 시기였으며 흑인 해방 운동의 로투사였던 듀보이스 박사가 국제 평화 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죄》로 외국 《간첩》의 혐의를 받고 80 세의 고령으로 투옥된 것도 바로 이 때였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파쑈 테로 정책은 미제의 대외 침략 정책이 적극화됨에 따라 더한층 강화되였다.

1947～1952년까지 기간에도 흑인들에 대한 투탄 사건은 무려 68 건에 달하였는데 이는 년 평균 11 건 이상 있은 것으로 된다.

흑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 정책은 그들의 생활 처지와 취업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1962년에 출판된 《다른 하나의 미국》(이는 일명 《미국의 빈곤》이라고도 한다)의 저자 마이클 헤링톤은 흑인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사회적 처지에 대하여 그들은 《가장 먼저 해고 당하고 가장 늦게 고용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 가운데는 진실이 있다.

사실에 있어서 미국 로동 계급의 주요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는 흑인 로동자들은 《3 류급 공민》이라는 리유로 극도의 취업난에 헤매고 있으며 누구보다 먼저 해고 당하고 있다. 설사 《취업》하

는 경우에도 그들은 가장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흑인 로동자들은 고급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건축, 방직, 비행기, 인쇄 및 전력 공업 등 기술 부문에서의 취업을 금지 당하고 있으며 정무원으로의 취업도 거절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흑인들은 일상 사회 생활에서 인간 이하의 학대를 받고 있다.

미국 50 개 주 중에서 30 개 주에서는 법적으로 흑인과 백인과의 결혼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22 개 주에서는 흑인 아동은 백인 아동과 함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14 개 주에서는 기차를 함께 탈 수 없으며 19 개 주에서는 빼스나 기타 자동차도 함께 탈 수 없다는 것을 역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지방들에서는 흑인들이 극장, 영화관, 병원, 도서관, 려관, 식당, 리발관, 교회당 및 공원 등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백인들과 한 구역에서 살 수 없게 되여 있다.

미국 흑인들에 대한 극심한 인종 차별 정책은 교육 분야에서도 심하게 표현되고 있다. 모든 착취 계급이 다 그러한 것처럼 미국의 억만 장자들은 흑인들이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 한다. 그들은 흑인들이 무지 몽매한 상태에서 저들의 노예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을 원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흑인들의 취학을 방해하며 제한하고 있다.

결과 흑인들과 흑인 청년들의 취학률은 1,000 명에 1 명의 비례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종 차별 정책은 특히 초, 중등 학교에서의 흑인 아동들의 격리에서 로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례로 인종 차별이 가장 심한 남부 주들 중의 하나인 알라바마주에서는 흑인 학생 총수 28만 9,000 명 중에서 백인과 공학하는 흑인 아동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교육 분야에서의 이러한 극단한 인종 차별 정책의 결과 미국에 있는 문맹자 총수의 90%는 흑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흑인 아동들과 청년들의 대부분을 문맹자로 만들어 놓고는 흑인 로동자들의 로임이 백인 로동자에 비하여 낮은 리유를 미국 자본가들은 흑인 로동자들의 무기능, 미숙련 등에 빙자한다. 이것은 파렴치한 궤변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민주》, 《자유》, 《평등》에 대하여 떠들고 있으나 뒤에서는 《3 케이단》, 《죤 버취 협회》와 같은 인종주의 파쑈 테로 단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조종하여 흑인들에게 야수적인 폭행을 감행하고 있다. 《3 케이단》만도 전국에 500 개 이상의 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명칭 자체가 괴상한 인종주의 《전람회》라는 것을 공공연히 벌려 놓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가를 넉넉히 알 수 있다.

인종주의는 미국의 대내 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로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에서의 인종 차별 제도는 국외에서의 유색 인종에 대한 략탈과 살륙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인간 증오 사상인 인종주의를 고취하면서 앵글로-색슨족

은 문명의 담당자로, 세계 지배자로 되여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미국 인종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도처에 설치한 군사 기지에 파견되는 미군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우선 고취하는 것은 앵글로-쌕슨족의 《우월성》에 기초한 인종주의 감정과 인간 증오 사상이다.

조선 전쟁 시기에 미 제 8 군 사령관은 병사들에게 《설사 그대들 앞에 있는 것이 어린애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 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며 또 유엔 병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명령하였다. 여기에 바로 미국 식인종들의 인간 증오 사상과 그들의 인종주의적 야수성이 있다. 여기에는 또한 유색 인종에 대한 증오 사상과 함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를 증오하는 그들의 반공산주의 사상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에서 로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종주의 정책의 기저에는 신말사스주의가 안받침되여 있다.

《미 제국주의자와 그들의 고용 학자들은 전쟁과 략탈의 류혈적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지구 상 인구 과잉에 관한 학설을 류포시키며 대량적 인명 학살을 호소하며 원자 무기와 세균 무기를 찬양하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1954년 판, 270 폐지).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국의 대표적 말사스주의자의 한 사람인 존 로빈스가 《아세아인은 너무 많다》라는 자기 저서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유색인들에 대한 멸시감을 고취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아세아인들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공포에 떨고 있다. 즉 로빈스는 《평등》한 아세아인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의 과잉》으로 하여 《침략》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살륙하여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 정책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의 인종주의 정책은 또한 악명 높은 남아프리카 버워드 인종주의 당국과 남로데시아 인종주의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비호와 지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현대 인종주의의 두목이며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철두 철미 인종주의로 일관되여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3

미 제국주의의 대내외 정책에서의 인종주의는 그 반동성으로 하여 국내에서 흑인들을 포함한 진보적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로부터 철저한 규탄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인종적 차별 제도를 반대하는 흑인들의 투쟁은 오늘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 로동 계급의 전반적 투쟁에 합류되면서 전국적

규모에서 대중적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 미국 흑인들의 반인종주의 투쟁은 단순한 경제 투쟁이나 부분적 인종차별 반대 투쟁의 테두리를 벗어나 점차 인종주의 정책의 근원이며 그들의 불행의 화근인 미국 독점 자본과 그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면서 사회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날로 고조되고 있는 이 투쟁은 1955년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에서 있었던 차별 뻐스 반대 투쟁을 계기로 새로 앙양되기 시작하였다. 1955년의 차별 뻐스 반대 투쟁으로부터 1956년 알라바마 대학에서의 루씨양 사건, 1957년 어칸써주 리토르로크 고등 학교 사건, 1961년 프리덤 라이더스 운동, 1962년의 미시시피 대학 사건을 거쳐 1963년 비밍감 사건과 워싱톤 대행진에 이르기까지 흑인들의 투쟁은 거의 해마다 더욱더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이 투쟁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투쟁 규모의 확대와 함께 종전까지의 중요 투쟁 형태였던 항의, 앉아 버티기, 태업 등의 투쟁으로부터 점차 실력적, 실력 행동에로 이행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새로운 투쟁 형태에로의 이행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1963년 8월에 있은 20여만의 대군중이 참가한 워싱톤 대시위 행진 투쟁이다.

이것은 반인종주의 투쟁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볼 수 없는 대규모적이며 련대성을 시위한 투쟁이다.

이 대시위 투쟁은 평등한 권리를 목적하는 싸움의 시작이며 동시에 미국에서의 반인종주의 투쟁의 하나의 리정표로 된다. 즉 이 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조직되고 규모가 크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그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 온 5만여 명의 백인 로동자들이 참가함으로써 미국에서의 반인종주의 투쟁이 인종적 한계를 벗어나 계급적으로 단결하여 가고 있으며 흑인 근로자들과 백인 근로자들 간의 계급적 련대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워싱톤 대시위 투쟁은 그 후 흑인들의 반인종주의 해방 투쟁에 큰 고무적 힘을 주었고 그들의 투쟁을 점차 혁명적인 형태로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지난 7월 하순 태평양 루손섬(비률빈) 근방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항공 모함 《콘스텔레이슌》호에 고용된 흑인들과 백인들 간에 벌어진 투쟁이 보여 준 바와 같이 반인종주의 투쟁은 미국 침략군에 복무하는 흑인 군인들 속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미국 흑인들의 투쟁은 또한 지난 7월 25일에 뉴욕주의 로체스터시에서 있은 1,000여 명의 흑인들과 진보적 백인들의 투쟁을 비롯한 수다한 실례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점차 폭동적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흑인들의 강력한 진출에 질겁한 미국 지배층들은 이 투쟁을 교살하기 위하여 파쑈적 탄압과 함께 각종 회유 기만 술책에 매달리고 있다.

현대 인종주의의 두목인 미 제국주의자들은 흑인들의 상층을 매수함으로써 흑인들 속에서 독점 자본의 반동 정책

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흑인들의 반인종주의 투쟁을 말살하려고 날뛰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목적 밑에 흑인들의 《평등》과 《자유》를 《옹호》하는 각종 법령을 조작하고 있는데 1960년의 《신공민권법》과 1964년의 존슨의 《민권법안》은 그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기만, 회유 술책으로써도 각성된, 단호한 투쟁에 궐기한 미국 흑인들의 투쟁을 무마할 수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인종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은 미국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제가 발을 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더욱더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미제의 인종주의 정책이 그들의 대외 침략과 전쟁 정책의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와 밀접히 결부되여 있는 만큼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도 그들의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의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다.

오늘 이 지역 인민들의 강유력한 투쟁은 미국 인종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인종주의자들의 지반은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현대 인종주의의 두목인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강력한 진출은 미국 흑인들의 투쟁에 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편 미국 흑인들의 투쟁은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 대한 실제적 지지로 된다.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미제의 인종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 미국 흑인들의 편에 확고히 서 있다.

오직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단합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미국 인종주의자들은 지구상에서 매장되고야 말 것이며 인종주의자들의 기반 하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은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혁명 전통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

(《혁명 선렬들의 생애와 활동》(1)에 대하여)

《우리는 혁명 선렬들의 영웅적 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 하여 모두가 다 항일 빨찌산들이 백두 밀림에서 싸우던 그런 혁명 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 일 성).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직속 당 력사 연구소에서 편찬한 《혁명 선렬들의 생애와 활동》 제 1 집이 최근에 발간되였다.

이 책에는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에 참가하여 원쑤들과 견결히 싸우다가 조국 광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고귀한 일생을 혁명에 바친 리 권해, 리 학만, 허 송학, 손 원금, 박 록금, 허 형식, 신 광순, 리 계순 동지들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이 서술되여 있다.

혁명 선렬들의 일가 친척과 그 전우들이 쓴 이 글을 통하여 우리는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이였던 그들이 조국 존망의 시기에 분연 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간고한 반일 투쟁을 진행한 과정에서 열렬한 애국자로, 과학적 세계관을 소유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 투사로 성장한 자취를 력력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글들에서 혁명 선렬들의 전 생애에 일관된 혁명 정신과 불굴의 투지, 열렬한 조국애와 혁명 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혁명적 동지애와 원칙적 단결, 실천적 경험이 안받침되여 있는 인민적 사업 작풍과 혁명적 사업 방법 등의 생동한 모범을 감명 깊게 읽게 된다.

이 책은 혁명 선렬들의 고결한 혁명 정신과 고상한 품성의 비상한 감화력으로 하여 우리들을 철저한 계급 투쟁의 원칙과 혁명가적 기풍으로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뿌리를 깊이 인식하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보다 폭 넓고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우리는 우선 이 책을 읽으면서 선렬들의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백절 불굴의 투지의 생동한 모범을 본받게 된다.

선렬들은 항상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긍지로 하여 혁명의 승리를 믿고 어떤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투쟁 정신과 미래를 사랑하는 락천주의로 충만되여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항일 무장 투쟁은 력량 상 우세하며 간악하고도 야만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한 간고한 투쟁이였다.

당시 일제는 100만 《관동군》과 50여만의 위만군, 그리고 《지나 파견군》, 헌병, 경찰, 자위단 등 일체 무력을 동원하여 빨찌산 《토벌》에 광분하였다.

이런 강적과 국내외적으로 아무런 무장적 지원과 후방도 없이 놈들의 사면포위 속에서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투쟁한 선렬들의 고난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그들은 수백, 수천 차례의 전투, 끝 없는 밀림을 헤치며 설명을 넘나드는 행군,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수십 일씩 낟알 구경을 못 하는 모진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굴함 없이 확고한 승리의 신심으로 싸워 이겼다.

혁명 선렬들의 이와 같은 승리의 신심과 불요불굴의 투지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선렬들은 압박 받고 천대 받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서 변변히 배우지도 못 하고 투쟁의 길에 나섰으나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맑스-레닌주의를 부단히 학습하고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 실천에 그것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게 되였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그들은 사회 발전의 법칙에 따라 일제는 불가피하게 멸망하며 항일 무장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졌다.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무장한 그들은 물과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굳은 신조로 온갖 난관을 극복 타개하였으며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혀 들지 않는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 지조를 견지하였다.

두 눈을 다 잃고도 혁명 승리를 위하여 놈들의 박해와 밀정들이 우글거리는 속에서 《…굴종은 노예의 길이다. 투쟁만이 오직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굴함 없이 군중 선전 공작을 계속한 손 원금 동지, 놈들의 야만적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원쑤를 단죄하고 끝까지 공산주의자답게 싸운 리 권해, 박 록금, 리 계순 동지를 비롯한 모든 선렬들의 혁명 투쟁은 그들이 얼마나 승리의 신심과 불굴의 투지로 충만되여 있었는가를 잘 보여 준다.

그들은 참으로 비 오는 날, 눈보라 휘몰아치는 날을 가리지 않고 고난과 휴식을 모르며 불굴의 투지로 싸웠다.

선렬들의 생활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불굴의 투지로 하여 어떤 역경에서도 항상 혁명적 락천주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그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조국의 해방과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아나갈 미래를 무한히 사랑하였다. 때문에 자신은 비록 일제의 학대와 억압 속에서 자랐지만 후대들에게는 반드시 자유와 행복을 안겨 주려는 일념에 불타고 있었다.

허 형식 동지와 박 길송 동지가 해방된 조국 땅에서 앞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데 대한 포부를 나눈 이야기는 그들이 얼마나 혁명적 락관주의에 충만되여 있었던가를 잘 보여 준다.

이와 같이 그들은 혁명적 락천주의로 충만되여 있었기 때문에 밀림 속의 우등불'가에서나 인민들 속에서 미래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노래와 춤으로 쾌활하게 지내며 참다운 삶의 보람을 느꼈다.

선렬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혁명적 락천주의로 하여 혁명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편 단심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웠다.

혁명 선렬들은 가렬한 전투에서, 옥중에서, 놈들의 단두대에서 고결한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혁명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였다.

그들이 사형장에 강제로 끌려 온 군중들에게 원쑤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호소하고 높이 웨친 《혁명 승리 만세!》 소리는 놈들의 총성을 짓누르고 온 강산에 메아리쳤다.

우리는 이 책에서 혁명 선렬들의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과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당과 혁명 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모범을 또한 본받게 된다.

세상에서 공산주의자들처럼 조국 산천과 자기의 인민, 자기의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선렬들은 조국과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그를 해치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한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였으며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였다.

조국—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였다.

혁명 선렬들은 조국의 귀중한 모든 것을 무한히 사랑하였으며 특히 선조들이 남긴 애국 애족 사상을 본받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발전시켰다.

그들은 조국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풍부한 자연 부원, 언제 한 번 외래 침략자들에게 굴복해 본 적이 없는 선조들의 불멸의 기상과 혁명적 기백을 자랑하면서 조선 인민된 긍지 드높이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도 항상 조국의 운명을 우려하고 일제의 예속과 압박으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며 미래의 참된 번영을 이룩하려는 높은 리상을 가지고 있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원쑤에 대한 치솟는 복수심으로, 당과 혁명 조직이 주는 임무에 대한 충실성과 철저한 혁명성의 원천으로 되였다.

그들은 조국 강토를 강점하고 부모 형제를 억압 착취하는 일제를 극도로 증오하고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는 혁명적 기백으로 싸웠다.

혁명 선렬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원쑤를 무찌르고 조국의 해방을 달성하는 가장 정당한 길이라고 간주하였다. 때문에 그들은 혁명 임무 수행에서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았으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오직 투쟁 속에서 생의 보람을 느끼며 자기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을 더 없는 영예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혁명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힘과 정열을 다하였으며 지어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다.

혁명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메'돌을 껴 안고 몸과 마음이 그대로 복수의 불'길이 되여 적과 싸운 신 광순 동지, 앞못보는 몸으로 지팽이에 의지하면서도 놈들의 단두대에서 비통한 최후를 마치면서도 오직 인민들을 반일 투쟁에로 고무하기에 무한히 충실하였던 손 원금 동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국군과의 련합 작전 임무를 끝내 완수한 리 학만 동지의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리 학만 동지는 구국군—고 옥산 부대와의 련합 작전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그 후 대내의 종파 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련합 작전은 일시 중단되고 그들이 유격대를 적대시하게 된 조건에서 그가 고 옥산 부대와

의 공작을 계속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였다.

그러나 리 학만 동지는 오직 혁명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려는 일념으로 《혁명에 유익한 일이라면 나의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나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하면서 그 부대와의 재공작을 자진 맡아 나섰으며 끝내 련합 작전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혁명 선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김 일성 동지에 대한 충성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그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조직자이며 탁월한 수령이신 김 일성 동지에 대한 충성심은 곧 조선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는 확고 부동한 신념을 가지였다.

선렬들은 그이의 덕성을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사령관 동지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관철하고야 말았다.

뿐만 아니라 조선 혁명의 참모부—그이가 계신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 것을 가장 신성하고 고상한 의무로 생각하였다.

리 권해 동지와 같이 그이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 오면 서슴없이 자신의 몸으로 그를 막아 나서는 것이 그들의 품성이였다.

그들은 항상 혁명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렬한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거나 놈들에게 체포되여 사형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혁명 과업 수행 정형을 총화하였으며 다 하지 못 한 일은 전우들에게 넘겨 주면서까지라도 기어이 관철하고야 마는 철저한 혁명가적 기풍의 소유자들이였다.

우리는 이 책에서 선렬들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동한 모범을 배운다.

그들은 모두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로서 자원적으로 유격대에 입대하였던 만큼 동일한 계급적 처지, 공통된 투쟁 목적과 사상으로 하여 굳게 단결되였으며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결합되여 있였다. 또한 상급은 하급을 친혈육의 정으로 사랑하며 하급은 상급을 아끼고 존경하며 그의 지시에 복종하는 관병일치의 사상으로 하나의 단합된 가정을 이루고 있였다.

부상 당한 자신은 걸어 가면서도 대원들에게는 승마 행군을 시켰으며 전투시에는 고난과 위험을 자기 몸으로 막아 나선 리 학만 동지, 적들과의 가렬한 전투에서 부상 당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령병을 위기에서 구원하려고 그를 업고 탄우 속을 뚫고 나오다가 희생된 허 형식 동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선렬들이 대원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실례로 된다.

지휘관들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혁명 투사로 육성된 대원들은 지휘관을 존경하고 그의 명령, 지시 수행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으며 그를 위험 속에서 보위하는 것을 고상한 의리로 간주하였다.

선렬들은 동지 호상간에 남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기쁨과 슬픔으로 여기며 전투 공로는 모두 동지에게 미루고 어려운 일은 자신이 맡아 나서면서 생사 고락을 같이 하였다. 그들은 동지를 위하여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전우들을 적의 습격에서 구원하려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허 송학 동지,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오직 동지들의 간호에 밤낮을 이어 모든 정성을 다 바친 리 계순 동지, 옥중에서 동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한 일을 다 제

일어 나선 박 록금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에게서만이 볼 수 있는 품성으로 된다.

혁명 선렬들은 동지를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동지의 사소한 결함에 대하여도 결코 묵과하지 않고 그를 시정하여 주는 원칙적 립장을 견지하였다.

바로 이런 원칙성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동지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단추 구멍 한 개를 서툴게 손질한 것과 같은 잘못에 대하여서는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제때에 타일러 주었다.

그들은 하부에 대하여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더욱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부대의 참모장이였던 허 형식 동지는 대원들의 피로를 덜어 주기 위하여 몸소 문전초를 서다가 시간을 약간 초과한 데 대하여 대원들 앞에서 자기 비판을 하고 이튿날 다시 처벌 근무를 섰다.

우리는 이 책에서 선렬들의 인민적 사업 작풍과 혁명적 사업 방법, 고상한 인간성과 높은 문화성의 모범을 또한 본받게 된다.

혁명 선렬들은 오직 인민 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군중 관점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덕성을 본받아 그것을 생활과 투쟁에서 구현함으로써 인민들과 혼연 일체가 되였다. 선렬들의 이러한 혁명적 관점과 작풍은 그들이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에서 백전 백승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그들은 자신은 풍찬로숙하고 굶주리면서도 인민들에게는 옷감과 식량을 마련해 주었으며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희생적으로 보호하였다.

리 학만 동지는 1937년 6월 얼도린즈 전투시 이미 차지한 성이 적을 치기에 매우 유리하였으나 부근 인민들의 생명 재산에 피해가 미칠 것을 념려하여 그 성에서 나와 오히려 불리한 지형에서 적을 격멸하였다. 이렇듯 그들은 자신이 피 흘려 싸우는 목적이 결국 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정확한 관점에서 신중히 행동하였다.

혁명 선렬들은 인민들 속에 들어 가 일'손을 도와 주었으며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 불행과 고통으로 여기고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러한 불행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참다운 길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인민들에게 항상 겸손하고 례절 바르게 대하였으며 지방의 풍습을 존중히 여겼다. 그들은 인민 대중의 요구와 준비 정도에 알맞는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각종 대중 단체들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 세워 그들을 무장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선렬들은 《…우선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 가서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그 지방 인민들의 언어, 행동, 생활 풍습에 익숙해져야 하며 늙은이들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례절이 밝아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과 친부모 형제처럼 친숙해질 수 있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가르침을 명심하였다.

박 록금 동지는 지방 공작 임무를 맡고 그 지방 인민들의 언어, 례절, 풍습을 충분히 익힌 다음 《되놀이》, 《삼삼기》 등을 조직하여 부녀 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하였으며 나중에는 봉건 사상과 풍습에 물젖은 그 마을 로인들까지 반일 투쟁에 인입하였다.

선렬들은 인민적 사업 작풍과 혁명적 사업 방법으로 인민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극진한 사

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참으로 인민들은 항일 유격대원들을 존경하였으며 친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서 그의 모든 사업을 피로써 도와 나섰다.

그들은 조국의 광복과 자신의 행복을 오직 김 일성 동지께서 령도한 항일 무장 투쟁의 승리에 위탁하였다.

인민들은 일제의 악선전과 《집단 부락》의 설치, 5가작통에 의한 보갑제의 실시 등으로 외부와의 련계를 엄금 당한 조건에서도 항일 투사들의 눈과 귀가 되여 적정을 정찰하고 길 안내를 하였으며 식량과 의약품을 사 보냈으며 전투 시에는 포탄과 식사를 운반하였다.

단 하나 밖에 없는 솥을 이고 와서 《일제놈들과 싸우는 유격대원들에게 소용만 된다면 밥솥이 아니라 자기 몸이라도 내놓겠다》고한 명구 내풍동의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나 신 광순 동지를 아궁 안에 감추어 적들의 불의 습격에서 구원한 대전자 부근 산전막 로인에 대한 이야기 등은 인민들의 유격대에 대한 지지 성원을 웅변으로 말하여 준다.

혁명 선렬들은 원쑤에게는 치솟는 증오로 무자비하게 대하였으나 억압 받고 착취 당하는 인민들에게는 너그럽고 부드럽고 친근하게 대하였다. 혁명 선렬들은 인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실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참다운 인간성을 소유하였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적인 인간성은 대원들 호상간의 단결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을 항일 유격대의 주위에 결속하는 사업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였다.

당시 민족적 량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항일 유격대를 지지 성원한 것은 물론 항일 무장 투쟁의 목적과 사명이 정당한 데 있었지만 혁명 투사들의 공산주의자다운 인간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선렬들은 풍부한 인간성과 함께 높은 문화성도 소유하였다.

그들은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임무》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련일 계속되는 전투와 고난 속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 학습은 물론 맑스-레닌주의를 부단히 학습하였으며 이와 함께 조국의 력사, 지리, 문화 등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또한 혁명적 출판물에 글을 쓰고 가사를 지어 노래를 불렀으며 연극 대본을 만들어 직접 출연도 하였다. 이리 하여 높은 식견과 풍부한 상식을 소유하였으며 공산주의자다운 고상한 정서를 가지였다.

그 뿐 아니라 혁명가는 자신의 한 몸부터 제대로 거두어야 한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등 생활 문화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이 밖에도 이 책에서 우리는 혁명 선렬들이 원쑤와의 투쟁에서 보여 준 용감성과 대담성, 자력 갱생의 혁명 사상 그리고 주도 세밀한 지하 공작 방법 등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 혁명 정신과 고상한 품성을 수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조선 인민이 누리는 무한한 행복—바로 여기

에는 혁명 선렬들의 고결한 혁명 정신과 그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혁명 선렬들은 그렇게도 그리던 조국 광복의 날을 보지 못 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그들이 남긴 혁명 정신과 풍모는 오늘 우리들의 심장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으며 더욱 찬란히 꽃 피고 있다.

해방 후 조선 인민이 평화적 건설 시기,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과 오늘 근로자들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미풍들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바로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 하에 항일 무장 투쟁 시기 혁명 선렬들과 그 전우들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오늘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이 고귀한 혁명 전통을 더욱 체계적으로 폭 넓고 깊이 있게 연구하며 그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신성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혁명 선렬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무한히 충직한 당의 전사로, 철저한 혁명성과 고상한 동지애, 높은 인간성과 문화성을 겸비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자신을 부단히 수양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최 원근

근 로 자 제 22 호 (루계 260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11월 17일 발행 • 1964년 11월 20일

ㄱ—430685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3 호 12 월 5 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23 호 (261)
1964년 12월 (상)

(반 월 간)

차 례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는 데 힘을 집중하자

김 일성 동지는 지난 11월 7일 작가 예술인들을 접견하고 우리 혁명의 전망과 문학 예술의 현 상태로부터 혁명적 문예 작품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할 데 대한 력사적 교시를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금번 교시에서 우리 문학 예술의 혁명적 사명과 발전 방향, 그 중심 과업과 혁명적 작품 창작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리론 실천 상 문제들을 심오하게 천명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작가 예술인들을 새로운 창작적 앙양에로 불러 일으킬 강령적 교시로 된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의 본질과 그 의의를 심오하게 파악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하루 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혁명적 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문학 예술은 수상 동지의 1960년 11월 27일 교시를 받들고 천리마 현실의 반영과 현대성 구현에서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로동 계급과 천리마 기수의 전형 창조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문학 예술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도 과거에 가장 뒤떨어져 있던 영화 예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작년에만 하여도 예술 영화들이 《붉은 꽃》, 《정방공》, 《백일홍》, 《1211 고지의 방위자들》과 기록 영화 《공화국기치 만세》와 같은 성과작들이 나왔으며, 금년에도 또한 《인민 교원》, 《처녀 중대장》, 《대지의 아들》(3 부) 등과 같은 좋은 영화들이 창작되였다. 이것은 씨나리오 창작과 영화 예술 전반에서 거대한 전진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전문 예술 뿐만 아니라 군중 문화 예술도 급격히 발전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여 준다.

우리 문학 예술은 이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 예술의 현 상태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우리 혁명은 발전하는 문학 예술 앞에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혁명의 높은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문학 예술은 아직 조국 통일의 혁명 위업에 훌륭하게 기여할 수 있는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지 못 하고 있으며 남조선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돌리지 못 하고 있다.

오늘 우리 문학 예술 앞에는 이러한 부족점을 극복하고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할 데 대한 과업이 중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 위업과 우리 현실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인 동시에 국제적 규모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계급 투쟁과 세계 혁명 발전의 요구이며, 우리 사회주

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내'적 요구이기도 하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 앞에는 남반부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남반부 인민을 해방하며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완수할 혁명적 과업이 최대의 민족적 임무로 제기되고 있다.

남반부에서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 해방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총검으로 지탱되던 리 승만 괴뢰 정권도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영웅적 항거에 의하여 붕괴되고 말았다.

오늘도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미제와 박 정희 매국 도당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투쟁의 열매를 원쑤들에게 빼앗긴 4.19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찾고 자유와 해방을 전취하기 위하여, 북반부 인민들과 함께 살 통일되고 행복한 그 날을 위하여 더욱더 미제와 그 주구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우리는 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그들에게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계급적 각오를 높여 주며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 열정을 고무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불굴의 투사로 되게 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사업은 남북의 전체 인민들에게 부과된 공동적 임무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사회주의 지상 락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이 행복에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은 한 피'줄을 이어 받은 남반부의 2천만 동포들이 양키들의 압박과 착취 하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며 또 잊을 수도 없다.

우리 혁명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만으로 끝날 수 없다. 우리는 남반부 인민을 해방하고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완수하기 위해 계속 혁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반부 인민들은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면서 남반부 인민들과 함께 민족 해방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결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북반부 청년들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남반부 청년들과 힘을 합하여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북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을 혁명에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혁명적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과거에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 보지 못 하고 자라 난 새로운 세대들이 오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보위 초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정으로 하여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행복에만 도취하여 안일

하게 살면서 남반부 인민들과 우리의 혁명 위업은 잊어 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전체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청년들을 혁명가로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해야 할 필요성은 또한 우리의 혁명적 생활 자체의 요구이기도 하다.

창작의 모체는 생활이다. 예술은 응당 시대의 혁명적 생활을 반영해야 한다.

20 세기의 우리 나라 력사와 현실은 참으로 위대한 투쟁과 혁명적 랑만으로 충만되여 있다.

20 세기 전반기의 력사는 항일 무장 투쟁으로 빛나고 있고 그 후반기 력사는 미제를 력사 상 처음으로 타승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공훈으로 빛나고 있다.

우리 조선은 그야말로 두 사회 제도의 첨예한 대치점이고 세계적 모순의 축도이며 남조선은 혁명의 화산이고 우리 공화국은 천리마의 나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우리 생활과 우리 력사의 이러한 영웅적 특성과 혁명적 내용은 우리 문학 예술에 훌륭히 반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문학 예술의 혁명적 성격과 그의 고상한 사명도 또한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민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문학 예술은 참으로 강력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문학 예술이 사람들의 두뇌와 리성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심장과 감정에도 작용하며 심심풀이나 오락의 대상이 아니라 혁명에 복무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기 때문이다.

탁월한 혁명가들 중에는 혁명적 문예 작품을 통해 투쟁의 길에 들어 선 사람이 적지 않다.

이처럼 문학 예술은 혁명가를 키우는 강력한 교양 수단으로 된다.

여기에 또한 혁명적 문학 예술의 고상한 사명이 있다.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해야 할 필요성은 우리 혁명의 임무와 생활의 특성 및 문학 예술의 사명으로부터 강력히 제기된다.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 작품 창작이 혁명과 생활과 문학 발전의 절실한 요구로 된다는 것을 심장으로 통감하고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작품 창작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혁명적 작품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가로 키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다. 그것은 혁명 투쟁과 혁명가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혁명적 기백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이러한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혁명적 주제를 옳게 잡고 그 령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문학 예술 작품의 주제는 작가의 일정한 사상에 의하여 선택되고 평가되고 묘사된 생활 자료들을 통해서 제기된 작품의 기본 문제이다.

그러므로 주제는 우선 작품의 생활적

소재와 밀접히 련관된다.

우리 문학 예술의 혁명적 주제는 우리 인민의 해방과 독립과 통일을 위한 혁명 투쟁을 바로 자기의 생활적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민족적,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첨예한 계급 투쟁에 기초한 혁명 투쟁을 자기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 주제에 기초하여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해서 주제의 생활 령역을 옳게 파악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1930 년대 혁명 전통이 혁명적 주제의 생활 령역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지적함과 함께 혁명적 주제의 폭을 확대할 것을 말씀하면서 남반부 인민의 투쟁과 해방 후의 혁명 투쟁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특히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 문학 예술에서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는 혁명적 주제의 생활 령역의 하나는 남반부 인민의 혁명 투쟁과 남반부 혁명가들의 영웅적 생활이다.

남반부 인민들과 투사들은 원쑤들의 혹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웠으며 또 싸우고 있다. 투쟁하는 행정에는 우여곡절과 시변이 동반되게 마련이다. 어려운 난관과 역경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투쟁하지 않고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다. 승리의 영예는 오직 시련을 뚫고 용감히 싸우는 사람에게만 차례진다.

우리는 곤난과 역경 속에서 싸우는 남반부 인민의 투쟁을 묘사하고 혁명 투사들을 찬양해야 하며 그들을 혁명적 락관주의로 고무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4.19의 인민 봉기, 애국적 학생들의 6.3 운동, 10월 인민 항쟁, 려수 폭동 등 투쟁을 작품에 잘 묘사해야 한다. 인민 항쟁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인민의 투쟁 력사라는 관점에서서 그것을 심오하게 묘사해야 하며 혁명의 승리적 전망을 명확히 하면서 그 실패의 원인도 밝혀야 한다.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청년 학생들과 혁명적 인테리들의 투쟁도 작품에 중요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오늘의 남반부는 원쑤들의 폭압으로 말미암아 부정과 비극이 지배하는 생지옥으로 화하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남반부 현실을 묘사하면서 부정을 폭로하거나 비극적 정황을 묘사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자라 나는 혁명적 력량의 위대한 힘과 그들의 승리적 전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

혁명적 주제의 생활 바탕에서 가장 중요한 령역은 1930 년대의 항일 무장 투쟁과 그 시기의 혁명 투사들의 생활이다.

그것은 1930 년대의 투쟁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뿌리이며 공산주의 투사들이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혁명적 귀감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학 예술은 혁명 전통의 형상화에서 일정한 창조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아직 혁명적 대작 창작의 요구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1930 년대의 생활과 혁명

투사들을 형상화하는 데 항상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적 주제의 폭을 넓혀 해방 후의 혁명 투쟁을 형상화하는 데 또한 힘을 넣어야 한다.

해방 후 우리 인민들은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당과 인민 정권과 인민 무력을 건설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수행하였으며 3년간의 간고한 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폐허의 재'더미 우에서 오늘과 같이 사회주의를 훌륭하게 건설하여 놓았다.

특히 조국 해방 전쟁에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 중소 자산 계급 성분을 가진 사람 등 전체 인민이 거족적으로 참가하여 미증유의 애국주의와 영웅적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이것은 후손 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공훈이다.

해방 후 오늘까지의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첨예한 혁명 투쟁이며 이 혁명 투쟁에 헌신적으로 참가한 전사, 애국자들은 모두다 혁명가, 투사들이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혁명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자라 난 혁명가, 투사들의 대오는 해방 후의 혁명 투쟁 속에서 더욱 장성하고 확대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문학 예술은 해방 후의 혁명 투쟁과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영웅적 생활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혁명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 풍부화되였으며 또 혁명 투사들의 대렬이 얼마나 장성하고 확대되였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해방 후의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성장하고 단련된 전사, 애국자들을 혁명가, 투사로 묘사하고 그들의 업적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혁명가로서의 자부심과 영예감을 북돋아 줄 것이며 그 영예와 보람을 간직하고 혁명 위업에 계속 헌신하도록 할 것이며 후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해방 후의 혁명 투쟁을 묘사하는 것은 인민들의 심장에 혁명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안겨 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 예술인들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주제 분야에 창조적 관심을 돌려야 하며 특히 조국 해방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전사들과 후방 인민들을 형상화하는 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리 인민의 오늘의 투쟁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의 과거의 민족 해방 투쟁도 형상화해야 한다.

그것은 3.1 봉기나 광주 학생 운동과 같은 애국적 투쟁을 묘사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 투지를 안겨 주며 특히 남반부 인민 속에서 민족적 감정과 애국주의 정신을 계발할 수 있으며 이 투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력사주의적 견지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는 그 계급적 토대와 투쟁의 전망 및 계급적 각성의 필연성을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

끝으로 혁명적 주제에서 중요한 분야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고 열렬하게 고무하는 것이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애국적 운동을 고무하며 그들에게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하는 작품을 더욱 활발히 창작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혁명적 주제의 생활 령역은 대단히 넓다.

작가 예술인들은 이 모든 생활 령역을 주제로 하여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주제 방향 중 어느 한쪽에도 편중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인민 대중을 사회주의 제도의 생활력과 우월성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선두에서 전진하고 있는 로동 계급의 훌륭한 전형들을 창조하고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새롭게 전변되는 농촌 현실을 형상화해야 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 로선의 정당성과 지방 산업의 발전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 주는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이 주제의 작품도 조국 통일의 기백과 혁명적 열정으로 일관되여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주제로 한 작품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혁명의 전망을 명백히 안겨 주어야 한다.

보는 바와 같이 혁명적 작품 창작에서 그 주제의 령역을 옳게 파악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구체적 작품의 혁명성을 완전히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품의 주제란 생활적 소재나 작가의 주관적 의도 자체가 아니고 묘사된 생활 현상을 통해서 제기된 작품의 기본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제를 원만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상, 사건, 일화 등은 주제에 맞게 옳게 련결시키고 통일시키고 집중시켜야 한다.

작품의 사상은 묘사된 생활적 소재나 제시된 주제 자체와 기계적으로 통일될 수 없다.

생활적 소재가 좋고 주제가 옳게 설정된 경우에도 창작가의 사상적 준비가 제기한 문제를 해명할 만한 높이에 이르지 못 하거나 형상력이 부족하다면 작품의 사상을 심오하게 천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예술인들은 생활을 심오하게 탐구하여 주제를 옳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제를 형상을 통해 심오하게 해명하여야 한다.

혁명적 작품 창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창작적 과제는 혁명가, 투사의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이다. 혁명가, 투사들은 조국의 자유 독립과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민족적,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싸운 영웅적 투사들이다.

우리는 혁명가의 전형적 성격 속에 당해 시기 우리 인민들의 리상과 념원과 지향을 훌륭하게 체현시키면서 그들

시대와 계급과 민족의 대표자로 전형화하는 동시에 생동한 인간으로 개성화하여야 한다.

혁명가, 투사들의 성격의 주도적 특질은 혁명성, 영웅성이다. 따라서 혁명가, 투사의 성격화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는 바로 성격의 영웅성과 혁명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가의 영웅적 행동과 내면 세계를 구체적인 정황과 갈등과 계기를 통해 선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행동 묘사를 통해 영웅성을 천명하는 과정은 그대로 성격을 밝히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할 때에는 작품에 아무리 영웅적 행동이 잘 묘사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장을 사로잡을 수 없다. 그것은 거기에 성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웅적 행동을 외면적으로만 묘사하지 말고 성격의 내부적 론리에 기초하여 성격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혁명가, 투사의 생동한 성격을 창조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은 주인공의 행동과 내면 세계를 그에게만 고유한 행동 방식과 사고 방법, 심리적 특성으로 즉 해당 성격의 론리에 맞게 묘사하고 표현하여야 한다.

혁명가, 투사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그들 사상 성격적 장성 과정을 통해 형상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의 작품들 중에는 장성하는 인물이 그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 발전 과정이 선명하게 묘사되여 있지 못 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성격 발전의 결과만을 보여 주면서 그 발전 과정을 구체적인 계기를 통해 잘 그려 주지 못 하기 때문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여곡절로 차 있는 주인공의 생애와 그의 성격 발전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여 혁명가, 투사의 고상한 풍모와 정신적 특질을 아름답게 전형화하여야 한다.

혁명가, 투사의 영웅적 성격과 혁명적 락관주의를 잘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황과 갈등과 계기들을 첨예하게 설정하고 주인공의 극적 체험과 내면 세계를 심오하게 천명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문학 예술 앞에 혁명적 작품 창작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은 혁명적 대작을 창작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 번 교시에서 특히 혁명적 대작 창작을 강조하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가, 투사들의 전형과 그 성격 장성의 력사를 광활한 서사시적 화폭 속에 힘 있게 묘사하여야 한다. 혁명적 대작은 시대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폭 넓게 개괄하면서 시대의 흐름과 력사적 특성을 서사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시대를 시, 공간적으로 폭 넓게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주인공이나 각 계급과 계층의 대표자들을 등장시키고 성격 장성의 력사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즉 슈제트를 통해서 시대를 폭 넓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작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대의 각 계급과 계층의 대표자

들을 등장시켜 작품을 폭이 넓게 구성하여 시대와 력사적 사변의 진모를 보여 줄 수도 있고, 한 중심 주인공의 성격 발전과 그 장성의 력사를 년대기적으로 보여 줄 수도 있다. 이 년대기적 묘사가 시대에 대한 광활한 서사시적 일반화로 되기 위해서는 그 성격의 장성 과정이 당해 시기의 가장 본질적 사변들과 전형적 생활을 통하여 전형화되여야 한다.

만일 이렇게 묘사되지 못 한다면 그 주인공이 아무리 긴 생애를 통해 묘사되였다 하더라도 대작의 주인공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

혁명적 대작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가의 전형적 성격과 그 장성 과정을 시대의 거창한 흐름을 통해 훌륭히게 전형화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적 대작 창작에서 혁명가의 일생을 폭 넓게 묘사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혁명가란 어떻게 자라고 어떠한 길을 거쳐 혁명에 나서며 또 어떻게 싸우고 어떠한 우여곡절과 간난신고를 거쳐 승리하였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혁명할 의욕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가의 일생이란 간고하며 투쟁의 길에는 또한 우여곡절과 간난신고가 많다.

이 난관과 시련을 거쳐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혁명 투사의 생애와 운명을 통해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혁명가의 간고하면서도 영광에 찬 행로를 형상화함으로써 대중의 심장에 혁명의 씨앗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 줄 수 있는 전형적 사실들이 얼마든지 있다.

혁명가, 투사의 일생을 묘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혁명 투사들의 일생을 항일 투쟁 시기부터 오늘까지의 긴 과정을 통해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 혁명 투사들은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참으로 간고하면서도 보람 있는 길을 걸어 왔다.

혁명 투사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무장 투쟁을 하고 지하 투쟁도 진행하였으며 그들 중에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감옥 생활을 한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장기간의 감옥 생활을 하고도 해방을 맞이하여 새 조국에서 보람 있게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해방 후 당과 인민 정권을 건설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전쟁 시기에는 락동강까지 나갔다가 후퇴의 어려운 시련을 뚫고 승리하였고 오늘은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혁명가의 이 영광에 찬 긴 력사적 행로를 우여곡절과 시련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보여 준다면 얼마나 훌륭한 혁명적 귀감으로 될 것이며 사람들의 심장에 얼마나 강력하게 혁명적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는가!

또한 평범한 근로 인민의 아들이 당의 따뜻한 품'속에서 어떻게 자라 나고 조국 해방 전쟁에서 어떻게 영웅주의를 발휘하며 투사로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전선과 후방의 넓은 생활 화폭을 통해 보여 주는 대작도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방 전부터 간고한 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해방 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체포되여 감옥 생활도 하고 6.28에 해방되여 다시 투쟁하는 남반부 투사를 또한 묘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각이한 처지와 개성과 의식 정도를 가진 혁명가를 그의 일생과 성격 장성 과정을 통하여 다양하게 전형화할 수 있다.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인테리들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투쟁과 운명을 어느 한 력사적 발전 단계에서도 집중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1930 년대, 해방 후 민주 건설 시기,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복구 건설 시기,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된 이후 시기 등 각이한 력사 발전 계단마다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의 투쟁과 성격을 전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반부 인민의 투쟁과 혁명가들의 생활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해당된다.

10월 인민 항쟁의 주인공이나 4.19의 투사나 6.3 투쟁의 대표자들을 생동하게 성격화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며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예 작품들을 창작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가의 인생을 전기식으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전형화해야 하며 원형에 기초하는 경우에도 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 예술적 전형은 원형의 복사나 기록이 아니다.

원형이 실재한 인물이라면 전형은 예술가의 예술적 사색과 허구를 통해서 창조된 예술적 형상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원형에 구애되지 말고 혁명 투사들의 생동한 자료들을 마음 대로 취사 선택하여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

혁명적 대작 창작에서 장편 소설과 영화 예술은 특히 중요한 쟌르이다. 그것은 이 쟌르들이 대작을 창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릇들이며 또한 대중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편 소설과 영화 예술 분야에서 우선 새로운 혁명적 대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장편 소설이나 영화 뿐만 아니라 연극, 가극, 무용극 등 무대 예술 분야를 포함한 모든 문학 예술 분야에서 혁명적 대작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인민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에 궐기시킴에 있어서는 혁명 가요와 서정시와 전투적 미술 작품들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논다. 특히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과 혁명적 락관주의로 일관된 혁명 가요를 많이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 영화, 음악, 연극, 무용, 조형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혁명적 대작과 전투적 소형식의 작품들을 더욱 많이 창조하여야 한다.

각 예술 형태들과 쟌르들은 자기 분

야에서 혁명적 주제의 어떤 생활 령역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며 무엇에 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혁명적 작품과 혁명적 대작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문예 창작 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군중 자신이 자기의 생생한 투쟁 경험과 자료에 기초하여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조하도록 지도하고 고무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

혁명가, 투사의 훌륭한 전형을 성격화하며 혁명적 작품들과 혁명적 대작을 많이 창조하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적으로 동원되고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서의 사상적 준비를 갖추는 문제가 선결적 요구로 제기된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나라 혁명의 전망과 임무를 깊이 인식하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하여 김 일성 동지의 강령적 교시를 관철함으로써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당에 의하여 육성되고 단련된 붉은 작가 예술인으로서의 당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자.

혁명적 작품은 오직 혁명적 작가 예술인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 투사의 내면 세계를 체득하지 않고서는 투사의 고매한 정신과 성격을 형상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가, 투사로 되여야 하며 혁명가적 수양을 깊이 쌓아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가, 투사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해야 한다.

세계관은 그의 사상과 행동을 지도하며 그의 창작 방향과 작품의 사상적 질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당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하며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사상적 수양을 쌓기 위해 혁명 투사들과 로동 계급의 고매한 혁명 정신을 배워야 하며 조직 생활과 집단 생활을 충실히 하여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혁명가, 투사의 정신 세계를 체득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혁명가들의 생활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로동 계급을 비롯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 생활을 직접 체험하여야 한다.

생활에 대한 심오한 체험과 지식을 소유함으로써만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혁명적 작품과 혁명적 대작을 창작할 수 있다.

생활에서 혁명적인 것을 독자적으로 발견할 줄 모르거나 생활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사고와 시대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는 혁명적 대작을 도저히 창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의 정치적 식견을 부단히 높이고 사회와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완강

히 노력하여야 한다.

작품의 혁명적 내용은 그에 상응한 형식의 완벽성을 요구한다.

우리 문학 예술을 한 계단 높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적 기량과 형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아무리 내용이 혁명적이고 그것이 아무리 대작의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상성이 부족할 때에는 혁명적 대작으로 될 수 없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의 창작적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내외의 고전들과 자매 예술을 넓고 깊게 연구하여야 하며 부단한 탐구와 꾸준한 숙련을 통하여 예술적 기교를 련마하고 형상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 단체들과 문학 예술 기관들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 실행 방도를 집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앙양된 창조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적 작품 창작에로 조직 동원하며 혁명적 문학 예술 운동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가, 투사의 높은 자각과 보람을 간직하고 남반부 인민의 해방과 조선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모두다 혁명적 작품 창작에 힘을 집중하자!

체육을 전 군중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김 기 수

1

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재부로 되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 능력이다. 어떠한 물질적 부도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회의 풍부한 경제적, 문화적 재부들도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발달된 인간—대중에 의하여 창조되며 한 나라의 국력도 흥망 성쇠도 결국 그들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유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풍부한 물질적 부를 창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건전한 지'적 능력과 체력을 가진 조화롭게 발전된 인간으로 육성되여야 한다. 건전한 지'적 능력과 더불어 튼튼한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과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로동의 참된 기쁨을 체험할 수도 없으며 문화의 진정한 향유자로도 될 수 없다.

이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체육을 전 인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 발전의 본질적 요구로 되며 나라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된다.

우리 인민은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 훌륭한 경제를 건설하였고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 놓았다. 특히 7 개년 계획의 전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는 반석으로 다져지고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유족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오늘의 성과 속에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하나의 사상 의지로 단결된 인민의 높은 혁명 정신과 더불어 무쇠 같이 단련된 민족적 기질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이 또한 스며 있다.

우리 인민이 지나 온 투쟁의 길은 간고하였고 이미 넘어 온 고지들도 류례없이 험준하였지만 우리 앞에는 더욱 높은 고지들이 우뚝 솟아 있다. 보람찬 7 개년 계획의 정점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또다시 10대 과업의 고지를 넘어 서야 한다. 그리 하여 피땀으로 세워 놓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둥을 더욱 보강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더욱 실'속 있게 꾸리며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과업을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분별 없는 책동이 계속되는 조건 하에서 한 손에는 마치를, 다른 손

에는 총을 쥐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국의 현실은 우리들에게 계속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과업을 걸머지고 긴장된 투쟁의 길을 끝끝내 뚫고 나아가려면 참으로 전체 인민이 사상 의지, 면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적 능력으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히 단련된 체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체육 활동을 전 인민적, 군중적으로 발전시켜 모든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신체를 전면적으로 단련시키는 것은 조국의 현 정세와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또한 오늘 전체 인민이 체육 활동에 참가하는 높은 수준의 체육 문화는 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인민의 정신적 및 지'적 능력의 상태를 보여 주는 하나의 징표로도 된다. 특히 높은 체육 기술은 그 나라의 위신과 권위를 대외적으로 시위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당에 의하여 육성된 붉은 체육인들은 여러 차례의 국제 무대에 진출하여 공화국의 위신을 훌륭히 떨치였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일층 공고히 하였다. 우리 체육인들의 빛나는 성과들은 특히 싸우는 남조선 형제들과 재일 동포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도달한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이며 전반적 종목에 걸쳐서 국제적 수준에 도달해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체육 기술의 발전은 오직 전 인민적 체육 활동의 튼튼한 토대에서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군중 체육은 체육 기술을 해결하는 기본이며 근원으로 된다.

우리 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 발전의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에 또다시 체육 활동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할 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 보신 원대한 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

당은 체육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언제나 전체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며 그들의 신체를 무쇠 같이 단련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떠메고 나아갈 믿음직한 역군을 길러 내는 것을 첫째 가는 목적으로 삼아 왔다.

그러므로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우리의 체육이 몇몇 개인 선수를 만들어 내거나 낡은 사회에서처럼 소수자들의 유흥'거리로 되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조선의 체육은 참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건국 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로부터 우리 당 체육 정책의 기본은 전체 인민들 속에서 체육 활동을 대중화하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인민의 물질적 복리 증진과 문화 생활 향상을 항상 념려하는 우리 당 활동의 근본적 리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당의 이와 같은 체육 정책은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체육 사업이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의 중요한 부문으로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이 급속히 향상됨과 아울러 더욱 튼튼하고 조화된 몸으로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사는 풍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체육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사는 한 개 생활 방식이며 사람들의 문명성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과거 착취 계급들과 특히 일제의 억압 밑에서 빛을 잃고 살 때에는 이러한 문명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고된 로동에 시달리면서 신체의 기형적 발전과 쇠퇴를 면치 못 하였다.

당은 해방 후 인민적 체육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의 건강을 최대한으로 증진시켜 온 나라에 한 사람의 허약자도 없이 하며 전체 인민이 튼튼하게 전면적으로 발전된 몸으로 사회주의적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는데 최대의 관심과 배려를 돌려 왔다.

당은 이상과 같은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방 직후부터 체육 사업에 대한 유일적인 국가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지도 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며 각종 체육 시설을 복구 신설하는 데 많은 자금을 배당하면서 체육 사업의 발전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시켜 왔다.

2

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은 우리 나라의 각이한 생활 분야와 단위들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각급 학교들은 그 가장 중요한 초소로 되고 있다.

인구의 4 분의 1이 망라되여 있는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들은 매년 수십만의 학생들을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진출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체육 교육과 교양의 완성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분야에서의 체육 향상에 크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 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장래의 역군이다. 그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준비된 일'군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나라의 미래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의 전반적 체력을 향상시키며 혁명이 요구하는 준비된 인재를 길러 내는 데 있어서 학교 체육 사업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국 교육 일'군 열성자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과 기술을 실지 사업에서 써 먹기 위하여서는 육체가 튼튼해야 한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신체가 허약해서 만날 앓기만 하면 그가 국가를 위하여 아무런 유익한 일도 할 수 없을 것은 뻔한 사실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 교육의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당은 처음부터 학교 체육 사업에 중요한 관심을 돌려 왔다. 청소년들의 년령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적 대책을 강구하며 전문적으로 양성된 많은 체육 교원들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며 체육 교육과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키고 학생들의 육체적 발육과 지'적 발전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과학 사상성을 높이는 등 학교 체육 사업의 발전에 기울인 당의 노력은 실로 막대하다.

그리 하여 우리 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날로 개화 발전하는 학교 체육 사업에서 여실히 증시되고 있다.

이 부문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은 무엇인가.

우선 체육 사업을 부차시하던 오랜 관습을 타파하고 그것은 학교 교육과 학생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옳은 관점이 확립된 사실이다. 각급 학교들에서 체육 사업을 학교 교육과 교양의 불가분의 측면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북청 성남 중학교를 비롯해서 천리마 북청 고등 원예 전문 학교, 정주 동문 중학교, 재령 중학교들은 이에 대한 모범적인 실례로 된다.

특히 북청 성남 중학교 교원 집단은 학생들을 지덕체가 겸비한 훌륭한 역군으로 육성할 데 대한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는 데서 높은 창발성과 독창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체육 사업이 전체 교원 집단과 학생들의 의무적인 일과로 되여 주 1회씩 하는 《체육의 날》만 하더라도 지난 11월 15일까지 200 차나 운영되였다.

이렇게 체육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많은 학교들에서는 전체 교원이 체육 수업을 자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오르고 있다.

그리 하여 체육 교육과 교양은 학생들의 높은 지'적 발전을 보장하며 규률 있고 질서 정연한 생활 기풍을 확립하며 집단주의 정신과 자립적 활동성을 높이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길러 내고 있다.

학교 체육 사업에서 구현되고 있는 인민적 체육 정책의 생활력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성과는 체육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 속에서 자력 갱생의 훌륭한 기질이 배양되고 있는 사실이다.

천리마 북청 고등 원예 전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체로 각종 교편물과 체육 기자재를 제작하였으며 북청 고등 경공업 학교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써 온 력학적 원리를 도입하여 칠 포박으로 보기 좋고 견고한 체육 기재를 갖추어 놓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학교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회적 과업이라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게 전면적으로 준비된 일'군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우리의 학교들은 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한 믿음직한 기지로 되고 있다.

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또한 생산 직장, 사무 기관, 농어촌들도 중요한 대상으로 되여 왔다.

군중 체육 사업은 그것을 생산 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일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그들의 육체적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그들이 더 많이 문화 생활의 혜택을 받게 하며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테로부터 당은 모든 근로자들의 년령, 성별, 체질과 취미, 직종에 맞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특히 근로자들을 위한 광범한 휴양 조직을 비롯해서 그들이 작업 과정에서 신체에 받는 영향을 바로 잡고 육체적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생산 체조와 인민 체력 검정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려 왔다.

또한 모든 직장들에서 다양한 체육 경기들과 생산 경기들을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특기와 소질을 발양하게 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 기록을 달성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리하여 오늘 로동 직장들에서의 체육은 생산과 밀접히 결부되면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국의 공장과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는 작업 조건과 생산 특성에 알맞는 체육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근로자들은 작업 전후와 휴식 시간을 리용하여 다양한 체육 경기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많은 직장들에서 종전에 사회 보장을 받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경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되였으며 질환으로 인한 결근자들의 수는 감소되고 생산은 매월 높아 가고 있다.

특히 북청 방사 공장과 식료 공장을 비롯해서 일부 녀성 종업원들이 많은 생산 직장들에서 예술 체조를 광범히 보급하고 매일 아침 예술 체조로 보건 체조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군중 체육의 높은 발전 수준을 보여 주는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는 또한 치료 체육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찬물 마찰, 건포 마찰, 찬물 맞기, 일광욕, 아령 등 직종과 생활 조건에 알맞는 각종 치료 체육이 보급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청군에서만도 300여 명이 치료 체육을 통하여 종전의 질환을 고치고 건강한 몸으로 생산 활동에 참가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광범한 대중적 체육 활동은 집단 체조의 발전에서도 잘 증시되고 있다. 청소년 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체육 활동이 활발해지고 체육 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데 토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단 체조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최근 년간에 중앙과 도, 시, 군들에서 창작 출연한 집단 체조들은 우리 나라 체육 문화의 높은 발전 수준과 체육을 통하여 조화적으로 단련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조직성, 규률성, 집단주의의 높은 기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집단 체조의 발전에 있어서 1958년 말에 김 일성 동지께서 사상적으로도 좋고 예술적으로도 좋고 체육적으로도 좋으며 출연하는 청소년들에게나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교양적 의의가 큰 집단 체조를 광범히 발전시키라고 하신 교시는 큰 의의를 갖는다. 이 교시가 있은 후 1959년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1961년에 《로동당 시대》와 같은 훌륭한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특히 《로동당 시대》의 창작과 출연은 우리 나라 집단 체조의 체계를 확립하고 그 지도 일'군을 집단적으로 대량 육성하는 데 거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그 후 집단 체조 발전의 토대로 되였다. 이 작품의 체계와 수법과 창작 경험을 토대로 1963년 혜산시에서 창작 출연한 《로동당의 기'발 따라》는 배경대 형상에서 또다시 새로운 체계와 수법을 개척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 집단 체조는 기본

운동장에서 출연하는 부분과 배경대의 출연에서 세계적으로도 집단 체조의 새 경지를 열어 놓았다.

그 후 1963년의 《천리마 조선》, 금년 강계시에서 출연한 《독로강반의 새 노래》, 신의주에서 출연한 《압록강반의 새 노래》, 평양시에서 출연한 《천리마 조선》 등의 작품들은 그 사상 예술성에서 뿐만 아니라 체조적 구상의 대담성과 높은 기교에서, 배경대 형상에서 다 국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걸작으로 된다.

중앙과 도들에서 이루어진 풍부한 경험을 기초로 오늘에 와서는 북청군, 염주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 수천 명씩 참가하는 집단 체조를 창작 출연하고 있다. 금년에 북청군에서는 1만 2,000 명이 참가한 《황금의 북청'벌》을 성과적으로 출연하였다. 특히 북청 고등 경공업 학교에서 전교생이 출연한 봉화 집단 체조는 그 형식의 독창성과 대담한 창조적 발기로 하여 매우 경험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집단 체조는 비단 평지에서 뿐만 아니라 바다, 얼음, 눈 우에서 출연하는 형식도 발전하고 있다. 1962년 장진에서 3,000 명이 참가한 스키 마스겜, 함주군에서 3,000 명이 참가한 스케트 마스겜, 1962년 신포에서 3,000 명이 참가한 해상 마스겜을 비롯해서 그 후 이러한 형식은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체육의 이와 같은 대중적 발전은 우리 나라 체육 기술 발전의 믿음직한 로대로 되였으며 후비 선수 양성의 풍부한 원천으로, 저수지로 되였다.

몇해 전까지만 하여도 로동자, 농민, 학생, 군인이였던 사람들이 오늘은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공훈 체육인으로, 체육 명수로 국제 기록을 돌파하고 세인을 놀라게 한 사실들은 수다하다. 해방 전에는 체육이란 알지도 못 했던 사람들이 오늘 중앙급 경기에까지 출전하여 사람들의 격찬을 불러 일으킨 사실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체육에 대한 대중의 열의가 높아지고 관심이 커진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 속에서 최근 년간 우리 나라 선수단들의 기술 수준도 많이 발전하였고 선수 대렬도 급속히 확장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붉은 체육인들은 최근 년간에 수다한 종목에 걸쳐서 명수 기록과 공화국 기록을 연신 갱신하였고 여러 종목의 세계 기록을 거듭 갱신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우리 붉은 체육인들은 제1차 가네포와 여러 차례에 걸치는 국제 경기들에 출전하여 민족의 슬기를 떨치고 공화국의 영예를 대외적으로 더욱 빛내였는바 이는 모두가 우리 당 체육 정책의 생활력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당의 체육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물론 자랑스러운 것이다. 해방 후 거의 아무런 로대도 못 가졌던 락후한 상태에서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 놓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는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기울인 많은 노력이 깃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우리 혁명 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사회

주의 현실이 요구하는 응당한 수준에서 보나 우리의 체육 사업은 결코 다 만족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적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체육이 여전히 생활화되고 있지 못 하며 적지 않은 녀성들과 년장자들이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체육 사업을 행사식으로 혹은 선수 본위로만 진행하는 현상도 없지 않다.

우리 당의 인민적 체육 정책의 본질은 어데까지나 전체 인민을 체육 활동에 참가시키고 모든 곳에서 그것을 정상화함으로써 온 나라에 한 사람의 허약자도 없이 하자는 데 있다. 만약 일'군들이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 한다면 기관, 기업소들에서 로동 특성으로 생길 수 있는 허약자들이나 병약자들을 없애지 못할 것이며 단조롭고 불규칙적인 생활 습성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지도 못 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안목을 더욱 넓혀서 우리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민적 체육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체육에 대한 모든 지도 일'군들의 태도와 관점을 옳게 세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일'군들 모두가 체육에 대한 철저한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혹 경우에 사람들은 체육이라고 하면 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흥'거리로 하던 것 만큼 밖에 더 생각지 못 하는 일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체육을 그 어떤 한가한 때나 하는 일로,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특별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데로부터 체육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거나 로동이 체육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까지 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지도 일'군이 이런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산 기업소들에서 직업적 조건으로 생길 수 있는 허약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되는 2~3 분 정도의 업간 운동을 조직해 주거나 아침 간단한 보건 체조와 달리기를 진행하는 것조차 정상화하기 곤난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사람들의 사업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사상 의식과 함께 몸이 건전해야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그러므로 건강에 대한 배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서 가장 큰 배려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사업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책임성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 일'군들이 몇 마디의 말로써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휴식과 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주는 데 있다. 특히 사회가 전진함에 따라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여 생산이 전문화, 기계화되고 사람들이 한 가지 직종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자연히 상당한 동작의 운동이 필요하게 된다. 단조로운 동작의 반복은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전에 지장을 준다.

그러므로 체육은 발전된 사회의 문명의 요구로서, 그것을 옳게 조직해 주고 정상화하여 일상 생활의 관습으로 전환

시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크나 큰 배려의 표시로 된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일제 식민지 생활 처지를 겪었기 때문에 체육이 사람들의 생활 상 관습으로 되여 있지 못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사람들의 락후한 관습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솔선 모범을 보이고 대중을 체육 활동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인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녀성들과 년장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 하여 기관,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체육 시설을 완비하고 누구나 다 체육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하며 달리기, 강행군, 장애물 돌파 등 사람들을 곤난·극복에로 단련시키는 다종다양한 종목을 선정하고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체육 핵심을 육성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망라시키며 매일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체육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체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일상시에는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경기를 앞두고 깜빠니야식으로 내밀거나 사람들을 무원칙하게 생산에서 유리시켜 승부 본위로 하거나 몇몇 선수 본위로 하는 체육 사업은 인민적 체육 정책을 옳게 실현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의 건강에 리익을 주지 못하며 생산에도 지장을 준다. 우리의 체육은 어데까지나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복종되여야 하며 생산 활동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생활 문화와 결부되여야 한다.

인민적 체육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에 아직 남아 있는 결함들도 퇴치되여야 한다.

아직도 적지 않은 학교들에서 체육 교수를 정확히 진행하지 않으며 그 과학 사상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교수가 학생들의 년령적, 심리적, 교정 별 특성과 육체 발육 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학적 원칙에서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외 체육 활동에서의 산만성도 완전히 시정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체육 교육을 일부 전문 교원들에게만 맡기고 전 학교적인 사업으로 추진시키지 못 하는 데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다. 학교 체육 사업이 전교적인 계획으로, 전체 교원 집단의 일치한 관심사로 되지 못 할 때 과외 시간에 잡다한 회의들이 조직되는 현상이 생기며 학생들에게 과외 체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더우기 몇몇 체육 교원의 노력만으로 체육 교육을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

학교 체육 교육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학교들에서 체육 사업이 전 교원 집단의 일치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전국의 중학교들은 북청 성남 중학교 수준에, 기술 학교 이상은 천리마 북청 고등 원예 전문 학교 수준에 도달하며 북청 학교들에서 달성한 훌륭한 성과들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학교들에서 주 1 회 정도의 《체육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과외

체육을 달리기, 높이 뛰기, 넓이 뛰기, 체조를 비롯하여 인민 체력 검정 종목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험은 중학교에서는 과외 종합 체육을 매일 한 시간 정도로 하며 기술 학교와 대학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30 분씩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과외 종합 체육은 청소년 학생들의 특성과 학교 시설을 참작하여 흥미 진진하게 종목과 절차를 선정하고 교원들의 지도 하에 학생들의 자립적 활동으로 전개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체육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모든 교원들이 체육 수업을 자립적으로 담당 진행할 수 있게 하며 교장을 비롯한 전체 교원 집단이 체육 사업을 틀어 쥐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체육 교육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보다 완성된 체육 교수 요강과 그 진행을 방조하기 위한 완성된 참고서가 시급히 제시되여야 하며 실제로 지덕체의 결합을 실현할 수 있게 과정안들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민적 체육 정책의 관철을 위해서 다음으로 제기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보급되고 있는 치료 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화하는 문제이다.

치료 체육은 병 치료에서 소극적인 안정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의료 일'군들은 환자에게는 약만 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릇 인식하면서 약물 치료와 치료 체육을 적절히 배합할 데 대한 문제를 크게 생각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치료 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병원과 진료소들에 치료 체육실을 꾸리고 치료 체육 방법을 광범한 군중 속에 보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인민을 체육 활동에 참가시킬 데 대한 당의 구상은 원대하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문의 열성만으로써는 안 되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사회 단체들이 자기 부문을 실제로 책임 지고 사업을 조직하며 지도 일'군들이 그 앞장에 서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 하여 전반적 체육 종목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누구나 다 한 종목 이상 체육 활동에 관습되여 문명한 생활을 하게 하며 전면적으로 단련된 육체의 소유자로서 지덕체를 겸비한 일'군으로 되게 하자.

남조선의 사회상과 실존주의 철학

리 주 석

오늘 남조선에는 부르죠아 반동 철학 조류의 하나인 실존주의 철학이 널리 퍼져 해독적 작용을 놀고 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죽음의 철학》으로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질겁하여 공포와 절망, 비관에 빠져 있는 현대 부르죠아들, 멸망하여 가는 자들의 기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 철학은 앞날의 희망, 사회 생활과 사회 개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대중을 리탈시키며 로동 계급의 계급성, 계급 투쟁을 말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맑스주의적인 철학 조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실존주의 철학은 정치 경제적 위기와 혼란이 심각화되고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이 강한 나라들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이 남조선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남조선은 근 20 년 간에 걸치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매국 통치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대중적인 빈궁과 기아가 만성화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적 위기는 맑스-레닌주의와 그것이 산 현실로 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에 고무된 인민들의 강력한 혁명적 진출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로 말미암아 미제와 그 주구들은 《앞에는 함정, 뒤에는 절벽, 서 있는 지점은 무너져 가는》 궁지에 빠지고 있다.

더욱 헤여 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빠져 절망과 공포, 불안 속에서 갈피를 찾지 못 하게 된 남조선 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앙양되는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인민들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며 계급 의식을 말살함으로써 자기들의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 밑에 그들은 실존주의 철학을 류포시키는 데 적극 매달리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통치를 변호하는 중요한 사상 리론적 무기로,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 《반공》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실존주의 철학의 반동적 본질을 철저히 폭로 비판하는 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반동적인 사상, 문화 정책의 진의도를 드러내며 남조선 인민들의 계급적 의식을 더욱 제고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이 사회 계급적 관계와는 상관 없이 오직 고독하게 존재한다고 보면서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 체험 등 정신적 《존재를》 고찰하는 주관 관념론 철학의 변종이다.

이 리론의 제창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와는 관계 없이 고독하게 존재하면서 현재만을 가지고 죽음에로 가는 로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인간 존재》 상태이며 《실존》이다.

실존주의자들에 의하면 《실존》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바라며 스스로 만드는 《자각적 존재》요, 고독하게 의식하는 《인간 존재》이다.

그들은 이러한 주관적인 《실존》의 개념이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인간 이외의 돌과 나무, 짐승 등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죽음을 의식하지 못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실존》의 중요한 징표는 개별적인 고독한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기분, 체험 등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언명한다.

이 신비로운 감정이나 기분의 체현자인 《실존》은 객관적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자아》에게 의식되고 지각되는 이외의 객관적 존재의 인식을 부정하며 《자아》가 없이는 객관적 존재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관주의와 비합리주의를 설교한다.

실존주의자들은 이러한 리론으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

《실존》은 공포, 절망 상태에 있고 죽음과 무(無)의 심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인간 존재 상태》를 그들은 마치 전 인류의 보편적인 사실처럼 묘사하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의 이러한 리론은 완전히 꾸며 낸 것이며 황당무계한 것이다.

현실에서 생활하는 구체적인 인간은 사회와 떨어져서 살 수 없으며 어느 한 계급이나 사회 관계를 떠난 그 어떤 고립된 《인간 존재》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이란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

사회 관계 속에 있는 구체적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사랑하며 보람찬 새 생활을 지향하여, 현존 사회의 불합리성을 개혁하기 위하여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간다. 그들은 자기의 실천적 활동을 거쳐 미지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인식하며 그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의식적 활동을 전개한다.

객관적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결국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실존》이란 것은 객관적 세계와 사회에서 고립된 고독한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바라는 《존재》이며 일정한 기분(氣分)과 감정을 가지고 《자각》하는 주관적인 정신적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죽음, 절망, 공포, 불안 속에서 허덕이는 《인간 존재 상태》란 실존

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인형》에다 접에 질린 양키들과 그 주구들의 사상 감정을 불어 넣은 죽어 가는 부르죠아지의 화신에 불과하다.

이런 날조된 실존주의 철학이 남조선에 조성된 사회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변호하며 그 반동성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 보자.

* *

남조선에 퍼지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의 반동성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죽음》을 찬양하면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주입시키는 데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에 의하면 불안과 죽음, 절망이 인간의 《근본 존재 상태》인 만큼 보다 훌륭한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인민들의 지향과 투쟁이란 무의미한 것이며 인간은 어차피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삶에 대한 리상도, 가치도 생각한 바가 못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을 완전히 외곡한 것이다. 새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지향과 리상은 그들의 계급적 처지와 사회 제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제기된다.

압박 받고 착취 당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 대중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 제도를 희망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또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학정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공화국 북반부를 래일의 희망으로, 등대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며 미래가 있으며 지향이 있다.

또한 공화국 북반부에서와 같이 이미 착취와 억압이 완전히 청산되고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무러한 근심 걱정 없이 보다 높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것을 하나하나 앞당겨 나가고 있다.

오직 사람들의 등'살에 붙어 살면서 인민들의 고혈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만이 미래에 대한 벅찬 희망과 리상을 가질 수 없다. 그들 앞에는 항상 자기 재산을 잃을 것 같은 불안,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로 언제 운명이 결정될지 모르는 공포, 래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매개 사람들과 계급의 희망과 지향, 리상은 그가 속한 계급과 사회 제도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근본 존재 상태》를 그가 속한 계급적 처지와 사회 제도의 성격에는 관계 없다는듯이 설교하면서 죽음을 찬미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이른바 허무의 《초월》이니, 죽음에 대한 《대결》이니, 불합리에 대한 《반항》이니 하면서 죽음과 《대결》하는 것은 《죽음을 외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본질을 찾아 죽음의 참뜻을 아는 데》 있으며 이 《대결》은 행동으로써 나타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떠벌리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의 론리 대로 한다면 남조선 인민들은 자신들을 기아와 빈궁 속에 몰아 넣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착취와 압박, 살인, 방화, 략탈 만행을 감행한다 하여도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은 결국 실존주의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대결》이니, 《반항》이니 하는 것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만행을 합리화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영원히 얽매여 두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의 반동성은 종교적 신앙에 대한 설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의 리론에 의하면 《유한한》 인간이 죽음, 공포,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것은 《무한자》인 신으로부터 유리된 데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 나자면 《무한자》인 신과 교십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세에서의 고통은 래세에서의 행복이 된다고 로골적으로 설교하는 신앙주의보다 더 세련된 종교 리론이며 죽어 가는 부르죠아 사상의 척도로 재단한 신앙주의의 현대판이다.

실존주의자들이 이렇게 《실존》과 신앙주의를 《교십》케 하는 것은 그들의 리론이 응당 도달하게 되는 귀결점이다.

그것은, 실존이 자기 주관에 의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정신적 추상물이라면 종교는 객관 세계와 사회 현상을 외곡하여 반영한 정신적 추상물로서 같은 속물이 《결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 간에 다소라도 차이가 있다면 《실존》은 주관에 의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종교는 그 어떤 정신적 추상물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낸다는 데 있을 뿐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실존주의의 신봉자들이 신앙주의와 중세기적 몽매주의에 대한 설교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로후한 지배 계급은 정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 불안과 파국 상태가 증대될수록 신앙주의와 중세기적 몽매주의에 매달리는 법이다.

남조선에서 실존주의자들이 중세기적 몽매주의와 신앙주의 선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 나기 위한 최후적인 발악을 리론적으로 안받침해 보려는 데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략탈에 의하여 신음하는 인민들의 이목을 무권리와 빈궁을 강요하는 현실로부터 먼 데로 돌리려는 데 있다.

실존주의 철학은 상술한 모든 날조된 론의와 함께 《현대의 위기론》으로써 혼란과 위기, 파국 상태에 있는 남조선 사회상을 합리화해 보려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시대는 세계적인 규모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이며 세계적 무대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타승하는 력사적 전환기이다.

현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운운하는 것은 오직 현대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멸망의 위기, 식민지 체계의 종국적인 파산의 위기,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통치의 전면적인 붕괴의 위기를 현대의 전 사회적 현상인듯이 가장해 보려는 데 있을 뿐이다.

남조선에서 실존주의자들은 그 어떤 《집단의 힘》, 《집단의 의사》와 《무질서》, 《혼돈》에 의하여 《인간 가치가 훼손》되며 《인간성》이 《모실》(인간성을 잃는 것) 되여 《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조작된 리론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인민 대중은 민족적 및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유린 당하고 억압과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초보적인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여지 없이 짓밟히고 있다.

만일 오늘 남조선에서 《인간성의 모실》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선 미제와 그 주구들이 인민 대중의 피땀을 짜 내는데 대하여, 인민들을 제멋 대로 살해하는 만행에 대하여, 실업자들을 《이민》으로 노예와 같이 팔아 넘기는 죄악에 대하여 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집단의 힘》, 《집단적 의사》, 《무질서》, 《혼돈》 등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며 《위기》가 조성된다고 떠드는 것은 인민 대중의 단결된 힘과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위력한 생활력에 질겁한 자들의 항변에 불과하며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겁먹은 자들의 화신인 《실존》의 비명에 불과하다.

오늘 남조선에서 《무질서》와 《혼돈》이 생기는 것은 인민 대중 의 《집단적 의사》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으로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나라와 민족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박 정희 도당의 매국적인 정책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무질서와 혼란을 제거하자면 인민 대중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성시킨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 부셔야 한다.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의 반동적 본질은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인도주의》에서 찾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인도주의는 우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 의해서 그리고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된 사회 제도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존주의의 신봉자들은 미제의 강점과 그 주구들의 2중 3중의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는 남조선 사회에서의 《인도주의》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적놈이 발이 저리다》는 격으로 인도주의를 찾아 볼 수 없는 남조선에서 《인도주의》를 들고 나옴으로써 현실의 비인도적 참상을 감추려는 것이다.

인도주의를 론하자면 우선 정치적 자유와 평등, 인간에 대한 존중을 론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인도주의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됨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존주의의 신봉자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비방 중상하면서 다만 도덕과 륜리의 《회복》, 《수양》만을 떠들고 있다. 즉 사회 제도는 관계 없고 도덕과 륜리로 사람들을 《교양》만 하면 잃어 버린 《인간성》을 찾을 수 있고 모든 무질서와 혼란과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한다면 인간의 정

치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며 인간에 대한 존중이 실현될 수 있는가?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혼돈시키려는 것이다.

착취 사회 하에서의 도덕은 착취자와 통치자들의 도덕이지 그 어떤 초계급적인 보편성을 띠는 도덕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도덕 륜리의 《교양》이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도덕이며 륜리이다. 미제와 그 주구 박 정희 도당은 자기들의 비위에 맞는 도덕 규범과 사회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인민들이 여기에 복종할 것을 강요한다. 만일 이 규범을 위반하면 국가의 권력 기구—군대, 경찰, 헌병, 사법 기관 등—를 동원하며 반항하면 질서의 문란이니, 《란동》이니 하면서 탄압하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이 도덕 륜리에 의한 《수양》을 떠드는 것은 인민들로 하여금 바로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순종할 것을 설교함을 의미한다.

사실 상 오늘 남조선에서 실존주의자들은 《인도주의》의 간판을 들고 도덕 륜리를 론함으로써 《정신 혁명》과 《인간 개조론》을 부르짖는 박 정희 도당의 구호를 리론적으로 안받침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말살하고 미제에 순종하는 노예 근성을 배양하며 조선 민족의 민족성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존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인도주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인도주의이지 남조선 인민들 자신의 사회적 규범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진정한 인민적 도덕을 실현하자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대신하여 인민들 자신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여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만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인민을 귀중히 여기는 진정한 인민적 도덕, 륜리와 함께 진정한 인도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 *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은 위기와 혼란, 불안과 절망 속에서 갈피를 찾지 못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사상 감정을 반영하면서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결과가 빚어 낸 남조선의 참상을 철학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헛되게 시도하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이 아무리 남조선 현실을 합리화하려 하고 아무리 미제와 그 주구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려 한다 하여도 그것으로써는 결코 사태의 본질을 은폐할 수 없으며 조성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통치의 위기와 모순은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며 미구에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멸망과 함께 그의 철학적 변호자인 실존주의 철학도 자기 존재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은 불을 보는 것처럼 명백하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

조 승 운

축산업을 전문화하며 집약화할 데 대한 문제는 오늘 우리 당이 축산 부문 앞에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현시기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명시하면서 축산업을 가축 별, 생산물 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할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 지난 1 년 남짓한 기간에 우리 나라의 모든 목장들과 협동 농장 축산 작업반들에서는 생산 방향을 전반적으로 전문화, 집약화하는 데로 돌렸으며 벌써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전원 회의 이후 새로 개편된 전문화 목장들에서는 가축들의 살지는 기간이 단축되고 몸 무게 1 키로 그람 당 살지우는 데 소비하는 사료의 기준량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며 가축 사양 관리 방법과 축산물 생산에서 귀중한 경험들이 창조되고 있다.

국영 신계, 온성 목장들에서는 목장의 생산 방향을 돼지 고기 생산에로 돌린 이후 돼지 몸 무게 1 키로 그람 당 살지우는 데 소비하는 사료의 기준을 전문화 이전 시기보다 1.5 단위 이상 더 저하시키면서도 8 개월이 되는 돼지의 몸 무게를 평균 28 키로 그람 이상씩이나 더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광포 오리 목장에서는 전문화에 기초한 집약적인 사양 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살지우는 오리의 몸 무게를 55 일 동안에 평균 2,280 그람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평원, 황주 토끼 목장에서도 토끼 한 마리의 몸 무게를 70~90 일 동안에 1.4~2 키로 그람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전문화 목장들에서는 축사를 정비 개조하고 사료 만들기, 나르기, 물 주기 등 축산 작업에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관리공 1 인 당 가축의 관리 두수를 높이는 데서도 큰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국영 서만포 가금 목장에서는 관리공 한 사람이 6,000 마리 이상의 종자 닭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리 목장에서는 관리공 한 사람이 1만 2,000 마리 이상의 살지우는 닭을 돌보고 있다. 려포, 신계, 웅기, 단천, 온성 목장 등 돼지 고기를 생산하는 곳에서도 사정은 동일한데 여기서는 관리공 한 사람이 관리하는 돼지 수가 300~500 마리에 달하고 있다.

축산물의 생산 방향을 전문화, 집약화하는 데로 돌린 이후 협동 농장들에서도 많은 경험들과 성과들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례컨대 황해 남도 평천군 신답리 협동 농장 종축 작업반에서는 큰 암돼지 한 마리에서 평균 17.5 마리의 새끼 돼지를 받아 키워 냈으며 량강도 갑산군 남평 협동 농장의 면양 분조에서는 큰 암양 한 마리에서 평균 2 마리의 새끼를 받아 키워 냈다.

황해 북도 내 협동 농장들에서만도 금년 3.4 분기 말 현재로 1 톤 이상의 고기를 생산한 축산 작업반들이 300여 개나 되며 한 농가에서 100 키로 그람

이상의 고기를 생산한 농호 수가 2단 4,500여 세대나 된다.

축산업을 전문화, 집약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제시된 이후 지난 1 년 남짓한 사이에 이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실로 크다.

그리하여 금년 3.4 분기 말 현재 작년 동기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조선소는 103.4%, 돼지는 139.4%, 면양은 111.7%, 염소는 128.6%로 각각 그 수가 장성하면서도 육류는 129.9%, 젖은 114.8%, 양털은 117%, 알은 145.2%로 생산이 장성하였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의 결과 축산업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질적 지표도 크게 장성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송아지 생산은 115%, 돼지 새끼 생산은 139%로 늘어 났다. 육류 생산 총량 중에서 돼지 고기와 닭 고기, 오리 고기 등의 생산 비중도 더욱 증대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축산업을 가축별, 생산물 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오늘 이 부문의 발전에서 얼마나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이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최단 기간 내에 축산물을 보다 헐하게, 빨리 그리고 값 눅게 생산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현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축산업을 전문화한다는 것은 지대적 조건과 사료 원천 및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맞게 가축별, 생산물 별로 가장 유리한 축종과 품종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주로 축산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축산업을, 집약화한다는 것은 사료와 로력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고 선진 사양 관리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값 눅고 질 좋은 축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생산을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축산업의 전문화는 집약화와 결합될 때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집약화는 전문화에 기초하여 조직될 때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축산업의 전문화는 집약화를 위한 중요 조건으로 되며 집약화는 전문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성과를 더욱 공고화시킨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는 날로 급속히 확대 발전하는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축산 경영 조직의 기본 요구 즉 높은 과학 기술의 토대 우에서 축산물 생산에 보다 적은 로력과 사료를 지출하면서도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경영을 조직할 데 대한 요구에 적응한 것이다.

가축 별, 생산물 별에 따르는 축산업의 전문화는 우선 생산 조직과 경영 활동에서 기본 생산 방향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가축의 사양 관리 방법과 사양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집약화와 결합되여 생산 공정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며 생산을 년중 계속 조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축산물 생산에서의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축산업의 집약화는 가축 사양 기간을 단축하며 사료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산물 단위 당 사료와 로력의 지출을 훨씬 낮출 수 있게 하며 수익성을 보다 제고시킨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는 축산물 생산에서 관리공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인 고리로 된다.

축산 부문에서 관리공 1 인 당 생산액

의 제고는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같은 로동량을 지출하고도 보다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는 생산 행정에서 산 로동과 체화 로동을 가장 합리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같은 로력과 사료를 가지고도 보다 많은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산물의 원가를 저하시키며 관리공 1인당 생산액을 제고시키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축산업의 발전에서 전문화와 집약화가 가지는 거대한 우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오래 전부터 지대적 조건과 사료 원천 및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면서 축산업을 가축 별, 생산물 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하는 데 큰 관심을 돌려 왔으며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는 그것을 현시기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축산 부문에서 전문화와 집약화에로의 전반적인 이행—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축산업이 지난 시기에 비해 한 계단 더 높은 발전 단계에 올라 섰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축산업은 지난 시기에도 물론 전문화, 집약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원래 력사적으로 락후하였던 축산업은 물려 받았으며 3 년 간의 전쟁으로 그것마저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부터 이 부문의 생산을 전반적으로 전문화, 집약화하는 데로 돌릴 수 없었다.

우리 나라 축산업의 력사적 락후성을 하루 속히 퇴치하며 전쟁으로 인한 축산업의 혹심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문의 공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거액의 국가 자금을 지출하여 대규모적인 국영 농목장들을 도처에 수 많이 창설하였으며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을 돌려 왔다.

당은 특히 전후 시기에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축산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축산물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영 축산업과 협동 농장 공동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개인 부업 축산업을 배합시켜 발전시키는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고 축산업 발전의 기술 경제적 제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으며 조건이 성숙되는 데 따라 점차 전문화된 국가 목장들을 창설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데 큰 관심을 돌려 왔다.

전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급속히 공고화되고 축산 기술 관리 일'군들의 대렬이 해마다 장성하였으며, 우리의 공업은 축사 시설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다량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또한 공고한 사료 기지가 조성되고 해마다 알곡 생산이 증대됨에 따라 식량의 여유를 가지면서도 일정한 량을 가축의 사료로 돌릴 수 있게 되였으며 종축의 생산 및 공급 체계와 수의 방역 체계도 일층 확대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전문화, 집약화하는 방향에로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축산업의 보다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조성됨으로써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은 것이다.

전문화와 집약화는 오늘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에서 완전히 성숙된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튼튼히 꾸려진 사회주의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에 상응하게 금후 이 부문의 발전을 보다 급속히 추진시키며 생산을 더욱 높은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울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담보로 된다.

* *

현시기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 부문 일'군들이 축산물 생산에서 전문화와 집약화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적응하게 생산 경영 조직을 빈틈 없이 잘 하는 데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축산업을 전반적으로 전문화, 집약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제시된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국영 농목장들이 농산과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과 목장으로 각각 분리되였으며 목장들의 생산 방향은 가축별, 생산물 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3,800여 개에 달하는 협동 농장의 축산 작업반들이 종축 작업반으로 개편되고 2만 3,000여 개의 작업반 축산 분조들이 새로 조직되여 지대적 조건과 사료 원천 및 수요에 맞게 협동 농장들에서도 축산을 전문화할 수 있게 되였다.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에 상응하게 우량 종축에 대한 공급 사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 종축장들도 가축 별로 정리 개편되고 도영 종축장들도 증설 확장되였으며 이 부문의 과학 연구 기관들도 전문 부문 별로 개편되였다.

오늘 우리의 목장들과 협동 농장 축산 작업반들은 축산업을 전문화하고 집약화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전국적으로 종축의 생산 및 공급 체계도 확고히 수립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이 부문 일'군들이 지어진 조건과 가능성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 조직을 잘 하는 것은 전문화와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며 축산물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축산업을 전문화, 집약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전문화된 축산물 생산 단위들에서 기본 생산 방향에 근거하여 가축의 품종을 정확히 선택하며 그것을 부단히 개량하는 것이다.

전문화된 목장들에서 기본 가축의 품종을 옳게 선택하며 그것을 부단히 개량하는 것은 로력과 생산 수단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보다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며 기업소의 수익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가축의 품종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되는가 하는 것은 례컨대 닭 고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가금 목장에서 알을 까는 품종의 닭을 가지고 고기를 생산할 때 그 닭은 고기 생산용 닭 품종에 비해 살지는 기간이 더디며 몸 무게 1 키로 그람 당 살지우는 데 요구되는 사료의 량이 13~15%나 더 들게 된다는 데서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축산물 생산에서의 전문화와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가축의 품종을 옳게 선택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개량하여야 한다.

가축의 품종을 계통적으로 개량하여야만 동일한 사양 관리의 조건에서도 가축의 생산성과 육성률을 급속히 제고시킬 수 있으며 축산물 생산량을 더욱 빨리 증대시킬 수 있다.

가축의 품종을 개량함에 있어서는 고기를 생산하는 목장들이 두 가지 이상의 순 품종을 가지고 1 대 교잡을 실시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두 가지 이상의 순 품종을 가지고 1 대 교잡을 실시한 가축의 품종은 생활

성이 강하여 빨리 자라고 살이 잘 지며 사료의 상환률이 매우 높다.

경험은 닭 고기를 생산하는 전문 목장들에서 송화 닭과 검은 닭을 교잡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송화 닭 순종에 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도 7~12%의 고기를 더 낼 수 있으며 송화 닭과 누런 닭을 교잡하면 10~30%의 고기를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사정은 동일하다.

다음의 자료는 순종에 비하여 1 대 잡종을 가지고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품종	돼지의 무게 (단위, kg)						한키로 그람당 살지는 데 드는 사료량
	2개월 짜리	3개월 짜리	4개월 짜리	5개월 짜리	6개월 짜리	하루 동안에 살지는 량 (kg)	
순종	18.6	30.8	49.0	70.5	92.8	608	4.49
잡종	18.3	32.1	53.1	74.1	97.1	648	4.22

축산업의 집약화와 관련된 종축 사업에서는 나어린 가축을 기르도록 종축 조직을 잘 하는 데 또한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것은 늙은 가축일수록 사료는 더 많이 먹으면서도 살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고기를 생산하는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방의 기후 풍토와 사료 조건에 적합하게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순 품종을 배치하고 그것으로 1 대 교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년간 계속 살지우기에 리용할 수 있도록 새끼 가축의 생산 조직을 잘 하여야 하며 축군 류동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전문화와 집약화를 위한 종축 사업에서는 또한 매개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가축들의 우수한 품종을 조사하고 좋은 품종과 개체들을 골라 종자 가축을 체계적으로 개량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며 중앙 종축장으로부터 협동 농장 종축 작업반에 이르기까지 이미 확립된 가축별 종축 체계에 립각하여 우량 종축의 생산 및 공급 사업을 계획적으로 정확히 진행하여야 한다.

축산물 생산에서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는 로동력과 생산 수단을 추가적으로 투하한 데 비하여 그 이상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축산물 생산에 속성 비육 방법을 정확히 도입하는 것이다.

축산물 생산에서 속성 비육 방법은 사료와 로력의 지출을 절약하며 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설비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일 돼지 고기 생산에 속성 비육 방법을 도입한다면 보통 살지우는 방법에 비하여 돼지의 살지우는 기간을 2~3 개월 이상 더 단축시킬 수 있으며 몸무게 1 키로 그람 당 살지우는 데 필요한 사료의 량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축산물 생산에 속성 비육 방법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특히 가축의 처분 시기를 옳게 규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축산업의 집약화에서 가축의 처분 시기를 정확히 규정하여야 축사 단위 면적 당 축산물 생산량을 높일 수 있으며 로력과 자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축산물의 생산 원가도 부단히 저하시킬 수 있다.

국영 농목장들에서는 돼지, 닭, 오리, 게사니, 토끼 등 모든 가축에 반드시 속성 비육 방법을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고기로 처분하는 데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또한 협동 농장들에서도 사료와 기술 등 조건이 준비되는 데 따라 점차 속성 비육 방법에로 이행하

여야 한다.

축산물 생산에서의 전문화와 집약화는 가축 사료의 충분한 확보를 전제로 한다.

축산물 생산의 기본 원료인 사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이 없이는 축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킬 수 없으며 생산의 전문화와 집약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도 없다.

모든 전문화 목장들과 협동 농장들에서는 가축 별, 축군 별, 월령 별, 시기 별로 필요한 사료의 량을 계획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가축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그것을 공급하여야 하며 특히 가축 사육에서의 배합 사료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료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사료의 상환률을 최대한 제고시켜야 한다.

사료의 리용률과 상환률을 높임에 있어서 과학적인 사료 가공 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례포, 신계 목장들의 경험은 조사료를 부드럽게 분쇄하고 오리제균, 효모, 누룩 처리 등을 규정 대로 실시하여 푹 삶아 먹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비해 사료의 채식률을 20% 이상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국영 목장들과 협동 농장 축산 작업반들에서는 사료의 분쇄 가공 시설들과 오리제균, 효모, 누룩 생산 등 화학 처리 시설들을 더욱 정비 강화하고 농부산물과 곡초 및 건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료 원천들을 백방으로 동원 리용하여 사료의 리용 범위를 확대하며 배합 사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사료 문제의 성과적인 해결을 위하여서는 또한 적지 적작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료전의 작물 배치를 더욱 합리화하고 토지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에 풍부하게 분포되여 있는 자연 사료 기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지가 제한되여 있고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논밭 2모작에 의한 사료 작물의 재배 면적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야산들과 하천 류역을 비롯한 일체 공한지들과 저수지들에 호박, 토끼풀, 수초 등을 광범히 재배하며 칡, 아까시야, 도토리나무밭 등을 더 많이 조성 리용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농장들에서 영양가가 높은 갈 재배 사업을 계획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 사료 기지를 년차 별 계획에 의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그 관리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단위 당 수확고를 제고하며 자연 사료의 합리적인 리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당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축산물 생산에서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사료의 확보 사업과 함께 그 공급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사료의 공급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매개 가축들의 생리적 특성과 먹성 등에 알맞게 과학적인 사료 급여 체계를 확립하며 영양 물질 특히 아미노산을 포함한 단백질의 함량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축산 작업의 기계화는 전문화 목장들에서 축사를 비롯한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생산물 단위 당 사료비와 로력비의 지출을 절약하며 집약화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축산물 생산 단위들에서는 전문화에 상응하게 축사를 정비 개조하고 사료 만들기, 나르기, 물 주기, 털 깎기, 깃 짜기 등 축산 작업에 종합적인 기계화를 도입함으로써 일은 쉽게 하면서도 관리공 1 인 당 가축 관리 두수와 그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업에 대한 과학 기술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축산업의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생산의 전문화와 집약화가 광범히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 부문에서도 농사에서와 같이 기술을 떠나서는 가축과 가금을 잘 길러 낼 수 없으며 생산 행정에 대한 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농업 지도 기관의 모든 일'군들은 현시기 축산업을 소홀히 하는 그릇된 경향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우리 나라 축산업의 과학 기술적 토대를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 의거하여 이 부문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에 상응하게 수의 축산 총국으로부터 전문화된 매개 목장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기술 지도 체계를 확립하며 지도 일'군들 자신이 생산 단위에 직접 내려 가 이신작칙하면서 생산자들 속에 당의 축산 정책을 꾸준히 해설 선전하며 기술 보급 사업을 실'속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

동시에 농업 과학 연구 기관들과 이 부문 과학 기술자들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축산 기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연구 도입하며 가축과 가금의 새 품종 육성, 배합 사료의 생산, 각종 미량 원소와 화학 사료의 도입 등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더 빨리, 더 잘 해결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앞으로 1~2 년 내에 농촌 경리의 전반적 분야에서 달성하여야 할 농업 부문 10대 과업을 제기하면서 축산업의 발전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킬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축산업을 급속히 추켜 세워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과 인민 생활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하여 절실히 제기되는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지금 우리 당은 가까운 1~2 년 내에 육류 생산을 20만 톤 수준에 올려 세울 것을 제기하고 있다.

축산 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이 이 부문 앞에 제기하고 있는 방침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함으로써 최단 기간 내에 축산업 발전에서 더욱 큰 혁신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 수법

김 찬 호

력사는 침략자들이 언제나 저들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묘책》에 매달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는 강점을 《해방》으로 묘사하고 침략을 《원조》로 위장하며 예속을 《독립》으로 분식하고 미군을 《유엔군》으로 변장하며 식민지적 지배를 《친선과 동맹》의 위선적인 외피로 분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는 그 무엇으로써도 자기의 침략적 및 략탈적 정체를 결코 가릴 수 없다.

지난 20여 년 간의 력사는 미제야말로 남조선에 대한 가장 포악하고 음흉한 식민지 통치자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가 실시하고 있는 식민지 통치의 주요 특징의 하나는 그 수법이 교활하고 악랄한 것이다.

원래 제국주의자들의 락후한 나라들에 대한 통치 수법은 고정 불변하지 않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 2 차 세계 대전 이전에 구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를 지배 통치함에 있어서 주로 로골적인 직접 통치 수법을 리용하였다.

물론 그 때에는 아직 제국주의자들이 포화와 총검으로 공공연한 식민지 통치를 실현할 수 있었고 그 어떠한 반항도 폭압으로써 야수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의 사정은 달라졌다.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의 영향 하에 일떠선 수억만 인민들의 강력한 민족 해방 투쟁은 무력만으로써는 진압할 수 없게 되였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법을 꾸미여 냈다.

이 새로운 수법이 바로 식민지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이 형식 상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간접적인 형태와 방법으로 지배를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가 적용하고 있는 식민지 통치 수법도 일반적 의미에서 볼 때 이 신식민주의 수법과 같다.

그러나 내면 상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형식 상으로는 간접 통치를 하면서도 실제 상에 있어서는 직접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미제가 남조선에 미국인으로 구성된 각종 통치 기구, 고문단들을 두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괴뢰 정부의 조작, 《원조》와 자본 수출, 각종 조약과 협정의 체결, 미군의 주둔 등 각종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부문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이 신식민주의의 은페된 수법의 집결처로,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를 이처럼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남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적 목적과 관련된다.

미제의 극동 침략 계획에서 남조선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초기에 벌써 《북부 아세아의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는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초적 전략 기지》(《저널 아메리카》, 1947년 10월 30일)라고 하였다.

이것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남조선은 지리 상으로나 전략 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조선은 미제가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는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조건은 미제로 하여금 저들의 극동 침략 정책 실현에서 남조선에 주요한 의의를 부여하게 했다.

미제는 남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킴으로써 아세아 대륙을 침략하며 날로 높아 가는 인민들의 민족 해방의 불'길을 꺼 볼 것을 타산하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 날부터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식민지 통치를 감행하였다.

과거에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들에서 총독을 두고 직접적인 통치를 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로골적인 방법을 리용할 수 없게 된 조건 하에서 그들은 괴뢰들을 내세워 식민지 통치를 실현한다.

그것은 괴뢰들을 통한 식민지 통치가 해방된 나라 인민들에게 그 어떤 정치적 자주권이라도 부여되고 있는듯한 외관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식민지적 지배와 통제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미제는 오늘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빵 부스러기로 길러 낸 앞잡이들을 《정권》에 들여 앉히고 있다.

남조선 력대 괴뢰 국회의 계급 구성을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지주, 예속 자본가, 반동 관료배 등 친미, 친일 주구들이다.

이 친미, 친일 주구들이 미제의 침략과 략탈을 위한 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편으로 미제는 남조선에서 미국인으로 구성된 통치 기구를 통하여 모든 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현지 조달 기관인 이른바 《주한 미 대사관》, 《유엔군 사령부》, 《주한 미 경제 협조처》 등의 활동이 바로 그 실례로 된다.

남조선의 모든 실권은 사실 상 이러한 미제의 통치 기구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실제 상 미제가 직접적인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정치적 지배는 경제적 예속을 기초로 할 때 공고한 것으로 되며 따라서 경제적 예속은 그 자체가 곧 정치적 예속을 낳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정치적 예속과 함께 경제적 예속에 주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예속과 지배를 위하여 《경제 원조》, 자본 수출 등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괴뢰 정권을 통하여 남조선 경제에 대한 예속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며 《원조》 계획 집행 기구인 《주한 미 경제 협조처》, 《고문단》 등을 통하여 《원조》 물자와 《원조》 자금(대충 자금)의 공급 체계를 확립하며 이에 침략과 략탈의 안내자인 예속 자본가, 봉건 지주 등 반동 세력들을 인입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의 경제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우선 남조선 재정을 장악하고 그것을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하며 군사비를 조달하는 공간으로 리용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조선 은행》을 비롯한 과거의 모든 재정 금융 기관의 명칭을 개편하고 일체 재산과 관리권을 장악한 사실은 그 실례로 된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 경제 전반을 군사 기지화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한 술법인 것이였다.

미제는 남조선의 재정적 공간을 완전히 틀어 쥐고 과잉 상품 판매, 군사 전략적인 원료의 략탈, 군수품 《현지 조달》에 편리하게 공업 구조를 개편하고 이에 《원조》 물자와 《원조》 자금 (대충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 고문》들을 파견함으로써 남조선 경제를 저들의 군사화 정책에 복종시키고 있다.

미제는 또한 일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국영 기업》으로 전화시키는 방법으로 남조선 경제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고 있다.

그것은 《귀속 재산》이 남조선 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군수 공업과 관련되여 있기 때문이였다.

1962년 현재 남조선 공업 생산에서 《국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석탄에서 48%, 철광석에서 57%, 중석에서 85%, 비료, 전력에서 각각 100%, 강철에서 82%에 달하고 있다.

이 《국영 기업》은 실제 상 다른 경제 부문의 생산 규모, 경영 활동을 좌우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국영 기업》을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군사 기지

화 정책 실현의 주요한 물질적 수단의 하나로, 저들의 침략과 략탈의 안내자, 동맹자를 육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리용하는 것이다.

미제는 침략과 략탈 정책에 대치되는 기업체들을 의식적으로 파괴 해체하고 예속 자본가들에게 원료와 《원조 자금》(대충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여 값 눅은 군수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미제의 비호 하에 육성된 예속 자본가들은 주로 과잉 상품의 가공과 군수품 《현지 조달》에 복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 비중은 제조 공업에서 28%, 광업에서 약 75% 이상에 달하며 방직, 제당 공업 등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공업과 함께 농업을 예속시키고 있다. 남조선에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것은 농민이며 생산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그러므로 미제는 남조선 농촌을 군사비와 군량미를 조달하며 전쟁 대포'밥을 충대하는 유리한 대상으로 리용할 것을 타산하였다.

그러나 2 차 대전 후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남조선에서도 계급적 력량 관계가 변화됨으로써 과거 일제와 같은 농촌 정책을 실시할 수 없었다. 미제는 일제의 대지주 육성 정책과는 달리 중소 지주의 육성 정책을 실시하였다. 남조선에서 실시한 이른바 반동적인 《농지 개혁》 책동은 그러한 조치의 하나이다. 이 《농지 개혁》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는 약 10 만에 달하는 중소 지주들이 미제의 남조선 농촌 략탈 정책에 복무하고 있다.

기만적인 《〈농지 개혁〉은 지주 토지 소유를 그 대로 보존하였으며 공개적인 또는 은폐된 각종 형태로 농민들을 소작 제도에 얽매여 놓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1960년 판, 137 페지).

미제는 또한 반동적인 《농업 조합》을 조직하였다. 《농업 조합》은 류통과 신용 체계를 통하여 미국 독점들의 식민지 초과 리윤 획득과 지주들의 치부를 보장하며 반면에 농민들을 기아와 빈궁에로 몰아 넣는 도구로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이른바 《원조》가 예속과 략탈의 도구라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 원조》의 명목으로 35억 딸라를 남조선에 투입하고 그 대신 약 100억 딸라에 해당하는 재부를 략탈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원조》의 본질을 리해할 수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다만 식민지로서 뿐만 아니라 새 전쟁의 전초 기지로 리용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지배,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주한 미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해군 사령부》, 《공군 사령부》, 《미 합동 군사 고문단》을 두고 있다. 이것들은 남조선의 괴뢰군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제는 유엔군의 남조선 강점과 남조선 괴뢰군에 대한 《주한 미군 사령부》의 작전 지휘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괴뢰 정권과 《한미 호상 방

위 조약》, 《한미 군사 협정》, 《한미 회담 의사록》 등 일련의 침략적인 협정과 조약들을 체결하였으며 괴뢰군에 대한 지휘와 통제권을 법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대한 민국 정부와 미 합동군 간의 주한 미 군사 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까지 체결하였다.

이리 하여 남조선의 괴뢰군은 사실 상 미국의 무장력의 연장이며 보충물로 되고 있다.

리 승만 괴뢰 정부의 《주미 대사》까지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토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우리의 모든 무기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쓸 모든 휘발유를 장악하고 있으며 2일간 사용할 분량만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 누구나 이런 방식에서는 크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미제는 괴뢰군에 대한 일체의 통수권을 틀어 쥔 데 기초하여 남조선 전역을 군사 기지로 만들고 있다. 현재 남조선에는 192 개에 달하는 군사 기지가 설치되여 있으며 도처에 비행장, 군항, 군용 도로 및 교량 등 각종 군사 시설이 건설되여 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에는 각종 인간 살륙 무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식민지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과 함께 사상적 침투를 강화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으로 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우매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퇴페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침투시키고 《반공》, 《숭미》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미제는 부르죠아 사상 문화 침략의 합법적 도구로서 괴뢰 정부의 《문교부》, 《공보부》, 《국방부》, 《내무부》와 각 부문 산하의 《공보실》 및 교육 선전 기구들을 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주한 미 공보실》, 《주한 미국 교육 위원회》, 《주한 교육 관계자 합동 위원회》, 미국인 교육자, 언론인들을 리용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미국식 생활 양식》과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남조선 인민들 속에 전파시키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미제는 또한 천주교를 비롯하여 각종 종교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무지와 몽매, 미제에 대한 굴종, 부화 타락을 강요하고 있으며 조선 민족의 모든 슬기롭고 고귀한 민족 유산을 유린 말살하고 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례외 없이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남조선 인민들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의 통치자는 실제 상에 있어서 미제이며 그 통치 수법이 전례 없이 교활하고 악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교활하고 악랄한 식민지 통치는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와 격분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

를 반대 배격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전례 없이 높아 가고 있다.

얼마 전 미제의 조종 하에 《한일 회담》 조기 타결 책동을 계기로 하여 일어 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 봉기는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6. 3 봉기 때 남조선의 광범한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반외압》을 주요한 투쟁 구호의 하나로 제기하였으며 그들은 시위에서 미국인이 탄 승용차에 투석까지 하면서 용감히 투쟁하였다.

이것은 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항거의 표시이다.

미제는 뒤흔들리는 식민지 통치 지반을 유지해 보려고 한편으로는 군사 파쑈적 탄압을 강화하며 다른 편으로는 남조선 인민들을 회유 기만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조종 하에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에 대한 탄압 책동을 합법화해 보려고 《학원 보호법》을 조작하였으며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과 통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언론 륜리 위원회법》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또한 학생, 교원, 언론인, 정치인 등 광범한 대중 속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을 검거 투옥하기 위하여 이른바 《인민 혁명당》 사건까지 날조하였다.

미제는 괴뢰들을 조종하여 이와 같이 파쑈 폭압 책동을 강화하면서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로 말미암아 격화된 남조선 인민들의 불평,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온갖 허위적 구호들을 표방하고 있다.

미제의 조종 하에 박 정희 도당은 《식량 확보 계획》, 《식량 증산을 위한 농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며 《수출을 증대》하여 외화를 획득하며 《경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제 파국과 민생고를 해결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적 감정을 딴 데로 돌림으로써 허물어져 가는 식민지 통치를 유지해 보려는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

침략자들은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들의 잔명을 부지해 보려고 발악하기 마련이다.

현실은 우리 인민들에게 미제의 침략과 략탈에 대한 최대의 경각성을 높이며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 큰 화만 차례질 것은 뻔하다.

전체 조선 인민은 굳게 단합하여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남조선에 빚어지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조선 인민은 이 숭고하고 절실한 혁명 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후진》 국가들에 대한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

김 용 환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폭력적 수단과 함께 사상 문화적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리용하고 있다.

일찌기 레닌은 《온갖 압박 계급은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사회적 기능 즉 형리의 기능과 승려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레닌 전집 제21권, 264 페지)고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 수행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은 어느 때나 호상 배합되여 리용된다.

사상 문화 침략은 오늘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적 수법의 하나로서 그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과 함께 대외 침략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그 길잡이로 되고 있다.

한때 악명 높은 《전쟁 접경》 정책에 매달렸던 아이젠하워, 덜레스까지도 사상 문화 침략에 대하여 《홀시할 수 없는 불가결의 요소》라고 하면서 《대통령 대외 선전 관계 위원회》라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 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상 문화 방면에 쓴 매 딸라의 가치는 국방에 쓴 5 딸라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한 손에는 화살을, 한 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이라는 《량면 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며 《평화 전략》의 구호 밑에 사상 문화 침략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사상 문화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사상 문화 침략을 강화함으로써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새 생활 건설에 일떠선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력을 막으며 그들을 영원히 식민지적 예속 하에 얽매여 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밑에 오늘 미제는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사상 문화 침략에 광분하고 있다.

* *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 침략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구 상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말살》하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켜 타국에 대한 침략과 략탈 및 식민지 지배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다.

케네디는 미제의 《평화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사상

을 말살하며》,《인심을 쟁취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 상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 잡고 있다.

특히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과 새 생활 창조에 나선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따라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제일 무서워 하고 있으며 《반공》 선전을 발광적으로 또 악랄하게 전개하고 있다.

현시기 《반공산주의》는 진보적 사상과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기본적인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다. 때문에 《반공》 선전은 미제의 대외 사상 문화 침략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반공》 선전에서 주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와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 중상, 외곡과 허위 날조이다. 《자유 구라파 방송국》의 두목인 애인스트 랑겐은 로골적으로 미국의 《방송에서 거짓말은 청중의 사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제도에서 살아 보지 못 하였고 맑스-레닌주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허위와 기만으로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가 소위 《공산주의 침략성》에 대한 허위 선전과 자유, 민주주의, 인도주의 문제 등에 대한 외곡 선전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제는 사상 문화 침략에서 이미 그 정체가 폭로된 이러한 낡은 수법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비방 중상하는 한편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소위 《리론적 극복》과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 침략에 고용된 반동 부르죠아 《리론가》들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혁명적 의의와 그 세계관적 기초를 외곡하여 《맑스-레닌주의 교리가 오늘의 력사적 현실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미 《낡았다》는 것을 《론증》하며 특히 사회적 진보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외곡하고 《비판》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이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은 케네디가 미 국무성 정책 기획 위원회 위원장으로까지 등용하였던 로스토우가 쓴 《반공산당 선언》을 비롯한 《맑스주의를 리론적으로 극복한다》는 이른바 《반공 리론》들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으로써 저들의 《반공》 선전에 활기를 불어 넣으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 침략에서 노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자본주의 제도를 미화하며 숭미, 공미 사상을 고취하는 것이다.

숭미, 공미 사상, 자본주의 미화론은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전례 없이 심각화됨에 따라 현대 자본주의의 불치의 모순을 은폐하며 특히 미 제국주의의 이른바 《강대성》과 자본주의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에 관한 신화를 인민들 속에 주입시키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되고 있다.

미제에 대한 미화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즉 하나는 그 침략적 본성과 후과를 은폐하며 다른 하나는 숭미, 공미 사상을 고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그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빚어 낸 후과를 은폐하는 데서 《도의론》, 《신말사스주의》, 《후진국 개발론》과 같은 부르조아 사회 경제학 《리론》과 실용주의,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부르조아 철학은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다.

미국 《도의론》자의 두목인 플류엘링은 《인간의 개성을 개조》하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에서 급선무로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신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도의론》도 온갖 사회악의 근원이 《민족성의 타락》, 인민들의 《도의의 타락》에 기인하며 따라서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를 변혁할 것이 아니라 타락한 《도의》를 재건하고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반공 도의 교육》을 표방하면서 《인간 개조》를 《2대 혁명 과업의 하나》로까지 내세웠다.

미국의 《신말사스주의》자들은 인류의 모든 재난의 화근이 인구 증대에 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빈궁과 기아의 원인이 부르조아적 착취 제도에 있다는 것을 은폐하고 있으며 저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미제가 류포시키고 있는 《신말사스주의》는 박 정희 도당의 《가족 계획》, 《해외 이민 계획》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국가 정책》에까지 반영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후진국 개발론》도 그들이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 대한 착취와 지배를 은폐하며 합리화하는 신식민주의의 《리론적》 도구로 복무하고 있다.

미제에 대한 미화, 숭미, 공미 사상의 선전에는 여러 가지 사상 문화 수단들이 광범히 리용되고 있다. 미국 지배층들은 현지 어용 문화 예술인,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언론인, 사회 활동가들을 소위 《인사 교류》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끌어다가 견학과 관람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른바 《미국의 번영》, 《미국의 경제 기술적 우월성》, 《미국의 강대성》 등에 대해서 떠들게 하고 있다.

금년 9 개월 간에만도 소위 《인사 교류》라는 미명 하에 미국에 《초빙》한 외국인 수는 75만 1,436 명에 달하며 9월 한 달 동안에는 9만 5,000 명에 달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 수 많은 어용 학자들을 동원하여 소위 《미국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모》에 대한 억설을 만들어 내게 하고 있다.

오늘 미국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인미적 자본주의론》, 《복지 사회론》, 《인도주의적 자본주의론》, 《균

형적 자본주의론》 등이 모두 그러한 것들이다.

이 잡다한 자본주의 《변호론》들은 어느 것이나 례외 없이 결론은 모두가 《미국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자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3,200만의 사람들이 빈궁에 쪼들리고 있으며 수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미국에서 계급적 한계가 소멸되고 있고 《자본주의의 영원한 번영》이 이룩되고 있다고 떠드는 자본주의 변호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실증하여 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강대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며 세계 인민들에 대한 《핵 공갈》 정책을 감행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속에서 공미 사상을 조장시킴으로써 인민들의 투쟁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 침략에서 노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 양식과 미국 문화를 주입시켜 사람들을 부화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의 침투를 방지하며 계급 의식과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저들의 착취와 침략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배층들은 각종 사상 문화 수단들을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미국식 문화와 생활 양식을 대대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미제는 색정, 불륜(不倫), 살인, 깽, 탐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렵기적이며 퇴폐적인 미국 영화와 쟈즈, 맘보, 트위스트 등 음악과 무용 그리고 퇴폐적인 문학 작품들과 추상파 미술, 방송, 텔레비죤, 신문, 잡지, 도서, 체육, 종교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사상 문화 수단들을 이 목적에 리용하고 있다.

오늘 미제가 전파시키고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과 문화는 해당 나라의 고유한 민족 문화와 생활 풍습을 파괴 유린하고 사람들의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 향락과 극단한 부르죠아적 리기주의를 조장시키며 비애와 절망, 무기력과 허무주의 사상을 부식시킴으로써 사람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사상 문화 침략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노리는 목적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목적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바 그것은 《피압박자들을…지배와 타협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적 활동을 포기케 하며 그들의 혁명적 기분을 해소하며 그들의 혁명적 각오를 좌절》시키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21 권, 264 페지).

* *

미국 지배층은 사상 문화 침략을 강화하며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사상 문화 침략을 위하여 미국 정부 기구, 민간 단체, 국제 기구 등을 리용하고 있는데 이 방대한 기구들은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형성

하고 있으며 《미 중앙 정보국》 또는 《미 국방성》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미국 정부 기구 중 가장 큰 《합중국 대외 정보국》(그 성원만도 1만 1,000 명이 넘는다)은 미국의 《선량한》 정책, 미국식 문화와 생활 양식을 해외에 선전하는 일방 외국에 파견되여 있는 기관들로부터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기구는 100여 개의 국가에서 360여 개의 영사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리》 방송을 50여 개 언어로 진행하고 있다. 미 국무성 《교육 문화 사무국》은 《인사 교류》와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하여 특히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숭미 분자들을 양성하며 미국식 생활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외 《원조》 기관인 《국제 개발처》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 대한 재정 기술적 《원조》를 통하여 사상 문화 침략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성의 해당 부서들과 수십 개의 정부 기관 단위들도 이에 복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 정부 기구들은 현지에 파견되여 있는 각종 기구들을 조종하고 있는데 특히 《공보원》은 현지에서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을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하며 그 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재단》들을 포함하여 이러저러한 종교 단체, 《자유 구라파 위원회》, 《미국 볼쉐위크 해방 위원회》와 같은 악명 높은 민간 반공 단체들과 국제 기구인 《국제 련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유네스코)》, 기타 허다한 《합영》 단체들이 사상 문화 침략에 직접 리용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수단들을 발동하여 한편으로는 《반공》, 숭미 사상과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하여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고유한 민족 문화를 유린 말살하고 그들의 민족적 의식과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다른 편으로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친미 분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용이하게 실현하려 하고 있다.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각성된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종교의 교리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도처에다 학교를 세우며 외국 대학들에 《원조》를 주며 교수와 전문가들을 파견하며 교수와 학생들을 교환하는 등으로 우선 민족의 기둥이며 가장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과 인테리들에게 숭미, 친미 사상을 주입시키며 그들을 미국식 생활 양식에 물젖게 함으로써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며 친미 세력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 영화는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에서 극히 악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영화는 《반공》 선전을 하며 양키식 생활 양식을 류포시키고 사람들의

건전한 생활을 타락케 하는 아편으로 되고 있다.

1961년에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소에서 촬영한 《반공》 영화는 그 전채에 비하여 3 배에 달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수출하는 색정, 깽, 탐정 등 내용의 미국 영화는 이 지역 인민들의 정신 생활에 커다란 해독적 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민족 문화 전통과 민족적 풍습을 더럽히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국 영화가 탁류처럼 범람하고 있는데 1955~1961년 기간에만도 수입된 미국 영화는 실로 798편에 달하였다.

방송과 출판물도 사상 문화 침략에서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 속에 숭미, 공미 사상을 부식시키며 《반공》 선전을 강화하기 위한 미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 구라파 방송국》, 세계 도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들의 《군인 방송》 등 허다한 방송망들이 《반공》, 숭미 사상을 고취하고 있으며 음탕한 노래를 주야로 불어 대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88 개(그 중 7 개만이 미국에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있다) 이상의 방송 설비를 가지고 1 주일 동안에 700 시간의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남조선에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18 개의 《미 주둔군 방송국》과 그들의 통제를 받는 허다한 관영 및 민영 방송국들이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이러한 방송 수단들을 통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를 중상 비방하는 《반공》과 퇴폐적인 양키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해마다 수백만 부에 달하는 각종 반동 출판물들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배포함으로써 이 지역 인민들의 슬기로운 넋을 더럽히며 모든 진보적 사상을 《말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최근 10 년 간 미국의 도서 수출량은 75%나 증가하였다. 《합중국 대외 정보국》이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쇄소만 해도 70 개가 넘으며 현지 언어로 출판하는 잡지 수는 70여 종에 달한다.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에서 종교는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한 세기 이상을 줄곧 미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 군사 침략에 길잡이를 해 온 종교는 최근 년간에도 계속 미제의 대외 침략에 복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1950년부터 1960년까지의 지난 10 년간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선교사의 수는 80%나 증가하였다. 미국 선교사들은 소위 《천상》에서의 《행복》과 《도덕적 재무장》을 설교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포기케 하려 하고 있다.

1960년에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전 아프리카 기독교 회의》가 발표한 한 성명에는 아프리카에서의 독립 운동은 《질서 있는 평화적 과도》를 통하여 실현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질서》를 피하고 《도덕적 재무장》을 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해외에 파견되는 선교사들은 《자선가》의 외피를 쓰고 아세아, 아프리카,

리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기여 들어 간첩 활동을 감행하는 한편 종교를 통한 《반공》, 숭미 사상을 고취하는 등 침략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선발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61년 3월 케네디에 의해서 조직된 《평화군》 역시 오늘 미제의 대외 사상 문화 침략에 복무하고 있다.

미국 잡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평화군》이 할 일이란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선교사들이 해 온 것》과 다름 없으나 그 정체가 이미 드러난 《종교 활동과는 될수록 련계를 피하고》, 자기를 《락후한 민족》의 《진정한 벗》으로 가장하면서 《선교사들이 개척하기 어려운 처녀지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리 하여 오늘 교원, 간호원, 의사, 기술자 등으로 가장한 미국의 《평화군》들이 근 50 개 나라들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존슨은 《그 성원 수를 1965 년 9월까지 두 배로 확장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미국의 《평화군》은 《진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떠들고 있으나 실지는 그 나라에 침투하여 사람들 속에 숭미, 공미 사상을 고취하고 있으며 정치적 예속을 위한 파괴, 정탐, 음모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밖에도 사상 문화 침략을 위한 각종 수단들을 리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제야말로 세계 인민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이며 세계 반동의 지주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오늘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은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의 본질과 그 해독성을 더욱더 명백히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식 문화와 양키 생활 양식을 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을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그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주되는 일환을 이루고 있다.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특히 민족 문화를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애국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오랜 력사와 찬란한 민족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과 더불어 새로운 민족 문화를 개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새 생활 창조와 건전한 민족 문화의 발전은 식민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하여 빚어진 후과와 양키 문화의 독소를 제거하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사상 문화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 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력한 대중 투쟁으로 확대되자 지금 이 투쟁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정부들까지도 합류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양키식 생활 양식을 퍼뜨리는데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영화 회사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지난 4월 버마 정부는 랑군, 만달레이 등에 있는 미국 공보원 산하 도서관, 전람회, 박물관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지난 2월에 미국의 출판물들인 《타임》과 《에이시언 스튜던트》의 배포를 중지시킨 바 있는 쎄일론 정부는 10월에 또다시 가장 큰 친미 신문 련합체를 국유화하였다.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는 미국 기자들이 캄보쟈 정부를 비방 중상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여 지난 4월 자기 나라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 기자들을 축출하였다.

오늘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을 반대하는 각국 인민들의 투쟁은 도처에서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대중적인 반미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반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에 따라 더욱 치렬해지고 있다.

이 투쟁은 민족적 범위를 벗어 나 국제적인 공동 전선의 형태를 취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전선의 중요한 일익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주적인 자유로운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의 넋을 침식하며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 침략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여야 하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저들의 식민지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사상 문화 침략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각성되고 투쟁에 일떠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미제 침략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끌어 들이고 있는 사상 문화는 그것이 퇴폐적이며 반동적이기 때문에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 정책은 조만간에 파탄되고야 말 것이다.

근 로 자 제 23 호 (루계 261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주 소•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12월 3일 발 행• 1964년 12월 5일

ㄱ—430728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4 호 12 월 20 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제24호 (262)
1964년 12월 (하)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치 례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자

오늘 우리의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는 7 개년 계획 수행에서의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힘차게 불러 일으켰다.

전원 회의가 제시한 1965년 계획과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도들은 7 개년 계획의 중요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명백한 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우리의 근로자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7 개년 계획의 네 번째 해를 결속 짓고 그 다섯 번째 해를 준비하기 위한 눈부신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원 회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의 정확한 정책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로력 투쟁에 의하여 금년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는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금년에 공업 부문에서는 그 전진 속도를 견지하면서 중공업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에 계속 힘을 집중한 결과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강계 청년 발전소가 새로 조업하고 강선 제강소의 인발 강관 직장,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석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 공장을 비롯한 중요 대상들의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평양—신의주 간 철도 전기화 공사를 단시일 내에 완공한 것을 비롯하여 철도 운수의 기술적 개건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중공업의 지원 밑에 새로운 경공업 공장들이 건설되고 지방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와 경공업의 원료 기지가 일층 강화되였으며 중앙 공업 기업소들에 전반적으로 생활 필수품 직장들이 꾸려졌다.

농업 부문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길을 따라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강력히 추진되였다. 금년에 장마와 폭풍우 등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농업 생산은 계속 확고히 발전하였다.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도 더욱 높아졌으며 특히 국가의 막대한 방조와 혜택에 의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7 개년 계획의 나머지 3 년 간에 인민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래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천리마의 속도를 견지하며 7 개년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진의 해이다.

전원 회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1965 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구현하는 것이다.

최근 년간의 실천적 경험은 공업과 농업에 새로 창설된 관리 체계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 형태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지금 문제로 되는 것은 새로운 사업 체계의 위력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것이다.

이미 공장, 기업소에 확립된 새 사업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성, 국 지도 일'군들의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의 기본 요구는 모든 관리 운영 사업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생산에 대한 집중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성, 국들이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아래를 도와 주고 군중을 발동하여 문제를 푸는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만 공장, 기업소에 수립된 생산 지도 체계, 계획화 체계, 자재 공급 체계 등의 위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며 모든 관리 운영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지도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갈 뿐만 아니라 내려 가서 아래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아래 일'군들을 도와 줄 데 대한 청산리 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내려 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풀릴 수 없으며 기업 관리의 구체적 측면에 파고 들어 가서 기술 상태는 어떠한가, 자재의 보장 정형은 어떠한가, 로동 행정과 후방 공급 사업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등을 따져 보고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 주며 지도의 성과가 생산의 성과로써 실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계획화 사업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주의 계획화는 엄격한 객관성을 띠여야 하며 군중 로선의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계획은 객관적 조건에 대한 정확한 타산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것은 바로 광범한 생산자 대중의 지혜를 인입함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은 반드시 생산과 관리를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책임 일'군들이 생산 조건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 대중, 생산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대중과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과 국가 앞에 나선 정치 경제적 과업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동원적인 계획이 작성될 수 있으며 또한 세워진 계획이 매일 매 시각 철저히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계획화 사업 체계의 매개 고리들을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이 원만히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계획화 수준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시달된 계획이 매일, 매월, 매 분기, 지표 별로 엄격히 수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하며 특히 원료, 자재의 생산을 가공 공업에 선행시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1 개월 분 이상의 자재, 원료 예비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65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의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면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로동 행정 사업과 절약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고리이며 경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오늘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기술 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만 생산을 더 빨리 장성시킬 수 있으며 우리 앞에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종업원 1 인당 생산을 높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로력 문제의 해결, 물자 절약, 원가와 건설비의 저하, 질 제고와 품종 확대 문제도 모두 주로 여기에 달려 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을 장애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하면서 선진 기술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부단히 취하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은 무엇보다 먼저 생산 계획과 함께 기술 발전 계획을 직접 틀어 쥐고 그 실행을 위한 물질 기술적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산에 더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현존 설비들을 더욱더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술 혁명 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며 그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연구 사업을 잘 지도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대중의 력량을 적극 인입하며 기술 혁신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것이다.

오늘 대중 속에서는 가치 있는 새로운 기술 혁신안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다. 지도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도와 주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발기가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생산에서 능률을 높이며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지체 없이 도입 일반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지난 시기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나라의 생산력을 급격히 발전시켰던 것처럼 도처에서 새 기술을 창조하고 도입하는 전 군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면적 기술 혁명 수행에서 일대 고조를 이룩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 지도에서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과업은 로동 행정 사업과 절약 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로력과 물자, 자금을 극력 절약하면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력을 극력 절약하며 있는 로력으로 생산을 증대시킬 데 대한 당의 원칙을 철저히 관

발하여야 한다.

우선 생산 부문과 비생산 부문 간, 생산 부문 내에서는 기본 부문과 보조 부문 간의 로력 배치의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물질적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로력자 수가 더 빨리 장성하는 것이 합법칙적 현상으로 된다.

지도 일'군들은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로력 배치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매개 생산 단위에서 로동 조직을 부단히 완성하고 근로자들의 생산 조건을 철저히 보장해 줌으로써 단위 로동 시간의 리용률을 더욱더 높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로동 정량 사업을 개선하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며 로동 규률을 확립하고 로동 보호와 후방 공급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과 적극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산 로동의 합리적 리용과 함께 물자 자원을 극력 절약하여 과거 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부문에서 물자의 보관 관리와 그 지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특히 물자 소비 기준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자의 절약 투쟁을 제품의 질 제고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함으로써 제품을 더 가볍고 성능이 높게 생산하며 적은 자재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 기관들과 기업소들에서는 항상 소비 기준, 원가,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의 수행 정형을 분석하며 그것들을 개선하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지역, 모든 단위에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일'군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기풍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정치 경제적 위력과 인민 생활을 더 빨리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며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함에 있어서 각급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 당 조직들과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만 대안 체계의 위력을 더 급속히 발양시킬 수 있으며 기술 혁신, 절약 투쟁도 강화될 수 있다.

특히 당 조직들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해당 단위의 전반적 사업을 끌고 나가면서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고 당 정책의 집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당 조직들은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당원들이 생산 실천에서 항상 모범이 되게 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주동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당 조직들은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이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며 모든 부문에서 긴장한 태세를 견지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맡겨진 혁명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는 데 이악하게 달라 붙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 명확한 투쟁 방향과 목표, 당과 대중과의 불패의 통일 단결,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밑천, 인민 경제의 관리 운영의 개선,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 이 모든 것은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과 7 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새 전투에서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1957년, 1958년에 발휘하였던 것과 같은 혁명적 기세를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키며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자!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과 당 생활의 강화

정 일

간부들은 당의 핵심 력량이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의 지휘 성원들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수립된 다음에 그의 정확한 실현 여부는 전적으로 간부들의 정치 사상적 준비 정도와 조직자적 능력, 혁명적 투지와 완강한 전개력 여하에 달려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간부가 다 건전하고 사상 수준이 높고 다 한결같이 당 정책을 받들고 당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도, 사회주의 건설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다 문제 없이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401 페지).

우리 당은 항상 간부 사업에 제 1 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혁명적 자질을 높이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당과 수상 동지의 부단한 배려로 간부 대렬의 질적 구성은 전례 없이 강화되였으며 간부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그러나 혁명은 계속 전진하며 생활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부단히 심화 발전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는 간부들의 혁명적 자질을 더욱 높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혁명적 수양을 일층 강화할 것을 필수적인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은 자체 학습과 더불어 혁명적 실천 특히는 그들의 당 생활을 통하여 실현된다.

간부들은 자기의 당 생활 과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세련된 혁명 투사로, 인민적 사업 작풍과 혁명적 사업 방법을 소유한 유능한 지휘관으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할 수 있으며 혁명적 수양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높이며 그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당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휘 성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관건적 문제로 제기된다.

* *

간부들은 자신을 혁명적으로 부단히 수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고 불요불굴의 혁명 투지를 배양하며 인민적 사업 작풍을 완성해 나갈 수 있으며 지휘성원으로서의 혁명가적 자질을 더 잘 갖출 수 있다.

혁명적 수양은 간부들에게 있어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

간부들은 우리 당 핵심들 속에서 선발된, 당성이 높은 사람들이지만 누구나 다 처음부터 모든 면에서 완성되고 준비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적지 않은 간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도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소부르죠아 사상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혹 지휘 성원으로서의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고 령도 방법과 작풍이 세련되지 못한 간부들도 없지 않다.

많든 적든 간에 간부들의 사상 생활, 사업 작풍, 도덕적 품성 등에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부족점들은 우리의 사업 발전을 저애하며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실천 활동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에게 아직 잔존하고 있는 소부르죠아 사상 잔재는 그 뿌리가 깊고 또 외부로부터 그 영향이 부단히 작용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것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문제는 오직 부단한 혁명적 수양과 사상 단련을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

오늘 우리 혁명이 더욱 심화되여 감에 따라 간부들에 대한 요구가 부단히 높아지는 사정은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한다.

사회주의 건설을 더 높은 단계에로 추켜 올리기 위하여 우리 앞에는 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련'이어 제기된다. 당의 뜻을 받들고 이 방대한 과업 수행에 떨쳐 나선 대중의 창조적 열성은 비상히 앙양되고 있다.

현실은 간부들이 혁명적 수양을 강화하여 사회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자기의 사상 의식 수준과 령도 작풍을 계속 완성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는 계속 전진하는데 혁명 대오를 지휘해야 할 간부들이 자체 수양을 게을리한다면 그들은 불피코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 가지 못하게 될 것이며 당과 혁명 앞에서 지닌 자기의 지휘자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때문에 간부들은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혁명적 수양에 힘써야 하며 혁명 앞에서 지닌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에 대한 요구성을 더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현 정세와도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오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와 세계 도처에서 자기의 침략적 책동을 로골화하고 있으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분렬시키기 위하여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고 긴장된 환경 속에서 방대한 7 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조국 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영접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계속 강화하는 것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역경에서도 당'적, 혁명적 벼

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혁명적 전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수양은 혁명적 실천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을 떠난 수양이란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으며 혁명 위업에 도움을 주지 못 한다.

이로부터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의 내용은 혁명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실천적으로 우리의 혁명 사업에 리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면 현시기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에는 그가 수행하는 혁명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높은 책임성, 강의성, 원칙성, 불요불굴의 투지, 혁명적 전개력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등이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간부들이 이러한 혁명 정신으로 자신을 확고히 무장하여야만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 타개하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중들을 확신성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다.

간부들의 혁명성은 무엇보다도 혁명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기본 문제이며 특히 우리 혁명의 장기성, 간고성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제국주의가 지구 상에 남아 있고 사회주의가 아직 일부 나라에서만 승리한 조건 하에서 더우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가 채 승리하지 못 한 우리 나라의 조건 하에서 우리는 앞으로 장구한 기간 국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을 지휘해야 하며 오직 간부들이 이 투쟁의 선두에 서서 견결히 싸워야만 혁명의 최후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몇 천년을 두고 이룩하지 못 한 웅대한 규모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것도 적과 대치하여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다른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싸워 나가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장기적이고 간고한 투쟁이며 따라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치렬하고 복잡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고 있다.

혁명 승리의 마지막 봉우리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앞으로도 간난신고가 중중첩첩이 가로놓일 수 있으며 우여곡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어려운 일과 쉬운 일, 궂은 일과 좋은 일을 가리면서 안일하게 생활하며 사업할 수 없다. 오직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라도 서슴 없이 바칠 줄 아는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살며 일해 나가야 한다.

간부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힘을 다하며 혁명 사업과 인민 대중의 운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 지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사상 관점,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혁명의 전망을 내다 보고 군중을 확고히 인도하며 언제나 로동 계급의 립장에 서서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며 난관 앞에서 굴하지 않고 혁명 승리를 끝까지 보장하는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또한 온갖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 의식과 생활 양식, 현대 수정주의, 기회주의 사상 조류들의 침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간부들이 조선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남반부 혁명에 대하여 잠시도 잊지 않고 생각하며 그를 완수하기 위하여 긴장된 태세로 사업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간부들이 항상 조선 혁명에 대하여, 남반부 혁명에 대하여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결코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도 발로되지 않을 것이며 긴장되고 긴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모든 혁명 과업을 조국 통일의 위업과 결부시켜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이 머리를 쓰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중요한 것은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간부들의 이러한 기풍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만세〉만 부르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것이 아니다. 만세는 안 불려도 사업을 잘 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한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327 페지).

보는 바와 같이 일'군들의 혁명적 기풍은 무엇보다도 그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떻게 접수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 데서 뚜렷이 표현된다.

특히 군중 속에서 당의 정책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의 관철을 위한 사업을 직접 책임 지고 조직하고 집행하는 간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확립하는 문제는 간부들의 수양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며 간부들의 정치적 자각성과 혁명적 자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간부들이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불굴의 강의성과 혁명적 전개력을 발휘할 때만이 그들은 항상 당'적, 혁명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확신성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당 정책 관철에서 일'군들의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려면 우선 매 시기 제기되는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정책은 우리 나라에 구체화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사업과 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으로 된다.

당 정책을 잘 모르고서는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자기의 혁명적 주견과 립장을 튼튼히 세울 수 없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 정책 특히는 자기 부문의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심오히 연구하고 그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깊이 파악하며 그것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 집행하는 습성을 철저히 배양하여야 한다.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한 간부들에게 불굴의 강의성과 혁명적 전개력이 요구된다.

당이 내세운 정책은 말로써가 아니라 매개 부문 앞에 부과된 당'적 과업 집행을 위한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은 항상 구체적인 조건과 정황 속에서 진행되며 그 과정에는 예견하지 못 하였던 크고 작은 난관들이 제기된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당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의 혁명가다운 강의한 의지와 완강한 전개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이 나라의 살림'군답게 당과 혁명에 조금이라도 더 리익을 주기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며 밤'잠을 자지 않고 이악하게 노력한다면 당 정책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다음으로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혁명적 군중 관점과 령도 작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간부들의 혁명적 자질은 결국 군중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령도 작풍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중의 창조적 열성을 남김 없이 조직 동원하며 군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결속시키는 사업은 간부들의 군중 관점과 령도 작풍에 크게 달려 있다.

당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간부들이 관료주의, 형식주의적으로 사업한다면 결국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사회주의 건설에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없다.

혁명은 군중을 위한 사업이며 군중 자신의 사업인 것 만큼 군중에 대한 관점 문제, 령도 작풍 문제는 곧 혁명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 문제에 귀착된다.

간부들이 주관적으로는 혁명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천에 있어서는 대중을 홀시하며 대중에게 명령하며 대중의 리익을 침범하게 되였다면 그는 벌써 자신이 혁명적 립장에 확고히 서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이 대중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투쟁하는 까닭이며 그들이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령도 작풍을 소유한 까닭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로부터 간부들이 군중 관점과 령도 작풍을 확립하는 문제는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사상 상 문제이며 따라서 부단히 완성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수양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은 우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본질을 철저히 체득하여야 한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근저에는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이 놓여 있으며 그 내용에는 맑스-레닌주의 령도 작풍이 집중적으로 체현되고 있다.

우리 당의 실천적 경험은 간부들이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의 본질을 깊이 연구 파악하고 실천 활동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군중에 대한 더욱 정확한 태도와 관점을 가지게 되며 자기의 령도 작풍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간부들이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사상 잔재와 《틀》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군중 속에 들어 가 허심하게 배우며 그들과의 산 련계를 맺으며 그들의 애국적인 발기를 지지하며 그들의 앙양된 혁명적 기개를 새로운 로력적 위훈에로 옳게 조직 동원하는 당'적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체득하는 것은 군중 관점과 령도 작풍의 확립에서 선결 조건으로 된다.

간부들의 령도 작풍을 확립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그들이 항상 당원들과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하는 것이다.

간부들의 이신작칙은 일찌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작풍의 하나이다.

평북도 창성군, 벽동군 당 위원회 지도 일'군들의 경험은 간부들이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연구 침투시키는 사업에 제 1 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그의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며 자신의 수범으로써 대중을 교양하며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되여 그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는 당 정책이 어김 없이 성과적으로 관철된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인간성과 문화성 제고는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고상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중과의 련계, 사람과의 관계를 단순한 행정 실무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혁명 동지들의 호상 관계에까지 발전시켜 나간다.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

며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끌고 나가는 것은 그들의 품성에서 고유한 것이다.

군중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동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혁명가로,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동시에 간부들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감정을 풍부히 소유하고 례의 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문화 위생적으로 생활할 줄 알아야 한다.

간부들의 정치적 준비와 인간성은 문화성에 의하여 더욱 풍부화된다. 일'군들의 문화성을 높이는 것은 공산주의자로서의 다방면적인 소양, 혁명가적 품성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된다.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하기 위한 자체 학습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당이 오늘 간부들 속에서 학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

간부들은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옳게 파악하고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며 자각적인 학습 기풍을 세움으로써 자체 수양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기에 힘 써야 한다.

자체 수양을 위하여 간부들이 중요하게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하여 자신의 정치 사상 리론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동시에 특히 혁명 전통을 심오하고 폭 넓게 연구 체득하는 것이다.

항일 투사들의 간고한 투쟁과 생활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단련과 수양의 산 모범이며 그들의 투쟁 업적과 혁명 정신, 인민적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은 오늘 우리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귀감으로 되고 있다.

항일 투사들의 산 모범을 성실히 배우며 그와 같은 정신으로 일하려는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세련된 혁명가로 자라 날 수 있으며 자체 수양을 급속히 완성해 나갈 수 있다.

* *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자체 학습과 함께 그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간부들은 혁명을 위하여 배우며 혁명적 실천 활동 과정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시켜 나간다.

실천 활동 과정을 통한 혁명적 단련이 없이는 진실로 맑스-레닌주의적인 립장과 관점, 세련된 령도 방법과 작풍 등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 혁명적 품성을 배양할 수 없으며 로숙한 혁명가,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없다.

이것은 군중 지도 사업의 경험이 적고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젊은 간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간부들의 혁명적 실천 활동은 그들의 당 생활 과정이다.

왜냐 하면 간부들의 당 생활은 곧 그

들의 정치 활동이며 혁명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간부들은 당 생활을 강화하며 당'적 위임을 성실히 집행하는 행정에서 자기의 당성을 단련하고 령도 작풍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실천적 경험은 만일 간부들이 당 생활에 성실하게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당과 혁명에 충실하려는 주관적 욕망이 높은 경우에도 현실 생활에서 뒤떨어지게 되며 대중과 유리됨으로써 자기의 부족점을 제때에 시정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자신을 의식적으로 단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문제는 그들의 당'적 수양과 혁명적 단련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서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당'적 요구의 기본은 간부들이 당 생활 규범을 옳게 인식하고 그가 차지하고 있는 직위와 공로를 불문하고 례외 없이 자신의 당 생활을 자각적으로 조직하며 총화하는 것을 습성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원래 당원들이 당 생활에 참가하는 태도는 어디까지나 자각적이며 자주적이여야 한다. 그러나 간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당원들보다 그 준비 정도가 높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당 생활 지도에서 노는 역할과 군중 사업 지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며 그들에게 부과된 당'적 책임이 무겁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당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당'적 위임 실행에서 항상 당원들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간부들의 당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 규약 학습을 심도 있게 진행하며 당 규약 상 의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자체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간부들이 당 규약 상 의무를 당 정책 및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밀접히 결부하여 깊이 파악하는 동시에 자체 실정에 맞는 실천적 방도를 찾아 낼 때까지 매 조항마다 따져 가면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규약 상 의무를 한 조목씩 따져 가면서 학습하는 과정은 곧 간부들이 자기의 당 생활 정형을 스스로 검토하고 총화하는 과정으로 되며 거기에 기초하여 실천적 방도를 찾아 낸다는 것은 당 생활 규범에 어긋남이 없이 일하며 생활하려는 당'적 자각성의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간부들이 당 규약 상 의무에 기초하여 자신의 당 생활을 자각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그들 속에서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이여의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본 고리로 된다.

간부들의 당 생활 체계 확립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적 분공에 대한 자각적 태도이다.

간부들에게 있어서 당'적 분공은 당

조직과 자기 자신의 높은 요구성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 하면 간부들에 대한 당'적 분공의 주되는 내용은 자신의 혁명적 수양을 높이며 당원들과 군중들을 교양 개조하며 실천적 모범으로 군중을 혁명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등 높은 책임성을 요하는 무거운 과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적 분공은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간부들의 의식적인 투쟁과 자각적인 열성, 그리고 필요한 실무적 준비에 기초해서만 성과 있게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간부들은 자기에게 당'적 분공이 차례질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당'적 분공을 받으며 항상 일을 찾아서 그것을 자각적으로 집행하는 습성을 배양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또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당 생활을 스스로 총화하는 기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당 생활에 대한 일상적인 총화는 간부들이 당성을 단련하며 혁명적 수양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간부들의 당 생활 총화의 중심이 어데까지나 그들의 혁명적 수양을 높이는데 있는 것 만큼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간부들이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신의 결함과 부족점에 대한 자체 검토가 심각하면 할수록 그 만큼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부들이 당 분조 회의, 당 세포 총회, 집행 위원회 등 소속된 당 조직들에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을 검토 비판할 용의를 가져야 하며 매일 자기 스스로 당 생활을 총화함으로써 사소한 결함이라도 제때에 고쳐 나가야 한다.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간부들의 당 생활은 자각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간부들이라 하여 그들의 자각성에만 의존하고 지도를 적절히 배합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점을 제때에 시정할 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적 자질을 계통적으로 높일 수 없다.

그러므로 각급 당 조직들은 간부들의 당 생활을 전면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계통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당 기관의 책임 일'군들이 간부들의 당 생활을 직접 장악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간부들의 당 생활을 장악 ·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상응한 지도 수준이 요구되며 그들의 준비 정도에 맞게 책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책임적 일'군들은 그 위치로 보아 바로 이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부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사업하는 과정을 통하여 간부들의 당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양하며 실'속 있게 도와 줄 수 있다.

또한 책임 일'군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만이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를 당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만일 당 위원회의 책임 일'군들이 간부들의 당 생활을 직접 장악하지 않고 부서에만 일임하거나 수준 어린 일'군들에게 맡기고 만다면 이 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당 생활에서 그들의 자각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당 위원회 부서들, 특히 조직부, 선전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부와 선전부는 자기의 기능에서 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 생활을 지도하는 부서로서의 본질적 사명은 동일하게 수행한다. 간부들의 당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두 부서는 항상 통일적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조직부는 매개 간부들의 당 생활을 계통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나타난 본질적 편향들과 개별적 일'군들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강구하여야 하며 선전부는 료해된 자료에 기초하여 결함과 부족점을 시정하기 위한 교양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에서 부서들의 기능이 높아야만 그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지도 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간부들이 당 생활을 건전하게 하도록 적절한 방조를 줄 수 있다.

당 위원회는 또한 간부들의 당 생활을 직접 장악 지도하는 한편 그들이 속하고 있는 당 세포의 역할을 높이는 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간부들에게 있어서도 당 생활의 거점은 역시 소속된 당 세포이다.

그러므로 간부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에서 주는 지도와 그들이 속한 당 조직의 통제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 응당하다. 이 량자를 결합하는 것 즉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상급 당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지도와 해당 당 조직의 통제, 당원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통제와 결합하는 것은 간부들을 혁명적으로 세련시키는 가장 위력하고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이다.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높이며 당 생활을 강화하는 문제는 결국 항일 혁명 투사들처럼 혁명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유능한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부들의 공산주의 교양과 자체 사상 투쟁을 밀접히 결합함으로써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모든 간부들이 당 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을 부단히 혁명적으로 단련한다면 당원들의 당 생활 지도에서와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군중 사업 지도에서 더욱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기여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의 상업의 역할

정　　혁　　남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업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상업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실현하는 데서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과정에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잘 실현하는가 못 하는가에 따라서 공업과 농업 생산의 발전 속도,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 로농 동맹의 강화 등 사회주의 건설에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성과적 해결이 크게 좌우된다.

《사회주의 농촌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43 페지).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를 발전시키는 데 항상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이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왔다.

1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상품-화폐 관계의 발생 발전과 운명을 같이 하는 력사적 산물이다. 이는 사회적 분업의 발전 과정에서 농업으로부터 수공업이 분리되고 상품-화폐 관계가 발생함과 함께 발생하여 여러 사회에 걸쳐 부단히 발전하여 왔다.

오늘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확립된 우리 나라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인민 경제 부문 간 련계의 중요 형태의 하나로서 부단히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부터 오는 필연적 현상이다.

우리 나라에는 이미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자본주의적 소유는 완전히 청산되고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만이 남게 되였다.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인민 경제의 2 대 부문인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업이 자체의 재생산 과정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을 호상 교류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하에서도 상품-화폐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러한 생산물의 교류는 그 많은 부분이 상품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품 교환이 매일과 같이 반복됨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일찌기 레닌은 《…대규모 〈사회화된〉 공업의 생산물과 농민의 생산물과의 교환, 이것이 사회주의의 경제적 **본질**이며 그 토대이다》(레닌 전집 제 32 권, 417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그전 사회에 존재하던 상업적 련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의 성격

은 소여 사회에서 지배적인 생산 방식의 성격에 의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되며 그것은 또한 도시와 농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계급들 간의 경제적 관계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전 생산 방식 하에서 상업적 련계는 지배 계급이 농민을 착취하며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그것은 바로 공업 생산물과 농업 생산물의 부등가 교환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며 공업품 가격이 일방적으로 등귀하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 현상으로 된다.

최근 년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농산물 가격과 공업품 가격의 변동 동태는 이것을 잘 말하여 준다. 최근 10 년 간 미국에서의 농산물 도매 가격은 11%나 저하된 반면에 기타 상품 가격은 28%나 더 등귀하였다.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에서도 공업품(주로 미국의 잉여 상품을 기본으로 하는) 가격이 해마다 급격히 등귀되고 있는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재생산을 보장할 수도 없는 정도로 폭락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근절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계급적 대립이 청산된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에서는 불평등이 완전히 제거되고 새로운 관계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로농 동맹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 자체의 본성과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의 점차적 소멸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로동 계급의 국가는 착취 계급을 타도하는 데 만 리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상품-화폐 관계와 관련된 제반 경제적 공간들을 주동적으로 리용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공업과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농업 간의 상업적 련계는 이전 사회의 그것과 구별되는 원칙적인 차이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 경제 하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가 완전히 등가적 원칙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공업 생산물과 농업 생산물 간의 등가적 교환—이것은 농산물 수매 가격과 공업 상품 가격의 합리적인 조절을 통하여 부단히 완성된다. 이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들 간의 계급적 리해 관계의 공통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차이는 또한 비조직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련계가 없어지고 공고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련계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련계는 사회주의 국가가 작성하는 수매 계획과 농촌 상품 공급 계획에 의거하여 수매 및 상업 기관들이 자기의 계획적인 활동을 통하여 실현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 농촌에 대한 착취자였던 도시는 오늘은 농업 생산력의 장성과 농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강력한 기지로 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에서의 이러한 원칙적 변화는 경제 생활에서 그것이 노는 역할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농촌에 대한 상업 자본의 침투를 실현하고 농촌의 계급 분화를 추진시키며 농민 대중을 상업 자본가에게 예속시켜 착취와 빈궁의 도가니 속에 몰아 넣으며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 경제적 대립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공업과 농업,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와의 밀접한 련계를 보장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본질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적극 기여하게 된다.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 국가는 한편으로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소농기구와 각종 비료, 농약들을 계획적으로 농촌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농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 생산물을 제때에 실현해 줌으로써 농촌에서 협동 경리의 강화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부단한 확대 재생산을 보장한다.

또한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 농촌 주민들의 화폐 수입을 장성시키고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자극하며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의복, 신발, 가정 및 문화용품들을 원만히 공급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문화용품들과 위생용품들의 공급을 통하여 농촌 주민들의 소비 구성을 부단히 개선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을 사회주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도시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로 부단히 접근시킨다.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실현하는 상업은 농촌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업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복무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 농촌이 도시 경공업에 필요한 각종 농산 및 축산물 원료를 계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며 생산된 공업 상품을 제때에 실현시켜 공업 발전을 촉진시킨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 식량과 육류, 채소, 과실 등과 부식물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주민들의 식생활 조건을 부단히 개선하며,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도시 주민들과 농촌 주민들의 생활의 균형적 향상을 보장하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종국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소멸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촌에 공업 상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업 상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장성시키고 상품의 실현을 촉진하여 공업 발전을 더욱 추동할 수 있다. 또한 이 련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도시 주민들과 공업의 식량 및 원료 수요를 보장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장성시키고 농촌 경리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의 이러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으며 이 문제를 항상 정확히 해결하여 왔다.

2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각이한 단계에서 상업적 련계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서로 다르게 설정된다.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되기 이전 시기에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가 주로 상업적 련계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을 수 없으며 상업적 련계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로 된다.

과도기 초기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의 실현에서 상업적 련계가 가장 중요한 형태로 되는 것은 대규모 공업과 소농 경리 간의 경제적 기초의 차이와 관련되며 더욱 중요하게는 소농 경리의 특성과 관련된다.

아직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가 축성되지 못하고 개인농 경리가 지배적인 과도기 초기에는 사회화된 공업과 분산적인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 자체가 심히 제한된다.

다른 한편 상업은 농업 생산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생산 수단과 소비재를 공급하며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 축성을 위하여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농업 생산물을 확보하며 개인농 경리를 점차 사회주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농업 생산 장성에 대한 개인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업의 급속한 부흥 발전과 나아

가서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의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과도기 초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상업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상업적 련계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 왔다.

당은 조건이 성숙되는 차제로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 형태를 창설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면서 주로 상업적 련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과도기 초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여 왔다.

소비 조합 상업 체계를 비롯한 각종 상업 및 수매 체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가격 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등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이 취한 제반 조치들은 공업 생산물과 농업 생산물의 교류를 원활히 보장하고 공업 및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의 향상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놀았으며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착취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협동화의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작용을 놀았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시기에 와서 상업적 련계의 위치는 그전 시기와는 다르게 규정된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생산적 련계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며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기본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호상 관계,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는 공업에서 생산되는 일부 생산 수단을 농촌에 공급하면서 주로는 협동 농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상업적 련계의 의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농촌 경리의 생산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촌에서 상품 잉여 생산물이 급성장하고 그 실현 문제가 제기되며 농촌 주민들의 생활과 [illegible] 수요도 더 커지게 된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 상업적 련계가 가지는 [illegible] 우선 증대되는 [illegible] 적시적 실현을 보장하고 [illegible] 증대를 지속하며 농촌 주민들에 대한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수매 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더우기 최근 2~3년 내에 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농산물을 수매 공간을 거쳐 국가의 수중에 집중하게 되는 조건에서 수매 공간의 정비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수매 기구, 수매 방법, 수매 가격 등 제 문제의 정확한 해결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수중에 들어 오는 농산물의 수량과 그 품종 구성이 규정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국민 소득의 분배, 공업과 농업 간의 소득 분배가 크게 좌우되며,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의 수입 수준이 규정된다.

당은 농산물 수매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illegible] 수매 체계를 일층 [illegible] 그 [illegible] 매개 시, 군에까지 확대하는 [illegible]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illegible] 다양한 수매 방법과 [illegible] 도입하게 하는 구체적 조치를 [illegible].

현 시기 수매 공간의 정비에서 당이 특별히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가격 문제이다.

당은 가격 [illegible] 구체적 측면 [illegible] 고려하여 협동 농장들에 [illegible] 보상하고 재생산을 [illegible] 보장할 수 있도록 [illegible] 에 기초된 [illegible] 가격을 [illegible] 하고 있다.

이 원칙에 의하여 인민 경제에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지는 량곡, 육류, 과실 등 계획 수매 농산물의 수매 가격을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자유 수매 농산물에 대한 수매 가격은 지방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에 준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의 정확한 조치들에 의하여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 흘러 들어 오는 농산물의 량은 최근 년간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국가 자유 수매량도 1961년에 비하여 1963년에 1.5 배, 작년 11월에 비하여 금년 같은 시기에 144.3%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리 하여 금년 한 해동안에만 하여도 육류는 2.4 배, 그 중 돼지 고기는 8.3 배, 가금류는 1.7 배로, 계란은 1.3 배, 과실은 2.3 배, 산채류는 2.1 배로 각각 그 수매량이 장성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수매량의 급격한 장성은 도시 주민들을 위한 식료품 공급 원천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도시의 영향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의 실현에서 주민들에 대한 공업 상품의 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농촌 상업 체계의 개선이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촌 상점망은 바로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공업 상품이 흘러 들어 가는 기본 통로이며 농민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는 수단으로 된다.

우리 당은 이미 1958년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고 협동 농장들이 리 단위로 통합되여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비 조합 상업을 협동 농장의 관리 하에 넘겨 줌으로써 협동 농장들이 자체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를 계획적으로 련결시키게 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농촌 상업으로 하여금 농업 생산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하였다.

당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조성된 새로운 조건 즉 도시와 농촌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상업적 련계의 규모가 확대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게 농촌 상업을 국영 상업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촌 시장을 보다 높은 사회화 수준에로 끌어 올렸으며 농촌에서의 상품 류통을 더욱 조직화하고 계획화할 수 있게 하였다.

당의 이 조치는 첫째로, 전 인민적 소유가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상업적 련계를 통하여서도 협동적 소유를 더욱 강력히 지원하며 둘째로, 장성하는 농촌 주민들의 상품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공업 및 농업 생산의 발전을 자극하며, 세째로, 농촌에서의 전반적인 상업 활동을 도시 상업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릴 수 있게 하였다.

당이 최근 년간 농촌 상업 분야에서 취한 모든 조치의 정당성은 농촌 상품 류통액의 부단한 증대와 그 질적 구성의 개선에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 상품 류통액은 1956년에 비하여 1963년에 168%, 지난해 11월에 비하여 금년 동기에 125.8%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것은 농촌 상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상품적 관계가 부단한 확대의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당은 오늘 협동적 소유의 특성과 개인 부업 경리의 존재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농민 시장 통로를 또한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 400여 개에 달하는 작고 큰 농민 시장들이 도시와 농촌의 각지에 포치되여 국가 상업 및 수매 통로를 보충하면서 그 손이 덜 미치는 부분에서 각종 농부산물과 세소 상품에 이르기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실현하며 농민들에게 생활 자료 구입의 일정한 편리를 도모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 농장 직매점 역시 상업적 련계를 실현하는 통로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은 매 시기 상품 공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상업 활동에서 인민성, 계급성, 당성의 원칙을 견

지하며 그것을 관철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다.

우리의 상업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복리 향상과 살림살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 지는 립장에서 일하는 것은 사회주의 상업 그 자체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필연적 요구이다.

인민성, 계급성, 당성 원칙은 인민대중에 대한 상업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에서, 대중과의 련계에서 표현된다.

상업 일'군들이 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에 서서 사업을 할 때에만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고 온갖 편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다.

특히 농촌 주민들의 수요를 일상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모든 상품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며 품종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농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상품들이 매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관심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할 때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은 충분히 발휘될 것이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3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 상업적 련계의 실현에서 군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군을 거쳐서 도시로 들어 가며 도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업 제품은 군을 거쳐서 농촌에 공급된다.

그러므로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고리로 된다.

《군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지어 주는 거점으로 되며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 된다 …군이 공급 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나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하면 할수록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는 더욱더 밀접해지며 따라서 이 련계를 지어 주는 군의 역할과 기능도 더욱 커지게 된다.

군의 역할과 기능을 높임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군 자체의 공급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군은 자체의 공급 기지를 강화함으로써만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조건들을 축성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매개 군에는 직물, 장유, 가구, 제지 공장 등 평균 10여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여 농촌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매개 군에는 수십개에 달하는 국영 상점망들이 조밀하게 포치되여 강력한 공급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군 자체 공급 기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바로 군내 지방 공업을 튼튼히 꾸리고 상품 자원을 풍부하게 조성하며 군내 상품 공급망들을 정비하여 정연한 상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당은 지방 산업 공장들의 물질적 토대를 계속 튼튼히 꾸리고 그 원료 기지를 확고히 조성하며 군내 주민들의 상품 수요에 적응하게 각종 생활 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한편 군내 공급망들의 업무 활동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상품 자원을 계획적으로 집중시켜 농촌 공급에 필요한 상품 원천을 확고히 조성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상업 활동을 개선함에 있어서 당이 내세운 중요한 방침의 하나는 농촌 상점망을 주민들의 생활 단위에 최대한으로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합리적으로 포치하며 매개 농촌 지역들의 특성과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적응하게 상품을 골고루 배정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 부락들이 분산되어 있고 생산 활동이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동 판매, 주문 판매 등 다양한 판매 방식과 방법을 도입하여 상품 공급을 적극화하고 개선할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농촌 주민들의 생산 및 생활 조건에 적응하게 필요한 상품을 원만히 공급할 수 있으며 상업적 련계 실현에서 군의 역할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 실현에서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측면의 다른 하나는 군 자체의 수매 기지를 강화하고 수매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이다.

군 자체의 수매 기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바로 군내의 땅과 산, 하천을 최대한 리용하여 수매 원천을 계획적으로 더 많이 조성하며 수매망들을 정비하여 공고한 수매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은 자체의 수매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의 상품 생산물을 제때에 사들임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생산 의욕을 부단히 높여 주며 동시에 도시 주민들과 공업에 대한 식량 및 농업 원료의 공급을 원만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어데를 가나 각종 농산물과 축산물은 물론 산채, 과실 등 수매 원천이 풍부하다.

또한 매개 군에는 식료품과 일반용품을 중심으로 수매망들이 업종 별로 조밀하게 포치되여 있다.

당은 수매 사업에서 가격, 품종, 지역에 대한 일체 제한을 없애고 농촌의 위탁 수매망을 포함한 모든 수매 거점들이 농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수매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부산물을 수매하여 도시에 공급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침이 실현됨으로써만 군은 농산물 수매가 가지는 본래의 사명에 맞게 도시와 농촌 간의 상업적 련계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　　　　　※

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시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의 실현에서 상업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함으로써만 우리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더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공업을 더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소멸을 촉진할 수 있다.

재일 동포들의 애국적인 문학 예술

장 형 준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재일 동포들의 가슴 속에 조선 민족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자주 독립 국가의 공민으로서의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 주고 있다.

재일 동포들은 이러한 민족적 자각과 공민적 자부심을 가지고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생활권을 옹호하여 힘차게 투쟁하여 왔으며 또 투쟁하고 있다.

문학 예술의 발전은 항상 인민의 혁명적 운동과 보조를 같이 한다. 혁명 운동이 있고 민족 의식이 높은 그러한 곳에서는 민족 문학 예술이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문학 예술의 한 줄기로서 꽃피고 있는 재일 동포들의 문학 예술은 바로 그들의 줄기찬 애국 운동의 파도를 타고 발생하였고 그 거센 흐름과 함께 발전하였다. 그리 하여 그것은 재일 동포들의 지향을 반영하고 그들의 심장에 민족의 긍지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겨 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하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문학 예술로 되였다.

오늘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은 동포들의 열렬한 사랑 속에서 활짝 꽃피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 성과가 날로 커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일 동포들 속에서 문학 예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이 일본이라는 자본주의 나라에 폐쇄되여 살면서 미일 반동 계층의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온갖 퇴페적인 부르죠아 반동 문학 예술의 포위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더욱 그러하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오직 조선 로동당의 문예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총련의 지도 하에 굳게 뭉침으로써만 그러한 엄혹한 조건 하에서도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치를 옹호하며 창작의 사상 예술성을 부단히 제고할 수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학 예술이 찬란히 발전하고 거대한 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조직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조직이 전체 작가 예술인들을 망라하는 강력한 문학 예술 부대로 되기 위해서는 옳은 지도가 보장되여야 하는 것이다.

1955년, 재일 조선인 총련합회의 창립은 문학 예술도 포함한 재일 동포들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력사적 계기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옳은 정책을 받들고 총련은 창설된 첫 날부터 전체 재일 동포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시키며, 그들을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의 옹호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반미 구국 투쟁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하였다.

총련의 지도 하에 전개된 재일 동포들의 애국 운동은 그 대로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의 창작적 방향을 규정하여 주는 동시에 그에 혁명적인 생활적 내용도 주었다.

총련은 또한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을 옳게 교양하고 그 대렬을 튼튼히 꾸리면서 우리 당의 문예 정책을 관철하도록 그들의 창작 사업을 백방으로 지도하고 도와 주었다.

1959년, 총련의 지도 하에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무용, 영화, 사진 등 7 개 부문을 총망라한 재일본 조선 문학 예술가 동맹(문예동)이 창립된 것은 재일 조선 문학 예술 운동에 있어서 참으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로 되였다.

문예동은 총련의 지도 하에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 예술적 수준을 제고하며 조직적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문예동은 창작에서 일체 불건전한 사상 요소들을 극복하고 반동적 부르죠아 문예 조류와의 투쟁을 강화하였으며 모든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적인 민족 문학 예술 창작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였다.

지난 6월에 진행된 문예동 제 3 차 대회는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 조직적인 장성과 거대한 창작적 성과를 과시하였다.

문예동 대렬은 제 2 차 대회 당시에 비하여 약 2 배로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통일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 또한 이제는 대다수의 작가들이 모국어로 훌륭하게 창작하게 되였으며 음악, 무용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 특성이 풍만하게 구현되여 우리 인민에게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향기가 잘 발양되고 있다.

각 부문의 총화는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 활동이 량적으로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 예술적 질이 현저히 제고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오늘 전체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동포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조국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며, 공화국의 재외 공민으로서의 당당한 생활권과 조국으로의 자유 왕래를 포함한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 차게 싸우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민족 단합과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며 조 일 량국 간의 문화 교류와 조 일 인민들 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이 비단 60만 재일 동포들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 인민의 혁명 위업에 복무하는 예리한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의 기본 주제는 조국과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이다. 이것은 재일 작가 예술인들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기본 열정이며 주되는 사상적 기백이기도 하다.

이러한 애국적 주제와 기백으로 일관된 문예 작품은 재일 동포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과 혁명 전통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친석 같이 단결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교양적 의의를 가진다.

조국을 잃은 설음을 안고 수십 년 동안이나 이국 땅에서 갖은 고초를 겪어 온 재일 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은 조국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되고 있으며, 그들의 심장에는 조국을 오늘과 같이 륭성 발전시켜 주고 자기들에게 공화국 공민의 영예와 긍지를 안겨 준 당과 수령에 대한 존경과 충성이 끝없이 흘러 넘치고 있다.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은 조국에 대한

선명한 형상과 열렬한 기백을 통하여 동포들의 이러한 동경과 지향에 보답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의 오늘과 래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그들에게 안겨 주고 있다.

송가 《영광을 조국에!》에서 시인 허남기는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15년의 세월을 두고 조국의 찬란한 업적과 위대한 힘에 대하여,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래일의 휘황한 승리에 대하여 온 심장을 다하여 격동적으로 노래하였다.

15년이란 세월은 우리 우에도, 원쑤들의 우에도, 조국의 북녘 땅에도, 남녘 땅에도 정확하게 흘렀으나 그 동안에 조선 인민이 일제가 파괴한 폐허 우에, 미제가 마스고 간 재'더미 우에 이룩해 놓은 거대한 성과는 원쑤들의 계산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기의 시를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우리 우에
　흐른 십오 년의 세월은
　　그 어느 일각인들
　　　잊지 못 할 나날,
　　　　귀중한 시간,
우리 우에
　흐른 십오 년의 력사는
　　그 어느 한 때인들
　　　승리의 나날이 아닌
　　　　날이 없은 세월,
우리 오늘
　원쑤들에겐
　　백오십 년으로도
　　　천오백 년으로도 될
　　　　그 휘황한
　　　　　불사조의 나라,
　　　　　　천리마의 나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십오 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잔 가득히
　　　붉은 술 처서
　　　　하늘에 올리라
　　　　　목소리 높여
　　　　　　축배 올리자
　　　　　　　축배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륭성 발전을

　　　　축원하는 노래를!

이 시인에게 특징적인 정론가의 개성은 이 송가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자랑은 조국과 시대를 정면으로 노래한 이러한 정론적인 송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 화수의 서정시 《안해여, 오늘 따라》도 안해에 대한 살뜰한 생활적 감정을 통해 조국에 대한 고마움과 공화국의 아들딸 된 보람을 민족적 서정으로 잘 노래하고 있다.

서정적 주인공—시인은 조국 태왕의 요청 서명을 받으려고 가두에 나간 안해를 대신하여 조국의 열다섯 돐을 축하하는 저녁 상을 차려 놓고 가두에서 저고리 모습으로 절절히 웨쳤을 안해를 생각하며, 귀국하여 반백에 처음으로 청춘을 맞이한 부모들의 행복과 조국의 고마움을 가슴 후덥게 느낀다.

조국의 고마움을 가슴 깊이 느낀 서정적 주인공은 자기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다:

정말 안해여!
오늘 따라 더우기 생각나누나
우리의 인민 주권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 지금 여기서는 어려운 일 있어도
그 무슨 없어서가 아니잖소,
나라를 위해서 잠간
작업복을 입은 채 일터에 섰을 때름

우리에게 부족한 건 오로지
조선의 딸인 당신이
조선의 아들인 내가
수령님의 교시 대로
맡은 일 다하지 못 한 것 뿐이라오.
자, 안해여 어서 이리 앉으라우

그리고 저 창 밖을 보오
별 밝은 이런 밤도 드물었거니
래일의 경축 대회는 더욱 즐거웁겠소

이 시에는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는 젊은 투사의 감정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민족 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귀국 운동과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있다.

오늘 일본에서는 조선 대학을 비롯한 우리의 각급 학교들에서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재일 동포들이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강력한 애국 운동을 전개한 데서 쟁취한 고귀한 투쟁 열매이다. 지난날 민족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미 일 반동의 야만적 탄압을 받고 가혹한 희생을 강요 당하였던가!

박 원준의 레뽀르따쥬 《4.24의 회상》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은 동포들의 이 완강한 투쟁과 원쑤들의 야만적 탄압을 력력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글은 재일 동포들의 간고한 투쟁에 바쳐진 생생한 력사적 기록이며 원쑤에 대한 준엄한 론고장이다.

재일 조선 문학 예술에는 적들까지도 《자유 세계로부터 공산 세계에로의 력사 상 전례 없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재일 동포들의 귀국 운동과 그 실현의 력사적 사실이 생동한 화폭으로 훌륭하게 고착되여 있다.

문예동 기관지 《문학 예술》을 위시하여 많은 잡지, 신문들과 단행본들에는 귀국의 감격에 바쳐진 시, 정론, 수필, 단편 소설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남 시우의 《귀국 사초》와 정 백운의 《또 다시 니이가다에서》를 비롯한 많은 문학 작품들과 《귀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롯한 미술 작품들, 그리고 무용, 연극, 영화 등 제 형식을 통해서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귀국 실현의 커다란 감격을 묘사하고 노래하였다.

또한 안 우식의 시 《불 타는 념원을 안고》, 바라이데 《동해의 노래》 등 작품들에는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재일 동포들의 슬기로운 모습이 잘 반영되고 있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제반 애국적 활동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동포들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다방면적으로 반영하면서 자기들의 작품들에 혁명가적 기질과 품성을 소유한 다양한 긍정적 주인공들을 전형화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총련 일'군도 있고 교원도 있고 학생도 있고 평범한 가정 부인도 있다. 그들의 년령과 개성은 각이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조국의 위대한 광망과 총련의 지도 하에 성장하고 발전한 새 형의 애국자들이며 시대의 위대한 정신과 민족의 고상한 감정 속에 사는 새로운 전형들이다.

조 남두의 단편 《비 오는 날》의 청년 김 봉길, 김 재남의 단편 《승리의 날에》의 교원 박 태인, 김 민의 단편 《포옹》의 녀교원 영숙이를 비롯한 많은 소설의 긍정적 주인공들은 모두 이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들은 투쟁의 전초에서 헌신적으로 싸우는 사회 활동가-투사이기도 하고 감화 교양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심장에 민족적 자각과 재생의 뜨거운 씨앗을 심어 주는 새 형의 교육자—투사이기도 하다.

오늘 재일 동포들 속에서는 모범 분회 창조 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 오르고 있으며 상부 상조의 미풍이

더욱 보편화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금후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애국적인 전형을 보다 많이 창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 사업과 문화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다.

남 북의 우리 인민 전체가 한결같이 열망하고 있는 조국 통일의 위업이 오늘날까지 실현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창작과 공연 활동에서 미제와 박 정희 매국 역도를 반대하며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과 재일 동포들의 투쟁을 반영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

《반미 구국 투쟁의 노래》를 비롯한 가요들과 수 많은 시, 소설, 연극 《단 하나의 길》과 가무 《평화 통일의 길》 등과 같은 작품들이 그 실례로 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죄악을 백일 하에 폭로 규탄하면서 재일 동포들을 반미 구국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재일 동포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고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과 남반부 작가 예술인들에게 전투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각계 각층 동포들과의 민족적 단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첫 인사》나 《붕괴의 날》 등 작품들은 《민단》 계렬의 사람들이 력사의 변천과 총련 일'군들의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어떻게 각성되여 반미 구국 투쟁에 나서게 되였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민족 단합을 기하며 《민단》 계렬의 동포들까지도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양적 역할을 논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과 공연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민단》 영향하의 작가 예술인들과의 긴밀한 접촉과 련계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1961년에 3.1 운동을 기념하는 공동 집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하여 4.19 1주년을 기념하는 《조국 평화 통일 남북 문화 교류 합동 문화제》를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단》 산하 문화인들과의 단합의 기운이 급속히 높아졌다.

부문 별 단합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미술전, 합동 음악회, 공동 연극 연구 발표회, 공동 문집의 발간, 합동 문화제, 간담회, 축하 모임, 야유회 등 다양한 사업이 조직되고 있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조 일 량국 인민 간의 친선과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그들은 조국의 문학 예술의 성과를 소개하는 사업과 자기들의 창작 활동을 통하여 일본 인민에게 우리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고 있으며 또한 신일본 문학회를 비롯한 많은 진보적인 문학 예술 단체들과 일상적인 련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일본 문화인들로 하여금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제반 투쟁을 지지 성원 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화국 정부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과 조국 통일 방안을 적극 지지하도록 하였으며 《한 일 회담》을 분쇄하는 공동 투쟁에서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재일 조선 문학 예술의 개화 발전은 작가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과 공연 활동에서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포들 속에서 광범히 진행되고 있는 군중 문화 사업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총련의 지도 하에 활발히 진행되는 군중 문화 사업은 재일 동포들에게 생기 발랄한 민족적 기개를 고취하며 그들의 애국심과 문화적 소양을 제고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놀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하층 단합의 중요한 마당으로도 되고 있다. 써클에 참가하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된《민단》산하의 동포들이 비일비재하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동포들 속에서 전개되는 군중 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현지에 내려 가서 써클을 직접 담당하여 지도하고 써클 지도자 양성에 힘을 경주하였으며 써클 경연 대회, 현상 문예 사업 등을 적극 조직 진행하였다.

재일 동포들 속에서는 조국의 문학 예술 성과를 보급하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중앙 예술단의 공연과 영화 및 사진 부문 예술인들의 활동 그리고 출판 사업이 큰 역할을 놀고 있다.

조국의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 또는 중앙 예술단이 무대에 올린 조국의 작가 예술가들의 연극, 음악, 무용 등과 조형 예술과 사진 작품들에서 조국의 웅장한 건설 모습과 조국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면서 재일 동포들은 조국을 더욱 몸 가까이 느끼며 조국의 영광과 민족의 자랑을 더욱 가슴 깊이 간직하는 것이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창작된 문학 예술과 재일 동포들 속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군중 문화 예술 활동은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 보고에 지적된 바와 같이《재일 동포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교양하며 그들을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 옹호를 위한 투쟁에 적극 고무 추동하는 데 있어서 힘 있는 무기의 하나》로 되고 있다.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이미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가 문학 예술 부문에 제시한 과업과 그것을 더욱 구체화한 문예동 제 3 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조국 통일의 혁명 위업과 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 작품들과 서사시적 대작들을 더욱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항상 조국과 혁명을 생각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학 예술의 사상 예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재일 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의 창작 사업에서 더욱 거대한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

최 준 갑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청소년들에게 《반공》, 숭미 사상, 민족 허무주의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침습시킴으로써 그들을 저들에게 굴종하는 무기력한 식민지 노예로, 값싼 대포'밥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반동적인 부르죠아 리론들을 퍼뜨리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 실용주의 교육 리론의 류포도 바로 그러한 책동의 표현이다.

미제는 수 많은 자기들의 교육 고문들과 사절단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용 교육학 교원의 양성, 교과서 편찬, 교육 방법 연구회, 각종 강습회, 강의 등을 통하여 실용주의 교육 리론을 광범히 류포시키고 있다.

반동적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오늘 남조선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을 규정 짓는 리론적 기초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 비판하는 것은 미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의 해독적인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1

현재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독점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실용주의 철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주로 듀이의 도구주의(실용주의의 한 변종)에 기초한 교육학 사상이다. 남조선에서는 이미 듀이의 저작인 《교육 리론의 개조》, 《민주주의와 교육》, 《자유와 문화》 등이 번역 출판되였다. 또한 듀이의 제자이며 현대 미국 실용주의의 두목으로 지목되고 있는 씨드니 훅크의 리론도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그의 저작 《력사와 영웅》이 번역 소개되고 있다.

듀이의 도구주의에 의하면 모든 과학적 개념, 리론, 사상, 륜리적 원칙들과 도덕적 규범들은 인간의 일정한 목적 달성을 돕는 소여 환경에 있어서의 특수한 도구, 수단의 역할을 놀고 있다. 만약 이 도구 또는 수단이 인간에 의하여 제기된 일정한 목적 실현에 복무한다면 즉 계획했던 결과와 《성공》을 가져 온다면 그것은 진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도구주의는 현대 부르죠아지의 정신적 파산, 그 사유의 퇴화를 실증해 주고 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 부르죠아지가 과학, 도덕, 문화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유리되고 있다는 사실의 철학적 표현이다. 도구주의에는 황금, 리윤이 모든 것의 척도로 되여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잔인한 특징들이 일반화되여 있다.

씨드니 훅크는 자기의 한 론문에서 《철학은…〈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 〈우리의 행동 요체(要諦)는 무엇이라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썼다. 그의 이 견지는 《딸라 철학》으로서의 실용주의의 본성을 그 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의 말대로 한다면 철학의 가치와 의의는 그 철학 리론의 진리성이나 진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철학은 《유익성》이 있는 명제와 원리의 체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죤 듀이는 바로 이러한 황금 만능의 개인 리기주의를 부식하는 도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그의 실용주의 교육학 리론을 꾸며 냈다. 그는 철학은 《교육의 근본적 원리》이며 《광의의 교육 학설》이라고 하였다.

그는 교육학에도 도구주의 《진리관》을 그 대로 옮겨 놓았다. 따라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은 독점 자본가에게 유용한 《일상 생활 경험》을 부단히 재조직하며 리익을 위하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르죠아적 기업심, 왕성한 모험가의 품성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실용주의 교육학은 《유전 결정론》, 《도구주의 도덕론》 등 일련의 반동 교육 리론들을 퍼뜨리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자들은 《유전은 진보 발전의 첫째 제약이다…유전은 곧 생득적 소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리론은 극소수 특권층의 자녀들만을 《선발된》 수재로 떠받들고 절대 다수 근로자들의 자녀들은 선천적인 《열등아》라고 모욕하는 론리이며 악랄한 계급적 차별 교육의 론거로 되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자들은 인간 증오 사상을 로골적으로 드러내여 《불경제적인 저능아 교육》을 포기할 것과 소위 《수재의 개성 교육》을 떠들고 있다.

그들은 이에 대한 《과학적 기초》 자료를 각종 《표준화 검사》에서 찾고 있다. 이리 하여 《표준화 검사》의 결과 《대중의 경향성과 지향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협소한 실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표준화 검사》에서 얻은 지표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학자나 《위인》이 되려는 것은 《공상》이라고 선전한다.

이로부터 그들은 근로 대중의 자녀들에게는 과학 리론과 체계적 지식은 불필요하며 협소한 토막 《지식》만이 유용하다는 리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이것은 《유전 결정론》이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지식만을 교육하려는 반동적인 리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학은 또한 《도구주의 도덕론》을 류포하고 있다.

실용주의 진리관으로부터 출발하여 《도구주의 도덕론》은 도덕을 론할 때 항상 《유용》, 《성공》을 론하며 반동 부

르죠아지에게 《유용한 것》이면 곧 도덕이라고 주장한다. 《도구주의 도덕론》에 의하면 부르죠아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도덕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이로부터 실용주의자들은 《사회의 개조는 인간 도덕의 개변》에서부터 출발하므로 현 사회 제도를 변혁할 것이 아니라 타락된 《도의를 재건》하며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최근 박 정희 도당은 《도구주의 도덕론》을 모방하여 《정신 혁명》, 《민족성 개조》를 떠들면서 저들의 온갖 부패와 죄악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사실 남조선에는 도덕의 객관적 표준이란 없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천인 공노할 온갖 만행들이 《도구주의 도덕론》에 의하여 합리화되고 있으며 미제 침략자들의 동물적 본능과 《흥미》를 충족시키는 것이 《도덕》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용주의에 기초한 《도구주의 도덕론》은 결국 과학과 진리를 부인하고 몽매주의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례찬하며 미제의 침략과 략탈을 합리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실용주의자들에 의하면 교육자의 임무는 피교육자들을 《세계 공민》으로 준비시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세계 정부》 수립에 《성공》케 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남조선 청소년 학생들 속에 《반공》, 숭미, 공미 사상을 부식시키려는 미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에 적합한 처방전으로 되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 리론이 남조선 교육의 지배적인 리론으로 되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이 《리론》을 더욱더 금과 옥조로 떠받들면서 《군사 반공 도의 교육》, 《승공 교육》을 고창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교육 제도와 교육 정책의 리론적 기초로 되고 있는 반동적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착취 계급의 리해 관계를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이 리론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2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의 반동성은 우선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실시하고 있는 《반공 도의 교육》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실용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신념이 결여되여 있는 것이 전 인류의 위기라고 하면서 《반공 도의 교육》으로 《민주주의》를 구원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미제에 충실한 남조선 당국자들은 실용주의 교육 《리론》을 비호 조장하면서 《반공 교육이나 도의 교육은 24 시간을 통하여 지도 실천되여야 하며 동시에 특정된 시간에 더욱 강조되고 이 교육이 실시되여야 한다…반공 도의 교육의 실효를 걷을 수 있도록 연구와 그 실천에 노력하여야 하겠다.》(《교육 평론》 1963년 3 호)고 떠들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 리론에 기초하고 있는 《반공 도의 교육》은 남조선의 각급 학

교《교육 과정》즉 과정안과 교과서, 참고서 등에 날날이 반영되고 있다.

남조선《도덕》교과서에는《미국 사람들이 실제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진리라고 하는 실용주의를 국민 리상으로 삼은 것은 역시 홍익 인간(弘益人間)의 도리와 합치》된다고 씌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홍익 인간》이란《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뜻으로서《삼국 유사》에 기록된《건국 신화》의 한 구절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홍익 인간》의 도리란 미국식《민주주의 교육 리념》즉 실용주의 교육 리념을 민족적 외피로 분장한 것에 불과하다.

박 정희 도당은《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선포하고《승공 통일》을 웨치면서 각종 교과서들을 통하여《공산 침략의 위험》,《북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황당무계한《반공》악선전을 일삼고 있다.

그들은 종전의《반공 교재》가 너무 분량이 적었다고 하면서 1963 년도 이후《도덕》교과서를 새로 만들고 교재 내용도《반공》일색으로 더욱 개악하였다. 례컨대《고등 도덕》에서는《대한 민국에 대한 공산 침략》이란 제목 밑에 북반부에서의《군비 강화》를 운운하면서 학생들에게 반공《사상 무장의 강화》를 설교하고 있다.

그들은《반공 도의 교육》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그를 위한《특정한 과목》들까지 설정하고 있다. 즉 력사, 지리, 경제 등 각이한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취급하는 학과목들을 하나의《사회 생활》이라는 교과목에 통합시키고 이 과목에 대한 교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중상 비방과 숭미, 공미 사상의 설교를 일삼고 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사회 생활》과목에서 배운 것을《실생활화》할 것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특별 활동》과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어 과목에서까지《반공》선전을 위주로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시기에 이르러 박 정희 역적은《반공 도의 교육》을《특정 시간》에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미술, 음악 등 모든 학과목들에 걸쳐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발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반공》,《승공》의 구호 하에 학원을 더욱 군사 파쑈화하고 있다. 고등 학교에는 일제 통치 시기와 마찬가지로《교련》과목을 설정하고 이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반공》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 특수 체육 등을 군사 훈련과 결부시켜 학생들에 대한《훈육 단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의 제반 사실은 박 정희 도당이 고창하는《반공 도의 교육》이 학원을 병영장으로 만들어 학생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쉽게 끌어 내 모려는 간악한 술책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남조선에 퍼지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의 반동적 본질은 인간의 지'적 교육을 과소 평가하고《실업 교육 진흥》이니《1 인 1 기 교육》이니 하는 것을 공념불처럼 외우면서 근로 인민의 자녀들에 대한 부르죠아적 조기 직업 교육을 서두르고 있는 데서도 뚜렷

이 나타나고 있다.

실용주의 교육 리론에 기초한 학교 교육 체계는 청소년들의 전면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 교육을 불가능케 만들고 있다. 실용주의자들은 실천적 숙련, 로동 관습을 체득시키는 문제를 청소년들의 지'적 시야를 넓히는 문제와 대립시킴으로써 그들의 지'적 발전을 저애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에게 실용주의적 사유와 기질을 배양하며 청소년들의 관심을 생활에 대한 협애하고 리기적인 실용주의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로 끌어 가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심지어 학교 교육 체계 자체와 각종 학교 과정안에도 실용주의적 직업 교육 리론을 도입하였다.

이로부터 남조선 학교들에서는 과학의 기초 과목, 리론 과목을 경시하고 유희, 수공, 실과(實科), 가사, 재봉 등을 중요 과목으로 도입하였으며 이 과목들의 시간수를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는 이 과목을 더욱 많이 학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리하여 청소년들에게 자기 개인의 리익과 요구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설교하고 있다.

남조선의 어용 교육자들은 《교육 과정》 편성에서 실용주의 교육 리론의 《진보주의》 과정안을 표방하여 《통합의 원리》에 의거한다고 떠들면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자연 과학의 기초 과목들을 《수학》(국민 학교에서는 자연)에 통합하고 극히 적은 시간을 배당함으로써 과학의 체계마저 파괴하고 있다.

이 모든 조치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남조선 청소년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저들의 리윤 추구를 위한 온순하고 실천력 있는 노예로, 미국의 잉여 상품 판매에 필요한 하급 판매원과 전략 물자 개발에 소요되는 기능공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따라서 실용주의 직업 교육은 철두철미 미제와 그 주구들인 지주, 예속 자본가들에게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개인 리기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남조선 학생들의 모든 정력과 주의를 개인의 근시안적인 《성공》과 직업 알선을 위한 준비에로 돌리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상계》의 한 필자는 《듀이의 교육은…교수의 수단만 강조하고 그 목표를 애매하게 하는 결함이 있다…지식의 상아탑을 쌓는 고전 교육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미국식인 직업 알선을 위한…교육도 우리에게는 꼭 맞는다고 볼 수 없다. 그 리유는 도대체 우리 한국에는…직업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이와 같이 남조선 출판물들이 실용주의 교육 리론을 교육 정책의 기초로 삼는 데로부터 초래된 후과를 날카롭게 규탄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해방 후 19 년 간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실용주의 교육 리론에 기초하여 실시한 반동적 교육 정책은 남조선 인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 위정자들의 식민지 노

예 교육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지, 덕, 체 면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풍모마저 갖추지 못 하고 거의 모두가 기형화되고 있다.

특히 남조선 청소년 학생들 속에 《미국식 생활 양식》과 반동적 사상 독소가 침습됨으로써 극도에 달하는 부패 타락 현상이 발로되고 있다.

남조선의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는 개인의 《성공》, 《출세》, 《황금 만능》 등에 눈이 어두워 부패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모방하며 살인, 깽, 절도 등 온갖 범죄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 방송》에서도 《작년 1월부터 5월까지에는 2,809 건의 소년 범죄가 있은 데 비하여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에는 벌써 4 배 반인 1만 3,224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노예 교육 정책은 남조선 교원들의 생활 처지를 심히 악화시켰다. 대학 교원을 포함한 적지 않은 교원들은 최소한도의 생활비조차 받지 못 하여 《교원 행상인》의 처지에 빠져 있으며 그들 속에서는 극심한 생활고로 하여 아사자, 자살자까지 속출되고 있다.

특히 남조선 교원들은 과학을 연구하며 진리를 가르칠 자유가 없으며 심지어 량심적인 교원들은 가혹한 박해와 탄압을 당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교원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의 주인으로 육성되여야 할 청소년 학생들도 막대한 《공납금》, 《잡부금》의 부담과 파쑈적 탄압의 2중적 압력에 의하여 학교에서 쫓겨 나고 있다. 설사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졸업증이 실업증》으로 되고 있는 남조선 사회에서는 괴뢰군에 강제로 끌려 가거나 실업군 대렬에 편입되는 것 밖에 차례지는 것이란 없다.

남조선 교원들 특히 청소년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재난의 화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적인 식민지 노예 교육 정책에 있다.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교원들이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노예 교육 제도를 규탄하면서 반미 반《정부》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것은 천만 번 정당하다.

남조선의 한 교원은 《우리가 어찌 미국 교육을 그 대로 모방할 것인가?…이제는 좀 더 민족 고유의 전통을 살려서 우리 사회 실정에 알맞는 실질적인 교육에로 개편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조선 학생, 교원들 속에서 실용주의 교육 리론과 그에 기초한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배격하며 새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노예 교육에 복무하고 있는 반동적이며 부르죠아적인 실용주의 교육 리론은 파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반제 투쟁이 더욱 고조된 한 해

최 철 용

지난 1 년 간의 국제 정세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족적 독립 및 사회주의를 쟁취하며 고수하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 위업에는 더욱 유리하게,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에는 극히 불리하게 발전하였다.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이며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의 사회주의 진영은 금년에 더욱 장성 강화되였다.

쏘련에서의 3 인승 우주 비행선 《워쓰호드》호의 성과적 비행은 쏘베트 과학 기술과 사회주의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시위하였다.

중국에서의 첫 원자탄 시험의 성과적 진행은 미제의 핵 공갈 정책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세계 평화 위업에서의 커다란 승리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였다.

특히 1964년은 우리 당의 정확한 대외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간의 친선 및 협조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우리 당과 정부의 국제적 위신이 전례 없이 높아진 한 해였다.

4월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및 캄보쟈 방문, 11월과 12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의 아랍 련합 공화국, 알제리아, 말리, 기니아, 캄보쟈 방문 그리고 말리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와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의 우리 나라 방문 등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왕래와 접촉은 증대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아랍 련합 공화국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과는 외교 관계가 설정되였다.

이와 함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나라 인민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간의 전투적 단결과 협조는 더욱더 강화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과 더불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 자본주의 나라 로동 운동이 장성하였으며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였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가일층 심각화시켰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을 더욱더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몰아 넣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며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이다.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고 있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세 대륙을 휩쓴 혁명적 폭풍

금년에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로, 강력

한 혁명 력량의 투쟁 무대로 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거세찬 투쟁의 불'길이 타 올랐다.

금년은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무장 투쟁이 전례 없이 확대 강화되고 그 투쟁의 예봉이 최대의 국제적 착취자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데로 더욱더 집중된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이 현대적 무기로 발톱까지 무장하고 《평화》의 막 뒤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이 자기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손에 무기를 잡고 정의의 위업에 궐기한 것은 정세 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다.

'무장 투쟁은 아세아 특히 동남 아세아 지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세차게 전개되였다.

남부 월남 전 지역의 4분의 3과 인구의 절반 이상을 해방한 남부 월남 인민 무장력은 금년 첫 10개월 간에만 하여도 작년보다 2배나 많은 1,987 명의 미군을 포함한 14만 명 이상의 적을 살상하였으며 1만 3,850여 정의 적 무기를 로획하고 754 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 격상하였다.

특히 10월 31일 비엔 호아 비행장 습격 전투는 미제의 남부 월남 전쟁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사이공 부근의 비엔 호아 비행장을 기습하여 삽시간에 전략적 제트 폭격기들을 포함한 59 대의 미국 비행기와 293 명의 미군을 족쳐 버렸다.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지금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 쥐고 곡창 지대인 메콩강 삼각주의 대부분을 장악하였으며 사이공까지 육박하여 적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리 하여 미제의 《동남 아세아 전초 기지》는 송두리채 무너지고 있으며 《특수 전쟁》은 완전히 파탄되였다.

미국 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미국과 그 주구들이 남부 월남 인민들로부터 보다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개탄하면서 미국이 수십억 딸라를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계속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기적이 일어 나지 않는 한 남부 월남에서도 중국과 북부 월남에서와 같은 결과가 일어 난 수 있다》고 썼다.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와 그와 합류한 라오스의 애국적 중립파 군대는 무장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해방 지역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민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도구인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하여 《한 손에는 호미를, 다른 한 손에는 총을》이라는 구호하에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자국의 안전을 고수하며 싸우는 북부 칼리만탄 인민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수카르노 대통령의 명령에 호응하여 2천500만여 명이 지원병으로 탄원하여 나섬으로써 인도네시아 인민은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고야 말 자기의 확고한 결의를 과시하였다.

무장 투쟁의 불'길은 중근동에서도 타 올랐다. 남부 예멘 인민 무장대는 영국 침략군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면서 무장 투쟁 전선을 확대하였으며 팔레스티나 인민도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식민주의의 마지막 철쇄를 끊어 버리기 위한 무장 투쟁은 각성된 대륙, 전투적 지역 아프리카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에 더욱 힘차게 전개되였다.

초기에 300 명의 인원으로 원시적인 활과 창을 가지고 궐기한 콩고(레) 인민 무장대는 오늘 중무기와 자동 무기로 무장한 수만 명의 대부대로 자라 났고 전국의 6개 주 중 5 개 주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6월에는 북부 카탕

가주 소재지 알버트빌을, 8월에는 동부 주 소재지인 스탠리빌을 해방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콩고(레) 인민의 투쟁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압력에 못'이겨 미제는 6월 30일 자기의 침략 도구인 《유엔군》을 콩고에서 끌어 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콩고 인민의 무장 투쟁과 함께 포도아 식민지들에서도 식민주의자들을 구축하기 위한 무장 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였다.

이미 전국의 5분의 1을 해방하고 북부 및 중부에 강력한 근거지를 창설한 앙골라 민족 해방군과 전국의 3분의 2를 장악한 포도아령 기니아 유격대는 적들에게 부단한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화약고》로 된 모잠비크에서도 무장 투쟁이 날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무장 투쟁은 지어 아프리카의 남단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와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있는 코모로 제도에서까지 세차게 전개되고 있다.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아프리카 전 대륙을 휩쓸면서 저주로운 식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고 있다.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속에서 1963년 12월 이래 잔지바르, 케니아, 말라위, 잠비아 등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에서는 전 대륙 인구와 면적의 80% 이상이 식민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새 생활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오늘 2억 6천만의 아프리카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 책동에 대처하는 하나의 거대한 전투적 력량으로 되였으며 세계 반제 공동 전선의 일원으로서 미 제국주의 후면을 강하게 타격하는 위대한 혁명 력량으로 되였다.

꾸바 혁명의 고무적 영향 하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무장 투쟁을 포함한 반미, 반독재 투쟁이 강화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 체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새해의 첫 뢰성으로 된 파나마 인민의 반미 애국 투쟁에 고무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일련의 지역에서 무장 투쟁의 봉화가 더욱 높이 올랐다.

운하 지역에서 국기 게양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파나마 인민들의 반미 애국 투쟁은 미제 침략자들의 류혈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개되였다.

베네주엘라 민족 해방군은 산악 지대에 4개의 유격 전선을 창설하고 도시에 진출하여 도처에서 미제의 군사 기지와 침략 기구 및 괴뢰 통치 기구를 까부셨으며 도미니카에서는 6개의 유격 전선이 창설되였다. 과테말라에서는 3개의 애국적 무장 부대가 인민 유격대로 련합되였으며 미제가 《진보를 위한 동맹》의 《핵심》이라고 호언 장담하던 콜롬비아에서도 미국의 기관, 기업소들이 련속 습격 당하였다.

이와 함께 페루, 브라질, 칠리, 멕시코, 아르젠틴에서 미국 독점체와 대지주들의 토지를 탈취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도 많은 경우에 무장 충돌에 이르렀다.

미제의 마수를 꺾어 버리기 위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의 양상은 미제의 침략 정책이 이 지역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미제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높아 가고 있으며 이 대륙에서 그들이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혁명 력량들 간의 전투적 련대성과 통일의 강화는 금년 1년 간 정세 발전에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은 현시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 서 있는 강력한 혁명 부대들이다. 이 혁명 부대들의 전투적 련대성의 강화는 국제 로동 계급과 혁명적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된다.

특히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국제 반동들을 규합하여 련합된 세력으로 혁명적 인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조건에서 세계의 모든 반제 력량들의 단합과 련대성의 강화는 정세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오직 단결을 강화할 때 혁명적 인민들은 련합된 제국주의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금년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사회주의 진영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와 단결이 이루어졌다.

4월 쟈카르타에서 소집된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 예비 회의, 6월 평양에서 진행된 아세아 경제 토론회, 카이로에서 열렸던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 11월 하노이에서 개최되였던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월남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 회의》 그리고 카이로에서 열렸던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는 이러한 지향의 뚜렷한 반영으로서 반제 력량들의 단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과 리해 관계의 공통성으로부터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투쟁의 격류 속에서 호상 단합하려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이 숭고한 지향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제반 사실은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거세찬 혁명적 폭풍이 날이 갈수록 더욱 광대한 지역을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혁명적 폭풍우 속에서 이 지역 인민들은 더욱 각성하고 있으며 강대한 혁명 력량으로 장성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마지막 생명선은 마디 마디 끊어져 가고 있다.

자주 자립의 막을 수 없는 추세

금년 정세 발전의 또 하나의 주요한 추세는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전개된 것이다.

신구 식민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면서 낡은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자기 력사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선 신생 독립 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날카로운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원조》를 제공하고 그것을 미끼로 하여 그 나라 내정을 란폭하게 간섭하고 있으며 새로운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 수출과 각종 식민지 리권에 의거하여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의 중요 부분들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락후한 약소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자본 수출과 경제적 통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이 나라들에 대한 정치, 군사적 통제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 앞에 나서고 있는 성숙된 요구이며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련속적 혁명 과정이다.

독립을 달성한 민족 국가들에서 제국주의를 계속 견결히 반대하며 자기의 튼튼한 민족 경제를 건설할 때만이 이 나라 인민들은 식민지 통치에서 물려받은 세기적인 락후성과 빈궁을 퇴치하고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현대적인 과학 기술과 찬란한 민족 문화를 소유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도 자주적 립장을 견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예속에서 해방되여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 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견지하여야 할 기본 경제 로선이며 그것은 이 나라들에 있어서 하나의 합법칙적 과정이다.

자주 자립을 위한 신생 독립 국가들의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와 그 창조적 경험은 그들에게 특별한 고무적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진행된 아세아 경제 토론회의 모든 참가자들이 일치하게 강조한 바와 같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얻은 우리 나라의 경험은 신생 독립 국가들의 생동한 모범으로 되고 있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평양 선언에서는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 이 나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의 기형성과 락후성을 청산하고 현대 과학과 기술 문화를 소유한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 것을 정당하게 지적하였으며 메자 구나와르다나 녀사는 조선이 제국주의를 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공고화한 자유의 보루라고 강조하였다.

금년에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를 배격하고 외국인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 쓰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금년에 서방 독점체들의 재산을 국유화하는 광범한 깜빠니야를 전개하였으며 이미 영국인 기업소만 하여도 100 개를 몰수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야금 공장, 화학 비료 공장을 비롯한 수 많은 공장들이 일떠서고 있다.

쎄일론에서는 금년 초에 미 영 석유 회사들이 국유화되고 국영 석유 회사가 석유의 수입과 판매를 장악하게 되였다. 비마, 아프가니스탄도 자주 자립의 길을 따라 전진하고 있으며 캄보쟈 인민들도 침략적인 미제의 《원조》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 자립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도 자주 자립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아프리카의 넓고 풍요한 나라 말리는 자신의 힘과 자기의 수단에 의거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 발전 제 1 차 5 개년 계획(1961~1965)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식민지 통치 시기의 단작 경리 체계가 개편되고 농촌 경리가 다각적으로 발전되게 되였고 공업 발전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금년 기니아에서도 농산물과 많은 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 것을 예견하는 인민 경제 7 개년 전망 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알제리아 정부는 《전 민족이 힘을 동원하여 자립적 경제를 건설》할 것을 선포하고 불란서인의 기업소와 반인민적인 자본가들의 기업소를 국유화하였다. 그리하여 독립 후 지난 2 년 간 알제리아에서는 375만 헥타르의 토지가 국유화되였으며 운수, 건축, 가공 등 식민주의자들의 회사와 각종 기업소 1,000여 개가 국유화되였다.

새 생활의 길에 들어 선 아랍 련합 공화국 인민들은 식민주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국유화된 이전 미, 영, 불 독점체들의 기업소들에 기초하여 자체의 국영 기업

소들이 광범히 조직되였으며 금년에 국영 공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장성되였다. 그리고 금년에 주요 농작물인 목화 생산은 력사 상 최고 기록을 이루었다.

가나 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33 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일련의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도 급속한 시일 내에 경제에서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자체의 튼튼한 민족 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처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이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하고 있는 제반 성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타격으로 되고 있으며 아직 식민지 예속 하에서 신음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사분오렬의 서방 세계

금년 세계 정세 발전의 또 하나의 주요한 추세는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과 갈등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그 폭과 심도가 2차 대전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화되여 서방 세계가 사분 오렬된 것이며 미제가 《동맹국》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된 것이다.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은 그 어떤 일시적인 부분적 문제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리해 관계의 대립과 충돌로 발전하였으며 더는 봉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정치 경제적 발전의 불균등성으로 인한 필연적인 산물로서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을 내부로부터 뒤흔들어 놓으며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특히 서방 진영 내부에서 자기의 지배와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의 통제에서 벗어 나 서구라파의 《맹주》로 등장하려는 불란서 간의 모순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였다.

《공동 시장》을 둘러 싼 미국과 불란서 간, 《공동 시장》 내부의 모순으로서 방 세계는 수습할 수 없는 위기와 불안에 싸여 있다.

미제는 《공동 시장》에 《관세 일괄 인하 계획》을 내려 먹임으로써 이 시장의 관세 장벽을 과 헤치고 서구라파 시장을 장악해 보려고 애썼으나 불란서를 포함한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말았다.

3월에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국과 《공동 시장》 성원국들 간의 회담과 5월에 제네바에서 있은 《가트》 각료 리사회 회의는 미국의 계획을 둘러 싸고 격렬한 론전과 암투만이 벌어졌을 뿐 아무런 진전도 없이 막을 닫고 말았다.

그 뿐만 아니라 《공동 시장》 자체 내에서도 농업 문제와 관련하여 리해 관계가 상반되는 불란서와 서독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3월에 브류쎌에서 열린 《공동 시장》 6 개 국 농업상 회의는 농산물 가격의 《일원화》 문제를 가지고 일대 란투장을 이루었으며 뒤이어 불란서가 《공동 시장》을 탈퇴할 《최후 통첩》을 공공연히 표명하여 《공동 시장》 내부의 모순은 더욱 심각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서방 출판물도 《과잉 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농업 정책에 사활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불란서와 《전통적인 농업 보호 정책을 실시하는》 서독 간의 대립은 바야흐로 《공동 시장》을 《붕괴의 위기에 직면》케 하였다고 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와 함께 《공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영국은 수입 부과세를 올려 관세 장벽을 쌓아 놓음으로써 서부 렬강 간의 무역전도 더욱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그 밖에도 불란서, 서독, 일본, 서반아 등 15 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기들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미국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미국의 《수출 금지》 정책을 파탄에 몰아 넣었다.

서부 렬강 간의 모순은 군사적 면에서 가일층 격화되였다. 미제가 다년간 침략과 전쟁의 기둥으로 삼아 온 나토, 세아토 등 군사 블럭들은 그 내부 모순으로 하여 붕괴 상태에 처하게 되였으며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둘러 싼 서부 렬강 간의 모순은 지금 나토의 존속 자체까지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5월 중순 헤그와 12월 파리에서 열린 나토 각료 리사회 회의는 험악한 싸움판으로 되였다. 회의에서 불란서는 미국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독자적 핵 무력》과 행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으며 영국은 《대서양 핵 무력 창설안》을 전면에 들고 나왔다.

불란서는 지어 4월 27일 나토군 사령부에 소속되여 있는 자국의 해군 참모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여 나토에 또 하나의 타격을 가하였다.

미국 지배층들이 불란서가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커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처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아우성을 친 것은 사태가 얼마나 엄중해졌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나토 《다각적 핵 무력 창설》로써 서구라파에서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제의 야망이 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동맹》이 지리멸렬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 평론가 썰즈버거가 《나토에는 이미 분렬이 생겼으며 쎈토는 림종을 고하고 세아토는 사실 상 맥이 빠졌다》고 지적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금년에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은 또한 자본주의 세계 전반에 확대되고 특히 동남 아세아에서 집중적으로 발로되였다.

불란서는 《세계적 범위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특히 미국이 궁지에 빠지고 있는 지역들에 진출함으로써 미 불 간의 모순을 새로운 첨예한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1월 27일 불란서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미제의 중국 《봉쇄》 정책에 새로운 파렬구를 형성하여 놓았으며 동남 아세아에서 독점적 지배를 수립하려는 미제의 정책에 자기의 《중립화》안을 대치시켜 이 지역에서 옛식민지 세력권을 회복하려 함으로써 그들 간의 모순과 대립은 표면화되였다.

4월에 마닐라에서 진행된 침략적 세아토 각료 리사회 회의에서 불란서는 남부 월남에 대한 미국의 절망적인 침략 정책에 합세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세아토 력사 상 전례 없는 사태가 조성되였으며 나토 리사회 회의에서도 남부 월남 문제는 그에 아무런 리해 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판여할 바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여 나섰다. 이 회의들에서 파키스탄, 화란, 벨기 등 미국 《동맹국》들도 남부 월남과 동남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로골적으로 불만과 비난을 표시하였다.

이 외에도 자본 수출, 시장, 무역 문제를 둘러 싼 미 일 간의 모순, 싸이프러스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나토 성원국들 간의 모순 등 착잡하게 뒤엉킨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이 더욱더 표면화되고 심각화되고 있다.

제국주의는 국제적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 내부에서도 첨예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 갔으며 이로 인하여 계급적 모순이 첨예화되고 로동 운동이 앙양되였다.

미국에서 2월 이래 계속된 철도 로동자들의 파업, 4월에 있은 탄부들의 파업과 10월에 있은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5월 영국 요크셔 탄광 탄부

들의 파업 투쟁을 포함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을 휩쓴 파업 선풍은 모두 이러한 실례들이다.

이 모든 사실은 금년 1년간에 정치, 군사적 패권과 식민지 리권을 위한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극도에 달하였으며 그들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죽음 앞에서의 발악과 모험

멸망에 직면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해 보려고 력사 발전의 거세찬 흐름에 필사적으로 반항하면서 저들의 침략적 본성과 악랄성을 여지 없이 드러내 놓았다.

금년 미제가 세계 도처에서 감행한 모든 책동은 제국주의자들이 궁지에 빠질수록 더욱 발악하며 더욱더 모험에 매여 달린다는 것을 확증하여주고 있다.

케네디의 뒤를 이어 대통령의 자리에 들어 앉은 죤손을 두목으로 하는 미제는 《전면적 핵 전쟁》과 《국부 전쟁》, 《특수 전쟁》을 발광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들의 침략 체계를 재수습하고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라의 경제를 더욱 군사화하며 침략과 전쟁 모험에 날뛰였다.

미제는 계속 군비 확장에 광분하여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1960년의 460억 딸라로부터 1964년에 570억 딸라로 격증하였다.

미제는 특히 반제 투쟁의 폭풍에 의하여 저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이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는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모험 책동을 로골화하였다.

6월에 호노룰루에서 동남 아세아 문제에 관한 《전략 회의》를 벌려 놓은 후 미제는 살인 장군 테일러를 사이공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하고 남부 월남과 동남 아세아에 대한 정책을 《군사 중점》으로 전환시켰으며 남부 월남에서 미군과 괴뢰군을 증강하는 한편 나토, 세아토 참가국들과 남조선, 대만, 호주 등의 고용군까지 남부 월남 전쟁에 끌어 들였다.

남부 월남 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은 8월 초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월남 민주 공화국을 침범하고 여러 지역에 기총 사격과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9월 중순 또다시 제 2 차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적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더욱 로골화되였다.

그들은 또한 4월 19일 라오스에서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3파 민족 통일 정부를 파괴하였으며 5월에는 자기들의 전투 폭격기까지 이 나라에 투입하여 캉카이, 히엥쾅을 포함한 해방 지역에 대규모의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라오스와 캄보쟈에 대한 침략과 간섭에 유엔을 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미 제 7 함대의 활동 범위를 인도양에까지 확대하여 인도네시아와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도전해 나섰으며 미 원자 잠수함을 일본에 기항시켜 아세아에서 핵 전략 체계를 수립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길에 들어 섰다.

그들은 남조선에 계속 무력을 증강하고 조선 정전 협정을 유린하면서 도발 행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 기지화와 일본 군국주의의 재무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와 남조선 괴뢰들을 결탁시켜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하려 함으로써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은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

미제는 콩고(레)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공공연히 이 나라에 대한 무장 간섭의 길에 들어 섰다. 8월부터 수많은 미 군사 인원과 비행기들이 콩고에 파견되였으며 11월에는 미국 비행기들이 벨기 락하산병들을 스탠리빌에 투하하였다. 미제의 지휘 하에 괴뢰 촘베 도

당은 1만여 명의 백인 고용병들을 해방지역에 대한 공격에로 내몰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제는 《강경 로선》을 떠벌리면서 3월에 브라질에서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구라르트 정부를 전복하고 반동적 친미 괴뢰 정권을 조작하였으며 7월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주국가 기구 외상 회의는 미제의 책동에 의하여 꾸바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채택하였다.

이 모든 것은 미제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그 침략적 본성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파쑈화되고 반동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그들이 파멸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무모한 군사적 모험에서 찾으려고 발광적으로 날뛰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반 정세는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에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되며 사회주의 진영을 포함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반제 력량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평화도, 민족적 독립도, 사회적 진보도 쟁취할 수 없으며 오직 모든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 투쟁에 강력히 진출할 때 제국주의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무너뜨리고 세계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과 전쟁 공포증을 배격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며 그들에게 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함으로써만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김 일성,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우리 인민은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항상 준비되고 동원된 태세로 조국을 철벽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원쑤들의 준동을 분쇄하고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여 나오려고 무분별하게 발악하지만 이미 저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정세 발전의 추세는 돌려 세울 수 없다.

그들이 모험적 책동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들은 더욱 큰 참패를 당할 것이며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될 것이다.

금년 1년 간의 국제 정세 발전은 진보와 반동 간의 치렬한 투쟁에서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력량과 모든 진보적 력량은 승리하고 있고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반동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으며 반동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더욱더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자기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 반동 세력을 쓸어버리는 완강한 전투에로 나아갈 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의하여 조만간에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1964년 《근로자》 총내용

문 헌

편집국 론설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연구를 위하여

당 건설

정치 및 철학

경 제 건 설

남조선 및 국제 관계

평론 및 서적 해제

문 답 학 습

근 로 자 제 24 호 (루계 262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12월 17일　　발행 · 1964년 12월 20일

ㄱ—430757　　값 40 전